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

-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조사 -

【연구요약】

경제·사회의 변화와 직업세계의 변화로 인해 대학이나 전문대들의 학과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전공이 계속 출현할 뿐 아니라 기존의 학과 역시 명칭이나 교육과정의 성격이 변화한다. 다양하고 많은 대학의 학과 가운데 특정 학과를 선택하는 일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학과 선택을 위해서는 졸업 후 자신의 진로, 즉 자신의 직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을 입학하고자 하는 많은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 진학담당자, 그리고 입시관계자들에게 어느 학과를 전공해야만이 앞으로의 직업생활,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는 의구심은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인이 전공했던 학과에 대해 직접 평가 또는 전망한 정보는 이러한 사회적 의구심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기초자료로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조사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문대와 대학교 졸업생들이 직업세계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주기적인 기초통계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생성된 기초통계의 결과는 본 원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출판하고 있는 『미래의 직업세계』의 주요 내용으로 이용된다. 또한 본 조사는 조사의 핵심 틀이 되는 표본설계와 조사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사의 설계 및 조사과정의 타당성과 조사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제Ⅱ장의 졸업생 조사 실시를 위한 모집단 설정과 표본 틀 구성, 표본추출 과정에서부터 제Ⅲ장의 설문항목 구성과 조사 기준 및 학과분류 기준 마련, 그리고 제Ⅳ장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 학교세계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school to work transition)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인적자원개발정

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결과들을 고려하면, 조사내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내실 있는 졸업생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조사규모가 세부적인 항목까지도 유의한 수준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표본 수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조사규모 작음에 따라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조사결과의 확보가 제한적이었던 것이며, 특히 보다 유용한 「전공-직업」행렬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모집단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모집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졸업생들의 모집단에 대한 특성이 확인되어야 조사결과를 모집단의 특성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졸업생 전수표본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모집단 구성을 위해 모든 전문대 및 대학교로부터 졸업생들의 전체 명부의 확보가 요망되며,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인 틀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는 졸업생 개인 식별을 위한 코드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률상에 위배되는 범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의 도입을 통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대한 개별정보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셋째는 명부의 불확실성 해소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 및 대학교의 철저한 졸업생 명부관리가 요망된다.

셋째, 조사내용의 추가적인 보완과 아울러 조사를 위한 전공분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전공 분류 체계는 중분류 수준에서 사용은 가능할 것이나 세분류 수준 이하, 특히 학과 단위의 분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사결과를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즉, 학과별 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노동시장의 이행과정을 포착하는데 실효성을 가지도록 전공분류의 최종 보완을 필요로 한다.

넷째, 졸업생 조사가 기초통계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 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시계열자료를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정보는 주로 개인들이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직업세계

의 변화 과정에서 선택하는 주관적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특정 시점의 상태와 다른 시점의 상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분석은 수시로 변화하는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계열 자료는 신규인력의 공급 전망과 신규인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가 된다. 따라서 졸업생 조사도 시계열 통계로서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졸업생 조사를 법률상에 명시화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다.

다섯째,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적조사 등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매년 횡단면 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횡단면 조사에 사용된 표본으로부터 동일한 졸업생을 추적조사(follow-up survey)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적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종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교육의 성과 분석뿐만 아니라 전공-직무의 불일치의 지속 정도를 파악하여 노동시장에서 수급의 질적 불일치의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차 례

요약	i
I. 서론	1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조사의 필요성	1
나. 조사의 목적	4
2. 조사의 한계 및 제약점	4
3. 보고서의 구성	6
II. 조사방법론	7
1. 조사의 설계	7
가. 모집단의 설정	7
나. 표본 틀 구성	13
다. 표본추출 방법 및 표본 추출	13
2. 설문 구성	16
가. 설문구성 흐름도	16
나. 설문항목	19
3. 분류체계	24
가. 학과 분류	24
나. 산업 분류	24
다. 직업 분류	25
라. 경제활동상태 구분	27
III. 청년층 노동시장 특성과 졸업생 현황	29
1.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	29
가. 비정규직의 확대	29
나. 청년층 실업률의 상승	31
다. 경력직 위주의 채용관행	33

라. 조기퇴직의 관행화	34
2. 경제활동상태	35
가. 개요	35
나. 학과별 경제활동상태	39
3. 졸업생 현황	43
가. 성, 연령계층, 학교유형별 분포	43
나. 전공, 고교 계열과 지역 분포	44
다. 전공 및 전공선택 동기	48
라. 휴학 및 편입학	51
마.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55
IV.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59
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준비	59
가. 중등단계에서 고등교육단계로 이동	59
나. 고등교육단계에서 직업의 준비	63
2.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	72
가. 이행 과정 검토 자료	72
나. 졸업 후 첫 직장 구직기간	73
다. 구직 강도	78
라. 구직 조건	79
마. 직업선택시 고려요소	81
바. 학교취업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	84
V. 졸업생 노동시장 성과 및 노동이동	87
1. 취업구조	87
가. 산업별·직종별 특성	87
나. 직장유형별·기업규모별 특성	93
다. 종사상지위별·근로형태별 특성	98
라. 지역일치의 현황	106

2. 근로조건	108
가. 임금 및 근로시간	108
나. 직무만족도 및 전공과의 관련성	113
다. 과잉학력과 학교교육	117
3. 노동시장에서 직장이동	124
가. 경제활동상태 변화	124
나. 산업 및 직업이동	128
다. 직무의 변화	132
4. 노동시장 기준으로 본 학과 전망	134
VI. 요약 및 정책과제	141
1. 시사점 및 정책과제	141
가. 청년층 경제활동과 교육 및 노동시장 상황	141
나.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의 이행(school to work)	143
다. 졸업생 노동시장 성과	145
2. 결론	149
참고문헌	153
부 록	155
[부록 1] 졸업생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설문지	169
[부록 2] 과잉학력의 현황과 추세분석	17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7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7
나. 교육투자의 현황 및 추이	181
2. 과잉교육의 정의 및 측정방법	183
3. 선행연구 검토	185
4. 자료 및 변수의 구성	188
가. 자료 구성방법	188
나. 변수의 구성 및 표본의 특성	191
5. 실증분석 결과	194
가. 대학교육의 질과 과잉교육	194

나. 대학의질, 과잉교육, 그리고 임금	203
다. 노동이동과 과잉교육	209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15

표 차 례

<표 II-1> 고등교육기관 현황	9
<표 II-2> 학교급별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 추이	10
<표 II-3> 전공별 졸업생 추이(전문대)	11
<표 II-4> 전공별 졸업생 추이(대학교)	12
<표 II-5> 학교급별 표본추출 결과	14
<표 II-6> 전공(학과) 중분류별 표본추출 결과	15
<표 II-7> 학과(전공) 분류체계	24
<표 II-8>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단계별 항목수 비교	25
<표 II-9>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계별 항목수 비교	26
<표 II-10> 한국고용직업분류의 단계별 항목수 비교	26
<표 III-1> 주요 기업(30대 대기업·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취업자 수 추이	31
<표 III-2> 주요 기업(30대 대기업·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력직 채용 추이	34
<표 III-3> 임금근로자의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평균퇴직연령	35
<표 III-4> 졸업자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37
<표 III-5> 경제활동상태 추이	39
<표 III-6> 전공별 경제활동상태(전문대)	41
<표 III-7> 전공별 경제활동상태(대학교)	42
<표 III-8> 성, 연령계층별, 학교유형별 졸업생 분포	44
<표 III-9> 전공대분류별 졸업생 분포	46
<표 III-10> 출신고교의 계열별 분포	47
<표 III-11> 출신고교 지역의 분포	48
<표 III-12> 복수/부/연계 전공자 분포: 성, 학교유형별	49
<표 III-13> 전공별 복수/부/연계 전공자 비율	49
<표 III-14> 전공선택의 주요 동기(학교별, 성별, 설립유형별)	50
<표 III-15> 전공선택동기의 주요 동기(전공대분류별)	51
<표 III-16> 휴학경험자 비율: 성, 전공별, 학교유형별	52
<표 III-17> 휴학의 주된 이유	53

<표 III-18> 편입학자 비율(성, 전공, 학교유형별)	54
<표 III-19> 편입학생의 유사전공여부	55
<표 III-20> 전공 및 학업내용 만족도	57
<표 IV-1> 고교계열별 전공별 진학 현황(전문대)	61
<표 IV-2> 고교계열별 전공별 진학 현황(대학교)	62
<표 IV-3> 재학 중 일한 경험	64
<표 IV-4> 대학 재학중 학원 이수 경험	65
<표 IV-5> 대학 졸업후 취업전까지 학원/직업훈련 이수 경험	66
<표 IV-6> 자격증 취득 현황과 취득당시 전공일치 여부(전문대)	67
<표 IV-7> 자격증 취득 현황과 취득당시 전공일치 여부(대학교)	68
<표 IV-8> 외국어 시험 경험	69
<표 IV-9> 졸업후 편입/입학 현황	70
<표 IV-10> 졸업후 편입/입학의 주된 이유	71
<표 IV-11> 학교로부터 직장 이행 검토를 위한 표본 규모	73
<표 IV-12> 졸업후 첫직장 구직기간 분포	74
<표 IV-13> 전공별 첫직장 구직기간 분포(전문대)	75
<표 IV-14> 전공별 첫직장 구직기간 분포(대학교)	76
<표 IV-15> 지역별 첫직장 구직기간 분포	77
<표 IV-16> 첫 취업까지 면접횟수	78
<표 IV-17> 의중임금(연봉)	80
<표 IV-18> 의중임금과 실제 초임간 차이 (=의중임금-실제초임)	80
<표 IV-19> 의중임금과 실제 임금 차이의 분포	81
<표 IV-20> 직업선택의 중요 고려 사항	82
<표 IV-21> 2003년 대학졸업자의 학교내 취업지원(정보)센터 만족도	85
<표 V-1> 전공·산업 취업구조 행렬(전문대)	89
<표 V-2> 전공·직업 취업구조 행렬(전문대)	90
<표 V-3> 전공·산업 취업구조 행렬(대학교)	91
<표 V-4> 전공·직업 취업구조 행렬(대학교)	92
<표 V-5> 직장유형별 취업현황(전문대)	95

<표 V-6> 기업규모별 취업현황(전문대)	96
<표 V-7> 직장유형별 취업현황(대학교)	97
<표 V-8> 기업규모별 취업현황(대학교)	98
<표 V-9> 종사상지위별 취업현황(전문대)	100
<표 V-10> 종사상 지위별 취업현황(대학교)	101
<표 V-11> 근무형태별 취업현황(전문대)	103
<표 V-12> 근무형태별 취업현황(대학교)	104
<표 V-13> 2003년과 2005년의 성별, 지역별 고용형태 분포	105
<표 V-14> 지역별 취업현황	107
<표 V-15> 학교급별 임금 격차	109
<표 V-16> 임금수준, 주당근로시간(전문대)	111
<표 V-17> 임금수준, 주당근로시간(대학교)	112
<표 V-18> 전공과 직무간의 관계(전문대)	115
<표 V-19> 전공과 직무와의 관계(대학교)	116
<표 V-20> 전문대 졸업자의 과잉학력	119
<표 V-21> 대학 졸업자의 과잉학력	120
<표 V-22> 재학시 배웠으면 유용했을 기초직업능력(전문대)	122
<표 V-23> 재학시 배웠으면 유용했을 기초직업능력(대학교)	123
<표 V-24> 학교급별 경제활동상태별 첫 직장 여부	125
<표 V-25> 학과별 취업자의 첫 직장 여부	127
<표 V-26> 전 직장 경험의 현재 직장 도움 정도	128
<표 V-27> 직장이동(산업)	129
<표 V-28> 직장이동(직업)	130
<표 V-29> 직장이동(종사상지위)	131
<표 V-30> 직장과 학교전공간 밀접도 변화	132
<표 V-31> 직장에서의 업무 대비 학력수준 변화	133
<표 V-32> 학과 비교(전문대)	136
<표 V-33> 학과 비교(대학교)	137
<표 V-34> 성별 및 학과별 평균 구직기간	139

<부표 1> 학과분류표(전문대)	157
<부표 2> 학과분류표(대학교)	159
<부표 3> 설문항목 구성	162
<부표 4> 대학 교육 만족도(전문대)	163
<부표 5> 대학 교육 만족도(대학교)	164
<부표 6> 전공중분류별 졸업생(여학생)분포(전문대)	165
<부표 7> 전공중분류별 졸업생(여학생)분포(대학교)	166
<부표 8> 향후 5년간 전공 전망	167
<표 부록Ⅱ-1> 고등교육기관의 표본추출 현황	189
<표 부록Ⅱ-2> 변수의 정의 및 기술통계	193
<표 부록Ⅱ-3> 학력과잉 실태	196
<표 부록Ⅱ-4> 전문대학 과잉교육 로짓추정결과	201
<표 부록Ⅱ-5> 대학 과잉교육 로짓추정결과	202
<표 부록Ⅱ-6> 전문대학 임금함수 추정결과	206
<표 부록Ⅱ-7> 대학교 임금함수 추정결과	208
<표 부록Ⅱ-8> 교육과잉의 이직경험에 대한 이항로짓분석결과	213
<표 부록Ⅱ-9> 첫직장과 현직장의 학력일치 상태의 이행행렬	214
<부표 부록Ⅱ-1> 전문대학 전공중분류별 과잉교육 현황	218
<부표 부록Ⅱ-2> 전문대학 전공중분류별·성별 과잉교육 현황	219
<부표 부록Ⅱ-3> 전문대학 전공중분류별·수도권여부별 과잉교육 현황	220
<부표 부록Ⅱ-4> 4년제 대학 전공중분류별 과잉교육 현황	221
<부표 부록Ⅱ-5> 4년제 대학 전공중분류별·성별 과잉교육 현황	222
<부표 부록Ⅱ-6> 4년제 대학 전공중분류별·수도권여부별 과잉교육 현황	223

그림 차례

[그림 Ⅱ-1] 조사설계의 과정	7
[그림 Ⅱ-2]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노동이동 경로	16
[그림 Ⅱ-3] 조사흐름도	18
[그림 Ⅱ-4] 경제활동상태 분류	27
[그림 Ⅲ-1] 비정규 근로자 추이(종사상 지위상 임시 및 일용직)	31
[그림 Ⅲ-2] 학력별 청년실업자 구성비 추이	33
[그림 V-1] 직장경험 회수	125
[그림 부록Ⅱ-1] 학력별 취업률 추이	182
[그림 부록Ⅱ-2] 학력별 임금격차 추이	182

I.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조사의 필요성

노동시장에서 전공과 직업 또는 직무간의 불일치가 심화되는 등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괴리 현상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특히 빠른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직업에 관한 새로운 모습을 그려내기 위한 심층적인 직업연구 및 직무분석이 요청되고 있다. 노동시장 측면의 이러한 직업세계 변화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시장에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직업연구와 직무분석은 직업세계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준거를 도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연구와 직무분석의 결과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투영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노동시장에서 직업과 직무에 관한 정보가 피드백에 의해 교육과정에 반영되게 함으로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교육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장의 동태적인 추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육시장의 동태적인 움직임은 학교에서 효율적인 인력양성의 신호(signal) 역할을 하는 신규 졸업자의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관련한 지표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교육은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구조 또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교육과정에 담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시스템의 개선에 있어서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교육시장이 이러한 동태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진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교육 및 노동시장의 정보체계를 확립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시장과 교육시장간에 상호 연계되어 있는 변화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근거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상호작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노동과 관련한 정보의 생산에 필요 기초 통계의 생산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제고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교육이 지나치게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에 기반을 둔 경제적 논리가 강조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교육을 받는 개인들의 도덕적 소양과 인간 본성의 정립이 경제적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마치고 처음으로 직업세계로 나가는 졸업생들은 생애 일과 관련하여 삶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에서 직업선택에 의한 진로를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학교교육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수준과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의 이상과 삶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교육의 본질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 및 노동시장의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분석을 위한 상세하고도 공신력 있는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청년층 실업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고용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인력수급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좀더 상세하고도 체계적인 교육시장 통계의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졸업생의 취업구조와 노동시장 이행 과정의 관찰을 통하여 교육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및 노동시장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교육시장에서 움직임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를 동시에 포착하면서도 인력공급 수준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 노동은 생애 직장을 찾기까지 끊임없는 직업탐색(job search)을 하는 과정에서 고용불안과 경기변동에 따라 취업가능성이 민감한 특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동태적인 변화과정은 시계열을 고려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과 같이 경제·사회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은 무엇이고,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적성에 가장 적합한 직업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개인이 직업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에 기초한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이 시장기제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여 줌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전공과 직업 또는 직무간의 불일치가 심화되는 등 교육시장과의 괴리 현상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빠른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직업에 관한 새로운 모습을 그려내기 위한 심층적인 직업연구 및 직무분석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노동시장 측면의 이러한 직업세계 변화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시장에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직업연구와 직무분석은 직업세계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준거를 도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연구와 직무분석의 결과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투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의 합리적인 교육·훈련의 선택이나 직업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A학과를 전공한 학생이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어떤 형태의 경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B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학위, 자격 등이 필요하고 기업에 입사한 후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로 변화하는지 등에 대한 상세 정보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교육시장에서 움직임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도 동시에 포착하면서 인력공급 수준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은 생애 직업을 찾기까지 끊임없는 직업탐색(job search)을 하는 과정에서 고용불안과 경기상황에 따라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 대한 정보의 추출을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는 시계열 분석을 필요로 한다.

나.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전문대와 대학교 졸업생들이 직업세계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주기적인 기초통계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성된 기초통계의 결과는 본 원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출판하고 있는 『미래의 직업세계-학과편1』의 주요 내용으로 이용되며, 2006년도 책자발간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주요 통계가 활용될 예정이다.

본 조사는 또한 교육시장에서 양성된 인력이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심층정보를 바탕으로 인력수급전망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이 실시되었는데, 본 조사를 통해 생성된 기초자료가 2015년까지의 우리나라 인력수급전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중하게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부 과제로서 본 원에서 수행한 ‘IT 인력수급전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본 조사는 조사의 핵심 틀이 되는 표본설계와 조사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사의 설계 및 조사과정의 타당성과 조사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2. 조사의 한계 및 제약점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 및 제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인용하거나, 해석할 경우에는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1) 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이 2002년 말에 초판이 발행되었다.

첫째, 각 대학으로부터 2003학년도 졸업생 명부를 제출받아 표본들을 구성하였는데, 일부대학의 비협조로 명부를 제출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이 제출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일부 전공의 경우 표본수의 부족으로 성별 분석이 불가능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문제는 교육개발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이용할 경우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교육개발원 조사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본 조사는 졸업후 2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용될 수 없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식으로 인하여 응답거부 비율이 높았던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 입수과정에 대한 많은 항의와 민원이 교육부, 본원, 조사기관 등에 제기되었고, 조사에 많은 애로를 초래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기관에서 정책목적으로 시행하는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응답자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고 보다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통계생산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셋째, 본 조사는 개인의 응답에 기초하여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통계적 편의(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임금의 경우 개인조사일 경우 일반적으로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계사용시 이러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도 실업자의 경우 응답거부비율이 높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조사를 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공적통계와의 연결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넷째, 표본수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세부분석으로 들어갈 경우 대표성있는 통계의 생산이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될 수 있다. 현재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학교급별 전공중분류 수준의 분석이며, 그 이하로 분석단위를 세밀하게 할 경우에는 표본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통계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졸업생수 기준 10%로 표본수를 증가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예산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

자원부, 국회 등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보고서의 구성

본 조사를 이용한 보고서의 구성은 조사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졸업생 조사의 실시를 위한 모집단(population)의 설정과 표본틀(sampling frame)의 구성, 그리고 표본추출(sampling)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본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의 구성과 조사기준, 그리고 학과, 산업, 직업분류체계와 경제활동상태 구분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때 설문항목 및 조사기준의 마련은 주로 통계청과 노동부 등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와의 연결성을 위하여 기준을 통일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Ⅲ장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을 논의한 후, 본 조사에서의 졸업생 현황을 성별, 연령별, 학교 설립유형별, 학과별 등 살펴본다. 그리고 학과 및 학과선택 동기, 휴학 및 편입학 이유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고,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본 조사의 결과를 기초통계 중심으로 간략하게 분석한다. 학생이 학교세계에서 노동시장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 즉 ‘준비-이행-결과’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이 과정을 골격으로 이행(transition)과정을 분석한다.

제Ⅴ장에서는 졸업생의 취업구조, 근로조건, 노동시장에서의 직장이동 그리고 노동시장기준으로 본 학과전망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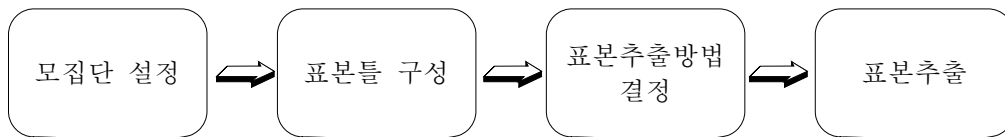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본 조사결과를 기초로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조사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향후 본 조사가 보다 내실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 및 대안을 마련한다.

한편 심층이슈분석으로서 ‘과잉학력의 현황과 추세분석’, ‘대학교육과 취업간 연계성 분석’ 그리고 ‘지방대학의 지역 노동시장과의 연계성 분석’ 등을 부록에서 다루고자 한다.

II. 조사방법론

1. 조사의 설계

일반적으로 조사설계의 진행절차는 [그림 II-1]과 같이 모집단의 설정, 표본 틀 구성, 표본추출방법의 결정, 그리고 표본의 추출 등 4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4단계 절차에 따라 본 조사를 설계하였다.



[그림 II-1] 조사설계의 과정

가. 모집단의 설정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이란 연구문제에 대해 통계적 추론을 내리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연구대상을 말한다. 따라서 목표모집단은 연구문제를 분석하여 모집단에 속하게 되는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 중 표본단위(sampling unit)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연구대상 또는 연구대상으로 구성된 집합체로 샘플링을 하는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인력공급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력수급 간 발생하는 불일치의 원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공급실태의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여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최근에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자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졸업 시기는 2003년도로 하였는데, 이는 2004년도 이후 졸업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및 노동시장내의 이동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그리고 2002년도 이전 졸업생의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과연 몇 년 전의 사항들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2002년도 이전 졸업생의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 회고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기억을 못하고 오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본 실태조사는 향후에도 계속적인 조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료가 몇 년 축적이 된다면 이러한 졸업연도상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의 고학력화 현상으로 학령인구의 80% 이상이 전문대 이상을 진학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학률 상승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신규노동시장 공급인력을 전문대 이상 학력 소지자로 국한하여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03년 2월에 전국의 전문대 및 대학교를 졸업한 자'들이며, 세부적인 모집단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기관 현황

<표 II-1>은 전문대 및 대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도 이후 고등교육기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별로 보면 전문대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일반대학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총 고등교육기관은 388개며, 이중 전문대는 158개, 대학교 169개(분교 19개교 제외), 교육대는 11개, 그리고 방송통신대 및 산업대, 기술대 등 나머지 대학들은 50개교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1> 고등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소)

연도	전체	전문대	일반 대학교	교육대	방 송 통신대	산업대	기술대	각종 학교	대학원 대 학
2000년	372	158	161	11	1	19	1	4	17
2001년	374	158	162	11	1	19	1	4	18
2002년	376	159	163	11	1	19	1	4	18
2003년	388	158	169	11	1	19	1	4	25

주 : 고등교육기관 전체는 분교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 졸업생 현황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수 현황을 보면, <표 II-2>에서 보듯이 그간 꾸준히 증가하여 왔던 졸업생들은 2003년²⁾ 기준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한 562천명에 이른다. 이 중 학교·급별로는 전체 졸업생 중에서 43.9%에 해당하는 247천명이 전문대 졸업자이고, 49.9%에 해당하는 258천명은 대학교 졸업자이며, 나머지 6.2%는 교육대, 방송통신대, 산업대 등의 졸업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학과별³⁾ 졸업생 추이를 나누어 보면, <표 II-3>과 <표 II-4>와 같다. 먼저 전문대의 경우 2003년까지 전체 전문대 졸업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경영·경제, 사회과학, 소재·재료, 무용·체육 등의 전공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인문과학, 건축, 기계·금속, 전기·전자, 농림·수산, 생물·화학·환경 등의 전공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전체 졸업생에서 각 전공(학과)의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소 바뀌어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컴퓨터·통신관련 전공의 졸업생 비중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경영·경제 전공의 경

2) 본 졸업생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는 2003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본 절에서의 졸업생수에 대한 구조분석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이와 분석은 모두 동일기간을 적용한다.

3) 한국교육개발원 『2003 전공(학과)분류체계』의 중분류 기준이다.

우도 2001년도부터 비중이 약간 높아져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체 졸업생 대비(2000년 대비) 비중이 낮아진 전공으로는 전기·전자, 건축, 기계·금속, 생물·화학·환경 등 이공계 관련 학과에서 많았으며, 언어문학, 인문과학 등 인문계 관련 학과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나타났다.

<표 II-2> 학교급별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 추이

(단위: 명)

연도	전체	전문대	대학교	교육대	방 송 통신대	산업대	기술대	각종 학교
2000년	488,817	223,489	214,498	5,233	22,477	21,266	-	1,854
2001년	525,010	232,972	239,702	5,195	21,512	24,389	-	1,240
2002년	539,533	239,114	244,852	5,072	25,059	24,653	95	688
2003년	562,231	246,789	258,126	5,499	26,125	25,140	89	463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대학교의 경우 전체 졸업생 추세에서는 전문대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각 전공별 졸업생 변화 추세에 있어서는 전문대와는 달리 대다수의 농림·수산 관련 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에서 지난 2000년보다 졸업생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전공간 졸업생 비중은 다소 변화가 있어, 언어·문학, 수학·물리·천문·지리, 농림·수산, 생물·화학·환경, 생활과학 등의 전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전공별 졸업생 추이(전문대)

(단위 : 명, %)

전공중분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전체	223,489(100.0)	232,972(100.0)	239,114(100.0)	246,789(100.0)
언어·문학	11,051(4.9)	11,881(5.1)	11,719(4.9)	12,015(4.9)
인문과학	1,595(0.7)	1,511(0.6)	1,396(0.6)	1,249(0.5)
경영·경제	34,788(15.6)	34,417(14.8)	35,926(15.0)	37,375(15.1)
법률	384(0.2)	400(0.2)	292(0.1)	323(0.1)
사회과학	12,937(5.8)	13,593(5.8)	15,130(6.3)	16,512(6.7)
교육일반	227(0.1)	282(0.1)	226(0.1)	253(0.1)
유아교육	10,041(4.5)	10,814(4.6)	10,905(4.6)	10,987(4.5)
특수교육	-	73(0.03)	98(0.04)	77(0.03)
건축	10,597(4.7)	9,848(4.2)	8,969(3.8)	9,059(3.7)
토목·도시	5,334(2.4)	5,561(2.4)	6,346(2.7)	5,960(2.4)
교통·운수	446(0.2)	525(0.2)	390(0.2)	321(0.1)
기계·금속	12,697(5.7)	13,304(5.7)	12,813(5.4)	12,624(5.1)
전기·전자	13,806(6.2)	13,846(5.9)	12,593(5.3)	11,217(4.5)
정밀·에너지	1,133(0.5)	1,341(0.6)	1,375(0.6)	1,685(0.7)
소재·재료	1,086(0.5)	1,162(0.5)	1,112(0.5)	1,618(0.7)
컴퓨터·통신	35,614(15.9)	36,707(15.8)	39,281(16.4)	41,676(16.9)
산업	309(0.1)	779(0.3)	629(0.3)	586(0.2)
항공	1,208(0.5)	1,234(0.5)	683(0.3)	906(0.4)
기타	2,579(1.2)	2,727(1.2)	3,334(1.4)	3,392(1.4)
농림·수산	908(0.4)	725(0.3)	736(0.3)	644(0.3)
생물·화학·환경	5,528(2.5)	5,183(2.2)	5,084(2.1)	5,006(2.0)
생활과학	11,688(5.2)	12,817(5.5)	13,329(5.6)	13,505(5.5)
수학·물리·천문·지리	629(0.3)	657(0.3)	744(0.3)	819(0.3)
간호	8,444(3.8)	8,692(3.7)	8,582(3.6)	8,283(3.4)
치료·보건	11,794(5.3)	11,766(5.1)	11,515(4.8)	12,157(4.9)
디자인	15,103(6.8)	16,414(7.0)	17,971(7.5)	20,081(8.1)
응용예술	6,530(2.9)	8,499(3.6)	9,589(4.0)	9,229(3.7)
무용·체육	3,468(1.6)	4,214(1.8)	4,517(1.9)	5,172(2.1)
미술·조형	638(0.3)	624(0.3)	560(0.2)	674(0.3)
연극·영화	423(0.2)	516(0.2)	561(0.2)	698(0.3)
음악	2,504(1.1)	2,860(1.2)	2,709(1.1)	2,686(1.1)

주: 한국교육개발원의 『2003 학과(전공) 분류체계』의 중분류 기준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II-4> 전공별 졸업생 추이(대학교)

(단위 : 명, %)

전공중분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전체	214,498(100.0)	239,702(100.0)	244,852(100.0)	258,126(100.0)
언어·문학	23,650(11.0)	24,322(10.1)	24,811(10.1)	25,658(9.9)
인문과학	11,485(5.4)	12,254(5.1)	12,941(5.3)	13,143(5.1)
경영·경제	31,366(14.6)	35,898(15.0)	36,000(14.7)	38,465(14.9)
법률	6,424(3.0)	7,152(3.0)	7,389(3.0)	7,492(2.9)
사회과학	15,596(7.3)	17,927(7.5)	19,127(7.8)	19,306(7.5)
교육일반	1,326(0.6)	1,414(0.6)	1,384(0.6)	1,386(0.5)
유아교육	656(0.3)	721(0.3)	798(0.3)	919(0.4)
특수교육	476(0.2)	491(0.2)	623(0.3)	725(0.3)
초등교육	218(0.1)	217(0.1)	210(0.1)	223(0.1)
중등교육	9,756(4.5)	10,167(4.2)	10,117(4.1)	10,640(4.1)
건축	5,211(2.4)	6,137(2.6)	6,081(2.5)	6,366(2.5)
토목·도시	4,472(2.1)	4,938(2.1)	5,175(2.1)	5,807(2.2)
교통·운송	2,450(1.1)	2,685(1.1)	2,873(1.2)	3,046(1.2)
기계·금속	7,098(3.3)	8,636(3.6)	8,399(3.4)	8,590(3.3)
전기·전자	9,745(4.5)	11,977(5.0)	10,959(4.5)	10,613(4.1)
정밀·에너지	203(0.1)	310(0.1)	382(0.2)	363(0.1)
소재·재료	3,256(1.5)	3,730(1.6)	3,969(1.6)	4,750(1.8)
컴퓨터·통신	11,430(5.3)	14,171(5.9)	14,991(6.1)	18,563(7.2)
산업	3,016(1.4)	3,297(1.4)	3,090(1.3)	3,253(1.3)
화공	3,948(1.8)	4,413(1.8)	4,104(1.7)	3,968(1.5)
기타	870(0.4)	1,005(0.4)	1,131(0.5)	2,437(0.9)
농림·수산	2,977(1.4)	2,720(1.1)	2,752(1.1)	2,387(0.9)
생물·화학·환경	14,576(6.8)	15,560(6.5)	15,799(6.5)	16,181(6.3)
생활과학	7,562(3.5)	7,619(3.2)	8,012(3.3)	7,780(3.0)
수학·물리·천문·지리	10,076(4.7)	10,952(4.6)	10,739(4.4)	10,590(4.1)
의료	4,296(2.0)	4,507(1.9)	4,816(2.0)	5,297(2.1)
간호	2,162(1.0)	2,651(1.1)	2,996(1.2)	3,066(1.2)
약학	826(0.4)	1,779(0.7)	1,345(0.5)	1,372(0.5)
치료·보건	1,273(0.6)	1,457(0.6)	1,660(0.7)	1,763(0.7)
디자인	3,755(1.8)	4,824(2.0)	5,094(2.1)	6,335(2.5)
응용예술	1,382(0.6)	1,615(0.7)	1,728(0.7)	2,403(0.9)
무용·체육	4,193(2.0)	4,535(1.9)	5,051(2.1)	5,425(2.1)
미술·조형	3,714(1.7)	3,948(1.6)	4,130(1.7)	3,759(1.5)
연극·영화	456(0.2)	497(0.2)	601(0.2)	689(0.3)
음악	4,598(2.1)	5,176(2.2)	5,575(2.3)	15,366(2.1)

주: 한국교육개발원의 『2003 학과(전공) 분류체계』의 중분류 기준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나. 표본 틀 구성

표본설계(sampling)란 연구에 관심이 되는 모든 대상인 모집단의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샘플링은 모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대상을 조사하는 센서스(census)와 비교할 때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직관적으로 센서스는 샘플링보다 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표본 틀(sampling frame)이란 표본단위(sampling unit)들이 나열된 목록을 일컫는다. 표본조사시 표본 틀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본 틀을 기초로 표본 추출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표본 틀의 확정과 관련해서는 조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각해야 한다. 즉, 조사가 용이하게 모집단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본 실태조사의 표본 틀로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가 유일하다. 따라서 본 조사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본 틀을 구성한다. 단, 각종학교와 대학원대학 등은 특수목적 하에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본 실태조사를 통해서 목적하고자 하는 연구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졸업생 조사에서 얻고자 하는 자료의 특성이 전문대 및 일반대학교, 교육대학교 졸업생들과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이 범위에 포함된 고등교육기관은 제외한 전문대 158개교와 4년제 일반대학교 169개교, 교육대학교 11개교 등 총 338개의 고등교육기관에서 2003년도 2월에 졸업한 510,414명이 표본 틀로 구성된다.

다. 표본추출 방법 및 표본 추출

졸업생 조사의 표본추출 및 추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고등교육기관은 앞서 정한 표본 틀에서 지역과 학교·급, 그리고 학과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문대 129개교와 대학교 159개교 등 총 288개 기관을 1차로 선정하였다. 1단계를 통하여 추출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언어 이들 전문대 및 대학교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문을 통해 2003년도 졸업생 명부 협조를 요청한 결과⁴⁾ 총 237,993명의 졸업생 명부가 확보되었으며, 세부적인 명부 확보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문대 : 총 129개교 107,674명
- 대학교 : 총 159개교 130,319명

237,993명의 졸업생 표본 틀 중 본 조사의 예산을 고려하여 26,000명의 추출을 목표로 전공(소분류 기준)과 성별을 고려하여 층화계층추출방법에 의하여 목표표본 1개 그룹과 대체표본 4개 그룹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표본추출 방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26,041명의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표본추출률 5.1%), 이중 전문대 졸업생은 12,731명으로 추출률 5.16%를, 대학교는 13,310명으로 5.16%를 기록하였다.

<표 II-5> 학교급별 표본추출 결과

(단위 : 명, %)

구 분	모집단	표본	표본추출률
전 체	510,414	26,041	5.10
전 문 대	246,789	12,731	5.16
대 학 교	263,625	13,310	5.05

주: 대학교에는 4년제 일반대학교와 교육대학교만 포함됨.

<표 II-6>은 전공별 표본추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대의 경우 특수교육의 표본추출률이 14.29%로서 가장 높으며, 간호학과는 2.75%로서 가장 낮은 가운데 모집단수가 적은 규모에서는 상대적으로 과대 표집이 된 반면에 모집단수가 많은 규모에서는 상대적으로 과소표집이 되고 있다. 대학교의 경우는 유아교육 26.22%로서 표본추출률이 가장 높으며, 반대로 무용·체육 전공은 2.75%로서 가장 낮았다.

4) 각 해당 학교의 졸업생 중 학번의 끝자리 수가 홀수인 졸업생 명부를 요청하였다.

<표 II-6> 전공(학과) 중분류별 표본추출 결과

(단위: 명, %)

	전문대			대학교		
	모집단수(A)	표본수(B)	추출률(B/A)	모집단수(A)	표본수(B)	추출률(B/A)
전체	246,789	12,731	5.16	258,126	13,310	5.16
언어·문학	12,015	791	6.58	25,658	1,348	5.25
인문과학	1,249	112	8.97	13,143	687	5.23
경영·경제	37,375	1,592	4.26	38,465	1,507	3.92
법률	323	12	3.72	7,492	279	3.72
사회과학	16,512	1,016	6.15	19,306	1,067	5.53
교육일반	253	26	10.28	1,386	181	13.06
유아교육	10,987	338	3.08	919	241	26.22
특수교육	77	11	14.29	725	49	6.76
초등교육	n.a	n.a	n.a	223	162	72.65
중등교육	n.a	n.a	n.a	10,640	580	5.45
건축	9,059	587	6.48	6,366	441	6.93
토목·도시	5,960	384	6.44	5,807	298	5.13
교통·운송	321	33	10.28	3,046	107	3.51
기계·금속	12,624	512	4.06	8,590	424	4.94
전기·전자	11,217	775	6.91	10,613	604	5.69
정밀·에너지	1,685	114	6.77	363	68	18.73
소재·재료	1,618	104	6.43	4,750	230	4.84
컴퓨터·통신	41,676	1,511	3.63	18,563	714	3.85
산업	586	65	11.09	3,253	214	6.58
화공	906	43	4.75	3,968	250	6.30
기타	3,392	275	8.11	2,437	181	7.43
농림·수산	644	67	10.40	2,387	139	5.82
생물·화학·환경	5,006	397	7.93	16,181	738	4.56
생활과학	13,505	489	3.62	7,780	550	7.07
수학·물리·천문·지리	819	47	5.74	10,590	539	5.09
의료	n.a	n.a	n.a	5,297	196	3.70
간호	8,283	228	2.75	3,066	102	3.33
약학	n.a	n.a	n.a	1,372	58	4.23
치료·보건	12,157	758	6.24	1,763	164	9.30
디자인	20,081	1,273	6.34	6,335	335	5.29
응용예술	9,229	500	5.42	2,403	206	8.57
무용·체육	5,172	325	6.28	5,425	149	2.75
미술·조형	674	56	8.31	3,759	206	5.48
연극·영화	698	44	6.30	689	35	5.08
음악	2,686	246	9.16	5,366	261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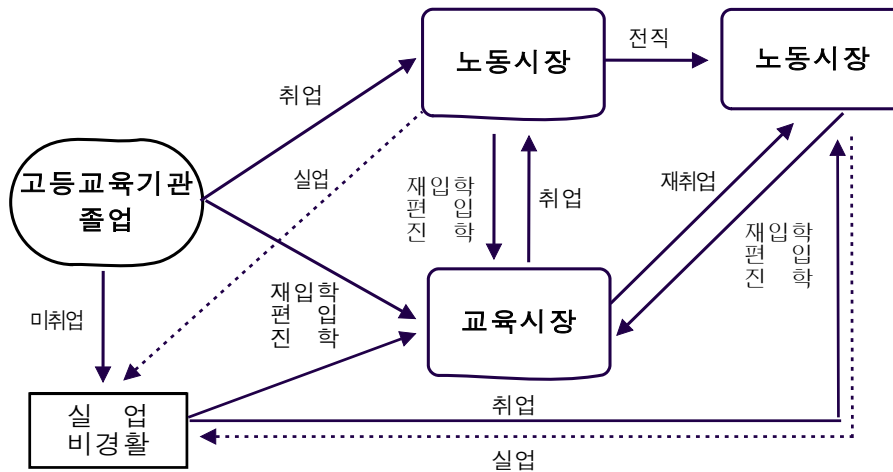
주 : 1) 대학교 중 교육대, 방송통신대, 기술교육대, 산업대, 각종학교, 대학원 대학 등은 제외함.

2) n.a는 분류 없음.

2. 설문의 구성

가. 설문구성 흐름도

일반적으로 전문대 및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이행경로는 [그림 II-2]와 같다. 대다수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생들은 취업 또는 실업 상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일부 졸업생들은 타 대학 또는 타 학과에 편입 또는 재입학 하거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로 진학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교육시장에 잔류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노동시장에서 교육시장으로, 반대로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진행된다. 즉,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노동력 중 일부는 취업 상태 또는 미취업 상태에서 교육시장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교육시장에 계속 잔류했던 자는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한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력 중 일부는 다른 직장으로 전직하거나 실업 상태로 이동하는 등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동이 발생하며, 또 다른 일부는 다시 교육시장으로 다시 회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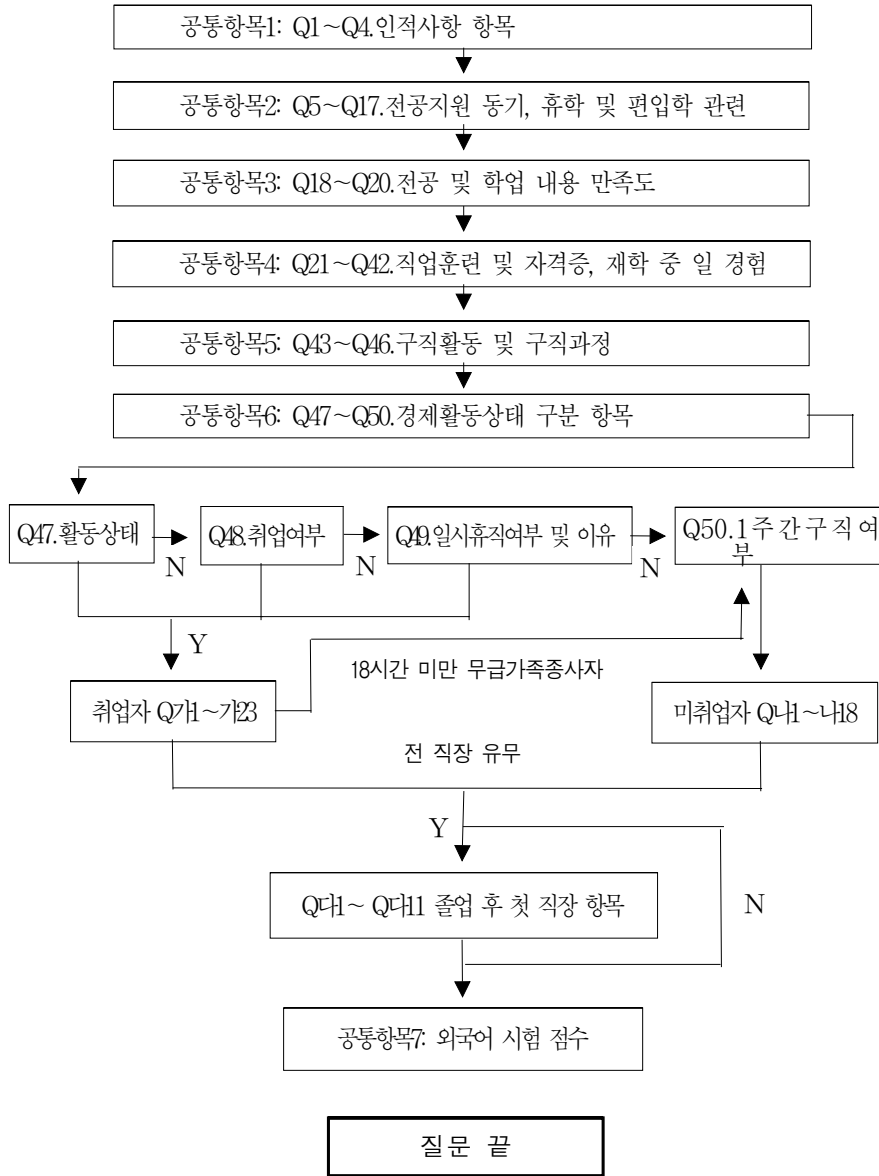


[그림 II-2]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노동이동 경로

이상과 같은 노동력의 흐름을 볼 때,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의 설문 흐름도 이러한 이행 경로를 감안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II-3]에서 보듯이 학교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은 '준비→과정→결과'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개인의 노동시장 이행의 준비단계에서는 학과 선택, 직업교육·훈련 이수, 아르바이트, 자격증, 외국어 시험 등 개인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신호체계(signaling)⁵⁾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이행과정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신호체계들이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업기간, 취업에의 도움 여부, 직장의 안착도 등의 통해서 살펴보고, 노동시장의 성과에 대한 결과에서는 졸업생들이 어느 직장, 어떤 직업으로 취업하였고, 현재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또한 직장의 안정성은 높은지, 직장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는 질문 흐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현 직장이 졸업 이후 첫 직장이 아닌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첫 직장의 일자리 유형 및 직업, 산업, 임금 수준, 직장의 전공 만족도, 학력 일치도 등 직장이동(job mobility)과 관련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5) 개인의 능력을 관찰하는 특징들에는 크게 성, 연령 등 바꿀 수 없는 특징(index)과 학력, 성적 등 노력에 따라서 바뀌어 질 수 있는 특징(signal)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 Spence(1973) 참조.



[그림 II-3] 조사흐름도

나. 설문항목

조사지의 설문 항목은 ‘<부표 3> 설문항목 구성’에서 보듯이 인적사항, 전공 지원 동기 및 편입학, 전공 및 학업내용 만족도, 직업훈련 및 자격증, 재학 중 일 경험, 구직활동 및 구직과정, 경제활동상태 구분 항목, 취업자 항목, 미취업자 항목, 졸업 이후 첫 직장에 관한 항목, 그리고 외국어 시험 점수 항목 등 크게 10개의 대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중 인적사항, 전공 지원 동기 및 편입학, 전공 및 학업내용 만족도, 직업훈련 및 자격증, 그리고 재학 중 일경험, 구직활동 및 구직과정, 경제활동상태 구분 항목, 외국어 시험 점수 항목은 공통항목으로서 기본적인 개인 신상 파악과 아울러 졸업 전공과 진학 전공 혹은 직장의 일과 전공간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구체적인 설문지는 [부록1]에 제시하였다.

(1) 인적사항

인적사항 항목은 혼인상태, 병역여부 그리고 출신고교 계열 및 소재지를 묻는 4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단, 응답자에 대해 졸업학교, 졸업학과, 학교소재지, 성별 등은 설문시작 전에 이미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은 제외하였다.

(2) 전공지원 동기, 휴학 및 편입학

전공학과 지원 동기, 휴학 및 편입학 관련 항목은 전공지원(선택)의 주된 동기가 무엇이었으며, 향후 5년간 전공학과의 향후 전망, 휴학 여부 및 이유, 편입학 여부, 진학/편입학 관련 항목 등 13가지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대학 진학시 학과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가 가장 중요한가를 보기 위함이며,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지, 향후 본인의 학과 전망이 어떠한지를 졸업생 당사자에게 묻기 위함에 있다.

이중 재학 중 휴학 여부는 최근 취업준비를 위해 1년을 휴학하는 이른바 5학년

졸업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현실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현황 파악과 휴학의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성하였으며, 이에는 휴학 경험 회수 및 휴학의 주된 이유 등 2가지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 진학·편입·입학 관련 항목은 학교세계에서 학교세계로의 (school to school) 잔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최근 졸업자들 가운데 상급학교로의 진학 및 편입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설문항목은 현재의 재학 여부, 현재의 교육상황, 편입/진학의 주된 이유, 그리고 전공변경의 주된 이유 등 크게 8개의 중분류로 구성되며, 이 중 현재의 교육상황 항목은 다시 재학 중 학교·급 수준, 학교진학방법과 수학상태, 학과, 그리고 학교소재지를 질문한다.

(3) 전공 및 학업 내용 만족도

전공 및 학업 내용 만족도는 커리큘럼의 구성, 강의 내용과 수준, 취업능력 향상에 도움 정도 등 세부적으로 3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학교 재학시 교육의 충실도 및 전공과 취업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4) 직업훈련 및 자격증, 재학 중 일 경험

직업훈련 및 자격증 관련 항목은 대학 재학 중 또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전까지 학원 및 직업훈련 이수 경험과 이수 목적, 그리고 이수경험이 있는 직업훈련 종류, 현재 자격증 취득현황 등 총 16개의 중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항목은 응답자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교육시장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함에 있다. 실제로 직업훈련 및 자격증은 개인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이동의 촉진과 새로운 업종이나 직종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공급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격증 취득 현황에 대해서는 자격증 명칭과 자격증 등급, 취득 년 월, 자격종류, 그리고 취득 당시 전공일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하였다.

(5) 구직활동 및 구직과정

구직활동 및 구직과정은 일반적으로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노동시장에 나오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구직활동의 적극성을 분석하는 것을 질문의 골격으로 정한다. 본 항목은 최종 면접 회사수, 졸업 당시 희망 임금 수준, 직업선택시 가장 우선적 사항, 학교내 취업지원(정보)센터의 역할 등 4개의 세부설문항목으로 구성된다. 구직활동의 적극성이 과연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최근 청년층 실업발생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문제를 실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6) 외국어 시험 점수

외국어 시험 점수는 TOEIC, TOEFL, TEPS, JPT 등 현재 취업시 대다수의 회사에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외국어 시험 점수를 질문함으로써 응답자들의 능력(availability)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7) 경제활동상태 구분

경제활동상태 구분에 관한 항목은 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분류방식을 택하였다. 즉, 지난 1주간의 상태를 질문하여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나누고 다시 1주간의 구직여부와 취업가능성 여부를 질문함으로써 미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눈다. 이는 국가통계와 동일한 기준을 택함으로써 국가통계와의 상호 연결성을 갖고자 하기 위함이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데, 경제활동상태별로 취업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실업상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일부 존재한다. 본 조사는 이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의 범위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 후, 경제활동인구를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하였다.

(8) 취업구조

취업자 관련 항목은 이행과정,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상황, 직장과의 관계, 첫 직장 여부 등 총 4가지의 중분류 항목으로 나누어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 즉,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질문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

이중 첫째로 이행과정은 현 직장 시작시기 및 구직 기간 등을 질문하고, 둘째로 직장의 상황은 산업과 직업, 사업체 규모, 직장의 유형, 종사상지위, 근무형태 등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셋째로 전공만족도, 학력일치도, 직무만족도 등을 통해서 학력과 직업(직무)과의 관계 등을 질문한다. 따라서 4개의 중분류 항목은 다시 22개의 세분류 질문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주된 흐름으로는 전공의 활용도 및 유용성과 학력별, 전공별, 성별로 고용형태에 미치는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했다. 이때 각 산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5-digit)를,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소분류(3-digit)와 고용직업분류상의 세분류(4-digit)를 기준을 사용하였다. 또한 산업분류 및 직업분류에 IT관련 세부 직업분류를 질문하는 항목도 추가하였다.

(9) 미취업구조

미취업자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다. 설문항목에서 경제활동상태 구분 항목의 50번째 문항 '지난 주 구직 여부'에서 구해보았다고 응답한 경우 미취업자 항목의 나1번째 문항을 다시 질문하여 '취업가능성 여부'에서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실업자로 분류되며, 나머지 '지난 주 구직 여부'에서 구해보았으나 미취업자 항목의 나1번째 문항 '취업가능성 여부'에서 없었다고 응답하거나, 또는 '지난 주 구직 여부'에서 구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다.

관련 항목으로는 취업가능성 여부, 현재 근무가능 여부, 지난 주에 구직을 하지 않은 이유, 지난 6개월 동안 취업 여부, 구직활동 기간, 구직 방법,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이유,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희망 고용형태, 희망 근무형태, 희망 업무, 직장선택 기준, 희망 직장과 학교전공과의 관계, 실업기간 동안 교육훈련 여부, 교육훈련의 기간·종류·기관, 희망임금, 그리고 졸업 후 직장경험 유무 등 세부적으로 18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된다.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로서 그 이유가 어떠한 원인에서 나왔는지를 구직의 방법적 차원과 교육과정 차원에 두고 설문 흐름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실업자의 희망 직종 항목을 통하여 산업의 수급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며, 미래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내다보는 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0) 졸업 후 첫 직장

본 항목은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즉, 직장이동(job mobility)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응답자가 졸업 후 첫 직장인지, 전직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본 설문은 총 1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직장의 퇴직 시기를 묻는 설문을 통하여 미취업 기간을 추정하고, 산업, 직업, 직위, 종사상 지위, 사업체규모 등 전 직장 관련 설문을 통하여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동에 대한 특징들을 찾아보고자 했다. 또한, 직장파 학교전공과의 관계, 전공의 직무유용성, 직무의 학력일치도, 첫 직장 이직이유 등을 질문함으로써 전직 이유를 파악하고자 했다.

3. 분류체계

가. 학과 분류

학과 구분 및 선정은 한국교육개발원의 『2003 학과(전공) 분류체계』를 따르되, 일부 학과와 명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다양한 학과 및 전공을 그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중/소분류의 3단계이며, 전문대의 경우 대분류 7개, 중분류 31개, 소분류 76개로, 대학교의 경우 대분류 7개, 중분류 35개, 소분류 121개로 구성되는 계층적 구조다. 중분류 및 소분류의 학과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표 1>과 <부표 2>과 같다.

<표 11-7> 학과(전공) 분류체계

대분류	전문대		대학교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문계열	2	9	2	20
사회계열	3	9	3	16
교육계열	3	3	5	10
공학계열	11	26	11	28
자연계열	4	9	4	19
의약계열	2	5	4	8
예체능계열	6	15	6	20
7	31	76	35	121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3), 『2003 학과(전공)분류 자료집』.

나. 산업 분류

산업이란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본 조사의 산업분류 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의 소분류체계(3-digit)를 따른다⁶⁾.

6)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알파벳 문자 사용/Sections), 중분류(2자리 숫자 사용/Divisions),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Groups),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Classes),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

<표 II-8>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단계별 항목수 비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농업, 임업	2	6	17	29
어업	1	2	4	8
광업	3	7	12	18
제조업	23	71	174	473
전기, 가스 등	2	4	6	7
건설업	2	7	13	43
도·소매업	3	21	54	162
숙박, 음식	1	2	6	22
운수업	4	12	21	48
통신업	1	2	5	9
금융, 보험	3	5	15	34
부동산, 임대	2	5	10	21
사업서비스	4	16	29	70
행정, 국방 등	1	5	8	25
교육서비스	1	5	11	23
보건, 복지	2	4	10	22
오락, 문화 등	2	7	21	55
공공, 개인	4	11	24	49
가사서비스	1	1	1	1
국제, 외국	1	1	1	2
20	63	194	442	1,121

다. 직업 분류

직업분류는 접근방식에 따라 크게 기술수준(skill level)과 기술형태(skill type)로 구분할 수 있다. 직업의 대표적인 분류체계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KSCO)와 중앙고용정보원의 한국고용직업분류(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KECO)가 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기술수준을 중심으로, 중고원의 한국고용직업분류는 기술형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표 II-9>에서 보듯이 대·중·소·세·세세분류의 5단계 구분이며, 구성은 대분류 11, 중분류 46, 소분류 162, 세분류 447,

/Sub-Classes)의 5단계로 구성된다.

세세분류 1,404개로 구성되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앙고용정보원의 한국고용직업분류는 <표 II-10>에서 보듯이 대·중·소·세분류의 4단계 구분이며, 구성은 대분류 7, 중분류 24, 소분류 119, 세분류 384개로 구성되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II-9>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계별 항목수 비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	8	34	72
전문가	8	33	75	240
기술공 및 준전문가	9	29	68	193
사무 종사자	2	11	28	58
서비스 종사자	4	14	31	75
판매 종사자	3	6	9	18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3	10	24	4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	17	70	28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	23	82	357
단순노무 종사자	4	9	23	58
군인	1	2	3	3
11	46	162	447	1,404

<표 II-10> 한국고용직업분류의 단계별 항목수 비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관리직	1	7	21
경영재무직	2	8	36
사회서비스직	5	27	90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	5	21	76
건설·생산직	9	50	147
농림어업직	1	5	13
군인	1	1	1
7	24	119	384

라. 경제활동상태 구분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구분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분류체계를 따른다. 조사대상 졸업생은 크게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며, 경제활동인구란 경제적 의미에서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어진다([그림 II-4] 참조). 여기서 취업자란 조사대상 기간 중 소득 있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실업자는 조사대상기간 중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로 정의된다. 경제활동상태 구분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총 조사대상자*100
- 고용률=취업자/총 조사대상자*100
- 취업률=취업자/경제활동인구*100
-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 미취업률=(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총 조사대상자*100



[그림 II-4] 경제활동상태 분류

III. 청년층 노동시장 특성과 졸업생 현황

1.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

청년층 노동시장은 전체 노동시장과 구분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취업과 관련된 제 측면을 중심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을 개관하고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가. 비정규직의 확대

IMF 경제위기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진전되면서 비정규근로자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계 주요국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지난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실업대책과 더불어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들의 고용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다만,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관해서는 정부부처와 기업, 그리고 노동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비정규직(=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는 1990년 5,011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45.7%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인원 수로는 7,279천명, 비중으로는 48.8%에 달하고 있다.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정의 및 분류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크게 종사상 지위에 따른 전통적인 접근방법과 고용형태에 따른 최근의 접근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장기 시계열이 존재하는 전통적 접근방법에 따라 실태를 살펴본다⁷⁾. 비정규(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수 및 비중이 제시되어 있는 <그림 III-1>을 살펴보면 전체근로자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199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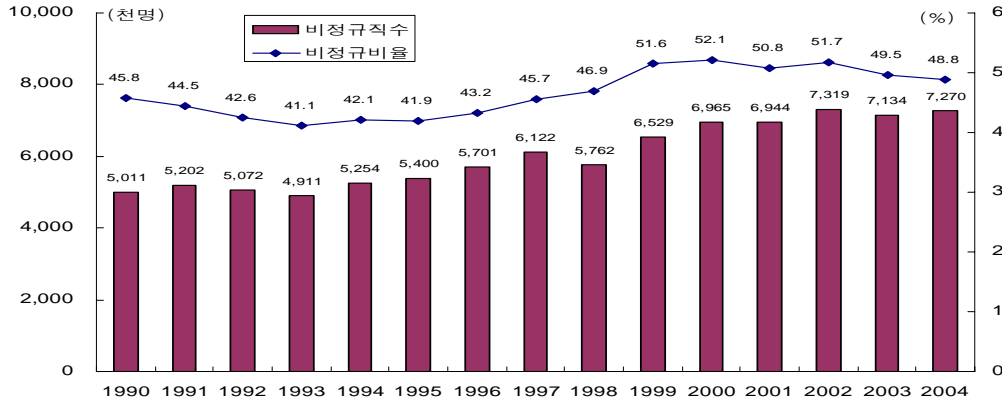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00년 이후 비정규직의 구성비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990년대 초반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청년층이 취업하기를 선호하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대졸자가 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30대 대기업집단이나 공기업, 금융관련 기업 등과 같은 ‘괜찮은 일자리’는 최근 5년 동안 32만 6천개나 줄어 들었다.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경력직 채용 경향이 확산되면서, 괜찮은 일자의 청년층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97년 10월에 그 비중이 37.1%였는데, 2002년 10월에는 그 비율이 25.0%로 크게 줄었다.⁸⁾

7) 전통적인 접근방법은 비정규직의 범위를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에서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임금 근로자 중 상용을 제외한 임시 및 일용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989년부터 시계열 자료가 존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비정규직을 엄밀하게 정의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비정규직의 범위를 설정한 최근의 접근방법은 2002년 정부(노사정위)에 의해 합의된 기준*으로 전통적인 접근방법이 지니는 한계점을 해소하였으나, 관련자료가 2001년부터 존재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국가별 비정규 근로에 대한 정의 및 분류방식은 장흥근(2001) 참조)

* 정부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상 고용형태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의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상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 중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합해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상의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노동계가 주장하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정부측 기준보다 더 큰 현상을 보인다.

8) 다만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경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IMF 구조조정 이후 벤처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의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이 분야의 고용 비중이 커졌다. 이 부문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괜찮은 일자의 감소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향후에도 청년층의 구직 눈높이에 맞는 일자의 창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해외이전, 지식정보화·서비스화·자동화에 따른 인력절감,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잠재성장률의 하락,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 증대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그림 III-1] 비정규 근로자 추이(종사상 지위상 임시 및 일용직)

<표 III-1> 주요 기업(30대 대기업·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취업자 수 추이

(단위: 천명)

년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2~1997
취업자수	1,573	1,407	1,321	1,319	1,234	1,247	-326

주: 매년 10월 기준임.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 DB(<http://laborstat.molab.go.kr>).

나. 청년층 실업률의 상승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996년 4.7% 수준에서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2.2%로 치솟았다가 2004년 7.9%로 낮아져 전체 실업률과 비교할 경우 약 2-2.5배 수준이다.⁹⁾ 이것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결코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없으나, 다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청년실업률이 단기간에 급증함으로써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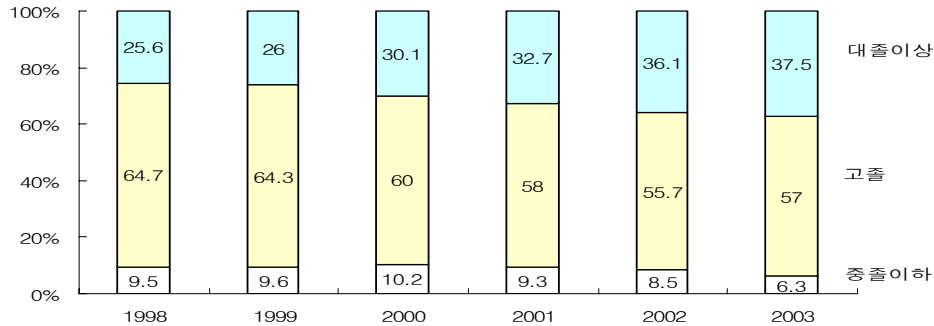
9) OECD 국가들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사회전반의 고학력화 추세와 맞물려 고학력일수록 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있다. 즉, <그림 III-2>에서 보듯이 청년실업자 중에서 고졸이하 실업자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25.6%에 불과했던 청년층중 대졸이상 실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37.5%에 달하였다. 특히 대학 진학률은 1980년대 초에 한 차례 급격히 상승했다가 상당 기간 정체하고 난 후, 다시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¹⁰⁾

인력의 공급측면에서 급격한 고학력화는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기대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며, 인력의 수요측면에서 직종구조의 고도화 속도가 이보다 느릴 경우 하위직종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청년실업자가 늘어나는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분간 고학력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유발효과가 적은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어 직종고도화 속도가 고학력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김석진, 2004).

이에 따라 향후 실업문제는 고학력 계층을 중심으로 한 전문직에서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단순기능직에서는 오히려 구인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노동부의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현재 부족인원은 약 14.1만명인데, 그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학력화 추세와 청년층 인구감소는 구직난 속의 구인난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력별, 숙련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0) 김석진(2004)에 따르면 이러한 급격한 학력구조의 고도화는 약 10년 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 청년층은 15-29세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그림 III-2] 학력별 청년실업자 구성비 추이

다. 경력직 위주의 채용관행

청년층 구직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민간기업의 채용관행이 경력직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엇보다 기업의 경력직 채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표 III-2>에서 알 수 있듯이, 30대 재벌기업, 공기업, 금융산업 등 주요 기업집단의 경우 경력자 채용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신규 채용자 중 경력자의 비중이 1996년의 34.8%에서 2002년에는 81.8%로 급증했던 것이다. 물론 이 통계는 다소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8년 10월부터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통계상에 직장이동이 빈번한 임시직 근로자들이 많이 포착되었을 것이고, 또 이들 다수가 경력직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업의 고용관행에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명확해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기반경제의 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지식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한편으로 노동이동이 빈번해지게 된다. 노동이동이 빈번해지면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의할 경우 기업이 적극적으로 재직근로자의 능력향상에 투자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이 들인 훈련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

이 자체적으로 필요인력을 양성하기보다는 외부노동시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구매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주장이 최근 들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표 III-2> 주요 기업(30대 대기업·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력직 채용 추이
(단위: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신규 채용	65.2	60.7	45.3	27.1	21.7	21.3	18.2
경력자 채용	34.8	39.3	54.7	72.9	78.3	78.7	81.8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 DB(<http://laborstat.molab.go.kr>).

라. 조기퇴직의 관행화

외환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공급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형 인사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다. 연공급과 맥을 같이 하는 정년제는 1970년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숙련형성과 근로자의 애사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미국식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인적자원 패러다임이 도입되면서 연공급과 정년제는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각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량해고를 거의 예외없이 시행하였지만, 그것은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고도 경제성장기에 확립되었던 전통적인 연공주의적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운용의 경직성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황수경(2004)은 연공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과 임금격차 과도하게 벌어짐으로써 기업들이 근로자의 연령이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계속 고용하는데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조기퇴직 관행은 자료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방하남·신동균·김동현·신현구(2005)가 한국노동패널(KLIPS) 2003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50대 초반에 조기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로부터 퇴직하는 평균연령은 53.8세, 여성 50.1세로 평균 52.3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한 은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 14년간의 제2의 근로생애를 거쳐 6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에 대한 재취업 기회가 그리 많지 않고 근로생애를 통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을 찾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기퇴직자들은 자영업, 하향취업 등으로 귀결된다. 개별근로자의 생애근로소득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임금의 전성기에 주된 직장으로부터의 경력단절은 생애근로소득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기퇴직과 같은 고용불안정성의 증대는 청년층 노동공급 행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3> 임금근로자의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평균퇴직연령

구 분	평균퇴직연령	표준편차
전 체	52.3	10.6
남 성	53.8	9.1
여 성	50.1	12.1

자료 : 방하남 외(2005),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 과제』, p.63

2. 경제 활동상태

가. 개요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들의 대부분은 졸업 후 노동시장에 곧바로 진입한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곧바로 진입하지 않는 인구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진학, 편입학, 전과 등의 교육투자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좀 더 계발하고자 한다. 통상 노동경제학에서는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눈다.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¹¹⁾를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no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된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되는데, 통계청의 기준에 따르면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로 정의된다. 실업자는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취업자라 하더라도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게 됨을 알 수 있다.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징은 구직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현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계층인 구직단념자¹¹⁾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구직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자신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입사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그러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뿐이지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언제든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주부, 학생 등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공무원시험, 공기업 입사시험 등과 같이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공채방식으로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11)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모든 사람으로 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등)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①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②조사대상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③자격이 부족하여 등과 같은 이유로 조사대상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향후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인력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우에는 취업재수생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게 된다. 각종 취업통계와의 비교 및 통계의 활용도를 감안한다면, 전통적인 노동력접근법에 의한 취업통계의 작성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나, 청년층 미취업자 통계해석시 구직단념자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표본의 빈도수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 III-4>에는 학교급별·성별·지역별 졸업자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등이 나타나 있다. 졸업자중 남성은 48.6%인 12,657명, 여성은 51.4%인 13,384명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8.3%인 12,583명, 비수도권이 51.7%인 13,458명이다.

<표 III-4> 졸업자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단위 : 명, %)

구 분		전 문 대		대 학 교		전 체	
졸업자수	전체	12,731	(100.0)	13,310	(100.0)	26,041	(100.0)
	남성	5,688	(44.7)	6,969	(52.4)	12,657	(48.6)
	여성	7,043	(55.3)	6,341	(47.6)	13,384	(51.4)
	수도권	6,141	(48.2)	6,442	(48.4)	12,583	(48.3)
	비수도권	6,590	(51.8)	6,868	(51.6)	13,458	(51.7)
경제활동인구	전체	10,773	(100.0)	10,877	(100.0)	21,650	(100.0)
	남성	5,053	(46.9)	6,025	(55.4)	11,078	(51.2)
	여성	5,720	(53.1)	4,852	(44.6)	10,572	(48.8)
	수도권	5,150	(47.8)	5,189	(47.7)	10,339	(47.8)
	비수도권	5,623	(52.2)	5,688	(52.3)	11,311	(52.2)
취업자	전체	10,286	(100.0)	10,488	(100.0)	20,774	(100.0)
	남성	4,823	(46.9)	5,823	(55.5)	10,646	(51.2)
	여성	5,463	(53.1)	4,665	(44.5)	10,128	(48.8)
	수도권	4,950	(48.1)	5,031	(48.0)	9,981	(48.0)
	비수도권	5,336	(51.9)	5,457	(52.0)	10,793	(52.0)

다음으로 <표 III-5>에 따르면 2005년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상태는 2003년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문대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은 84.6%로서 2003년의 82.9%에 비해 1.7%p 높아졌다. 대학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크게 개선되어 2005년에 81.7%로서 2003년의 74.7%에 비해 7.0%p나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비슷한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층) 결과』와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5월조사에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6.2%로서 2003년 5월조사의 75.5%보다 0.7%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는 15-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중퇴자, 휴학생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과 일치하지 않으나, 청년층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사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이 취업자율의 증가와 실업률의 감소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취업의 질도 좋아졌으리라고 판단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2003년과 2005년 조사의 졸업생 코호트 차이이다.

2003년 조사에서는 2002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2005년 조사에서는 2003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5년의 관찰기간이 더 길다는 사실이다. 통계청(2005)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층) 결과』에 따를 경우 졸업후 첫 일자리 진입까지의 평균소요기간이 10개월로 나타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졸업후 직장세계로의 이행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졸업후 적어도 2년 이상의 시점이 지난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2005년 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는 부분적이지만, 졸업후 조사시점까지의 관찰기간이 다소 증가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표 III-5> 경제활동상태 추이

(단위 : 명, %)

경제활동상태		전문대			대학교			전체		
		2003 (A)	2005 (B)	(B-A)	2003 (A)	2005 (B)	(B-A)	2003 (A)	2005 (B)	(B-A)
전 체	경제활동참가율	81.7	84.6	3.0	73.7	81.7	8.0	77.4	83.1	5.7
	고용율	77.2	80.8	3.6	69.6	78.8	9.2	73.1	79.8	6.6
	취업율	94.5	95.5	0.9	94.4	96.4	2.0	94.5	96.0	1.5
	실업률	5.5	4.5	-0.9	5.6	3.6	-2.0	5.5	4.0	-1.5
	경제활동참가율	83.2	88.9	5.7	73.3	86.5	13.1	77.6	87.5	10.0
	고용율	77.8	84.8	7.0	70.1	83.6	13.5	73.4	84.1	10.8
	취업율	93.5	95.5	1.9	95.5	96.6	1.1	94.6	96.1	1.5
	실업률	6.5	4.5	-1.9	4.5	3.4	-1.1	5.4	3.9	-1.5
	경제활동참가율	80.7	81.2	0.5	74.1	76.5	2.5	77.3	79.0	1.7
	고용율	76.9	77.6	0.7	69.3	73.6	4.3	73.0	75.7	2.7
	취업율	95.2	95.5	0.3	93.6	96.1	2.6	94.4	95.8	1.4
	실업률	4.8	4.5	-0.3	6.4	3.9	-2.6	5.6	4.2	-1.4
	경제활동참가율	81.9	83.9	1.9	73.0	80.5	7.6	76.5	82.2	5.7
	고용율	78.4	80.6	2.2	68.8	78.1	9.3	72.6	79.3	6.7
	취업율	95.7	96.1	0.4	94.3	97.0	2.6	94.9	96.5	1.6
	실업률	4.3	3.9	-0.4	5.7	3.0	-2.6	5.1	3.5	-1.6
	경제활동참가율	81.5	85.3	3.8	74.5	82.8	8.3	78.2	84.0	5.9
	고용율	76.5	81.0	4.5	70.5	79.5	9.0	73.6	80.2	6.6
	취업율	93.8	94.9	1.1	94.6	95.9	1.4	94.1	95.4	1.3
	실업률	6.2	5.1	-1.1	5.4	4.1	-1.4	5.9	4.6	-1.3

나. 학과별 경제활동상태

졸업생들의 학교세계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노동공급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현황을 나타내주는 취업률과 실업률 등이 있다. 조사결과, 2003년 졸업 후 26개월이 지난 현재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을 보면, <표 III-6> 및 <표 III-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문대보다 대학교가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 졸업생 중 일부가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계층이 상당수 존재

하는 반면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에는 진학자 수가 대학보다 적기 때문이다. 전문대 및 대학교를 학과(전공)별로 세분화하면, 전문대의 경우는 산업, 기계금속, 화공학과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90%대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대학교의 경우는 초등교육, 의료, 간호, 약학과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90%를 상회하였다.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학과를 보면 전문대에서는 미술조형이 가장 낮았으며, 언어문학, 교육일반, 소재재료, 수학을리천문지리 등도 70%대를 기록하였다. 대학에서는 교육일반, 유아교육 등이 60%대로 낮았고, 수학을리천문지리, 미술조형 등은 70% 초반대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문대와 대학 모두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학과는 미술조형, 수학을리천문지리, 교육일반 학과 등이었다. 학과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문대에서는 법률, 특수교육, 교통운수, 화공, 수학을리천문지리학과가 100.0%로서 높은 인력수요 상황을 보여주었으며, 대학교에서는 특수교육, 초등교육, 정밀에너지, 의료, 약학 등이 100.0%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실업률 수준은 전문대가 4.5%로서 대학교의 3.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년제 대학교의 심각한 취업난과 상대적으로 전문대의 취업여건이 유리할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상반되는 것으로 4년제 대졸자의 구직 눈높이가 높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각종 자격증시험, 공무원시험, 입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인구계층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학과별 실업률을 보면 학과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전문대의 경우를 보면, 생물화학환경 학과의 실업률이 9.4%로서 가장 높았으며, 연극영화, 미술조형, 소재재료, 응용예술 등도 실업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의 경우에는 연극영화과가 실업률 10.0%로서 가장 높았으며, 산업, 컴퓨터통신, 응용예술 학과 등도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로 전문대와 대학교 모두에서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의 전공에서는 실업률 수준이 매우 낮았던 반면 예체능 계열은 높게 나타났다.

<표 III-6> 전공별 경제활동상태(전문대)

(단위: %)

	참가율	고용률	취업률	실업률
전 체	84.6	80.8	95.5	4.5
언어 문학	73.8	69.5	94.2	5.8
인문과학	85.7	80.4	93.8	6.3
경영 경제	85.3	81.6	95.7	4.3
법률	83.3	83.3	100.0	0.0
사회과학	83.4	79.5	95.4	4.6
교육일반	76.9	73.1	95.0	5.0
유아교육	83.4	82.2	98.6	1.4
특수교육	81.8	81.8	100.0	0.0
건축	86.4	82.1	95.1	4.9
토목 도시	87.2	84.6	97.0	3.0
교통 운송	93.9	93.9	100.0	0.0
기계 금속	92.8	87.9	94.7	5.3
전기 전자	88.6	86.1	97.1	2.9
정밀에너지	81.6	78.9	96.8	3.2
소재 재료	76.9	72.1	93.8	6.3
컴퓨터 통신	87.5	82.5	94.3	5.7
산업	93.8	90.8	96.7	3.3
화공	90.7	90.7	100.0	0.0
기타	86.5	82.5	95.4	4.6
농림 수산	80.6	79.1	98.1	1.9
생물 화학 환경	85.4	77.3	90.6	9.4
생활과학	83.4	79.8	95.6	4.4
수학물리천문지리	78.7	78.7	100.0	0.0
간호	89.0	86.0	96.6	3.4
치료 보건	88.5	85.4	96.4	3.6
디자인	81.0	77.3	95.4	4.6
응용예술	83.2	78.2	94.0	6.0
무용 체육	84.0	82.2	97.8	2.2
미술 조형	57.1	53.6	93.8	6.3
연극 영화	86.4	79.5	92.1	7.9
음악	80.1	78.9	98.5	1.5

<표 III-7> 전공별 경제활동상태(대학교)

(단위: %)

	참가율	고용률	취업률	실업률
계	81.7	78.8	96.4	3.6
언어 문학	76.7	73.8	96.2	3.8
인문과학	75.8	72.6	95.8	4.2
경영 경제	85.7	83.1	97.0	3.0
법률	76.0	73.5	96.7	3.3
사회과학	81.9	78.0	95.2	4.8
교육일반	66.3	65.7	99.2	0.8
유아교육	66.4	64.3	96.9	3.1
특수교육	98.0	98.0	100.0	0.0
초등교육	99.4	99.4	100.0	0.0
중등교육	78.1	76.2	97.6	2.4
건축	89.8	86.2	96.0	4.0
토목 도시	91.6	88.9	97.1	2.9
교통 운송	78.5	74.8	95.2	4.8
기계 금속	89.4	86.3	96.6	3.4
전기 전자	89.6	88.2	98.5	1.5
정밀에너지	86.8	86.8	100.0	0.0
소재 재료	80.9	77.4	95.7	4.3
컴퓨터 통신	85.4	80.1	93.8	6.2
산업	87.9	81.8	93.1	6.9
화공	81.2	76.8	94.6	5.4
기타	87.3	83.4	95.6	4.4
농림 수산	79.1	77.0	97.3	2.7
생물 화학 환경	77.2	73.4	95.1	4.9
생활과학	76.2	73.5	96.4	3.6
수학물리천문지리	71.2	68.5	96.1	3.9
의료	97.4	97.4	100.0	0.0
간호	94.1	93.1	99.0	1.0
약학	91.4	91.4	100.0	0.0
치료 보건	86.6	85.4	98.6	1.4
디자인	85.7	84.2	98.3	1.7
응용 예술	83.0	78.2	94.2	5.8
무용 체육	85.2	81.9	96.1	3.9
미술 조형	71.4	67.5	94.6	5.4
연극 영화	85.7	77.1	90.0	10.0
음악	76.2	75.5	99.0	1.0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학과가 대체로 취업률도 높았던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학과는 취업률이 낮아 실업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력에 대한 시장수요가 높은 학과의 경우에는 진학, 입사준비 등보다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마땅한 직업을 찾기 어려운 학과의 경우에는 취업보다는 진학, 취업준비 등 인적자본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취업이 어려운 일부 학과 졸업자는 졸업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빠져 있어 청년실업의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3. 졸업생 현황

본 절에서는 졸업연도별(2001년과 2003년 졸업생), 학교급별(전문대와 대학교)로 구분하여 비교함으로써 자료의 기본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졸업생의 성별, 연령계층, 전공 구성, 출신고교의 계열과 지역의 순으로 정리한다.

가. 성, 연령계층, 학교유형별 분포

성, 연령계층, 그리고 학교유형별로 졸업생의 분포를 보면 <표 III-8>과 같다. 성별로 보면 두해 모두에서 전문대 경우, 여성이 더 많고 대학교는 남성이 더 많다. 그러나 성비(gender ratio: 여학생 비율) 자체는 2003년 조사(2001년 졸업생 집단)보다 2005년 조사(2003년 졸업생 집단)에서 차이가 줄고 있다. 여학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아지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 분포(졸업시점 나이 기준)를 보면 졸업생의 대부분(대학교: 89% 전문대:92%)이 20대에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교의 경우 30세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7.4%, 40세 이상은 3.6%로 나타나며, 전문대는 이보다 약간 낮다. 성인인구 대비 취학률은 아니지만 30세 이상 성인의 정규교육기관 재학비율이 예상했던 것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²⁾ 교육통계연보(2004년)에 따르면 대

학교 재학생 중 26세 이상인 성인의 비율은 6.1%, 전문대에서 이 비율은 9.7%로 나타난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전문대의 경우 사립대가 9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학교의 경우 국공립이 약 27%, 사립은 66.5%이다. 전문대와 대학교 모두에서 사립의 비율이 매우 높는데,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지배적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표 III-8> 성, 연령계층별, 학교유형별 졸업생 분포

(단위: 명, %)

구 분	전문대		대학교	
	2003	2005	2003	2005
전체	6,483 (100.0)	12,721 (100.0)	7,543 (100.0)	13,320 (100.0)
성 남	2,503 (38.6)	5,683 (44.7)	4,174 (55.3)	6,974 (52.4)
성 여	3,980 (61.4)	7,038 (55.3)	3,369 (44.7)	6,346 (47.6)
연령 19세 이하	513 (7.9)	23 (0.2)	0 (0.0)	8 (0.1)
20대	5,970 (92.1)	11,822 (92.9)	7,543 (100.0)	11,876 (89.2)
30대	0 (0.0)	658 (5.2)	0 (0.0)	984 (7.4)
40대 이상	0 (0.0)	218 (1.7)	0 (0.0)	482 (3.6)
학교 유형 전체	6,483 (100)	12,555 (100)	7,543 (100)	12,115 (100)
국립	40 (0.6)	190 (1.5)	1,635 (21.7)	3,258 (26.9)
사립	6,443 (99.4)	12,365 (98.5)	5,908 (78.3)	8,857 (73.1)

나. 전공, 고교 계열과 지역 분포

전공별로 졸업생의 구성을 보면 <표 III-9>와 같다. 2005년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대학교의 경우 공학계(26.6%), 사회계(21.4%), 인문계와 자연계(15%)의 순서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전문대 경우 공학계(34.6%), 사회계(20.6%) 그리고 의학계와 자연계의 순서로 나타난다¹³⁾. 대학교의 경우 ‘기초학문성격의 계열’에 많은 학생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비해 전문대는 ‘특정 직업분야와 연계가 높은 학

12) 통상적으로 평생학습은 ‘25-64세의 성인이 전일제 수업이 아닌 4주이상의 학습에 참여한 경우’를 말한다(임언, 2005)

13) 전문대 2003년 졸업생에서 예체능계열이 높은 비율로 표본에 잡힌 점은 전형적인 표본추출 오류이다.

과' 예를 들면 공학계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전문대는 직업교육분야에 중점을 두어 학과와 학생이 구성되어 있고 대학교는 학문일반과 고등교육에 중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전공 중분류(학과)를 사용하여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대학교와 전문대 간에 학생의 전공분포에 있어 차이로도 확인된다. <표 III-10>에서 보면 대학교에서는 경영·경제, 언어문학, 사회과학, 생물·화학·환경, 컴퓨터·통신의 순서로 학생이 분포하고 있으며, 전문대에서는 경영·경제, 컴퓨터·통신, 디자인, 치료보건, 사회과학의 순서로 나타난다.

전공별로 여학생의 비율을 보면 대학교의 경우, 교육계열(78.1%)이 가장 높고 인문계와 예체능계(62%, 62.7%)의 순이며, 공학계는 20.5%에 불과하다. 전문대에서도 비슷한 순서로 교육계(94.9%), 인문계(84%) 순서이며, 공학계는 31.7%로 매우 낮다. 즉 대학교와 전문대 모두 공학계열에 여학생의 비율이 20-30%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학생의 공대 기피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과별로 여학생 비율을 보면 더 확실해진다. <부표 6>과 <부표 7>의 큰쪽을 보면, 여성 대학생은 교육관련 학과(77-95%), 간호학과(100%), 생활과학(82.7%)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고 기계금속, 전기전자 토목·도시, 산업공학과에는 15% 이내로 매우 적다. 이런 공학계 기피경향은 정도는 덜 하지만 전문대 여학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표 III-9> 전공대분류별 졸업생 분포

(단위: 명, %)

전공대분류	전체				여학생 비율			
	전문대		대학교		전문대		대학교	
	2003	2005	2003	2005	2003	2005	2003	2005
전체	6,483 (100)	12,721 (100)	7,543 (100)	13,320 (100)	3,980 <61.4>	7,038 <55.3>	3,369 <44.7>	6,346 <47.6>
인문계열	451 (7.0)	901 (7.1)	1,101 (14.6)	2,037 (15.3)	402 <89.1>	757 <84.0>	689 <62.6>	1,263 <62.0>
사회계열	1,155 (17.8)	2,620 (20.6)	1,533 (20.3)	2,853 (21.4)	882 <76.4>	1,684 <64.3>	682 <44.5>	1,240 <43.5>
교육계열	301 (4.6)	375 (2.9)	568 (7.5)	1,213 (9.1)	299 <99.3>	356 <94.9>	391 <68.8>	947 <78.1>
공학계열	2,465 (38.0)	4,397 (34.6)	2,116 (28.1)	3,537 (26.6)	809 <32.8>	1,396 <31.7>	302 <14.3>	725 <20.5>
자연계열	576 (8.9)	1,000 (7.9)	1,324 (17.6)	1,966 (14.8)	426 <74.0>	508 <50.8>	667 <50.4>	1,120 <57.0>
의약계열	672 (10.4)	986 (7.8)	195 (2.6)	520 (3.9)	511 <76.0>	666 <67.5>	121 <62.1>	302 <58.1>
예체능계열	863 (13.3)	2,442 (19.2)	706 (9.4)	1,194 (9.0)	651 <75.4>	1,671 <68.4>	517 <73.2>	749 <62.7>

주: <>는 여학생 비율을 나타냄.

졸업생의 출신고교의 계열 분포를 보면 (2005년 조사), 전문대에서 실업계 고교 출신자의 비율(44%)이 대학교(8.9%)보다 높다. 이는 ‘실업계 고교 출신은 전문대 진학하고 이후 산업현장으로 취업 한다’는 인식을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생의 진학률 50%이상이고 또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전문대와 대학교에 대한 이들의 선택과 이후 진로나 직업세계로 이행 등에 대하여 계속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교의 경우 이과계와 문과계의 비율이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역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서 이과계 출신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10> 출신고교의 계열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전문대		대학교			
	2003	2005	2003	2005 ²⁾	남성	여성
전체	6,483 (100)	12,721 (100)	7,543 (100)	13,320 (100)	6,970 (100)	6,341 (100)
일반계 ¹⁾ 문과	3,474 (53.6)	4,254 (33.4)	7,092 (94.0)	6,201 (46.6)	2,656 (38.1)	3,545 (55.9)
일반계 이과	-	2,569 (20.2)	-	5,591 (42.0)	3,584 (51.4)	2,007 (31.7)
외고/과학고	13 (0.2)	16 (0.1)	97 (1.3)	85 (0.6)	36 (0.5)	49 (0.8)
실고	2,936 (45.3)	5,630 (44.3)	204 (2.7)	1,181 (8.9)	612 (8.8)	569 (9.0)
예체능 및 검정고시	55 (0.8)	243 (1.9)	139 (1.8)	253 (1.9)	82 (1.2)	171 (2.7)

주: 1) 2003년은 출신고교만 조사함. 2) 성별에 미관찰(11) 발생
3) <>는 여학생 비율을 나타냄.

출신고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2003년 조사집단과 2005년 조사집단의 분포가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표본의 지역별 분포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표본추출의 문제'인지 '조사과정에서 체계적인 무응답 때문'인지 분명치 않다. 이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¹⁴⁾. 따라서 향후 실증분석에서 지역변수 사용 시 가능하면 대도시 여부 정도로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역별 분포에 대한 검정 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두번째로 2005년 조사집단을 기준으로 서울과 지방 간 분포를 보자. 대학교의 경우 서울지역 고교출신의 비율이 30.1%이며 전문대는 이 비율이 26.4%로 대학교와 전문대 모두에서 서울지역 출신고교의 비중이 가장 높다. 단 이 비율은 각 지역별로 졸업생수 대비 대학진학률이 아니다.

14) 학교의 지역별 분포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추후의 과제로 미룬다.

<표 III-11> 출신고교 지역의 분포

(단위: 명, %)

구 분	전문대		대학교	
	2003	2005	2003	2005
전체 ¹⁾	6,458 (100.0)	12,631 (100.0)	7,527 (100.0)	13,268 (100.0)
서울	1,523 (23.6)	3,332 (26.4)	2,274 (30.2)	3,993 (30.1)
인천, 경기	833 (12.9)	1,169 (9.3)	908 (12.1)	988 (7.4)
부산, 울산, 경남	1,544 (23.9)	1,707 (13.5)	1,465 (19.5)	2,237 (16.9)
대구, 경북	964 (14.9)	1,122 (8.9)	1,097 (14.6)	1,045 (7.9)
대전, 충남, 충북	635 (9.8)	1,361 (10.8)	688 (9.1)	1,635 (12.3)
광주, 전남, 전북	778 (12.0)	1,877 (14.9)	749 (10.0)	1,828 (13.8)
강원, 제주, 해외, 사이버	181 (2.8)	2,063 (16.3)	346 (4.6)	1,542 (11.6)

주: 1) 지역 무응답. 142(2005년), 41(2003년)

다. 전공 및 전공선택 동기

주 전공이외에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과 연계전공실태를 보자. 대학교의 경우 (2005년 조사집단) 약 9.6%의 학생이 복수(부 또는 연계)전공을 하며 전문대의 경우 약 2.2%이내의 학생만이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교에 비해 전문대에서는 복수전공의 비율이 매우 낮다. 이는 전문대의 학과가 복수전공이 적은 공학계열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학교유형별로는 사립대 학생이 복수전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공별로 복수전공자의 비율을 보면 대학교의 경우, 주로 인문사회와 교육계열 학생을 중심으로 복수전공이 이뤄지고 자연, 공학계열 학생에서는 드물다. <표 III-13>에서 보면(2005년 조사집단) 교육계(17.8%), 인문계(17.2%), 사회계, 의약계·공학계(1.3%, 4.6%)의 순서이다.

<표 III-12> 복수/부/연계 전공자 분포: 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전문대				대학교			
	2003		2005		2003		2005	
전체 <비율>	59	<0.9>	283	<2.2>	1,150	<15.2>	1,281	<9.6>
복수전공자	15	(25.4)	149	(52.7)	499	(43.4)	1,226	(95.7)
부전공	44	(74.6)	99	(35.0)	651	(56.6)	50	(3.9)
연계			35	(12.4)			5	(0.4)
남성 <비율>	21	<0.8>	129	<2.3>	475	<11.4>	532	<7.6>
복수전공자	6	(28.6)	70	(54.3)	207	(43.6)	502	(94.4)
부전공	15	(71.4)	44	(34.1)	268	(56.4)	29	(5.5)
연계			15	(11.6)			1	(0.2)
여성 <비율>	38	<0.95>	154	<2.19>	675	<20.04>	749	<11.8>
복수전공자	9	(23.7)	79	(51.3)	292	(43.3)	724	(96.7)
부전공	29	(76.3)	55	(35.7)	383	(56.7)	21	(2.8)
연계			20	(13.0)			4	(0.5)
국립 <비율>	0		4	<2.1>	227	<13.9>	196	<6.0>
복수전공자	0		4	(100.0)	92	(40.5)	189	(96.4)
부전공	0		0	(0.0)	135	(59.5)	7	(3.6)
연계			0	(0.0)			0	(0.0)
사립 <비율>	59	<0.9>	276	<2.2>	923	<15.6>	954	<10.8>
복수전공자	15	(25.4)	143	(51.8)	407	(44.1)	909	(95.3)
부전공	44	(74.6)	99	(35.9)	516	(55.9)	40	(4.2)
연계			34	(12.3)			5	(0.5)

주: 2005년도 복수전공자 구성비 95% 이상함. 조사상의 문제로 보임

<표 III-13> 전공별 복수/부/연계 전공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전문대				대학교			
	2003		2005		2003		2005	
전체	59	(0.9)	283	(2.2)	1,150	(15.2)	1,281	(9.6)
인문계열	7	(1.6)	17	(1.9)	327	(29.7)	350	(17.2)
사회계열	6	(0.5)	55	(2.1)	258	(16.8)	310	(10.9)
교육계열	0	(0.0)	7	(1.9)	198	(34.9)	216	(17.8)
공학계열	18	(0.7)	97	(2.2)	95	(4.5)	162	(4.6)
자연계열	4	(0.7)	19	(1.9)	185	(14.0)	175	(8.9)
의약계열	4	(0.6)	20	(2.0)	9	(4.6)	7	(1.3)
예체능계열	20	(2.3)	68	(2.8)	78	(11.0)	61	(5.1)

전공선택의 주요 동기를 보면 전문대와 대학교 모두에서 ‘학문적 흥미와 적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며, 두번째 요소로는 ‘직업전망’이다. 단 전문대생의 경우 대학생에 비해 전공선택 시 ‘직업전망’을 약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문대 학생이 더 직업지향적인 전공을 선택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리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이다(<표 III-14>).

학교유형이나 성별로 보아도 이러한 직업지향적인 전공선택 경향은 비슷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문적 흥미와 적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공별로 보면, 의약학계, 공학계, 사회계, 교육계열의 경우 다른 전공에 비해 ‘직업전망’을 약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정한 직업분야에 전문화된 전공분야라는 특징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III-15>).

<표 III-14> 전공선택의 주요 동기(학교별, 성별, 설립유형별)

(단위: 명, %)

학교별	전문대		대학교	
	2003	2005	2003	2005
전체	6,483 (100.0)	12,721 (100.0)	7,543 (100.0)	13,320 (100.0)
직업전망	1,823 (28.2)	3,811 (30.4)	1,284 (17.1)	2,692 (22.2)
수능점수, 성적	756 (11.7)	1,296 (10.3)	1,536 (20.4)	1,633 (13.5)
학문적 흥미 및 적성	3,333 (51.6)	6,372 (50.8)	4,084 (54.3)	6,785 (56.0)
주위 권유	491 (7.6)	915 (7.3)	568 (7.5)	831 (6.9)
기타	80 (1.2)	145 (1.2)	71 (0.9)	150 (1.2)
성별	남성		여성	
	전문대	대학교	전문대	대학교
전체	5,676 (100.0)	6,959 (100.0)	7,029 (100.0)	6,335 (100.0)
직업전망	1,923 (33.9)	1,711 (24.6)	1,947 (27.7)	1,207 (19.1)
수능점수, 성적	567 (10.0)	999 (14.4)	753 (10.7)	812 (12.8)
학문적 흥미 및 적성	2,721 (47.9)	3,679 (52.9)	3,712 (52.8)	3,808 (60.1)
주위 권유	378 (6.7)	462 (6.6)	558 (7.9)	453 (7.2)
기타	87 (1.5)	108 (1.6)	59 (0.8)	55 (0.9)
설립유형별	국공립		사립	
	전문대	대학교	전문대	대학교
전체	190 (100.0)	3,254 (100.0)	12,349 (100.0)	8,837 (100.0)
직업전망	70 (36.8)	794 (24.4)	3,741 (30.3)	1,898 (21.5)
수능점수, 성적	20 (10.5)	377 (11.6)	1,276 (10.3)	1,256 (14.2)
학문적 흥미 및 적성	81 (42.6)	1,819 (55.9)	6,291 (50.9)	4,966 (56.2)
주위 권유	17 (8.9)	211 (6.5)	898 (7.3)	620 (7.0)
기타	2 (1.1)	53 (1.6)	143 (1.2)	97 (1.1)

<표 III-15> 전공선택동기의 주요 동기(전공대분류별)

(단위: 명, %)

구분	전문대	대학교	전문대	대학교
전공대분류	인문계열		사회계열	
전체	898 (100.0)	2,034 (100.0)	2,618 (100.0)	2,847 (100.0)
직업전망	148 (16.5)	237 (11.7)	909 (34.7)	808 (28.4)
수능점수, 성적	107 (11.9)	263 (12.9)	312 (11.9)	407 (14.3)
학문적 흥미 및 적성	590 (65.7)	1,416 (69.6)	1,134 (43.3)	1,339 (47.0)
주위 권유	48 (5.3)	101 (5.0)	215 (8.2)	233 (8.2)
기타	5 (0.6)	17 (0.8)	48 (1.8)	60 (2.1)
전공대분류	교육계열		공학계열	
전체	375 (100.0)	1,212 (100.0)	4,394 (100.0)	3,525 (100.0)
직업전망	92 (24.5)	310 (25.6)	1,560 (35.5)	1,015 (28.8)
수능점수, 성적	33 (8.8)	78 (6.4)	476 (10.8)	535 (15.2)
학문적 흥미 및 적성	207 (55.2)	703 (58.0)	1,984 (45.2)	1,697 (48.1)
주위 권유	34 (9.1)	112 (9.2)	322 (7.3)	238 (6.8)
기타	9 (2.4)	9 (0.7)	52 (1.2)	40 (1.1)
전공대분류	자연계열		의약계열	
전체	999 (100.0)	1,965 (100.0)	985 (100.0)	517 (100.0)
직업전망	307 (30.7)	276 (14.0)	510 (51.8)	174 (33.7)
수능점수, 성적	176 (17.6)	447 (22.7)	89 (9.0)	49 (9.5)
학문적 흥미 및 적성	436 (43.6)	1,087 (55.3)	216 (21.9)	217 (42.0)
주위 권유	73 (7.3)	136 (6.9)	157 (15.9)	66 (12.8)
기타	7 (0.7)	19 (1.0)	13 (1.3)	11 (2.1)
전공대분류	예체능계			
전체	2,436 (100.0)	1,194 (100.0)		
직업전망	344 (14.1)	98 (8.2)		
수능점수, 성적	127 (5.2)	32 (2.7)		
학문적 흥미 및 적성	1,866 (76.6)	1,028 (86.1)		
주위 권유	87 (3.6)	29 (2.4)		
기타	12 (0.5)	7 (0.6)		

주: 결측값의 개수 = 40 (2005)

라. 휴학 및 편입학

졸업생의 재학기간 중 휴학 경험률을 보면(2005년 조사집단), 전문대생의 31.3%, 대학생의 56%로 재학 중 1/3에서 절반에 이르는 학생이 휴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휴학경험률(대학교: 78.3%, 전문대: 62.2%)이 여학생(대학교: 31.5%, 전문대: 6.3%)보다 훨씬 높다. 남학생의 군입대에 따른

것이다. 전공별로 보면 남학생 비율이 높은 공학계열이 높고, 학교유형별로는 사립학교 대학생이 더 많이 휴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16> 휴학경험자 비율: 성, 전공별, 학교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전문대		대학교	
	2003	2005	2003	2005
성별 전체	371 (5.7)	3,979 (31.3)	2,432 (32.2)	7,457 (56.0)
남	141 (5.6)	3,533 (62.2)	1,202 (28.8)	5,459 (78.3)
여	230 (5.8)	446 (6.3)	1,230 (36.5)	1,998 (31.5)
전공계열 인문계열	39 (8.6)	140 (15.5)	526 (47.3)	1,138 (55.9)
사회계열	56 (4.8)	582 (22.2)	620 (40.4)	1,694 (59.4)
교육계열	11 (3.7)	23 (6.1)	87 (15.3)	315 (26.0)
공학계열	144 (5.8)	2,059 (46.8)	614 (29.0)	2,598 (73.5)
자연계열	35 (6.1)	338 (33.8)	379 (28.6)	1,060 (53.9)
의약계열	25 (3.7)	243 (24.6)	22 (11.3)	125 (24.0)
예체능계열	61 (7.1)	594 (24.3)	184 (26.1)	527 (44.1)
설립유형 국공립	1 (2.5)	69 (36.3)	406 (24.8)	1,323 (40.6)
사립	370 (5.7)	3,863 (31.2)	2,026 (34.3)	5,289 (59.7)

휴학의 가장 주요한 사유는 예상대로 군입대(대학교: 64.8%, 전문대: 83.2%)이다. 그러나 ‘개인사정’을 제외한 휴학의 두번째 사유는 대학교와 전문대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취업 및 창업준비와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 이유가 두번째 사유(3.2%)인데 비해 대학 졸업자에서는 ‘해외연수’가 (7.6%) 경제적 이유(5.7%)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런 경향은 두 번 이상 휴학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보아도 동일한데, 해외연수(20.5%)와 ‘경제적 이유’(19.5%)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난다. ‘해외연수’는 여학생만 보아도 가장 높다. 즉 대학생의 경우, ‘해외연수’가 ‘군 입대나 경제적인 것’ 못지않게 휴학의 중요한 이유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표 III-17>)

<표 III-17> 휴학의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첫 번째 사유				두 번째 사유		여학생	
	전문대		대학교		전문대	대학교	전문대	대학교
	2003	2005	2003	2005	2005	2005	2005	2005
전체	5,229 (100)	3,942 (100)	1,889 (100)	7,321 (100)	567 (100)	1,882 (100)	417 (100)	1,900 (100)
군대	4,086 (78.1)	3,281 (83.2)	1,036 (54.8)	4,742 (64.8)	25 (4.4)	73 (3.9)	0	0
수능	32 (0.6)	5 (0.1)	12 (0.6)	32 (0.4)	4 (0.7)	10 (0.5)	1 (0.2)	26 (1.4)
편입, 진학	37 (0.7)	27 (0.7)	11 (0.6)	57 (0.8)	9 (1.6)	12 (0.6)	13 (3.1)	34 (1.8)
고시	58 (1.1)	23 (0.6)	68 (3.6)	177 (2.4)	8 (1.4)	142 (7.5)	11 (2.6)	108 (5.7)
해외연수	133 (2.5)	20 (0.5)	261 (13.8)	554 (7.6)	5 (0.9)	385 (20.5)	19 (4.6)	481 (25.3)
유학	18 (0.3)	10 (0.3)	9 (0.5)	41 (0.6)	4 (0.7)	29 (1.5)	5 (1.2)	35 (1.8)
취업준비, 창업준비	106 (2.0)	47 (1.2)	83 (4.4)	186 (2.5)	35 (6.2)	179 (9.5)	33 (7.9)	140 (7.4)
아르바이트 및 경제적 곤란	146 (2.8)	79 (2.0)	80 (4.2)	231 (3.2)	93 (16.4)	189 (10.0)	44 (10.6)	170 (8.9)
개인사정 및 기타	613 (11.7)	450 (11.4)	329 (17.4)	1,301 (17.8)	384 (67.7)	863 (45.9)	291 (69.8)	906 (47.7)

주: 1) 휴학사유 무응답. 6908(2003년), 14285(2005년), 2) 결측값의 개수 = 11,067

2005년도 조사집단의 재학 중 편입학 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대학 졸업생의 약 14%, 전문대 졸업생의 약 1.4%가 졸업한 그 대학을 중도에 편입학한 것으로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편입학은 교육부 규정에 의거하지만 전공과 학교유형별로 보면 차이가 있다. 전공별로 교육계열(21.3%)과 의약계열(20%)에서 편입학자의 비율이 높고, 사립(11.5%)보다는 국공립(23.4%)에서 편입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표 III-18>).

편입학의 특성에 대하여 편입한 학생의 학력과 유사전공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표 III-19>). 대학교의 경우 전문대 출신의 편입생이 65.8%이고 대학 출신의 편입생은 34%이다. 즉 대학 편입생의 상당부분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성격을 띤다. 둘째, 전문대의 경우 대학출신의 편입생이 약 35.3%, 동일한 전문대 출신이 64.6%로 나타나며, 특히 타전공의 대학출신자가 20.7%나 차지하고 있다. '전공을

바꾸어 전문대로 하향 재진학(re-entry)하는 대학생이 있다'는 그동안의 추측을 통계적으로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타전공으로 전공별로 바꾸어 편입학하는 것은 대학의 경우, 교육계열과 인문계열(28.5%, 29.6%)에서 많으며, 전문대에서는 공학계열과 인문·사회계열(23.1%)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취업에 적합한 분야로 전공을 바꾸어 재진학하는 추세가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8> 편입학자 비율(성, 전공, 학교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전문대		대학교	
	편입	편입비율	편입	편입비율
전체	172	(1.4)	1,881	(14.1)
성	남	93	1,027	(14.7)
	여	79	854	(13.5)
전공	인문계열	14	259	(12.7)
	사회계열	39	362	(12.7)
	교육계열	8	258	(21.3)
	공학계열	54	540	(15.3)
	자연계열	17	207	(10.5)
	의약계열	14	104	(20.0)
	예체능계열	26	151	(12.6)
	설립	156	(1.3)	1,018
유형	5	(2.6)	763	(23.4)

* 학교유형 미관찰, 전문대 166명, 대학교 1,205명

<표 III-19> 편입학생의 유사전공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문대				대학교				
	전체	전문대	유사전공 대학	타전공 대학	전체	전문대	유사전공 대학	타전공 대학	
전체	164 (100.0)	106 (64.6)	24 (14.6)	34 (20.7)	1,826 (100.0)	1,202 (65.8)	304 (16.6)	320 (17.5)	
성	남	88 (100.0)	54 (61.4)	13 (14.8)	21 (23.9)	981 (100.0)	633 (64.5)	173 (17.6)	175 (17.8)
	여	76 (100.0)	52 (68.4)	11 (14.5)	13 (17.1)	845 (100.0)	569 (67.3)	131 (15.5)	145 (17.2)
전공	인문계열	(100.0)	(69.2)	(7.7)	(23.1)	(100.0)	(48.8)	(21.6)	(29.6)
	사회계열	(100.0)	(61.1)	(16.7)	(22.2)	(100.0)	(65.1)	(15.4)	(19.4)
	교육계열	(100.0)	(75.0)	(12.5)	(12.5)	(100.0)	(56.3)	(18.0)	(25.8)
	공학계열	(100.0)	(63.5)	(13.5)	(23.1)	(100.0)	(74.5)	(17.1)	(8.4)
	자연계열	(100.0)	(66.7)	(20.0)	(13.3)	(100.0)	(66.7)	(16.7)	(16.7)
	의약계열	(100.0)	(85.7)	(0.0)	(14.3)	(100.0)	(78.2)	(5.9)	(15.8)
	예체능계열	(100.0)	(53.8)	(23.1)	(23.1)	(100.0)	(72.7)	(14.7)	(12.7)
설립 유형	사립	148 (100.0)	93 (62.8)	23 (15.5)	32 (21.6)	985 (100.0)	621 (63.0)	187 (19.0)	177 (18.0)
	국공립	5 (100.0)	3 (60.0)	1 (20.0)	1 (20.0)	750 (100.0)	554 (73.9)	76 (10.1)	120 (16.0)

주: 편입학자 중 653명 무응답 및 학교유형 미관찰. 전문대 11명, 대학교 91명

마.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교과과정의 구성’과 ‘강의 내용과 수준’, 그리고 ‘취업능력 향상’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만족도(5점척도)를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커리큘럼이나 강의내용에는 만족하지만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상대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20>~<표 III-22>에서 ‘교과과정의 구성’과 ‘강의 내용과 수준’은 만족이 43-46%, 보통이 45-44%, 불만족이 12-10%인데 비해 ‘취업능력 향상’에 대하여는 만족이 33%, 보통이 40%, 불만족인 25%이다.

전문대와 대학교에 대하여 ‘만족’의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과과정의 구성’과 ‘강의 내용과 수준’에 대하여는 대학교가 전문대 보다 만족도가 높으며, ‘취업능력 향상’에 대하여는 전문대가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세계와의 연계성을 중시하는 전문대 교육의 특성을 감안할 때, 상식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졸업생들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직장생활을 경험한 결과 대학교의 교육과정이 '취업과의 연계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성, 전공, 학교유형별로 이 세가지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성과 학교유형별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공별로는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과과정 구성'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비율이 대학교와 전문대 모두에서 공학과 자연계(대학교: 39%, 전문대: 38%)가 다른전공계열(대학교: 47%, 전문대: 4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강의내용과 수준'에 대하여는 대학교의 경우, 인문계와 의약계(51-54.7%)가 전문대 경우, 교육계(64.5%)가 만족도가 높다. 셋째, '취업능력 향상'에 대하여는 의약계 대학교(60%)과 교육계 전문대(63.5%)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20> 전공 및 학업내용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전문대			대학교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교과과정 의 구성	전체	12.0	46.5	41.5	12.1	43.8	44.1	
	성	남성	13.2	45.6	41.2	13.1	43.3	43.6
		여성	11.0	47.2	41.8	11.0	44.4	44.6
	전공	인문계열	9.8	45.9	44.3	10.6	38.7	50.7
		사회계열	11.5	45.2	43.3	10.6	44.9	44.5
		교육계열	5.1	34.4	60.5	10.6	38.0	51.4
		공학계열	13.5	50.4	36.1	13.7	46.7	39.6
		자연계열	12.5	47.7	39.8	13.2	46.5	40.3
		의약계열	9.4	45.7	44.8	14.2	41.3	44.4
		예체능계열	12.5	42.8	44.7	12.6	43.7	43.8
	설립 유형	국공립	10.0	46.8	43.2	10.9	43.7	45.4
사립		12.0	46.4	41.5	12.6	44.1	43.2	
강의내용 과 수준	전체	10.8	44.5	44.7	9.3	41.8	48.9	
	성	남성	11.7	42.8	45.5	9.8	41.1	49.1
		여성	10.0	45.8	44.2	8.7	42.6	48.7
	전공	인문계열	8.8	45.5	45.7	8.5	36.8	54.7
		사회계열	10.7	44.1	45.2	9.3	43.1	47.6
		교육계열	5.3	30.1	64.5	8.7	39.1	52.3
		공학계열	11.6	47.8	40.6	9.4	43.9	46.7
		자연계열	10.5	43.0	46.4	10.0	41.9	48.1
		의약계열	8.9	40.7	50.4	7.3	41.7	51.0
		예체능계열	11.9	42.8	45.3	10.5	43.9	45.6
	설립 유형	국공립	11.6	36.8	51.6	9.6	40.8	49.6
사립		10.8	44.6	44.6	9.4	42.5	48.1	
취업능력 향상에 도움 정도	전체	24.4	40.0	35.5	26.9	41.7	31.3	
	성	남성	25.6	39.4	35.0	27.1	40.8	32.1
		여성	23.4	40.5	36.0	26.6	42.8	30.5
	전공	인문계열	24.2	49.5	26.3	31.2	43.1	25.7
		사회계열	23.6	39.0	37.4	26.1	43.5	30.4
		교육계열	6.4	30.1	63.5	20.9	36.2	42.9
		공학계열	26.7	41.5	31.8	26.0	41.8	32.1
		자연계열	28.5	39.6	31.9	32.4	44.7	22.8
		의약계열	16.9	33.8	49.3	11.2	28.8	60.0
		예체능계열	25.3	39.2	35.5	28.0	41.4	30.6
	설립 유형	국공립	19.5	42.1	38.4	27.4	40.3	32.3
사립		24.5	39.9	35.6	26.6	42.4	31.0	

*전문대: 결측값의 개수 : 교과과정: 5개, 강의만족도: 7개, 취업능력의 도움정도 25개

*대학교: 결측값의 개수: 커리큘럼: 4개, 강의만족도: 4개, 취업능력의 도움정도 26개

IV.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준비

가. 중등단계에서 고등교육단계로 이동

일반적으로 직업세계로 나가기 위한 준비는 전문대 및 대학교 진학 이후부터 시작된다.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전문대 및 대학교에 진학하는 최근의 고학력화 보편화 추세로 이러한 현실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¹⁵⁾ 즉, 보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경쟁이 고등교육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보다 좋은 학교, 보다 좋은 학과를 선택하기 위한 치열한 입시경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고교계열에 따른 대학전공별 진학상황을 살펴보면, 전문대와 대학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전문대의 경우는 고교계열중 실업고 출신의 전체의 44.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대학교의 경우에는 인문계(문과)출신이 전체의 46.6%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⁶⁾ 그밖에 전문대의 경우에는 실업고 출신에 이어서 인문계(문과)와 인문계(이

15) 2004학년도 고교졸업생의 진학현황을 살펴보면, 82.1%가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일반고 출신이 88.3%, 실업고 출신이 67.6%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표> 2004학년도 고교졸업생의 진학현황

(단위:명,%)

	졸업(A)	진학(B)	진학율(B/A)
일반고	399,013	352,344	88.3
실업고	170,259	115,164	67.6
합 계	569,272	467,508	82.1

16) 인문계의 문과와 이과를 모두 합치면 전문대와 대학교 모두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교계열과 전공선택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분류하여 분

과) 출신이 각각 33.5%와 20.2%를 차지해 이들 3개출신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0%에 달해, 이들을 제외한 외국어고, 과학고, 예체능계, 검정고시 출신은 단지 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학교의 경우에는 인문계(문과)에 이어 인문계(이과)가 42.0%에 달해 인문계 출신이 전체에서 86.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문대와 달리 실업고출신의 비중이 8.9%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어고, 과학고, 예체능계, 검정고시 출신의 비중이 전문대 보다는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교계열별 대학진학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전문대 보다는 대학교의 고교계열별 출신성향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문대와 대학교 간의 기능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의 전공별 고교계열별 출신비중을 살펴보면, 고교계열에 따른 대학진학 상황이 더욱 뚜렷하게 보여진다. 먼저, 전문대의 경우에는 실업고 출신은 화공(62.8%), 산업(58.5%), 컴퓨터·통신(57.6%)등 공학계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인문계(문과)의 경우는 유아교육(60.8%), 음악(56.2%), 언어·문학(53.6%)등 주로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의 경우에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양상은 인문계(문과)는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인문계(이과)는 자연과학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고교계열과 대학전공간에는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석하였다.

<표 IV-1> 고교계열별 전공별 진학 현황(전문대)

(단위: %)

구 분	인문계 (문과)	인문계 (이과)	외국어고	과학고	예체능계	실업고	검정고시	전체
전체	33.5	20.2	0.08	0.05	1.2	44.3	0.7	100.0
언어·문학	53.6	8.4	0.0	0.1	0.6	36.9	0.4	100.0
인문과학	47.3	9.8	0.0	0.9	0.9	40.2	0.9	100.0
경영·경제	32.8	15.5	0.1	0.1	0.3	50.3	1.1	100.0
법률	25.0	16.7	0.0	0.0	0.0	58.3	0.0	100.0
사회과학	41.1	13.9	0.1	0.0	0.9	42.9	1.2	100.0
교육일반	42.3	15.4	0.0	0.0	3.9	38.5	0.0	100.0
유아교육	60.8	13.7	0.0	0.0	0.6	24.6	0.3	100.0
특수교육	36.4	9.1	0.0	0.0	0.0	54.6	0.0	100.0
건축	21.3	30.0	0.0	0.2	0.2	47.7	0.7	100.0
토목·도시	22.7	30.0	0.0	0.0	0.0	46.5	0.8	100.0
교통·운송	18.2	30.3	0.0	0.0	0.0	51.5	0.0	100.0
기계·금속	13.5	27.5	0.0	0.0	0.0	58.2	0.8	100.0
전기·전자	15.4	26.2	0.0	0.0	0.3	57.6	0.5	100.0
정밀·에너지	47.4	26.3	0.0	0.0	1.8	23.7	0.9	100.0
소재·재료	35.6	21.2	0.0	0.0	1.0	41.4	1.0	100.0
컴퓨터·통신	20.5	20.3	0.0	0.0	0.8	57.6	0.8	100.0
산업	23.1	18.5	0.0	0.0	0.0	58.5	0.0	100.0
항공	11.6	25.6	0.0	0.0	0.0	62.8	0.0	100.0
기타	24.3	19.1	0.0	0.0	0.0	56.3	0.4	100.0
농림·수산	32.8	16.4	0.0	0.0	1.5	46.3	3.0	100.0
생물·화학·환경	25.2	32.2	0.0	0.0	0.3	41.8	0.5	100.0
생활과학	41.1	19.3	0.2	0.0	0.2	38.8	0.4	100.0
수학·물리·천문·지리	40.4	17.0	0.0	0.0	0.0	40.4	2.1	100.0
간호	44.7	40.4	0.4	0.0	0.4	14.0	0.0	100.0
치료·보건	44.3	32.8	0.0	0.1	0.3	21.9	0.7	100.0
디자인	34.6	18.3	0.2	0.1	3.2	43.0	0.6	100.0
응용예술	38.2	14.4	0.2	0.0	2.6	44.0	0.6	100.0
무용·체육	40.9	15.1	0.3	0.0	6.5	36.3	0.9	100.0
미술·조형	44.6	3.6	0.0	0.0	14.3	35.7	1.8	100.0
연극·영화	47.7	25.0	0.0	0.0	9.1	18.2	0.0	100.0
음악	56.2	10.3	0.4	0.0	6.6	25.4	1.2	100.0

<표 IV-2> 고교계열별 전공별 진학 현황(대학교)

(단위: %)

구 분	인문계 (문과)	인문계 (이과)	외국어고	과학고	예체능계	실업고	검정고시	전체
전체	46.6	42.0	0.50	0.14	1.5	8.9	0.4	100.0
언어·문학	82.2	6.8	1.5	0.1	0.2	8.6	0.7	100.0
인문과학	78.9	8.7	0.3	0.0	0.6	10.5	1.0	100.0
경영·경제	77.8	10.9	0.5	0.0	0.1	10.5	0.3	100.0
법률	77.1	11.1	0.4	0.0	0.4	9.7	1.4	100.0
사회과학	76.7	13.1	0.2	0.0	0.3	9.1	0.7	100.0
교육일반	59.1	13.8	2.2	0.0	1.1	22.1	1.7	100.0
유아교육	65.6	9.5	0.0	0.0	0.0	24.1	0.8	100.0
특수교육	77.6	20.4	0.0	0.0	0.0	2.0	0.0	100.0
초등교육	61.1	37.7	0.0	0.0	0.0	1.2	0.0	100.0
중등교육	55.9	37.6	1.7	0.2	2.1	2.6	0.0	100.0
건축	10.7	77.1	0.2	0.2	0.0	11.1	0.7	100.0
토목·도시	8.4	79.5	0.0	0.3	0.3	11.4	0.0	100.0
교통·운송	13.1	86.9	0.0	0.0	0.0	0.0	0.0	100.0
기계·금속	9.2	80.2	0.0	0.0	0.0	10.6	0.0	100.0
전기·전자	7.9	82.8	0.0	0.2	0.0	9.1	0.0	100.0
정밀·에너지	7.4	83.8	0.0	0.0	1.5	7.4	0.0	100.0
소재·재료	14.4	79.6	0.0	0.9	0.0	5.2	0.0	100.0
컴퓨터·통신	15.4	67.9	0.3	0.0	0.0	16.1	0.4	100.0
산업	9.4	81.3	0.0	0.0	0.0	9.4	0.0	100.0
화공	18.4	74.8	0.0	1.2	0.0	5.6	0.0	100.0
기타	13.1	76.5	0.0	0.0	0.0	10.4	0.0	100.0
농림·수산	20.9	65.5	0.0	0.0	0.0	13.7	0.0	100.0
생물·화학·환경	11.3	84.7	0.1	0.3	0.0	3.5	0.1	100.0
생활과학	36.9	54.2	0.6	0.2	0.0	7.8	0.4	100.0
수학·물리	100.0
천문·지리	16.1	81.6	0.4	0.2	0.2	1.3	0.2	100.0
의료	6.2	90.7	1.6	1.0	0.0	0.5	0.0	100.0
간호	29.4	67.7	1.0	0.0	0.0	2.0	0.0	100.0
약학	31.0	65.5	0.0	1.7	0.0	1.7	0.0	100.0
치료·보건	39.6	53.7	0.0	0.0	0.0	6.1	0.6	100.0
디자인	53.7	25.4	0.9	0.0	8.1	11.9	0.0	100.0
응용예술	61.2	23.8	0.5	0.0	3.9	10.2	0.5	100.0
무용·체육	53.7	14.1	0.0	0.7	20.1	11.4	0.0	100.0
미술·조형	59.2	9.2	1.0	0.0	22.8	7.8	0.0	100.0
연극·영화	51.4	22.9	2.9	0.0	14.3	8.6	0.0	100.0
음악	60.1	8.8	0.4	0.0	22.8	8.0	0.0	100.0

나. 고등교육단계에서 직업의 준비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자신이 원하는 직장 및 직업을 얻기 위하여 취업준비를 하고 구직활동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통상 전문대 학생의 경우는 졸업을 앞둔 시점인 2학년 재학시, 대학교 학생의 경우는 4학년 재학시 주로 직업세계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는 보통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 경험을 미리 한다든지, 학원 및 직업훈련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TOEIC, TOEFL 등 외국어 시험을 통한 점수를 취득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준비한다. 또한 국가고시 준비 및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도 한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2001년도 조사(김형만 외, 2002)에서는 이러한 취업준비 노력들이 유의한 수준에서 취업률에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직업세계로 나가기 위한 준비단계를 이러한 직업의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재학 중 일한 경험과 이러한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표 IV-3>에서 보듯이 정규직 취업, 시간제 취업, 현장실습, 창업 등 재학 중 경험이 가능한 여러 가지 일자리 중 시간제 취업을 통한 일 경험이 200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2005년 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중 64.3%가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현장실습 20.1%, 정규직 취업 8.9% 등의 순서였다.

이러한 유형별 일자리에 대한 경험결과는 2003년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재학중 일한 경험이 2003년 조사와 비교시 2005년에는 정규직 취업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낮아졌는데,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 전반의 고용사정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러한 일한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시간제 취업은 많은 졸업생들이 재학 중 경험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취업에 큰 도움이 못되는 반면에 정규직 취업이나 현장실습을 경험한 졸업생의 비율은 낮지만 한번 경험하면 이러한 경험이 향후 취업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음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학교·급별로는 전문대의 경우가 대학교보다 재학시 정규직 및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시간제 취업의 경우는 대학교 학생들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V-3> 재학 중 일한 경험

(단위: %)

구 분		전문대		대학교		전체	
		2003	2005	2003	2005	2003	2005
정 규 직	없음	88.0	80.4	93.8	86.5	91.1	84.0
	있음	12.0	19.6	6.2	13.5	8.9	16.0
시간제 취업 ¹⁾	없음	42.1	47.8	30.3	36.9	35.7	41.4
	있음	57.9	52.3	69.7	63.1	64.3	58.6
현장실습	없음	68.1	72.1	90.1	88.5	79.9	81.7
	있음	31.9	27.9	9.9	11.5	20.1	18.3
창 업	없음	99.5	98.9	99.2	98.2	99.4	98.5
	있음	0.5	1.1	0.8	1.8	0.6	1.5

주 : 1) 개인 과외지도는 제외함.

직업세계로 나가기 위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학원 및 직업훈련 학원의 수강을 들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학중의 수강현황과 졸업 후 취업전까지의 수강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재학중 수강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관련학원, 외국어학원, 인문사회계 학원, 경영실무회계학원, 예체능계학원, 이공계 관련학원 등 재학 중 수강이 가능한 여러 가지 학원중 외국어학원 수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중 27.3%가 재학중 외국어학원을 수강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통신관련학원 8.9% 등의 순서였다. 이 두 학원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학원수강 경험은 거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도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문대와 대학교 모두에 있어서 외국어 학원의 수강 경험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정보통신관련학원의 수강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교 학생들의 학원 수강 비중이 전문

대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외국어 학원 수강의 경우에는 대학교의 경우는 40.3%가 수강 경험이 있는 반면, 전문대의 경우에는 13.8%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4> 대학 재학중 학원 이수 경험

(단위: %)

구 분	전문대		대학교		전체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정보통신관련학원	93.0	7.0	89.2	10.8	91.1	8.9
외국어학원	86.2	13.8	59.7	40.3	72.7	27.3
인문사회계 학원	99.4	0.6	98.0	2.0	98.7	1.3
경영실무계학원	98.1	1.9	97.4	2.6	97.8	2.2
예체능계학원	97.8	2.2	98.2	1.9	98.0	2.0
이공계 관련 학원	97.6	2.4	98.1	1.9	97.8	2.2

다음으로, 졸업후 취업전까지 학원 및 직업훈련학원의 수강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관련학원, 외국어학원, 인문사회계 학원, 경영실무회계학원, 예체능계학원, 이공계 관련학원 등에서 재학중과 마찬가지로 외국어학원 수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중 9.5%가 외국어학원을 수강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통신관련학원 2.5% 등의 순서였다. 비록 재학중과 마찬가지로 졸업이후에도 취직을 대비한 학원 수강은 외국어학원과 정보통신관련학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학중과 비교시 전반적인 수강비중은 크게 낮아져 졸업후 학원수강은 재학중과는 달리 학생들의 취업 준비 방법으로는 활용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급별로도 재학중의 수강 양상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전문대와 대학교 모두에 있어서 외국어 학원의 수강 경험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정보통신관련학원의 수강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대학 졸업후 취업전까지 학원/직업훈련 이수 경험

(단위: %)

구 분	전문대		대학교		전체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정보통신관련학원	97.5	2.5	97.5	2.6	97.5	2.5
외국어학원	92.7	7.3	88.4	11.6	90.5	9.5
인문사회계 학원	99.3	0.7	97.7	2.3	98.5	1.5
경영실무계학원	99.0	1.0	99.0	1.0	98.9	1.1
예체능계학원	98.8	1.2	99.2	0.8	99.0	1.0
이공계 관련 학원	99.0	1.0	99.5	0.5	99.3	0.7

다음으로 <표 IV-6>와 <표 IV-7>은 설문대상 졸업생들의 전문대 및 대학교 재학시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 자격증 취득 노력들이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학벌중심의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출신대학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논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졸업생들의 절반 이상이 재학 중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대학교(55.6%)보다는 전문대 졸업생들의 취득률(59.6%)이 높은 실정에 있다. 다만, 2003년 조사에 비해서 2005년 조사에서는 대학교의 취득률은 증가(51.5%→55.6%)했으나 전문대의 취득률은 감소(67.9%→59.6%)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구분하면,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전공분야에서 취득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일정한 패턴이 없이 전공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취득한 자격증이 2003년 조사에는 평균적으로는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소 높았으나 2005년 조사에서는 전공과 불일치한 경우가 더욱 높아졌다.

비록, 전공 및 학과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자격증 취득 노력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사회적 비효율성(social inefficiency)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표 IV-6> 자격증 취득 현황과 취득당시 전공일치 여부(전문대)

(단위: %)

구 분	2003			2005		
	있음	전공일치	불일치	있음	전공일치	불일치
전체	67.9	47.4	20.5	59.6	23.1	36.5
언어·문학	56.1	26.4	29.7	45.7	28.5	17.2
인문과학	68.8	35.9	32.8	74.1	37.5	36.6
경영·경제	63.5	32.3	31.2	53.9	27.5	26.4
법률	50.0	7.1	42.9	66.7	66.7	0.0
사회과학	77.7	43.8	33.8	68.7	35.0	33.7
교육일반	95.7	73.9	21.7	69.2	15.4	53.8
유아교육	86.3	73.0	13.3	83.7	17.5	66.2
특수교육	93.3	86.7	6.7	100.0	40.0	60.0
건축	63.6	45.6	18.0	49.7	18.6	31.1
토목·도시	67.9	56.7	11.2	50.3	12.3	38.0
교통·운송	63.6	63.6	-	54.6	24.2	30.4
기계·금속	69.6	52.1	17.5	62.5	13.4	49.1
전기·전자	72.7	63.6	9.1	63.3	14.1	49.2
정밀·에너지	75.6	68.3	7.3	77.0	30.8	46.2
소재·재료	49.2	25.4	23.8	49.0	27.4	21.6
컴퓨터·통신	73.6	61.1	12.5	63.2	16.5	46.7
산업	67.6	43.2	24.3	52.3	26.2	26.2
화공	61.1	37.0	24.1	60.5	36.3	24.2
기타	59.0	35.2	23.8	53.3	28.1	25.2
농림·수산	30.0	10.0	20.0	50.8	23.1	27.7
생물·화학·환경	60.8	31.4	29.4	50.6	25.3	25.3
생활과학	63.2	44.3	18.8	71.2	23.6	47.6
수학·물리·천문·지리	76.2	42.9	33.3	68.1	31.9	36.2
간호	78.1	57.7	20.4	89.0	35.9	53.1
치료·보건	76.5	57.1	19.3	69.5	25.9	43.6
디자인	53.1	32.8	20.3	45.5	24.3	21.2
응용예술	64.4	43.3	21.1	56.8	22.4	34.4
무용·체육	82.2	69.9	12.3	81.8	13.2	68.6
미술·조형	72.7	50.0	22.7	64.3	23.9	40.4
연극·영화	18.2	-	18.2	22.7	15.9	6.8
음악	43.9	31.7	12.2	57.0	16.1	41.0

<표 IV-7> 자격증 취득 현황과 취득당시 전공일치 여부(대학교)

(단위: %)

구 분	2003			2005		
	있음	전공일치	불일치	있음	전공일치	불일치
전체	51.5	27.7	23.9	55.6	27.0	28.6
언어·문학	42.7	14.9	27.8	46.3	32.0	14.3
인문과학	52.6	20.8	31.8	43.1	31.2	11.9
경영·경제	53.7	28.5	25.2	50.9	29.0	21.9
법률	32.1	1.5	30.7	44.4	37.1	7.3
사회과학	56.6	20.3	36.3	60.6	34.3	26.3
교육일반	87.2	52.6	34.6	72.9	36.7	36.2
유아교육	90.2	53.7	36.6	85.1	22.0	63.1
특수교육	78.9	36.8	42.1	87.8	39.7	48.1
초등교육	88.9	52.8	36.1	98.2	70.4	27.8
중등교육	84.0	46.4	37.6	89.7	53.7	36.0
건축	57.7	44.6	13.1	68.5	16.8	51.7
토목·도시	75.2	67.8	7.4	66.4	13.5	52.9
교통·운송	46.9	25.9	21.0	50.5	18.7	31.8
기계·금속	37.9	20.0	17.9	42.9	21.9	21.0
전기·전자	43.3	34.0	9.3	45.3	10.3	35.0
정밀·에너지	56.5	30.4	26.1	50.0	23.5	26.6
소재·재료	31.8	7.6	24.2	40.4	25.6	14.8
컴퓨터·통신	68.7	64.0	4.7	75.3	10.6	64.7
산업	49.6	23.5	26.1	47.7	21.7	26.0
화공	41.4	10.9	30.5	41.2	26.5	14.7
기타	44.6	29.2	15.4	54.9	19.2	35.7
농림·수산	50.0	23.7	26.3	58.3	35.7	22.6
생물·화학·환경	46.9	17.1	29.9	50.1	35.3	14.8
생활과학	63.9	36.5	27.4	58.9	27.3	31.6
수학·물리	54.5	8.9	45.5	.	.	.
천문·지리	51.2	24.4	26.8	52.5	30.3	22.2
의료	79.6	74.1	5.6	86.2	5.2	81.1
간호	84.6	53.8	30.8	88.2	22.1	66.2
약학	88.1	79.7	8.5	91.4	10.3	81.1
치료·보건	79.1	58.1	20.9	76.8	34.7	42.1
디자인	26.3	19.9	6.5	28.4	13.0	15.4
응용예술	26.1	11.6	14.5	45.6	24.3	21.3
무용·체육	67.7	54.2	13.5	67.8	12.2	55.6
미술·조형	17.4	6.7	10.7	28.2	12.6	15.6
연극·영화	9.5	-	9.5	20.0	14.3	5.7
음악	15.1	5.4	9.7	19.8	9.7	10.1

최근 채용방법이 대규모 공채위주에서 수시채용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신규인력 채용시 다른 조건 못지 않게 TOEIC, TOEFL 등 외국어 시험성적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도 이러한 기업의 요구에 반응하여 외국어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V-8>은 이러한 외국어 시험의 경험 유무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에 의하면, 외국어 시험 경험이 있는 학생은 응답자 중 2003년 38.2%에서 2005년에는 32.9%로 소폭 감소했으나, 학교·급별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대학교 졸업생의 경우가 외국어 시험 경험이 있는 비율(49.5%)이 2003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2005년 조사에도 전문대 졸업생의 비율(15.4%)보다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대학교의 경우는 비중이 감소(58.4%→49.5%)한 반면, 전문대의 경우는 비중이 증가(14.7%→15.4%)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앞의 자격증 취득현황과 결부하여 여전히 전문대 학생의 경우는 취업의 준비수단으로서 외국어 시험보다는 자격증 취득을 선호하며, 반대로 대학교 학생의 경우는 자격증 취득보다는 외국어 시험을 선호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IV-8> 외국어 시험 경험

(단위: 명, %)

구 분	없 음		있 음		전 체	
	2003	2005	2003	2005	2003	2005
전 체	8,668 (61.8)	17,249 (67.1)	5,358 (38.2)	8,446 (32.9)	14,026 (100.0)	25,695 (100.0)
전문대	5,533 (85.3)	10,612 (84.6)	,950 (14.7)	1,933 (15.4)	6,483 (100.0)	12,545 (100.0)
대학교	3,135 (41.6)	6,637 (50.5)	4,408 (58.4)	6,513 (49.5)	7,543 (100.0)	13,150 (100.0)

주: ()은 비중임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후 직업세계로 나갈 준비를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직업 세계 대신에 학문세계를 선택하여 진학을 하거나 또는 다른 분야로 전공을 바꿔서 편입하거나 재입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졸업후 편입 또는 진학하는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았다.

졸업후 편입 또는 진학을 하는 학생들의 비중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17.2%가 편입 내지 진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유형을 보면, 편입 내지 진학한 학생을 100%로 볼 때, 이중 편입이 4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동일계 진학(26.6%), 비동일계 진학(2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대학교가 18.9%의 비중을 차지해 전문대의 15.4% 보다 소폭이나마 큰 비중을 보였으나, 그 유형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대학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편입/진학한 학생의 47.1%가 동일계 진학, 38.1%가 비동일계 진학 등으로 전반적으로 대학원 진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문대의 경우에는 편입/진학한 학생의 84.5%가 편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대의 특성상 2년과정을 마치고 4년제 대학의 3년과정으로 편입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9> 졸업후 편입/입학 현황

(단위: %)

구 분	전문대	대학교	전 체
전 체	100.0	100.0	100.0
無 편입/진학	84.6	81.1	82.8
有 편입/진학	15.4	18.9	17.2
편입	84.5	7.4	41.2
입학	10.7	7.1	8.6
동일계 진학	0.0	47.4	26.6
비동일계 진학	4.9	38.1	23.6

이처럼 졸업후에도 편입 내지 진학을 하는 동기를 살펴보면, 전공공부를 계속하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선택되었다. 전문대와 대학교 모두에 있어서 전공공부 계속이 각각 42.7%, 5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전공을 변경한 후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이유도 전문대와 대학교에서 모두 두 번째로 높은 25.1%, 1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전문대의 경우에는 학력상승 이유가 16.2%, 대학교의 경우에는 졸업후 좋은 직장을 얻기위해서라는 이유가 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졸업당시 취업난과 사회적 평판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전문대나 대학교 모두에 있어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졸업후 편입 내지 진학하는 이유는 현재의 공부를 계속하거나 전공을 바꿔서 원하는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이유가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10> 졸업후 편입/입학의 주된 이유

(단위: %)

구 분	전문대	대학교	전 체
전 체	100.0	100.0	100.0
전공 계속 공부	42.7	59.7	52.2
전공변경후 계속 공부	25.1	15.4	19.6
학력 상승	16.2	9.6	12.5
사회적 평판 좋은 학교가기 위해	3.3	1.0	2.0
졸업당시 취업난	3.8	2.4	3.0
졸업후 좋은 직장 얻기 위해	7.2	9.8	8.6
주변의 권유	0.7	0.3	0.5
기 타	1.1	2.0	1.5

2.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

가. 이행 과정 검토 자료

본 절은 학교세계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다루며, 학교를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졸업이후 진학을 한 경우는 배제하였으며, 직장을 다니며 학교를 다닌 경우도 배제하였다.¹⁷⁾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문대 졸업예정자들은 2학년 초부터 졸업을 앞둔 시점에,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은 4학년 부터 졸업을 앞둔 시점을 전후로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졸업이전 취업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학기의 취업은 포함하였다.

진학 및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배제하여 수정된 표본의 규모는, 2005년 조사된 2003년 대학 졸업자 전체표본의 73.6%, 2003년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에는 70.3%이다. 성별로는 대학 졸업자중 여성 72.3%, 남성 74.3%가, 전문대 졸업자에서는 여성 73.2%, 남성 66.7%에 해당한다. 한편, 2003년 조사된 2001년 졸업자에 있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수정된 표본의 비율은 대학 졸업자 62.7%, 전문대 졸업자 53.8%이다.

이렇게 원래의 표본에 대한 수정된 표본의 크기가 2003년 졸업자와 2001년 졸업자 간에 나타나는 것은, 주로 진학자비율의 차이에 기인한다. 전반적으로 2001년 졸업자의 2001년~2002년 취업여건이 2003년 졸업자의 2003~2004년 취업에 비하여 어려웠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검토는 다음 소절의 구직기간에 대한 분석에서 이루어 질것이다.

17) 진학의 경우, 조사 시점 현재 학교를 다니는 경우이다. 한편, 군입대의 경우도 진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히는 본 분석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나 하나, 자료의 한계로 이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표 IV-11> 학교로부터 직장 이행 검토를 위한 표본 규모

(단위: 명, %)

구 분		원래의 표본(A)		수정된 표본(B)		B/A	
		2003	2005	2003	2005	2003	2005
전문대	여성	3,980	7,043	2,144	5,153	53.9	73.2
	남성	2,503	5,688	1,342	3,794	53.6	66.7
	계	6,483	12,731	3,486	8,947	53.8	70.3
대학교	여성	3,369	6,341	2,062	4,617	61.2	72.8
	남성	4,174	6,969	2,670	5,176	64.0	74.3
	계	7,543	13,310	4,732	9,793	62.7	73.6

나. 졸업 후 첫 직장 구직기간

수정된 표본을 이용하여 2003년 졸업자의 첫 직장 구직기간에 대한 분포를 보면, 대학졸업자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33%가 졸업이전에 취업을 하고 거의 비슷한 인원이 졸업후 6개월안에 취업을 하였으며, 졸업이후 2년내 취업을 못한 인원은 10% 정도로 나타난다. 전문대 졸업자에서는 졸업 이후 6개월까지 70%가 취업을 하였으며, 졸업이후 2년내 취업을 못한 인원은 8.4%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 간에 구직기간은 대학졸업자의 구직기간이 약간 긴 것으로 나타나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성별로 비교할 때는, 대졸자에서는 남성의 취업이 여성보다 구직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전문대졸업자에서는 여성의 취업이 남성보다 구직기간이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12> 졸업후 첫직장 구직기간 분포

(단위: %)

구분	전문대			대학교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03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개월전~ 졸업	3.3	2.8	4.1	1.5	1.8	1.4
졸업 ~ 6개월	4.9	4.2	6.0	2.9	3.4	2.5
6개월 ~ 12개월	29.4	30.0	28.4	26.3	23.5	28.4
12개월 ~ 18개월	29.9	32.1	26.3	27.7	30.9	25.2
18개월 ~ 24개월	11.9	11.1	13.1	14.3	12.4	15.8
~ 2년	20.7	19.9	22.1	27.3	28.1	26.7
2005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개월전~졸업	32.6	32.6	30.2	33.3	26.7	32.6
졸업 ~ 6개월	38.7	35.9	35.3	32.8	38.2	40.7
6개월 ~ 2개월	9.0	10.3	8.5	8.7	8.3	8.0
12개월 ~ 18개월	6.4	7.1	7.0	6.7	7.3	5.9
18개월 ~ 24개월	5.0	6.2	6.8	8.3	5.1	4.0
~ 2년	8.4	8.0	12.2	10.2	14.4	8.8

2003년 졸업자의 첫 직장 구직기간 분포를 2001년 졸업자의 구직기간 분포와 비교할 때, 2003년 졸업자의 구직기간이 상당히 짧아졌다. 2001년도에는 대학 졸업자중 졸업 6개월 전부터 졸업 후 6개월까지 취업을 한 비율이 여성 5.2%, 남성 3.9%에 불과하며, 전문대 졸업자에서도 졸업 6개월 전부터 졸업 후 6개월까지 취업을 한 비율이 여성 7.0%, 남성 10.1%이다. 2001년 졸업자는 졸업 후 6개월부터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였다.

한편, 졸업자의 첫 직장 구직기간에 대한 분포를 계열별로 비교하면, 졸업후 6개월까지 취업한 인원비율이 여성 대학졸업자의 경우에는 의학계열 72.7%, 예체능계열 70.8%, 공학계열 69.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도 의학계열 84.1%, 예체능계열 69.9%, 공학계열 66.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 졸업자에 있어서는 여성의 경우에 사범계열 86.8%, 의학계열 82.7%, 공학계열 74.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의학계열 74.4%, 공학계열 70.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졸업후 2년까지 취업을 못하고 있는 비율은, 대졸자에서는 여성의 경우 사범계

열 20.1%, 인문계열 16.7%, 남성의 경우에도 사범계열 17.5%, 등으로 나타난다. 전문대 졸업자에서는 여성의 경우 인문계열 14.3%, 자연계열 13.2%, 남성의 경우에도 사범계열 16.7% 등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의학계열의 경우 구직기간이 짧고 취업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사범계열의 경우에는 전문대 여성졸업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이 가장 어려웠던 전공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전공별 취업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간에 있어서 취업 용이성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전공별 구직기간에 대한 논의가 성별로 구분되어져야 함을 나타낸다.

<표 IV-13> 전공별 첫직장 구직기간 분포(전문대)

(단위: %)

성	전공	6개월 전 ~졸업	졸업~ 6개월	6개월~ 12개월	12개월~ 18개월	18개월~ 24개월	~2년	계
여성	인문	25.0	42.2	9.4	4.9	4.1	14.3	100.0
	사회	34.4	38.0	8.4	5.7	3.8	9.7	100.0
	사범	46.3	40.5	3.3	2.9	2.1	5.0	100.0
	공학	36.7	37.5	8.2	6.6	4.3	6.6	100.0
	자연	28.9	39.5	6.5	7.8	4.1	13.2	100.0
	의학	29.5	53.3	6.4	4.4	2.7	3.9	100.0
	예체능	30.3	40.0	9.1	6.5	4.9	9.2	100.0
남성	인문	18.3	46.3	6.1	14.6	4.9	9.8	100.0
	사회	29.2	34.9	12.1	7.9	7.1	8.8	100.0
	사범	33.3	33.3	0.0	16.7	0.0	16.7	100.0
	공학	36.0	34.6	10.5	6.0	6.1	6.8	100.0
	자연	28.0	39.4	9.3	8.1	6.2	9.0	100.0
	의학	29.3	45.0	5.4	7.0	5.8	7.4	100.0
	예체능	29.1	34.1	11.2	8.8	6.1	10.7	100.0

<표 IV-14> 전공별 첫직장 구직기간 분포(대학교)

(단위: %)

성	전공	6개월 전 ~졸업	졸업~ 6개월	6개월~ 12개월	12개월~ 18개월	18개월~ 24개월	~2년	계
여성	인문	26.6	35.0	9.1	7.3	5.3	16.7	100.0
	사회	30.6	33.7	10.6	7.3	4.5	13.4	100.0
	사범	11.7	51.1	4.1	10.1	2.9	20.1	100.0
	공학	31.5	38.0	6.3	6.6	7.2	10.4	100.0
	자연	30.3	32.5	8.4	6.3	7.0	15.6	100.0
	의학	23.4	49.3	9.8	4.9	2.9	9.8	100.0
	예체능	31.0	39.8	10.1	6.6	4.6	7.9	100.0
남성	인문	35.6	29.3	9.5	9.5	5.9	10.3	100.0
	사회	34.3	31.2	9.5	6.9	5.8	12.2	100.0
	사범	10.3	53.1	6.7	7.7	4.6	17.5	100.0
	공학	34.7	31.8	8.6	5.7	10.6	8.5	100.0
	자연	33.2	27.3	9.4	6.9	10.6	12.6	100.0
	의학	15.2	68.9	4.3	6.1	3.1	2.4	100.0
	예체능	40.1	29.8	7.5	7.8	5.7	9.2	100.0

한편, 대학소재지별로 2003년 졸업자의 첫 직장 구직기간에 대한 분포를 비교하면, 대학졸업자의 경우 졸업후 6개월이내까지 취업한 인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충북 74.4%, 대구 71.4%, 강원 71.2%로 나타난다. 전문대에서는 울산에 소재한 전문대가 80.5%로 가장 높은 가운데, 인천 78.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이한 것은 대구지역의 경우 졸업 직전에 이미 57%의 취업에 이르고 있으나, 졸업 이후에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된다. 다른 한편, 졸업후 2년까지 취업을 못하고 있는 비율에 있어서는, 대학의 경우에 전남 16.6%, 제주 15.6%, 서울 15.4%로 나타나며, 전문대에서는 강원 17.0%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간 구직기간의 차이에 대한 해석은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동일 지역내에서도 대학별 학과별 차이가 매우 심한 상황에서, 어느 특정지역 출신 대학의 취업이 타 특정 지역의 대학보다 취업이 용이하다거나 어렵다거나 하는 해석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표 IV-15> 지역별 첫직장 구직기간 분포

(단위: %)

지역	6개월전~ 졸업	졸업~ 6개월	6개월~ 12개월	12개월~ 18개월	18개월~ 24개월	~2년	계
전문대							
서울	32.9	39.3	7.5	6.1	5.4	8.9	100.0
부산	34.8	37.8	7.7	6.5	4.7	8.5	100.0
대구	35.9	35.8	9.0	6.7	4.2	8.5	100.0
광주	29.4	35.5	11.8	4.5	6.1	12.7	100.0
대전	29.1	34.3	8.9	5.4	9.1	13.3	100.0
인천	36.4	42.1	9.2	5.5	2.2	4.8	100.0
울산	40.7	39.8	4.2	5.1	2.5	7.6	100.0
경기	32.2	40.0	9.9	6.3	4.6	7.1	100.0
강원	32.4	33.3	3.9	6.9	5.9	17.7	100.0
충북	30.0	42.3	6.1	5.5	6.5	9.6	100.0
충남	30.8	33.8	8.3	9.0	7.1	10.9	100.0
경북	29.8	40.1	10.0	7.4	4.7	8.0	100.0
경남	34.2	38.3	10.9	6.8	3.0	6.8	100.0
전북	30.7	37.2	8.5	9.1	7.5	7.0	100.0
전남	30.0	36.4	6.5	7.3	6.9	13.0	100.0
제주	39.0	34.2	8.5	2.4	3.7	12.2	100.0
대학교							
서울	31.5	31.6	7.5	6.9	7.2	15.4	100.0
부산	31.9	35.7	8.6	8.3	6.1	9.5	100.0
대구	57.1	14.3	14.3	0.0	0.0	14.3	100.0
광주	18.3	42.5	9.3	9.5	6.0	14.4	100.0
대전	27.9	35.4	10.9	7.5	6.5	11.7	100.0
인천	31.6	33.6	9.0	5.1	9.8	10.9	100.0
울산	34.4	34.8	7.6	5.8	8.0	9.4	100.0
경기	33.9	34.3	10.1	5.9	5.3	10.5	100.0
강원	26.1	45.1	7.1	7.9	4.7	9.1	100.0
충북	28.4	45.9	7.9	4.3	4.8	8.6	100.0
충남	34.6	35.3	9.7	5.8	6.6	8.0	100.0
경북	29.0	37.3	8.8	7.9	7.7	9.3	100.0
경남	27.8	30.5	8.6	8.6	12.6	11.9	100.0
전북	23.0	42.1	8.1	7.3	8.1	11.5	100.0
전남	30.2	33.7	9.5	4.1	5.9	16.6	100.0
제주	25.0	42.2	3.1	9.4	4.7	15.6	100.0

다. 구직 강도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구직강도는 면접횟수로 파악하기로 한다. 2003년 졸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가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면접횟수가 1.5~2.5회 많은 것이 나타난다. 가장 면접을 많이 수행한 집단은 취업경험이 있는 대졸 남성으로서,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평균 3.7회 면접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대졸 여성 및 전문대 졸업자의 2.3~2.6회보다 1회 정도 더 면접을 수행한 것이다. 이는 대졸 남성의 구직기간이 타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파도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IV-16> 첫 취업까지 면접횟수

(단위: 개월)

면접횟수		2003		2005	
		취업경험 有	취업경험 無	취업경험 有	취업경험 無
전문대	여성	2.4(3.2)	1.6(2.2)	2.3(3.1)	0.9(1.7)
	남성	2.5(3.6)	2.1(3.3)	2.5(5.8)	1.3(2.4)
대학교	여성	2.6(4.1)	1.5(4.2)	2.6(4.2)	0.7(1.7)
	남성	3.6(5.2)	2.0(5.4)	3.7(5.5)	1.7(4.3)

주: 1)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면접횟수

2) 괄호안은 각각의 표준편차.

한편, 2001년 졸업자와 비교하면,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첫 직장까지 면접횟수의 차이는 별로 없다. 앞서 검토에서 보여진 것처럼 2001년 졸업자의 2001~2002년 취업상황과 2003년 졸업자의 2003~2004년 취업상황에서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구직기간의 차이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면접횟수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평균 2~4회 면접을 거쳐 첫 직장을 구하는 경향은 비슷한 가운데, 2001년 졸업자의 2001~2002년 취업상황에서는 취

업기회도 축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라. 구직 조건

임금수준은 취업을 결정하는 여러 변수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다. Stigler(1962)는 구직자들은 구직대상 기업에 의한 제시임금(offered wage)을 본인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과 비교하여 이직 또는 취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¹⁸⁾ 직업이나 고용형태, 근무형태 등의 여러 조건들도 취업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보다 많은 임금을 제의하는 직장으로 취업하려고 할 것이다(장홍근, 2002). 이에 따라 의중임금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의중임금수준에 대응하는 정책처방 등으로 실업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cf. Lancaster, 1979).

의중임금에 대한 비교에서는 2003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한 남성중 취업경험이 있는 이들은 평균 2,217.4만원(여기에서의 임금은 연봉임),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1,866.1만원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하여 취업경험이 없는 남성은 2244.3만원, 여성은 1879.2만원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대를 졸업한 취업경험이 있는 남성은 1,760만원을, 여성은 1,439.7만원을 기대하였으며, 취업경험이 없는 남성은 1,682.9만원, 여성은 1970.6만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경험유무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지는 못하다.

취업경험유무에 따른 의중임금차이를 2001년 졸업자에 대하여 비교하면, 대졸 여성에서는 취업경험이 있는 집단과 취업경험이 없는 집단간 의중임금의 격차가 줄어드는 데 비하여, 전문대 졸 여성에서는 취업경험유무에 따른 의중임금의 격차가 다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전문대 졸 남성에서도 취업경험이 있는 집단과 취업경험이 없는 집단간 의중임금의 격차가 2001년 졸업자에 비하여 2003년 졸업자 집단에서 늘어났다.

18) 탐색(Job Search) 이론에 따르면 의중임금과 제시임금간 차이가 실업을 결정한다.

<표 IV-17> 의중임금(연봉)

(단위: 만원)

의중임금		2003		2005	
		취업경험 有	취업경험 無	취업경험 有	취업경험 無
전문대	여성	1340.2(418.7)	1403.1(406.8)	1439.7(390.1)	1682.9(537.4)
	남성	1617.3(481.5)	1657.6(392.6)	1760.4(492.9)	1895.2(587.9)
대학교	여성	1784.6(568.4)	1846.4(546.4)	1866.1(502.9)	1879.2(559.6)
	남성	2151.2(560.2)	2136.4(542.6)	2217.4(596.1)	2244.3(617.3)

주) 괄호안의 숫자는 각각의 표준편차.

의중임금과 첫 직장에서의 실제임금의 차이를 성별로 비교하면, 2003년 졸업자에서 남성은 실제임금보다 의중임금이 낮고 여성은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2003년 졸업자의 경우에 남성의 의중임금이 첫 직장에서의 임금 보다 141만~164만원이 낮은 수준으로, 2001년 졸업자에 비하여 일반적인 임금상승보다 의중임금 상승이 낮게 올라 간 것이다. 한편, 여성 졸업자의 경우에도 2003년 졸업자의 의중임금이 일반적인 임금보다 낮게 올라가기는 했으나, 아직은 의중임금의 수준이 실제 임금 보다 다소 높다.

<표 IV-18> 의중임금과 실제 초임간 차이 (=의중임금-실제초임)

(단위: 만원)

구분		2003	2005
전문대	여성	138.9(417.4)	22.1(453.3)
	남성	150.8(448.7)	-164.1(850.5)
대학교	여성	282.2(599.4)	25.7(626.5)
	남성	202.9(588.3)	-141.5(709.3)

주) 괄호안의 숫자는 각각의 표준편차.

의중임금과 초임 차이를 좀 더 상세히 비교하여 보자. 2003년도 여성 대졸 취업자의 67%는 의중임금과 실제초임간의 차이가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71%가 100만원 미만 의중임금과 실제 초임간 차이를 보인다. 전문대 졸업자에서도 유사하게, 여성취업자의 67%, 남성취업자의 75%가 의중임금과 실제초임간의 차이가 100만원 미만이다. 이에 비하여 2001년도에는 대졸자의 경우 의중임금과 실제초임간의 차이가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난 비율이 대졸 여성취업자의 91%, 남성 취업자의 92%이었다. 또한 전문대 졸업 취업자에서는 여성의 90%, 남성의 95%가 의중임금과 실제초임간의 차이가 100만원 미만이었다. 전반적으로 2001년 졸업자의 2001~2002년 취업에 비하여 2003년 졸업자의 2003~2004년 취업에서 의중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이가 증대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졸업자에 비하여 2003년 졸업자의 취업여건이 나아지면서 의중임금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IV-19> 의중임금과 실제 임금 차이의 분포

(단위: %)

구분	2003				2005			
	전문대		대학교		전문대		대학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00만원	90.2	94.7	90.6	91.8	67.2	75.4	67.2	71.4
100만원 ~ 200만원	1.1	0.8	2.5	1.1	4.3	3.0	7.1	4.4
200만원 ~ 500만원	4.8	2.5	5.5	4.8	15.1	10.6	17.0	13.7
500만원 ~ 1000만원	2.9	1.7	1.2	1.9	9.9	7.5	7.3	8.2
1,000만원 ~	1.0	0.4	0.2	0.4	3.6	3.5	1.5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마. 직업선택시 고려요소

2003년 졸업자에 대한 조사중 ‘구직과정중 직업선택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한 요소’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이 답변된 것은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다.¹⁹⁾ 이어서

직업전망, 고용안정성, 보수, 전공일치도 등이 답변되고 있는데, 이들간의 순서는 취업경험 유무, 학교유형별, 성별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표 IV-20> 직업선택의 중요 고려 사항

(단위: %)

구 분	취업경험 有			취업경험 無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문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수	20.7	22.3	18.6	15.1	15.9	13.8
고용안정성	19.7	19.1	20.5	20.6	19.6	22.3
개인 발전가능성	27.9	27.0	28.9	30.2	29.8	30.9
직업전망	20.6	18.8	23.1	21.4	20.8	22.3
사회적지위	0.8	1.0	0.6	0.5	0.5	0.5
전공일치성	8.9	10.3	7.0	9.7	10.8	7.7
기타	1.5	1.6	1.4	2.6	2.6	2.4
대학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수	13.3	15.3	14.4	11.0	8.6	9.9
고용안정성	20.2	18.0	19.0	24.6	24.5	24.5
개인 발전가능성	33.4	34.7	34.1	30.3	32.5	31.3
직업전망	15.6	19.0	17.4	15.7	15.5	15.6
사회적지위	1.6	1.1	1.3	1.7	1.2	1.5
전공일치성	14.7	10.6	12.5	13.5	14.3	13.9
기타	1.3	1.4	1.4	3.2	3.4	3.3

직업선택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한 요소에 대한 응답비율의 차이는 학교유형별, 취업경험 유무별, 성별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²⁰⁾ 학교유형별×취업경험 유무

19) 2003년에 수행된 2001년 졸업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 항목에 대한 조사가 없어서 금번 2005년 수행된 2003년 졸업자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할 수는 없다.

20) 여기에서의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은, χ^2 -검증결과 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여부를 평가한 것이다.

별×성별 비교에서 흥미로운 사항은,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성별 응답비율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나,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성별 응답비율의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은 것이다.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전문대 졸업자 여성에게는 ‘개인발전가능성’에 이어 ‘보수’가 직업선택에서 두 번째로 많이 답변된 항목인데 비해, 전문대 졸업자 남성에게는 ‘개인발전가능성’에 이어 ‘직업전망’이 답변되고 있다. 대학 졸업자 여성에게는 ‘개인발전가능성’에 이어 ‘고용안정성’이, 대학 졸업자 남성에게는 ‘개인발전가능성’에 이어 ‘직업전망’이 답변비율이 높다.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대 졸업자에게서는 남녀 모두에서 ‘개인발전가능성’에 이어 ‘직업전망’과 ‘고용안정성’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대학 졸업에서는 ‘개인발전가능성’에 이어 ‘고용안정성’의 비율이 높으며, 남녀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학교를 마치고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개인발전가능성인 가운데, ‘사회적 지위’보다 ‘발전 가능성’을 중요시 하는 것은 실리적인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대체로 ‘보수’보다 ‘전망’에 대한 답변비율이 높은 것은 현재의 취업조건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을 보인다.

한편, ‘전공일치성 여부’에 대한 답변 비율은 대체로 ‘전망’ 및 ‘고용안정성’보다 낮다. 특히 전문대 졸업자에서 ‘전공일치성 여부’에 대한 답변 비율은 더욱 낮으며, 대체로 여성에 비하여 남성에서 낮다. 직업선택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한 요소에 대한 응답비율에서, ‘전공일치성 여부’가 ‘개인발전가능성’, ‘직업전망’, ‘고용안정성’등에 비하여 덜 고려된다는 것은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분절적임을 시사한다.²¹⁾

21) 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검토는, 이공계를 중심으로 하여 별도로 수행한다.

바. 학교취업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

앞 소절에서 직업선택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한 요소에 대한 응답비율간 비교에서 ‘전공일치성 여부’에 대한 응답비율로 볼 때,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분절적임이 시사된다고 하였다. 본 소절에서는 재학중 구직활동과정에서 ‘학교내 취업지원(정보)센터’가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을 통해 학교교육과 노동시장간 연계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학교내 취업지원(정보)센터’가 취업에 ‘별로 도움 안되었거나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는 답변을 부정적인 평가로, ‘다소 도움이 되었’거나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을 긍정적 평가로 간주할 때, 전체적으로는 77%가 부정적이고 23%만이 긍정적이다.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하면, 취업경험이 없는 집단의 부정적인 평가가 83.4%, 취업경험이 있는 집단의 부정적인 평가가 76.6%로 나타나며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다.²²⁾ 또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답변이 학교유형별로는 전문대 78.1%, 대학 76.6%, 성별로는 여성 78.5%, 남성 76.1%로 나타나며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부정적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취업경험이 없는 대졸 여성집단의 86.6%이고, 가장 낮은 집단은 취업경험이 있는 대졸 남성집단의 72.8%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앞서 ‘전공일치성 여부’에 대한 응답비율에서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분절적임이 시사된 것과 함께,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개선을 위해서는 교내 취업지원(정보)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전문대에서 역할 강화가 더욱 요청된다.

22) 여기에서의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도, χ^2 -검증결과 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여부를 평가한 것이다.

<표 IV-21> 2003년 대학졸업자의 학교내 취업지원(정보)센터 만족도

(단위: %)

구 분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다소 도움	매우 도움	계	
전체	전체	41.2	36.2	18.4	4.3	100.0	
	전문대	42.0	36.2	17.6	4.2	100.0	
	대학교	40.4	36.2	19.0	4.4	100.0	
	여 성	42.2	36.2	17.9	3.7	100.0	
	남 성	40.0	36.1	18.9	5.0	100.0	
취업경험 有	계	전체	40.4	36.2	18.8	4.6	100.0
		여성	41.2	36.3	18.5	4.0	100.0
		남성	39.6	36.1	19.1	5.2	100.0
	전문대	여성	40.0	36.1	18.9	5.0	100.0
		남성	42.2	37.3	16.0	4.6	100.0
		전체	41.4	36.3	17.9	4.4	100.0
	대학교	여성	41.6	37.3	17.4	3.7	100.0
		남성	37.6	35.2	21.5	5.7	100.0
		전체	39.5	36.2	19.6	4.8	100.0
	취업경험 無	계	전체	47.5	35.9	14.8	1.8
여성			50.5	35.3	13.2	1.1	100.0
남성			43.4	36.9	17.0	2.8	100.0
전문대		여성	49.3	35.4	14.2	1.2	100.0
		남성	45.0	36.1	15.5	3.4	100.0
		전체	47.7	35.7	14.6	2.0	100.0
대학교		여성	51.5	35.1	12.4	1.0	100.0
		남성	42.5	37.3	17.8	2.4	100.0
		전체	47.3	36.1	14.9	1.6	100.0

V. 졸업생 노동시장 성과 및 노동이동

1. 취업구조

가. 산업별·직종별 특성

신규 졸업자들이 취업 상태인지 미취업 상태인지를 살펴보는 것과 아울러 어느 직장에 취업하였으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본인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는가 등과 같은 취업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고등교육 졸업자의 최근 노동시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는 지금과 같이 경제·사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공이 필요하며, 자신의 학력 및 적성에 가장 적합한 직업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때 개인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현재의 전공별 취업여건, 취업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때 각 개인들은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MF 경제위기 이후 직업의 개념이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바뀌면서 사회진출의 출발선에 있는 많은 청소년층들에게는 직업 선택의 신중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는 한번 잘못 선택한 직업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적·비용적 낭비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지불, 그리고 취업능력(employability)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V-1>부터 <표 V-4>까지는 취업자의 취업구조를 산업별, 직업별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최근 졸업자들이 어떠한 산업으로 취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의 경우 건설업, 도소매숙박업등 3차산업 취업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77.3%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졸의 경우에는 같은 수치

가 77.7%로서 전문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중 3차산업 취업자 비중이 72.8%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신규취업중 서비스업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에 맞춰 신규일자리 창출이 주로 서비스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제조업의 일자리는 절대수는 증가하지만 그 비중은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의 신규일자리 창출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학과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문대에서는 특수교육, 대학에서는 유아교육, 특수교육, 의료, 간호 등은 100.0%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과 산업간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²³⁾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구조를 분석해보면,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자 모두 관리·전문·준전문직의 비중이 가장 높아, 이들 직종에 대한 취업자 비율이 전문대졸은 취업자의 47.6%, 대졸은 6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이 직업생애의 초기에 관리·전문직에 종사하기 때문은 아니며, 학원강사 등과 같은 준전문직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취업의 질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는 학과별 관리·전문·준전문직 비중현황을 살펴보면, 전문대에서는 특수교육, 간호, 치료보건, 음악, 등이, 대학에서는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의료, 간호, 약학, 치료·보건, 디자인, 미술·조형, 음악 등이 80%이상의 비중을 보여 취업의 질이 좋음을 나타냈다.

23) 앞의 제Ⅱ장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직업분류(occupation classification)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가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기술수준(skill level)을 기준으로 분류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가, 고위임직원 등 신규 졸업자들이 바로 진입이 불가능한, 이른바 진입단계(entry level)에서의 제약이 존재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취업통계의 대부분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통계의 호환성 측면에서 유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V-1> 전공·산업 취업구조 행렬(전문대)

(단위: %)

산 업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 업	전기운수 창고 및 금융업	사업개인 및 공공 서비스업	전 체
전 체	0.2	22.5	6.3	14.2	8.2	48.5	100.0
언어 문학	0.0	20.0	2.6	20.2	16.7	40.4	100.0
인문과학	0.0	10.2	3.4	13.6	5.7	67.0	100.0
경영 경제	0.2	23.8	3.5	23.4	16.8	32.4	100.0
법률	0.0	30.0	0.0	10.0	0.0	60.0	100.0
사회과학	0.3	12.8	2.3	10.8	10.4	63.5	100.0
교육일반	0.0	5.3	10.5	15.8	5.3	63.2	100.0
유아교육	0.0	1.1	0.0	1.8	2.9	94.2	100.0
특수교육	0.0	0.0	0.0	0.0	0.0	100.0	100.0
건축	0.2	14.9	29.4	8.2	4.6	42.6	100.0
토목 도시	0.3	13.0	42.9	7.5	3.4	32.9	100.0
교통 운송	0.0	16.7	0.0	6.7	36.7	40.0	100.0
기계 금속	0.7	43.2	4.3	10.4	8.8	32.7	100.0
전기 전자	0.2	37.1	10.4	11.1	8.1	33.2	100.0
정밀에너지	0.0	13.3	2.2	65.6	3.3	15.6	100.0
소재 재료	0.0	43.8	1.4	24.7	4.1	26.0	100.0
컴퓨터 통신	0.1	29.1	5.3	13.0	9.8	42.6	100.0
산업	0.0	35.6	0.0	18.6	6.8	39.0	100.0
화공	0.0	71.1	2.6	5.3	5.3	15.8	100.0
기타	0.0	51.4	4.1	11.7	6.3	26.6	100.0
농림 수산	11.3	17.0	7.5	20.8	1.9	41.5	100.0
생물 화학 환경	0.0	38.0	5.6	11.2	6.9	38.3	100.0
생활과학	0.3	18.7	2.6	42.1	5.2	31.2	100.0
수학물리천문지리	0.0	33.3	2.8	2.8	5.6	55.6	100.0
간호	0.0	0.0	0.0	0.5	0.0	99.5	100.0
치료 보건	0.0	14.2	2.5	4.8	3.4	75.1	100.0
디자인	0.0	24.9	6.0	14.0	5.4	49.6	100.0
응용예술	0.0	15.4	2.1	14.1	3.6	64.8	100.0
무용 체육	0.0	9.8	0.4	11.3	3.0	75.5	100.0
미술 조형	0.0	10.3	0.0	6.9	10.3	72.4	100.0
연극 영화	0.0	8.6	0.0	5.7	5.7	80.0	100.0
음악	0.0	4.1	0.0	4.1	1.0	90.7	100.0

<표 V-2> 전공·직업 취업구조 행렬(전문대)

(단위: %)

직 종	관리/전문/ 준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숙련기능직	조 작 및 단순노무직	전 체
전 체	47.6	35.5	8.0	0.1	8.7	100.0
언어 문학	29.9	55.7	11.7	0.0	2.7	100.0
인문 과학	51.1	43.2	4.5	0.0	1.1	100.0
경영 경제	17.4	67.4	10.5	0.1	4.6	100.0
법률	20.0	60.0	10.0	0.0	10.0	100.0
사회 과학	40.3	48.6	7.2	0.1	3.7	100.0
교육 일반	26.3	63.2	10.5	0.0	0.0	100.0
유아 교육	91.4	6.8	1.8	0.0	0.0	100.0
특수 교육	100.0	0.0	0.0	0.0	0.0	100.0
건축	63.3	26.5	4.0	0.4	5.8	100.0
토목 도시	68.5	19.8	4.3	0.3	7.1	100.0
교통 운송	45.2	25.8	6.5	0.0	22.6	100.0
기계 금속	37.4	22.3	4.0	0.0	36.3	100.0
전기 전자	46.6	23.2	4.7	0.0	25.5	100.0
정밀 에너지	67.8	10.0	14.4	0.0	7.8	100.0
소재 재료	48.6	33.8	8.1	0.0	9.5	100.0
컴퓨터 통신	36.2	49.7	3.9	0.2	10.0	100.0
산업	35.6	37.3	8.5	0.0	18.6	100.0
화공	41.0	33.3	0.0	0.0	25.6	100.0
기타	41.3	33.8	8.0	0.0	16.9	100.0
농림 수산	50.9	20.8	18.9	3.8	5.7	100.0
생물 화학 환경	38.2	37.6	6.9	0.7	16.7	100.0
생활 과학	32.7	30.7	30.2	0.0	6.4	100.0
수학 물리 천문 지리	58.3	36.1	2.8	0.0	2.8	100.0
간호	99.5	0.5	0.0	0.0	0.0	100.0
치료 보건	76.7	14.1	4.7	0.0	4.5	100.0
디자인	61.0	25.5	7.7	0.1	5.7	100.0
응용 예술	45.5	27.5	22.9	0.0	4.1	100.0
무용 체육	68.8	15.8	8.6	0.0	6.8	100.0
미술 조형	76.7	13.3	10.0	0.0	0.0	100.0
연극 영화	77.1	20.0	2.9	0.0	0.0	100.0
음악	85.1	10.3	3.6	0.0	1.0	100.0

<표 V-3> 전공·산업 취업구조 행렬(대학교)

(단위: %)

산 업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전 기 운수창고 및금융업	사업개인 및 공공 서비스업	전 체
전 체	0.2	22.1	5.3	9.2	9.2	54.0	100.0
언어 문학	0.0	15.7	2.7	15.2	12.7	53.7	100.0
인문과학	0.2	14.6	1.9	11.1	10.1	62.1	100.0
경영 경제	0.2	27.3	3.8	15.5	20.2	33.0	100.0
법률	0.0	10.6	4.0	7.1	19.7	58.6	100.0
사회과학	0.0	12.3	3.1	10.1	11.1	63.4	100.0
교육일반	0.0	5.9	0.8	5.9	5.9	81.5	100.0
유아교육	0.0	3.9	0.6	1.3	2.6	91.6	100.0
특수교육	0.0	0.0	0.0	0.0	0.0	100.0	100.0
초등교육	0.0	0.0	0.0	0.0	0.0	100.0	100.0
중등교육	0.0	3.4	0.5	1.8	2.5	91.8	100.0
건축	0.0	3.2	46.2	2.7	1.9	46.2	100.0
토목 도시	0.0	8.0	32.7	2.7	5.3	51.3	100.0
교통 운송	1.3	56.4	7.7	5.1	15.4	14.1	100.0
기계 금속	0.0	62.8	5.0	4.4	7.5	20.3	100.0
전기 전자	0.0	47.5	4.9	4.2	13.1	30.2	100.0
정밀에너지	0.0	25.9	1.7	12.1	8.6	51.7	100.0
소재 재료	0.0	60.0	3.4	6.9	3.4	26.3	100.0
컴퓨터 통신	0.2	24.1	3.4	6.9	8.5	57.0	100.0
산업	0.0	52.3	2.9	7.5	8.0	29.3	100.0
화학	0.0	58.2	0.5	5.8	7.4	28.0	100.0
기타	0.0	41.3	9.3	7.3	10.0	32.0	100.0
농림 수산	3.8	17.1	8.6	13.3	7.6	49.5	100.0
생물 화학 환경	0.7	28.4	4.5	10.4	8.4	47.6	100.0
생활과학	0.5	26.7	2.3	24.9	5.0	40.6	100.0
수학물리천문지리	0.0	20.6	2.2	8.9	11.4	56.9	100.0
의료	0.0	0.0	0.0	0.0	0.0	100.0	100.0
간호	0.0	0.0	0.0	0.0	0.0	100.0	100.0
약학	0.0	26.4	0.0	52.8	0.0	20.8	100.0
치료 보건	0.0	5.0	2.9	3.6	3.6	84.9	100.0
디자인	0.4	23.9	4.6	9.3	2.1	59.6	100.0
응용예술	0.0	18.9	0.6	6.9	5.0	68.6	100.0
무용 체육	0.0	7.4	1.6	6.6	5.7	78.7	100.0
미술 조형	0.7	12.9	2.2	4.3	2.2	77.7	100.0
연극 영화	0.0	11.1	7.4	3.7	7.4	70.4	100.0
음악	0.0	1.0	0.0	2.5	2.5	93.9	100.0

<표 V-4> 전공·직업 취업구조 행렬(대학교)

(단위: %)

직 종	관리/전문/ 준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숙련기능직	조 작 및 단순노무직	전 체
전 체	64.0	30.8	3.1	0.1	2.0	100.0
언어 문학	51.4	43.8	2.9	0.0	1.9	100.0
인문과학	54.7	37.1	5.4	0.2	2.6	100.0
경영 경제	29.0	65.4	4.4	0.0	1.2	100.0
법률	38.1	50.5	6.9	0.0	4.5	100.0
사회과학	49.6	43.8	5.9	0.0	0.6	100.0
교육일반	72.3	24.4	2.5	0.0	0.8	100.0
유아교육	90.3	5.8	3.2	0.0	0.6	100.0
특수교육	91.7	6.3	2.1	0.0	0.0	100.0
초등교육	100.0	0.0	0.0	0.0	0.0	100.0
중등교육	89.6	7.9	2.0	0.0	0.5	100.0
건축	87.1	11.1	1.3	0.3	0.3	100.0
토목 도시	78.1	20.8	0.4	0.0	0.8	100.0
교통 운송	76.3	21.3	2.5	0.0	0.0	100.0
기계 금속	69.3	22.4	1.4	0.0	6.9	100.0
전기 전자	77.8	16.3	1.3	0.0	4.6	100.0
정밀에너지	69.0	27.6	0.0	0.0	3.4	100.0
소재 재료	69.9	26.1	1.7	0.0	2.3	100.0
컴퓨터 통신	70.7	23.4	1.8	0.0	4.1	100.0
산업	61.3	35.8	0.6	0.0	2.3	100.0
화공	72.3	23.6	2.1	0.0	2.1	100.0
기타	60.1	35.8	0.7	0.0	3.4	100.0
농림 수산	51.4	31.4	5.7	4.8	6.7	100.0
생물 화학 환경	60.6	33.6	2.6	0.2	3.0	100.0
생활과학	60.2	33.1	5.5	0.0	1.3	100.0
수학물리천문지리	62.0	33.6	2.8	0.0	1.7	100.0
의료	100.0	0.0	0.0	0.0	0.0	100.0
간호	96.8	3.2	0.0	0.0	0.0	100.0
약학	90.4	9.6	0.0	0.0	0.0	100.0
치료 보건	80.0	17.1	0.7	0.0	2.1	100.0
디자인	86.5	7.8	3.6	0.0	2.1	100.0
응용예술	72.5	20.6	4.4	0.0	2.5	100.0
무용 체육	74.6	18.9	2.5	0.0	4.1	100.0
미술 조형	85.4	6.6	6.6	0.7	0.7	100.0
연극 영화	70.4	22.2	7.4	0.0	0.0	100.0
음악	92.3	5.1	2.0	0.0	0.5	100.0

나. 직장유형별 · 기업규모별 특성

졸업생들이 어떠한 유형의 직장을 선택하고 있는가도 취업의 질과 전반적인 고용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표 V-5>와 <표 V-7>를 중심으로 직장유형별 취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 모두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로의 취업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로의 취업비중은 전문대가 78.7%로서 대학의 67.1%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로부터 고용창출에 있어서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취업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민간기업의 고용여력을 확충시켜 나갈 필요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의 경우 공사, 대학,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으로의 취업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문대가 일반기업체로의 취업을 예정하고 직업교육 중심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음에 비해 대학은 다양한 직업세계로의 진출에 보다 유리한 여건에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문대와 비교하여 대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초중고 교육기관으로의 취업비중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교사의 자격이 4년제 대졸이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하고 있는 직장규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V-6>과 <표 V-8>에서 보듯이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 모두 9인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중 9인이하 사업체 종사자의 규모는 전문대 33.1%, 대학 23.7%로서 전문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상의 2003년 9인이하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45.3%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이 범주의 사업체 규모에 속하는 취업자 비중이 전문대와 대학 모두에서 낮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이 우리사회의 평균적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장환경이 유리한 대기업에 취업하는 특성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전문대보다는 대학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00인이상 기업체 종사자 비중은 전문대졸 근로자의 9.7%, 대졸 근로자의

16.0%로 각각 나타났다. 이것을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상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중 300인이상 사업체 근로자비중 12.2%(2003년)과 비교하면, 전문대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평균보다 300인상 취업자 비중이 더 낮지만 대학의 경우에는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신규학졸자에 대한 대기업 취업의 문호는 전문대졸에게 조차 지극히 제한적으로 열려 있을 뿐, 대부분 대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5> 직장유형별 취업현황(전문대)

(단위: %)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정부투자 출연기관 공사합동 기업	대 학	교육기관 (초/중/고)	정부기관	기 타	전 체
전 체	78.7	2.6	1.2	3.2	2.7	11.6	100.0
언어 문학	86.2	2.4	0.4	1.5	2.7	6.8	100.0
인문과학	53.3	6.7	7.8	20.0	1.1	11.1	100.0
경영 경제	87.8	2.9	0.8	0.8	2.8	4.9	100.0
법률	80.0	0.0	0.0	0.0	10.0	10.0	100.0
사회과학	59.9	5.0	1.7	5.1	8.9	19.4	100.0
교육일반	63.2	0.0	0.0	10.5	21.1	5.2	100.0
유아교육	46.0	2.2	0.4	46.4	0.4	4.6	100.0
특수교육	44.4	11.1	0.0	11.1	0.0	33.4	100.0
건축	91.3	1.9	0.8	0.2	2.1	3.7	100.0
토목 도시	87.4	4.0	0.6	0.0	5.2	2.8	100.0
교통 운송	80.6	16.1	0.0	0.0	3.2	0.1	100.0
기계 금속	92.4	2.7	0.2	0.2	1.3	3.2	100.0
전기 전자	88.9	2.7	1.7	1.1	1.4	4.2	100.0
정밀에너지	88.9	0.0	2.2	0.0	2.2	6.7	100.0
소재 재료	90.7	0.0	0.0	2.7	1.3	5.3	100.0
컴퓨터 통신	85.5	2.9	0.9	2.6	2.1	6.0	100.0
산업	88.1	6.8	0.0	3.4	1.7	0.0	100.0
화공	97.4	0.0	0.0	0.0	0.0	2.6	100.0
기타	93.8	1.3	0.4	1.8	0.4	2.3	100.0
농림 수산	77.4	5.7	5.7	0.0	3.8	7.4	100.0
생물 화학 환경	84.4	2.3	2.3	0.7	2.6	7.7	100.0
생활과학	80.3	2.1	2.6	7.9	1.8	5.3	100.0
수학물리천문지리	86.5	2.7	0.0	0.0	10.8	0.0	100.0
간호	2.0	0.0	1.5	0.0	0.5	96.0	100.0
치료 보건	32.3	1.5	1.2	0.3	3.6	61.1	100.0
디자인	91.1	1.3	1.3	1.0	1.6	3.7	100.0
응용예술	85.9	1.8	1.8	1.5	1.5	7.5	100.0
무용 체육	81.3	3.7	1.9	2.6	2.2	8.3	100.0
미술 조형	90.0	0.0	0.0	10.0	0.0	0.0	100.0
연극 영화	74.3	0.0	2.9	0.0	0.0	22.8	100.0
음악	83.5	0.0	0.0	2.6	0.5	13.4	100.0

<표 V-6> 기업규모별 취업현황(전문대)

(단위: %)

직장규모	9인이하	10~29 인	30~49 인	50~99 인	100~299 인	300인이상	전 체
전 체	33.1	23.3	10.0	10.8	13.2	9.7	100.0
언어 문학	30.7	22.0	10.6	8.4	16.1	12.1	100.0
인문과학	28.2	15.3	12.9	18.8	14.1	10.6	100.0
경영 경제	29.1	22.8	10.2	12.0	15.8	10.0	100.0
법률	25.0	50.0	0.0	12.5	0.0	12.5	100.0
사회과학	31.8	22.8	11.1	12.0	10.5	11.7	100.0
교육일반	40.0	20.0	0.0	13.3	0.0	26.7	100.0
유아교육	59.5	36.7	1.1	0.4	1.5	0.8	100.0
특수교육	22.2	55.6	11.1	0.0	11.1	0.0	100.0
건축	28.5	30.2	10.2	9.8	11.2	10.0	100.0
토목 도시	24.5	23.3	12.0	13.9	16.2	10.2	100.0
교통 운송	20.0	15.0	15.0	20.0	25.0	5.0	100.0
기계 금속	24.6	21.8	9.0	14.7	18.4	11.6	100.0
전기 전자	23.3	23.2	14.0	12.5	16.3	10.7	100.0
정밀에너지	64.7	12.9	4.7	4.7	8.2	4.7	100.0
소재 재료	30.3	25.8	15.2	12.1	10.6	6.1	100.0
컴퓨터 통신	24.2	22.7	11.2	14.6	15.4	11.9	100.0
산업	21.9	24.4	9.8	9.8	19.5	14.6	100.0
화공	16.7	16.7	13.3	13.3	10.0	30.0	100.0
기타	28.7	22.7	6.6	16.0	16.6	9.4	100.0
농림 수산	64.4	11.1	6.7	8.9	6.7	2.2	100.0
생물 화학 환경	21.9	21.8	13.4	14.3	17.2	11.3	100.0
생활과학	34.5	22.7	7.9	11.5	11.5	11.8	100.0
수학물리천문지리	15.2	18.2	6.1	24.2	18.2	18.2	100.0
간호	7.2	6.4	4.0	9.6	33.6	39.2	100.0
치료 보건	34.4	27.0	8.6	7.7	12.8	9.4	100.0
디자인	41.2	26.1	11.4	6.9	8.9	5.4	100.0
응용예술	45.1	23.7	9.5	7.4	9.8	4.5	100.0
무용 체육	51.0	18.1	5.3	10.3	8.6	6.6	100.0
미술 조형	64.3	21.4	7.1	7.1	0.0	0.0	100.0
연극 영화	34.5	17.2	24.1	0.0	24.1	0.0	100.0
음악	75.4	9.3	4.9	5.5	4.4	0.5	100.0

<표 V-7> 직장유형별 취업현황(대학교)

(단위: %)

직장유형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정출 연공 기	부 연 사 합 동 업	자 관 합 동 업	대 학	교육기관 (초/중/고)	정부기관	기 타	전 체
전 체	67.1	4.6	3.0	8.6	4.6	12.1	100.0		
언어 문학	71.9	3.9	3.9	5.4	3.9	11.0	100.0		
인문과학	60.2	4.8	8.0	3.4	4.6	19.0	100.0		
경영 경제	83.8	4.4	1.8	1.0	3.0	6.0	100.0		
법률	64.4	7.8	1.5	0.5	18.0	7.8	100.0		
사회과학	57.9	6.7	4.2	3.4	11.7	16.1	100.0		
교육일반	45.4	2.5	3.4	30.3	3.4	15.0	100.0		
유아교육	43.2	1.3	0.6	47.7	1.9	5.3	100.0		
특수교육	10.4	2.1	4.2	68.8	0.0	14.5	100.0		
초등교육	1.2	0.0	0.0	98.8	0.0	0.0	100.0		
중등교육	21.9	0.9	1.6	69.7	0.7	5.2	100.0		
건축	90.3	2.9	1.3	0.3	3.7	1.5	100.0		
토목 도시	79.2	7.5	1.1	0.0	8.7	3.5	100.0		
교통 운송	82.5	7.5	2.5	1.3	1.3	4.9	100.0		
기계 금속	83.9	6.8	0.8	1.4	1.9	5.2	100.0		
전기 전자	74.6	10.9	1.5	0.6	2.6	9.8	100.0		
정밀에너지	71.2	6.8	3.4	5.1	1.7	11.8	100.0		
소재 재료	79.2	5.1	2.2	1.1	1.7	10.7	100.0		
컴퓨터 통신	74.1	4.0	3.5	4.0	3.7	10.7	100.0		
산업	84.6	2.3	1.7	1.1	0.6	9.7	100.0		
화공	77.1	5.2	1.6	3.6	4.2	8.3	100.0		
기타	79.5	7.3	0.0	1.3	4.0	7.9	100.0		
농림 수산	63.6	7.5	2.8	4.7	11.2	10.2	100.0		
생물 화학 환경	71.8	5.2	4.6	2.2	6.1	10.1	100.0		
생활과학	73.4	3.2	4.0	7.9	2.0	9.5	100.0		
수학물리천문지리	70.7	3.8	4.6	4.1	6.0	10.8	100.0		
의료	0.5	1.0	1.6	0.0	21.5	75.4	100.0		
간호	1.1	1.1	1.1	3.2	4.2	89.3	100.0		
약학	75.5	1.9	0.0	0.0	0.0	22.6	100.0		
치료 보건	28.6	1.4	2.9	7.1	2.9	57.1	100.0		
디자인	86.9	0.7	3.9	0.4	0.4	7.7	100.0		
응용 예술	78.3	4.3	3.1	3.1	2.5	8.7	100.0		
무용 체육	65.6	1.6	4.9	12.3	8.2	7.4	100.0		
미술 조형	77.7	2.2	4.3	7.2	0.0	8.6	100.0		
연극 영화	59.3	3.7	3.7	11.1	0.0	22.2	100.0		
음악	57.4	8.1	4.1	8.6	0.0	21.8	100.0		

<표 V-8> 기업규모별 취업현황(대학교)

(단위: %)

직장규모	9인이하	10~29 인	30~49 인	50~99 인	100~299 인	300인이상	전 체
전 체	23.7	19.3	10.9	15.0	15.1	16.0	100.0
언어 문학	25.8	21.7	10.5	15.1	12.7	14.2	100.0
인문과학	36.4	18.2	9.6	11.7	11.4	12.7	100.0
경영 경제	21.2	20.1	10.0	10.7	16.9	21.1	100.0
법률	38.4	13.3	4.2	8.4	18.9	16.8	100.0
사회과학	25.1	24.1	9.6	10.0	16.7	14.5	100.0
교육일반	32.0	21.6	11.3	22.7	6.2	6.2	100.0
유아교육	58.1	29.3	4.0	4.0	1.3	3.3	100.0
특수교육	8.9	22.2	17.8	44.4	6.7	0.0	100.0
초등교육	3.0	22.1	41.4	31.4	2.1	0.0	100.0
중등교육	11.9	14.5	17.4	44.3	10.7	1.2	100.0
건축	18.8	32.5	10.2	11.1	10.5	16.9	100.0
토목 도시	11.4	21.1	13.9	15.5	14.4	23.7	100.0
교통 운송	15.5	6.7	6.7	11.1	31.1	28.9	100.0
기계 금속	10.0	13.4	8.6	11.5	27.3	29.2	100.0
전기 전자	15.2	15.1	10.7	13.4	19.8	25.8	100.0
정밀에너지	19.2	17.0	8.5	19.1	27.7	8.5	100.0
소재 재료	9.6	9.6	7.8	20.9	27.8	24.3	100.0
컴퓨터 통신	13.5	13.9	13.2	19.6	23.3	16.5	100.0
산업	7.6	11.8	13.4	19.3	25.2	22.7	100.0
화공	15.4	13.6	6.4	11.8	25.5	27.3	100.0
기타	6.4	17.0	6.4	13.8	27.7	28.7	100.0
농림 수산	24.1	20.5	12.0	20.5	7.2	15.7	100.0
생물 화학 환경	16.6	22.8	9.9	12.7	17.9	20.1	100.0
생활과학	25.0	23.6	9.8	12.1	13.8	15.7	100.0
수학물리천문지리	19.2	21.5	9.7	17.0	15.6	17.0	100.0
의료	41.8	7.5	5.8	3.3	15.8	25.8	100.0
간호	5.9	3.9	0.0	13.7	25.5	51.0	100.0
약학	62.3	4.4	0.0	2.2	6.7	24.4	100.0
치료 보건	24.0	12.5	12.5	13.4	18.8	18.8	100.0
디자인	37.4	25.7	8.3	11.6	8.3	8.7	100.0
응용예술	41.9	19.1	8.4	12.2	6.9	11.5	100.0
무용 체육	40.0	16.0	13.0	13.0	8.0	10.0	100.0
미술 조형	49.6	18.1	10.2	7.9	7.9	6.3	100.0
연극 영화	26.1	26.1	21.7	8.7	8.7	8.7	100.0
음악	62.3	5.7	12.6	12.6	5.1	1.7	100.0

다. 종사상지위별 · 근로형태별 특성

종사상 지위(Status of workers)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등과 같이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지위상태를 의미한다. <표 V-9>과 <표 V-10>를 중심으로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전문대의 경우에는 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5.7%인 반면,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비중은 94.3%로서 취업자의 절대다수가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중 상용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아 전체 취업자중 82.2%를 차지하였으며, 임시근로자 10.5%, 일용근로자 1.7%로 각각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자영업자가 4.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경우에는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5.6%, 임금근로자 비중이 94.4%로서 대체로 전문대와 유사한 종사상지위별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임금근로자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용근로자는 82.8%였으며, 임시근로자 10.5%, 일용근로자 1.1%를 각각 차지하였다. 비임금근로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4.3%로서 전문대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200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를 경우 전체 취업자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34.0%, 임금근로자 비중은 66.0%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노동시장 진입초기에 있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서 직업생애를 시작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은 이후에 고용주, 자영자 등으로 직업경로를 다양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학과별로 보면 전문대 및 대학 모두에서 음악, 미술조형 학과의 자영자 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에서 자영자 비율이 10%를 넘는 학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악, 미술조형 학과 이외에도 법률, 유아교육, 응용예술, 연극영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표 V-9> 종사상지위별 취업현황(전문대)

(단위: %)

지 위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 사 자	상 용 근로자	임 시 근로자	일 용 근로자	전 체
전 체	1.1	4.5	0.1	82.2	10.5	1.7	100.0
언어 문학	0.7	3.8	0.0	78.4	15.1	2.0	100.0
인문 과학	0.0	3.3	0.0	66.7	26.7	3.3	100.0
경영 경제	1.4	5.2	0.2	84.2	8.1	1.0	100.0
법률	0.0	0.0	0.0	90.0	10.0	0.0	100.0
사회 과학	1.4	3.8	0.0	76.6	16.0	2.2	100.0
교육 일반	0.0	0.0	0.0	89.5	10.5	0.0	100.0
유아 교육	1.4	3.6	0.0	88.8	5.0	1.1	100.0
특수 교육	0.0	0.0	0.0	100.0	0.0	0.0	100.0
건축	2.5	5.0	0.2	83.4	6.4	2.5	100.0
토목 도시	2.2	3.4	0.0	86.2	6.8	1.5	100.0
교통 운송	0.0	0.0	0.0	83.9	12.9	3.2	100.0
기계 금속	1.1	3.6	0.0	86.0	7.6	1.8	100.0
전기 전자	0.6	3.3	0.0	88.5	6.6	1.0	100.0
정밀 에너지	2.2	6.7	0.0	80.0	8.9	2.2	100.0
소재 재료	1.3	0.0	0.0	89.3	9.3	0.0	100.0
컴퓨터 통신	0.6	1.7	0.0	84.9	11.5	1.2	100.0
산업	0.0	1.7	0.0	89.8	6.8	1.7	100.0
화공	0.0	0.0	0.0	82.1	15.4	2.6	100.0
기타	0.4	4.0	0.0	85.0	9.7	0.9	100.0
농림 수산	3.8	24.5	0.0	56.6	13.2	1.9	100.0
생물 화학 환경	1.0	2.3	0.0	84.0	11.1	1.6	100.0
생활 과학	0.5	3.6	0.0	80.8	13.6	1.5	100.0
수학 물리 천문 지리	0.0	0.0	0.0	97.3	0.0	2.7	100.0
간호	0.0	0.0	0.0	94.4	4.6	1.0	100.0
치료 보건	0.6	1.1	0.0	88.9	8.5	0.9	100.0
디자인	1.1	5.5	0.3	80.1	10.6	2.4	100.0
응용 예술	0.5	7.7	0.3	76.7	13.6	1.3	100.0
무용 체육	2.2	18.0	0.4	66.3	9.4	3.7	100.0
미술 조형	0.0	10.0	0.0	80.0	3.3	6.7	100.0
연극 영화	0.0	5.7	0.0	45.7	48.6	0.0	100.0
음악	4.1	20.6	0.0	53.1	19.1	3.1	100.0

<표 V-10> 종사상 지위별 취업현황(대학교)

(단위: %)

지 위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전 체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 사 자	상 용 근로자	임 시 근로자	일 용 근로자	
전 체	1.3	4.3	0.0	82.8	10.5	1.1	100.0
언어 문학	1.3	4.2	0.0	79.4	13.4	1.7	100.0
인문과학	1.4	6.0	0.2	68.7	20.8	2.8	100.0
경영 경제	1.1	3.8	0.0	88.3	6.3	0.5	100.0
법률	2.4	10.7	0.0	73.7	10.2	2.9	100.0
사회과학	1.8	2.9	0.1	84.3	10.1	0.8	100.0
교육일반	2.5	6.7	0.0	73.1	16.8	0.8	100.0
유아교육	7.7	11.0	0.0	69.7	10.3	1.3	100.0
특수교육	0.0	0.0	0.0	100.0	0.0	0.0	100.0
초등교육	0.0	0.0	0.0	100.0	0.0	0.0	100.0
중등교육	0.2	1.8	0.0	81.9	15.6	0.5	100.0
건축	1.1	0.8	0.0	93.4	3.9	0.8	100.0
토목 도시	0.8	1.1	0.0	92.1	5.7	0.4	100.0
교통 운송	1.3	0.0	0.0	90.0	7.5	1.3	100.0
기계 금속	0.0	2.7	0.0	92.9	3.6	0.8	100.0
전기 전자	0.4	1.7	0.0	92.5	5.1	0.4	100.0
정밀에너지	0.0	3.4	0.0	84.7	11.9	0.0	100.0
소재 재료	1.1	0.6	0.0	92.1	5.1	1.1	100.0
컴퓨터 통신	0.9	2.1	0.0	87.2	9.1	0.7	100.0
산업	1.1	1.1	0.6	92.0	5.1	0.0	100.0
화학	0.5	3.1	0.0	88.0	8.3	0.0	100.0
기타	0.0	0.7	0.0	89.4	9.3	0.7	100.0
농림 수산	0.9	7.5	0.0	73.8	15.0	2.8	100.0
생물 화학 환경	0.2	3.1	0.0	87.3	8.9	0.6	100.0
생활과학	1.7	5.0	0.0	81.9	10.6	0.7	100.0
수학물리천문지리	1.6	4.1	0.0	81.3	11.4	1.6	100.0
의료	1.6	7.3	0.0	68.6	22.0	0.5	100.0
간호	0.0	0.0	0.0	98.9	1.1	0.0	100.0
약학	7.5	3.8	0.0	86.8	1.9	0.0	100.0
치료 보건	1.4	2.1	0.0	86.4	9.3	0.7	100.0
디자인	1.4	4.3	0.0	81.9	10.3	2.1	100.0
응용예술	4.3	12.4	0.0	67.1	13.0	3.1	100.0
무용 체육	1.6	4.9	0.0	64.8	26.2	2.5	100.0
미술 조형	2.9	18.7	0.0	57.6	17.3	3.6	100.0
연극 영화	0.0	11.1	0.0	37.0	48.1	3.7	100.0
음악	2.5	32.0	0.0	32.0	32.5	1.0	100.0

한편 <표 V-11>과 <표 V-12>에서 근무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은 전문대에서 81.8%, 대학에서 82.1%로서 학교급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승진, 교육훈련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하에서 근무형태는 취업의 질을 나타내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의 및 분류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크게 종사상 지위에 따른 전통적인 접근방법과 고용형태에 따른 최근의 접근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각주 6(41쪽) 참조). 전통적 접근방식에 따를 경우 전문대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87.2%, 대학은 87.7%로서 전통적 접근방식에 의한 비정규직 비율이 고용형태에 의한 방식보다 0.5%p가량 높았다.

<표 V-13>에서 2003년과 2005년의 성별, 지역별 고용형태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노동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양극화, 특히 비정규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로는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증가폭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비정규직 비율상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수도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근무형태별 취업현황(전문대)

(단위: %)

근무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계약직, 촉탁직	시간제근로	기 타	
전 체	81.8	14.5	2.9	0.8	100.0
언어 문학	75.8	19.1	3.2	1.9	100.0
인문 과학	63.2	31.0	5.7	0.1	100.0
경영 경제	85.7	11.9	1.4	1.0	100.0
법률	80.0	20.0	0.0	0.0	100.0
사회 과학	74.8	20.5	4.2	0.5	100.0
교육 일반	89.5	10.5	0.0	0.0	100.0
유아 교육	92.0	6.4	1.5	0.1	100.0
특수 교육	88.9	11.1	0.0	0.0	100.0
건축	86.1	10.1	2.7	1.1	100.0
토목 도시	85.3	12.4	2.0	0.3	100.0
교통 운송	77.4	16.1	6.5	0.0	100.0
기계 금속	87.4	9.8	1.9	0.9	100.0
전기 전자	86.7	11.3	1.4	0.6	100.0
정밀 에너지	86.6	9.8	2.4	1.2	100.0
소재 재료	87.8	9.5	2.7	0.0	100.0
컴퓨터 통신	81.0	15.8	2.1	1.1	100.0
산업	86.2	12.1	1.7	0.0	100.0
화공	79.5	17.9	2.6	0.0	100.0
기타	86.2	9.2	4.1	0.5	100.0
농림 수산	57.9	34.2	5.3	2.6	100.0
생물 화학 환경	78.8	18.9	1.7	0.6	100.0
생활 과학	77.8	18.2	2.7	1.3	100.0
수학 물리 천문 지리	94.6	2.7	2.7	0.0	100.0
간호	91.8	7.1	1.0	0.1	100.0
치료 보건	86.3	11.3	2.0	0.4	100.0
디자인	81.0	14.0	3.8	1.2	100.0
응용 예술	75.4	19.8	4.2	0.6	100.0
무용 체육	69.8	21.7	8.0	0.5	100.0
미술 조형	81.5	11.1	7.4	0.0	100.0
연극 영화	39.4	57.6	3.0	0.0	100.0
음악	65.1	16.4	15.8	2.7	100.0

<표 V-12> 근무형태별 취업현황(대학교)

(단위: %)

근무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계약직, 촉탁직	시간제근로	기 타	
전 체	82.1	15.1	2.1	0.7	100.0
언어 문학	76.7	19.7	2.9	0.7	100.0
인문과학	64.0	30.8	3.9	1.3	100.0
경영 경제	89.0	8.8	1.6	0.6	100.0
법률	82.6	11.8	5.1	0.5	100.0
사회과학	84.3	12.4	2.1	1.2	100.0
교육일반	73.1	22.2	3.7	1.0	100.0
유아교육	81.0	15.9	3.2	0.0	100.0
특수교육	95.8	4.2	0.0	0.0	100.0
초등교육	99.4	0.6	0.0	0.0	100.0
중등교육	77.1	19.4	3.5	0.0	100.0
건축	92.8	5.4	1.6	0.2	100.0
토목 도시	91.9	7.7	0.4	0.0	100.0
교통 운송	89.9	8.9	1.3	0.0	100.0
기계 금속	94.7	3.1	1.7	0.5	100.0
전기 전자	92.5	6.7	0.4	0.4	100.0
정밀에너지	82.5	17.5	0.0	0.0	100.0
소재 재료	88.0	9.1	1.1	1.8	100.0
컴퓨터 통신	85.0	12.4	1.4	1.2	100.0
산업	92.4	6.5	0.0	1.1	100.0
화공	88.1	10.8	0.5	0.6	100.0
기타	87.3	12.0	0.0	0.7	100.0
농림 수산	80.6	17.3	2.0	0.1	100.0
생물 화학 환경	82.4	14.9	1.3	1.4	100.0
생활과학	79.3	17.5	2.7	0.5	100.0
수학 물리 천문 지리	77.9	18.7	2.6	0.8	100.0
의료	39.1	59.2	0.0	1.7	100.0
간호	95.8	2.1	0.0	2.1	100.0
약학	95.7	4.3	0.0	0.0	100.0
치료 보건	85.2	13.3	0.7	0.8	100.0
디자인	80.8	15.1	3.4	0.7	100.0
응용 예술	73.1	23.1	3.0	0.8	100.0
무용 체육	58.8	36.0	5.3	0.0	100.0
미술 조형	64.2	23.9	11.0	0.9	100.0
연극 영화	33.3	62.5	4.2	0.0	100.0
음악	40.3	51.9	7.0	0.8	100.0

<표 V-13> 2003년과 2005년의 성별, 지역별 고용형태 분포

항 목	전문대			대학교			전체			
	2003 (A)	2005 (B)	(B-A)	2003 (A)	2005 (B)	(B-A)	2003 (A)	2005 (B)	(B-A)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84.8	85.2	0.4	90.0	87.5	-2.5	87.9	86.5	-1.4
	비정규직	15.2	14.8	-0.4	10.0	12.5	2.5	12.1	13.5	1.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81.1	78.9	-2.2	78.1	75.3	-2.8	79.8	77.3	-2.5
	비정규직	18.9	21.1	2.2	21.9	24.7	2.8	20.2	22.7	2.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82.8	81.6	-1.2	87.2	83.5	-3.7	85.3	82.5	-2.8
	비정규직	17.2	18.4	1.2	12.8	16.5	3.7	14.7	17.5	2.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82.3	81.9	-0.4	82.0	80.8	-1.2	82.2	81.3	-0.9
	비정규직	17.7	18.1	0.4	18.0	19.2	1.2	17.8	18.7	0.9

학과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넘는 학과는 전문대에서는 인문과학, 농림수산, 무용체육, 연극영화, 음악 학과 등이며, 대학에서는 인문과학, 의료, 무용체육, 미술조형, 연극영화, 음악 학과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직 비율이 90%를 넘는 학과는 전문대에서 유아교육, 수학을리천문지리, 간호학과 등이며, 대학에서는 특수교육, 초등교육, 건축, 토목도시, 기계금속, 전기전자, 산업, 간호, 약학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전문대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학과별 편차가 크지 않은 반면, 대학에서는 학과별로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큰 편차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전문대졸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직업인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실상 고졸과 무차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전문대졸의 전공은 노동시장에서 별다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과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대졸의 경우에는 전공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학과별 노동시장 수급여건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에서의 편차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 지역일치의 현황

한편,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지역 단위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동질성과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 단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지역이 인적자원개발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이 주장의 이면에는 지역간 균형적 인력양성 및 활용이 국가균형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간 인력유출입의 불균형이 지속되어 왔다. 즉, 일자리를 따라 지역간 노동이동이 진행되면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인력의 순유입이 발생하게 되었다. 출신대학 소재지와 현직장 소재지 이행행렬을 보여주고 있는 <표 V-14>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의 38.2%가 서울 소재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17.7%), 부산시(6.5%), 대구시(5.1%) 등의 순서로 전문대졸 및 대졸 취업자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만 전문대졸 및 대졸자의 59.4%가 집중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이 매우 심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학소재지와 현직장 소재지의 일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써 79.3%이었는데, 이것은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노동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주의 뒤를 이어 대구(66.6%), 경남(64.3%), 서울(64.1%) 등의 순으로 대학소재지와 직장소재지간 지역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의 지역일치도는 22.4%로서 최하위를 기록하여 인재의 역외유출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28.0%), 인천(31.1%), 강원(33.1%) 등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모두 인근에 수도권, 경남 등과 같이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일자리가 많은 지역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이로부터

터 산업중심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인재의 역외유출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충남의 경우 충남소재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중 23.5%가 경기지역 소재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남소재 현직장에 취업한 비율 22.4%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의 경우도 해당지역 졸업자 중 41.3%가 서울소재 현 직장에 취업하고 있어 인천소재 직장에 취업한 비율 31.1%를 훨씬 웃돌았다.

<표 V-14> 지역별 취업현황

(단위: %)

직장 위치 졸업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서울	64.1	1.6	2.7	1.0	0.6	1.2	0.7	19.8	1.4	0.8	2.1	0.8	0.7	1.1	1.1	0.4
부산	10.4	63.2	0.5	0.6	0.1	0.2	3.6	3.9	0.3	0.1	0.7	0.1	0.5	2.0	13.7	0.3	100.0
인천	41.3	0.3	31.1	0.1	0.1	0.4	0.5	21.2	0.4	0.4	2.1	-	0.3	0.7	0.9	0.3	100.0
대구	7.1	0.9	0.6	66.6	0.1	0.4	2.7	2.4	-	0.4	0.9	-	-	15.3	2.4	0.2	100.0
광주	13.9	0.6	1.6	0.2	48.3	0.3	0.4	7.6	0.3	0.7	1.5	2.7	20.9	0.2	0.6	0.3	100.0
대전	20.1	0.3	1.7	0.2	0.2	46.1	0.3	10.0	0.7	5.1	12.9	0.6	0.2	1.3	0.3	-	100.0
울산	10.6	6.8	0.2	1.8	0.5	0.5	56.8	3.4	1.4	0.5	2.5	-	0.5	6.3	7.9	0.5	100.0
경기	56.5	0.2	3.9	0.3	0.2	0.3	0.1	34.9	0.8	0.6	1.2	0.2	0.2	0.3	0.3	0.1	100.0
강원	38.0	0.8	5.7	-	0.3	1.4	0.6	15.9	33.1	0.6	1.6	0.3	-	1.4	0.6	-	100.0
충북	20.2	0.3	2.9	0.3	0.1	4.1	0.4	20.7	2.7	38.1	6.6	0.4	0.4	2.0	0.8	-	100.0
충남	39.7	0.1	3.9	0.2	0.1	4.7	-	23.5	0.6	2.1	22.4	0.3	0.2	1.1	1.0	0.1	100.0
전북	23.1	0.2	2.9	0.7	1.6	2.1	0.5	10.7	0.7	0.5	6.5	46.8	2.3	0.3	1.0	0.3	100.0
전남	18.4	1.6	2.2	0.2	14.2	1.3	0.4	9.2	0.7	0.4	1.1	3.4	44.8	0.9	1.4	-	100.0
경북	25.0	2.7	1.3	19.8	0.1	1.1	5.2	8.4	0.7	1.8	1.2	0.2	0.3	28.0	3.9	0.2	100.0
경남	6.2	15.4	0.5	0.8	-	0.2	4.7	3.5	0.5	0.3	0.5	0.2	0.7	1.2	64.3	1.0	100.0
제주	11.6	-	0.6	0.6	0.6	0.6	-	4.9	-	-	1.2	-	-	-	0.6	79.3	100.0
전체	38.2	6.5	3.5	5.1	2.3	3.7	2.5	17.7	1.4	2.3	3.4	1.9	2.3	4.2	4.1	0.9	100.0

2. 근로조건

가. 임금 및 근로시간

졸업생의 취업구조가 취업의 질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임금 및 근로시간은 취업의 질적 수준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제공해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따르면 노동수요는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일치하게 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완전경쟁 하에서는 생산물의 가치가 외생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노동생산성에 의해 노동수요곡선이 결정된다. 따라서, 노동공급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임금수준은 결국 노동생산성에 의해 크게 영향받게 됨을 알 수 있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자의 숙련수준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1인당 자본장비율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아울러, 산업이 성장초기단계에 있거나, 독과점이 심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업이 가격수용자가 아니라 가격설정자로서 행동할 수도 있다. 또한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또는 균등화 임금격차(equalizing wage differentials)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유쾌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직종과 균등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유리한 임금격차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즉, 임금수준은 이와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취업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V-15>에서 보듯이 ‘소득을 모른다’는 등의 이유로 응답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 취업자의 2005년 연봉수준은 평균 2,133.5만원으로 2003년의 1,787.0만원에 비해 연평균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년간의 임금상승효과와 더불어 2003년 조사에 비해 2005년 조사가 약 1년간의 졸업시점이 앞서 그만큼의 근속장기화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005년 전문대의 임금수준은 1,923.8만원으로 대학의 2,342.7만원에 비해 82%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대금액으로는 418.9만원 더 낮았다. 한편 2003년 대비 2005년 임금상승률은 전문

대가 23.8%였던 반면, 대학은 16.2%로 나타나 전문대의 취업의 질이 다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V-15> 학교급별 임금 격차

(단위: 만원)

항목	전문대			대학교			전체		
	2003 (A)	2005 (B)	(B-A)	2003 (A)	2005 (B)	(B-A)	2003 (A)	2005 (B)	(B-A)
연봉 수준	1,554.2 (632.6)	1,923.8 (1,014.8)	369.6	2,015.6 (733.9)	2,342.7 (1,022.0)	327.1	1,787.0 (723.3)	2,133.5 (1,039.7)	346.5

한편 학교급·전공별 소득수준을 보면, <표 V-16> 및 <표 V-17>에서 나타나듯이 먼저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는 법률학과의 연봉이 2,484.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토목도시(2,355.8만원), 기계금속(2,230.0만원), 전기전자(2,190.5만원) 학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는 약학과의 연봉이 3,11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운송(2,792.3만원), 의료(2,686.3만원), 법률(2,673.4만원), 기계금속(2,651.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전문대와 대학 모두 인문계에서는 법률학과의 연봉이 가장 높았으며, 공대에서는 기계금속학과의 연봉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밖에 대학에서는 약학, 의료, 간호 등의 의약계열이 높게 나타났고, 공학계열은 전문대 및 대학모두에서 대체로 임금수준이 평균이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확한 임금수준 비교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를 감안할 수 있도록 임금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렵고 특히 사무직의 경우에는 실제근로, 근로대기 상태, 휴식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임금수준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제시하고 결과를 비교한다.

전문대의 주당 근로시간은 49.9시간으로서 대학의 47.4시간에 비해 주당 2.5시간 더 많이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문대 졸업생에 비해 대학 졸업생이 근로시간이 비교적 정확하게 지켜지는 교육기관 및 정부기관 취업비율이 높다는 점에 상당부분 기인할 것이다. 전문대에서는 정밀에너지 학과의 주당근로시간이

57.1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그 뒤를 이어 토목도시(54.0시간), 기계금속(53.8시간), 건축(53.6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음악학과 졸업생은 주당근로시간이 35.9시간으로 가장 짧았으며, 연봉수준이 1,480.8만원으로 낮은 특징을 보였다.

대학의 학과별 주당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의료학과가 68.6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기계금속(51.0시간), 교통운송(50.6시간), 전기전자(50.6시간) 학과 뒤를 이었다. 이들 학과는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으나, 근로시간역시 긴 것으로 나타나 근로조건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대학에서도 음악학과의 주당근로시간이 30.5시간으로 가장 짧았으며, 연봉수준 역시 낮은 특징을 보였다.

<표 V-16> 임금수준, 주당근로시간(전문대)

(단위: 만원, 시간)

	연 봉	주당근로시간
전 체	1,923.8 (1014.8)	49.9 (12.3)
언어 문학	1,832.8 (835.6)	46.5 (11.6)
인문과학	1,512.3 (715.0)	46.0 (12.5)
경영 경제	2,049.2 (1090.9)	49.0 (10.5)
법률	2,484.4 (1252.5)	43.4 (6.0)
사회과학	1,917.8 (1314.6)	48.7 (12.3)
교육일반	2,002.7 (799.3)	43.7 (6.3)
유아교육	1,344.0 (450.3)	52.0 (11.6)
특수교육	1,405.0 (345.4)	42.7 (6.1)
건축	1,988.5 (893.7)	53.6 (14.0)
토목 도시	2,355.8 (1166.9)	54.0 (12.0)
교통 운송	2,099.6 (626.8)	47.1 (11.9)
기계 금속	2,230.0 (961.6)	53.8 (13.3)
전기 전자	2,190.5 (1149.0)	51.4 (11.8)
정밀에너지	1,824.3 (691.0)	57.1 (13.3)
소재 재료	1,741.1 (794.9)	50.2 (9.1)
컴퓨터 통신	1,921.1 (967.8)	48.4 (10.0)
산업	1,874.2 (744.7)	47.9 (12.7)
항공	1,871.6 (526.8)	45.1 (9.4)
기타	2,022.2 (958.8)	51.3 (12.6)
농림 수산	1,814.2 (816.8)	53.2 (17.3)
생물 화학 환경	2,021.5 (993.6)	48.2 (10.1)
생활과학	1,844.1 (1130.2)	50.7 (13.8)
수학물리천문지리	2,119.0 (1148.9)	52.2 (12.2)
간호	2,002.3 (500.7)	45.4 (7.2)
치료 보건	1,878.1 (621.2)	50.3 (10.0)
디자인	1,719.3 (956.3)	51.2 (12.2)
응용예술	1,603.9 (872.1)	51.5 (13.6)
무용 체육	2,098.1 (1343.0)	48.1 (17.3)
미술 조형	1,347.2 (1027.4)	44.5 (13.7)
연극 영화	1,776.7 (942.3)	43.3 (16.2)
음악	1,480.8 (938.4)	35.9 (14.7)

주 : ()내는 표준편차.

<표 V-17> 임금수준, 주당근로시간(대학교)

(단위: 만원, 시간)

	연봉	주당근로시간
전 체	2,342.7 (1,022.0)	47.4 (13.6)
언어 문학	2,250.1 (967.6)	44.3 (12.8)
인문과학	2,086.6 (1,176.7)	43.8 (13.2)
경영 경제	2,553.7 (1,159.6)	47.5 (10.6)
법률	2,673.4 (1,370.7)	46.5 (11.1)
사회과학	2,266.8 (1,069.4)	46.9 (11.7)
교육일반	2,130.0 (1,014.6)	41.0 (12.2)
유아교육	2,028.0 (1,761.6)	43.7 (10.9)
특수교육	2,249.6 (510.8)	43.3 (6.9)
초등교육	2,390.1 (327.4)	44.6 (5.3)
중등교육	2,257.0 (724.2)	44.2 (10.8)
건축	2,286.3 (655.8)	56.3 (13.7)
토목 도시	2,477.4 (778.1)	52.4 (14.3)
교통 운송	2,792.3 (1,115.1)	50.6 (9.0)
기계 금속	2,651.5 (816.8)	51.0 (13.3)
전기 전자	2,565.4 (727.7)	50.6 (11.9)
정밀에너지	2,327.2 (810.5)	50.3 (12.1)
소재 재료	2,466.3 (700.6)	48.2 (11.0)
컴퓨터 통신	2,370.6 (887.2)	48.7 (11.2)
산업	2,566.5 (845.7)	51.7 (12.2)
항공	2,646.8 (770.4)	48.2 (12.5)
기타	2,452.3 (770.5)	48.8 (11.5)
농림 수산	2,627.4 (1,367.4)	47.3 (12.0)
생물 화학 환경	2,242.0 (939.5)	47.6 (11.0)
생활과학	2,050.5 (1,009.2)	47.6 (12.4)
수학물리천문지리	2,159.5 (866.2)	44.5 (13.9)
의료	2,686.3 (1,159.1)	68.6 (30.4)
간호	2,611.4 (634.9)	44.0 (5.6)
약학	3,116.0 (996.9)	48.3 (10.6)
치료 보건	2,270.9 (826.7)	45.4 (9.7)
디자인	2,091.5 (1,442.3)	49.8 (13.8)
응용예술	2,324.8 (1,287.7)	47.0 (17.6)
무용 체육	2,004.2 (807.5)	42.2 (16.1)
미술 조형	1,799.1 (759.2)	41.2 (15.7)
연극 영화	2,417.1 (1,292.3)	48.2 (15.7)
음악	1,874.1 (1,196.9)	30.5 (15.2)

주 : ()내는 표준편차.

나. 직무만족도 및 전공과의 관련성

대표적인 근로조건이 임금이고 임금수준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 만족감과 같은 정성적 지표 역시 일자리 일치 수준의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임금이외에 현재 일자리 일치(job match)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는 직무만족도, 전공관련성, 직무유용성 등이다. 즉,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직무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가(직무만족도), 자신이 대학 및 전문대 재학시 배운 전공과 현재 직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관련성이 높은가(전공관련성), 자신이 대학 및 전문대 재학시 배운 전공이 직무수행에 유용하게 활용되는가(직무유용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임금수준 이외에 근로자가 현재의 직장 및 직무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한 정성적 지표는 일자리 일치(job match)의 질을 평가하고, 향후 노동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하다. 먼저 <표 V-18>과 <표 V-19>에서 현재의 직무에 만족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문대는 불만족이 15.1%로서 대학의 13.1%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문대 출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이 고졸과 대졸사이에서 차별화되지 못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부분적으로 기인하고 있다.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상의 학력별 임금격차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1980년 고졸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때 전문대졸 148, 대졸 232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전문대졸 103, 대졸 156으로 고졸과 전문대졸간의 임금격차가 거의 사라졌다.

다음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전공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문대의 38.2%가 관련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은 29.3%만이 관련성이 없다고 응답하여 전문대의 전공-직업 일치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모든 학과는 직업생활과 관련을 맺고 있지만, 그 정도는 학과별로 상이하다. 약학, 의학과 같이 직업과 거의 일대일 대응관계에 놓인 학과가 있는가 하면 인문, 사회

계열과 같이 대응하는 직업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은 학과도 있다. 오늘날의 추세는 대학전공과 직업간의 연계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의 직무와 전공관련성이 대학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직업세계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전공과 직업간의 일치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전문대에서 특정 직무수행을 염두에 두고 재학중에 지식과 숙련을 연마하더라도 막상 취업시점이 되면 기술여건, 노동시장 수급상황 등이 변화하기 때문에 전공과 일치하는 직무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직무유용성에 관한 응답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전문대에서는 34.3%가 ‘학교에서 배운 전공이 직무수행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에서는 같은 수치가 25.9%에 그치고 있다.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수행하는 업무가 전공과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이 현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85%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근 졸업생들이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동시장의 정착도가 대단히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과에서 전체 졸업자들 중 80~90% 정도의 졸업생들이 현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8> 전공과 직무간의 관계(전문대)

(단위: %)

	직무만족도		전공관련성		직무유용성		전체
	만족	불만족	관련있음	관련없음	도움됨	도움않됨	
전체	84.9	15.1	61.8	38.2	65.7	34.3	100.0
언어 문학	85.5	14.5	42.8	57.3	52.0	48.0	100.0
인문과학	90.0	10.0	55.5	44.5	64.4	35.6	100.0
경영 경제	84.7	15.3	59.1	40.9	65.2	34.7	100.0
법률	100.0	0.0	40.0	60.0	70.0	30.0	100.0
사회과학	86.5	13.5	56.9	43.2	63.5	36.5	100.0
교육일반	89.5	10.5	26.4	73.7	42.1	57.9	100.0
유아교육	89.6	10.4	90.3	9.7	92.5	7.5	100.0
특수교육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건축	81.5	18.5	65.4	34.6	64.3	35.7	100.0
토목 도시	84.9	15.1	72.5	27.4	69.1	30.9	100.0
교통 운송	83.9	16.1	61.3	38.8	64.5	35.5	100.0
기계 금속	84.2	15.8	68.7	31.3	68.7	31.4	100.0
전기 전자	84.9	15.1	63.9	36.1	67.1	32.9	100.0
정밀에너지	87.8	12.2	78.9	21.2	77.8	22.2	100.0
소재 재료	86.7	13.3	62.7	37.3	68.0	32.0	100.0
컴퓨터 통신	85.0	15.0	49.4	50.6	60.2	39.8	100.0
산업	83.1	16.9	55.9	44.0	56.0	44.0	100.0
화공	92.3	7.7	51.3	48.7	51.3	48.7	100.0
기타	85.1	15.0	59.1	41.0	59.9	40.1	100.0
농림 수산	83.1	17.0	52.8	47.2	58.5	41.5	100.0
생물 화학 환경	83.7	16.3	42.2	57.8	45.4	54.6	100.0
생활과학	83.0	16.9	56.4	43.5	58.2	41.7	100.0
수학물리천문지리	78.4	21.6	56.7	43.2	54.0	45.9	100.0
간호	78.0	21.9	98.5	1.5	96.9	3.1	100.0
치료 보건	83.3	16.7	84.1	15.9	84.1	15.9	100.0
디자인	84.3	15.7	59.9	40.0	62.4	37.7	100.0
응용예술	86.7	13.3	61.4	38.6	63.4	36.6	100.0
무용 체육	86.1	13.9	64.7	35.3	67.0	32.9	100.0
미술 조형	86.7	13.3	70.0	30.0	70.0	30.0	100.0
연극 영화	94.2	5.7	80.0	20.0	91.5	8.6	100.0
음악	89.2	10.8	83.5	16.5	82.5	17.5	100.0

<표 V-19> 전공과 직무와의 관계(대학교)

(단위: %)

	직무만족도		전공관련성		직무유용성		전체
	만족	불만족	관련있음	관련없음	도움됨	도움않됨	
전체	86.9	13.1	70.7	29.3	74.1	25.9	100.0
언어 문학	85.6	14.4	54.5	45.4	64.1	35.8	100.0
인문 과학	89.1	10.8	52.1	47.9	63.0	37.0	100.0
경영 경제	85.5	14.4	65.6	34.4	71.0	28.9	100.0
법률	86.3	13.6	59.0	41.0	70.7	29.3	100.0
사회 과학	84.9	15.1	60.5	39.5	68.0	32.0	100.0
교육 일반	89.1	10.9	74.0	26.0	76.5	23.5	100.0
유아 교육	94.2	5.8	85.8	14.2	85.8	14.2	100.0
특수 교육	93.8	6.3	98.0	2.1	93.8	6.3	100.0
초등 교육	98.8	1.2	100.0	0.0	96.9	3.1	100.0
중등 교육	92.9	7.0	91.9	8.1	93.2	6.8	100.0
건축	81.0	19.0	91.1	8.9	86.0	14.0	100.0
토목 도시	85.3	14.7	78.9	21.2	75.8	24.1	100.0
교통 운송	78.5	21.5	71.3	28.8	68.8	31.3	100.0
기계 금속	83.3	16.7	73.8	26.2	74.3	25.7	100.0
전기 전자	86.7	13.3	75.7	24.4	75.8	24.2	100.0
정밀 에너지	91.5	8.5	57.6	42.3	64.5	35.5	100.0
소재 재료	82.6	17.4	73.1	26.9	68.9	31.1	100.0
컴퓨터 통신	87.1	12.9	71.7	28.3	77.5	22.5	100.0
산업	88.6	11.5	74.9	25.1	77.7	22.3	100.0
화공	88.5	11.4	68.7	31.3	67.2	32.8	100.0
기타	86.1	13.9	67.5	32.5	72.7	27.4	100.0
농림 수산	91.6	8.4	59.8	40.2	63.5	36.4	100.0
생물 화학 환경	87.2	12.7	57.2	42.9	60.2	39.8	100.0
생활 과학	85.7	14.4	68.1	31.9	66.5	33.5	100.0
수학 물리 천문 지리	85.1	14.9	64.7	35.2	70.5	29.6	100.0
의료	90.6	9.4	99.5	0.5	97.9	2.1	100.0
간호	81.1	18.9	96.8	3.2	93.7	6.3	100.0
약학	88.5	11.5	100.0	0.0	92.5	7.5	100.0
치료 보건	91.5	8.5	82.2	17.9	81.4	18.6	100.0
디자인	84.0	16.0	87.2	12.7	87.5	12.4	100.0
응용 예술	88.2	11.8	73.3	26.7	80.7	19.3	100.0
무용 체육	94.3	5.7	68.9	31.2	72.9	27.1	100.0
미술 조형	89.2	10.8	84.9	15.1	84.2	15.8	100.0
연극 영화	85.2	14.8	66.7	33.3	77.8	22.2	100.0
음악	92.9	7.1	91.4	8.6	91.4	8.7	100.0

다. 과잉학력과 학교교육

지식기반 경제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문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과잉교육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과잉투자는 자원의 낭비와 노동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직무가 전문화, 복잡화되는 경향을 갖고 있고, 특정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습득하는 방식은 단지 학교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 재직중 훈련(on-the-job training)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에만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학교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포기해야할 경제적 가치는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며, 인적자원의 사회적 낭비 또한 그만큼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학교교육은 국가발전의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교육을 통해 국민의 평균교육년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성공함으로써 단기간내에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²⁴⁾. 국민의 총 교육연수를 만 6세 이상 인구에서 학령인구를 뺀 인구로 나눈 것으로 계산되는 평균교육년수는 1970년 5.7년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10.6년으로 늘어나 불과 30년만에 전국민의 교육연수가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단기간에 평균 교육연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더불어 경제성장에 따라 가계의 교육투자여력이 함께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과잉학력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법, 직업사전상의 직업별 필요학력과 해당 직업 근로자의 실제학력을 비교하는 방법, 해당

24) Denison(1985)이 교육수준의 상승이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노동유연성(labor flexibility)을 높여 국민소득의 증가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듯이 교육과 경제성장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McGinn(1980)에 따르면, 교육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경로는 다음의 다섯가지이다. (1) 기술의 향상, 능률 및 작업지식의 개선을 통한 노동의 질의 향상, (2) 분업을 촉진시키는 노동이동의 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3) 발명과 신속한 채용을 촉진하는 과학기술의 증가, (4) 경영관리 및 생산요소의 배분을 개선시키는 경영자 능력의 증대, (5)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및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학력과 실제학력을 비교하는 방법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과잉학력의 실태를 살펴보는 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기초로 할 경우 임금,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불만족을 과잉학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선, 과잉학력의 전반적인 규모는 전문대에서는 21.1%, 대학에서는 18.3%로서 전문대의 과잉학력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과잉학력 확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다소 의외라 할 수 있다. 이를 전문대졸의 직무불만족이 높게 나타난 <표 V-20>과 연관지어 해석해보면 직무에 대한 불만족을 과잉학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전공별 과잉교육 규모는 해당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력수급 추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특정전공의 인력과부족에 대한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 전공출신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보다 과잉공급 될 경우 과잉교육에 따른 하향취업은 해당전공에 집중될 것이고 이것이 전공간 과잉교육의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이 때문이다. 전문대에서는 전공별 과잉학력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중 법률, 언어문학과 자연계열중 화공, 생물화학환경, 그리고 예능계열의 무용체육, 미술조형 학과에서 특히 과잉교육비율이 높았다. 대학에서는 대체로 전공별 과잉학력 편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예능계열중 무용체육, 미술조형, 음악 학과와 사회계열중 법률학과에서 과잉학력 비율이 높았다.

<표 V-20> 전문대 졸업자의 과잉학력

(단위: %)

학력수준	과소학력	적정학력	과잉학력	전 체
전 체	11.9	67.0	21.1	100.0
언어 문학	10.4	64.8	24.8	100.0
인문과학	11.1	66.7	22.2	100.0
경영 경제	9.7	68.5	21.8	100.0
법률	0.0	60.0	40.0	100.0
사회과학	8.5	69.3	22.2	100.0
교육일반	21.1	63.2	15.8	100.0
유아교육	14.4	76.3	9.4	100.0
특수교육	0.0	77.8	22.2	100.0
건축	13.7	68.9	17.4	100.0
토목 도시	9.6	75.6	14.8	100.0
교통 운송	12.9	67.7	19.4	100.0
기계 금속	19.4	64.3	16.3	100.0
전기 전자	18.4	62.5	19.1	100.0
정밀에너지	5.6	78.9	15.6	100.0
소재 재료	9.5	75.7	14.9	100.0
컴퓨터 통신	11.8	64.6	23.7	100.0
산업	17.2	56.9	25.9	100.0
화공	10.3	61.5	28.2	100.0
기타	15.0	61.1	23.9	100.0
농림 수산	9.4	66.0	24.5	100.0
생물 화학 환경	15.3	57.7	27.0	100.0
생활과학	9.0	68.6	22.4	100.0
수학물리천문지리	13.5	75.7	10.8	100.0
간호	16.4	66.2	17.4	100.0
치료 보건	11.0	70.5	18.5	100.0
디자인	11.0	68.3	20.7	100.0
응용예술	11.3	65.1	23.6	100.0
무용 체육	10.9	59.2	30.0	100.0
미술 조형	13.3	46.7	40.0	100.0
연극 영화	11.4	77.1	11.4	100.0
음악	7.7	70.6	21.6	100.0

<표 V-21> 대학 졸업자의 과잉학력

(단위: %)

학력수준	과소학력	적정학력	과잉학력	전 체
전 체	11.1	70.5	18.3	100.0
언어 문학	9.9	70.1	20.0	100.0
인문과학	11.0	72.3	16.6	100.0
경영 경제	10.5	69.2	20.3	100.0
법률	12.2	62.4	25.4	100.0
사회과학	10.7	68.6	20.7	100.0
교육일반	8.4	72.3	19.3	100.0
유아교육	2.6	79.4	18.1	100.0
특수교육	14.6	75.0	10.4	100.0
초등교육	7.5	82.5	10.0	100.0
중등교육	6.3	79.0	14.7	100.0
건축	13.4	68.7	17.9	100.0
토목 도시	9.4	76.6	14.0	100.0
교통 운송	16.3	65.0	18.8	100.0
기계 금속	15.3	66.1	18.6	100.0
전기 전자	17.8	69.7	12.5	100.0
정밀에너지	20.3	64.4	15.3	100.0
소재 재료	13.6	72.9	13.6	100.0
컴퓨터 통신	11.3	67.3	21.5	100.0
산업	14.4	73.0	12.6	100.0
화공	16.2	66.5	17.3	100.0
기타	14.0	68.7	17.3	100.0
농림 수산	16.8	63.6	19.6	100.0
생물 화학 환경	10.0	71.0	19.0	100.0
생활과학	12.2	69.7	18.1	100.0
수학물리천문지리	12.8	69.0	18.2	100.0
의료	16.8	70.0	13.2	100.0
간호	13.7	70.5	15.8	100.0
약학	3.8	69.8	26.4	100.0
치료 보건	6.5	77.0	16.5	100.0
디자인	6.0	78.0	16.0	100.0
응용예술	8.1	70.8	21.1	100.0
무용 체육	4.1	71.3	24.6	100.0
미술 조형	6.5	71.2	22.3	100.0
연극 영화	18.5	70.4	11.1	100.0
음악	7.1	67.9	25.0	100.0

다음으로 <표 V-22>과 <표 V-23>에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가 재학시 배웠으면 유용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기초직업능력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다. 전문대의 경우에는 전공지식(29.9%), 컴퓨터 사용능력(27.5%), 외국어회화(24.9%)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에서는 전공지식(28.9%), 외국어회화(26.0%), 컴퓨터사용능력(19.2%)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 모두가 기초직업능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전공지식을 지목한 것으로서 이는 전공지식이 업무수행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문대에 비하여 대학에서 컴퓨터사용능력보다 외국어회화의 중요성이 더 높게 나왔는데, 이것은 전문대졸에 비해 대졸자가 수행하는 업무성격상 영어의 필요성이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V-22> 재학시 배웠으면 유용했을 기초직업능력(전문대)

(단위: %)

	외국어 회화	컴 퓨 터 사용능력	전공지식	창의력과 문 화 적 감 각	기획능력	기 타	전 체
전 체	24.9	27.5	29.9	8.9	5.4	3.4	100.0
언어 문학	34.8	30.2	14.0	10.8	5.8	4.4	100.0
인문과학	21.7	27.7	30.1	10.8	7.2	2.5	100.0
경영 경제	37.7	27.3	19.5	5.4	6.2	3.9	100.0
법률	40.0	40.0	20.0	0.0	0.0	0.0	100.0
사회과학	18.6	30.8	25.9	11.5	9.4	3.8	100.0
교육일반	10.5	42.1	26.3	21.1	0.0	0.0	100.0
유아교육	6.3	22.1	39.9	28.0	2.2	1.5	100.0
특수교육	0.0	22.2	66.7	11.1	0.0	0.0	100.0
건축	16.7	33.4	33.2	7.1	5.5	4.1	100.0
토목 도시	14.1	33.0	43.1	2.3	3.9	3.6	100.0
교통 운송	43.3	16.7	33.3	0.0	6.7	0.0	100.0
기계 금속	24.2	21.7	41.7	5.8	3.9	2.7	100.0
전기 전자	26.0	28.1	33.2	4.8	5.6	2.3	100.0
정밀에너지	22.4	15.3	54.1	4.7	2.4	1.1	100.0
소재 재료	25.4	25.4	19.7	22.5	7.0	0.0	100.0
컴퓨터 통신	27.2	35.9	19.8	6.9	5.6	4.6	100.0
산업	20.8	35.8	30.2	7.5	3.8	1.9	100.0
화공	22.2	33.3	25.0	2.8	5.6	11.1	100.0
기타	27.8	31.1	25.4	8.1	4.8	2.8	100.0
농림 수산	26.0	12.0	46.0	6.0	4.0	6.0	100.0
생물 화학 환경	24.2	31.2	27.0	7.0	5.3	5.3	100.0
생활과학	29.2	27.6	28.1	8.7	2.7	3.7	100.0
수학물리천문지리	14.3	45.7	31.4	5.7	2.9	0.0	100.0
간호	24.0	6.8	62.0	2.6	2.1	2.5	100.0
치료 보건	25.6	19.1	48.9	2.6	2.9	0.9	100.0
디자인	23.0	28.1	23.8	15.3	6.6	3.2	100.0
응용예술	20.5	22.7	28.5	18.6	6.6	3.1	100.0
무용 체육	20.3	21.6	38.2	10.4	5.8	3.7	100.0
미술 조형	3.6	32.1	32.1	25.0	3.6	3.6	100.0
연극 영화	17.6	8.8	50.0	20.6	2.9	0.1	100.0
음악	11.2	10.1	60.9	11.2	3.9	2.7	100.0

<표 V-23> 재학시 배웠으면 유용했을 기초직업능력(대학교)

(단위: %)

	외국어 회화	컴 퓨 터 사용능력	전공지식	창의력과 문 화 적 감 각	기획능력	기 타	전 체
전 체	26.0	19.2	28.9	11.5	10.0	4.4	100.0
언어 문학	37.7	23.4	11.4	9.1	11.4	7.0	100.0
인문과학	28.4	18.5	22.8	13.7	11.8	4.8	100.0
경영 경제	29.9	19.0	21.7	10.0	14.1	5.3	100.0
법률	25.6	22.6	23.6	13.3	8.2	6.7	100.0
사회과학	24.1	22.8	17.0	13.2	18.5	4.4	100.0
교육일반	25.4	15.8	32.5	15.8	6.1	4.4	100.0
유아교육	13.8	29.6	28.9	18.4	3.9	5.4	100.0
특수교육	2.1	14.6	56.3	16.7	8.3	2.0	100.0
초등교육	15.4	18.6	24.4	32.1	7.1	2.4	100.0
중등교육	16.1	19.5	40.4	16.1	4.1	3.8	100.0
건축	12.9	16.1	46.1	14.5	7.2	3.2	100.0
토목 도시	14.6	27.6	42.9	5.7	6.9	2.3	100.0
교통 운송	37.2	16.7	29.5	10.3	6.4	0.0	100.0
기계 금속	28.4	14.3	36.1	7.7	8.3	5.2	100.0
전기 전자	27.4	15.2	38.1	7.1	7.7	4.5	100.0
정밀에너지	44.8	15.5	22.4	8.6	3.4	5.3	100.0
소재 재료	24.6	20.0	36.0	6.9	9.7	2.8	100.0
컴퓨터 통신	28.8	18.4	30.0	7.1	11.4	4.3	100.0
산업	22.0	12.7	27.2	12.7	16.8	8.6	100.0
화공	33.0	15.4	34.1	4.9	8.8	3.8	100.0
기타	25.5	15.2	37.9	9.0	8.3	4.1	100.0
농림 수산	21.2	20.2	33.7	10.6	9.6	4.7	100.0
생물 화학 환경	33.8	18.4	26.9	10.0	7.5	3.4	100.0
생활과학	20.0	26.3	30.4	12.2	8.4	2.7	100.0
수학물리천문지리	28.8	22.4	23.0	10.8	8.3	6.7	100.0
의료	25.8	11.5	60.4	2.2	0.0	0.1	100.0
간호	25.0	12.0	50.0	5.4	6.5	1.1	100.0
약학	13.2	1.9	73.6	1.9	5.7	3.7	100.0
치료 보건	27.8	13.5	44.4	4.5	7.5	2.3	100.0
디자인	21.9	17.9	17.6	30.1	11.1	1.4	100.0
응용예술	22.4	22.4	16.7	21.2	16.0	1.3	100.0
무용 체육	25.9	20.5	34.8	10.7	5.4	2.7	100.0
미술 조형	10.4	18.7	41.8	20.9	5.2	3.0	100.0
연극 영화	11.5	3.8	61.5	11.5	11.5	0.2	100.0
음악	20.2	8.0	53.7	12.8	3.7	1.6	100.0

3. 노동시장에서 직장이동

가. 경제활동상태 변화

일반적으로 졸업 후 노동시장을 진입한 자들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반대로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그리고 타 직장으로 전직하는 등 노동이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 청년층 노동시장은 평생 일자리(career job)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잦은 노동이동과 이에 따른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기간, 경기변동에 민감한 특징을 갖는다.

먼저 <표 V-24>에서 보듯이 전체 조사대상자 중 65.8%가 현재의 직장이 첫 직장이거나(조사시점 현재 취업상태인 경우) 아직까지도 직장 경험이 없다고(조사시점 현재 미취업상태인 경우)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34.2%는 현재 직장이 첫 직장이 아니거나 전직미취업자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자들인 20,774명을 대상으로 첫 직장 여부를 나누어 보면, 69.9%에 해당하는 14,514명이 현재 직장이 첫 직장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나머지 30.1%에 해당하는 6,260명은 현재 직장이 첫 직장이 아니라고 응답하여 졸업생 3명 중 약 1명이 졸업 후 2년 안에 직장이동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대 34.1%, 대학교 26.3%로서 졸업 후 2년 내의 직장이동 경험을 할 확률이 대학교 졸업생보다는 전문대 졸업생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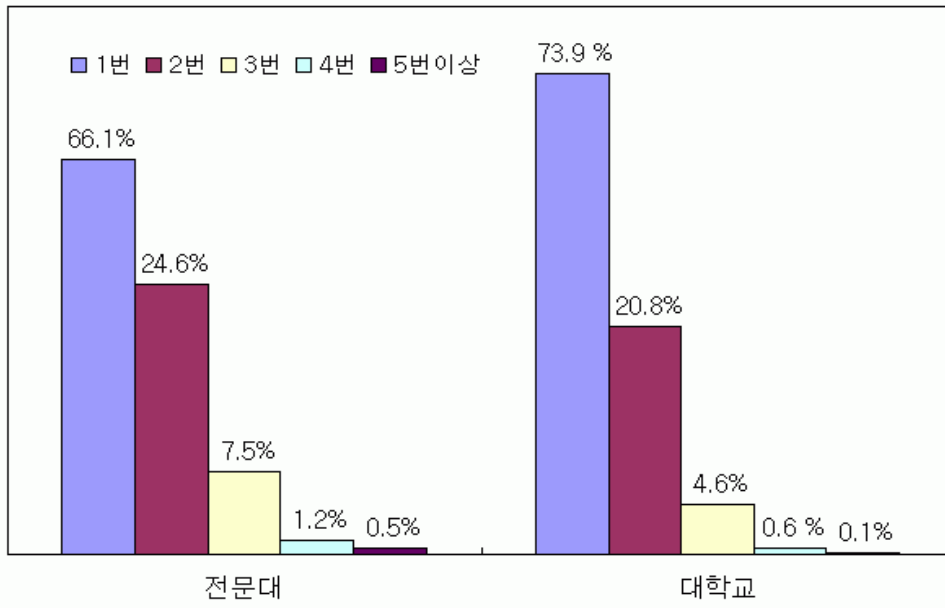
직장이동 경험 횟수를 보면, 조사시점 현재 취업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중 22.7%가 현재 직장이 두 번째 직장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번째인 경우는 6.0%, 4번째인 경우는 0.9%, 5번째 이상인 경우는 0.3%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보다는 전문대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졸업 후 2년 동안 직장이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그림 V-1]에서 보듯이 현재 직장이 두 번째 직장이라는 응답 비율이 대학교는 전체 응답자 중 20.8%를 차지한 반면에 전문대의 경우는 24.6%였고, 현재 직장이 세 번째 직장이라는 응답비율도 대학교 4.6%대 전문대 7.5% 등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표 V-24> 학교급별 경제활동상태별 첫 직장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E+N)			취업자(E)			미취업자(N)		
	전문대	대학교	전체	전문대	대학교	전체	전문대	대학교	전체
전체	12,731 (100.0)	13,310 (100.0)	26,041 (100.0)	10,286 (100.0)	10,488 (100.0)	20,774 (100.0)	2,445 (100.0)	2,822 (100.0)	5,267 (100.0)
첫 직장	7,844 (61.6)	9,295 (69.8)	17,139 (65.8)	6,782 (65.9)	7,732 (73.7)	14,514 (69.9)	1,062 (43.4)	1,563 (55.4)	2,625 (49.8)
첫 직장 아님	4,887 (38.4)	4,015 (30.2)	8,902 (34.2)	3,504 (34.1)	2,756 (26.3)	6,260 (30.1)	1,383 (56.6)	1,259 (44.6)	2,642 (50.2)

주 : ()안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각각의 비중임.



주 : 비중 계산은 무응답자 50명을 제외하였음.

[그림 V-1] 직장경험 회수

전공별(중분류 기준)로 구분하여 직장이동 경험을 비교하면, <표 V-25>에서 보듯이 전공마다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의 경우는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컴퓨터·통신, 산업 등의 전공과, 치료·보건, 및 디자인, 응용예술, 미술·조형, 연극·영화 등 의약계 및 예·체계에서 졸업 후 2년 시점에서 직장이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대로 사회과학 및 교육계열 등의 전공에서는 직장이동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의 경우 교육계열 전공의 경우는 전문대와 마찬가지로 졸업 후 2년 시점에서 직장이동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예체능계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의약계의 경우는 어느 일정한 패턴이 없이 약학의 경우는 응답자 중 과반수가 직장이동을 경험한 반면에 의료, 간호, 치료·보건 등 의학의 경우는 낮은 직장이동 경험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졸업 후 지난 2년 내에 직장이동 경험이 있었던 취업자를 대상으로 이전 직장의 경험들이 현 직장의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전체 중 약 72.1%가 다소 또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가운데, 전문대(70.0%)보다는 대학교(74.6%)가 이전 직장의 경험이 직무에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V-25> 학과별 취업자의 첫 직장 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문대			대학교		
	전체	첫직장	첫직장이아님	전체	첫직장	첫직장이아님
전체	10,286	(65.8)	(34.1)	10,488	(73.7)	(26.3)
언어·문학	550	(68.5)	(31.5)	995	(70.3)	(29.7)
인문과학	90	(67.8)	(32.2)	499	(67.9)	(32.1)
경영·경제	1,299	(71.5)	(28.5)	1,252	(74.7)	(25.3)
법률	10	(80.0)	(20.0)	205	(82.9)	(17.1)
사회과학	808	(72.9)	(27.1)	832	(75.5)	(24.5)
교육일반	19	(78.9)	(21.1)	119	(80.7)	(19.3)
유아교육	278	(56.5)	(43.5)	155	(76.1)	(23.9)
특수교육	9	(66.7)	(33.3)	48	(87.5)	(12.5)
초등교육	n.a	n.a	n.a	161	(92.5)	(7.5)
중등교육	n.a	n.a	n.a	442	(75.6)	(24.4)
건축	482	(63.9)	(36.1)	380	(71.6)	(28.4)
토목·도시	325	(72.6)	(27.4)	265	(69.1)	(30.9)
교통·운송	31	(80.6)	(19.4)	80	(83.8)	(16.3)
기계·금속	450	(72.2)	(27.8)	366	(76.8)	(23.2)
전기·전자	667	(71.2)	(28.8)	533	(78.8)	(21.2)
정밀·에너지	90	(55.6)	(44.4)	59	(71.2)	(28.8)
소재·재료	75	(53.3)	(46.7)	178	(78.7)	(21.3)
컴퓨터·통신	1,247	(64.5)	(35.5)	572	(73.8)	(26.2)
산업	59	(62.7)	(37.3)	175	(78.3)	(21.7)
화학	39	(69.2)	(30.8)	192	(80.2)	(19.8)
기타	227	(70.9)	(29.1)	151	(70.2)	(29.8)
농림·수산	53	(77.4)	(22.6)	107	(82.2)	(17.8)
생물·화학·환경	307	(69.1)	(30.9)	542	(73.4)	(26.6)
생활과학	390	(61.3)	(38.7)	404	(68.1)	(31.9)
수학·물리·천문·지리	37	(73.0)	(27.0)	369	(72.1)	(27.9)
의료	n.a	n.a	n.a	191	(74.3)	(25.7)
간호	n.a	n.a	n.a	95	(90.5)	(9.5)
약학	196	(74.0)	(26.0)	53	(45.3)	(54.7)
치료·보건	647	(58.7)	(41.3)	140	(79.3)	(20.7)
디자인	984	(54.3)	(45.7)	282	(56.4)	(43.6)
응용예술	391	(58.3)	(41.7)	161	(72.0)	(28.0)
무용·체육	267	(66.7)	(33.3)	122	(62.3)	(37.7)
미술·조형	30	(43.3)	(56.7)	139	(57.6)	(42.4)
연극·영화	35	(54.3)	(45.7)	27	(66.7)	(33.3)
음악	194	(70.1)	(29.9)	197	(80.7)	(19.3)

주 : ()안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각각의 비중임.

<표 V-26> 전 직장 경험의 현재 직장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 분	전체	전문대	대학교
전체	6,189(100.0)	3,469(100.0)	2,720(100.0)
전혀 도움 않됨	694(11.2)	444(12.8)	250(9.2)
별로 도움 않됨	1,035(16.7)	596(17.2)	439(16.1)
다소 도움	3,036(49.1)	1,691(48.7)	1,345(49.4)
매우 도움	1,424(23.0)	738(21.3)	686(25.2)

주 : 1) 일부 응답자 중 무응답자가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 계산함.
 2) ()안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각각의 비중임.

나. 산업 및 직업이동

일반적으로 모든 학과는 직업생활과 관련을 맺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가 있는가 하면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도 있다. 이는 직업 자체가 특정 학과 전공자를 요구하거나 보다 넓은 분야의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학과의 특성에 따라 특정 직업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식을 교육하거나 기초부문에 대한 지식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대학전공과 직업과의 관련성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개인의 합리적인 교육·훈련의 선택이나 직업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는 졸업 후 직업세계로 진입하여 곧바로 본인의 학력수준 및 전공, 적성 등과 일치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이 한 축이 되어 직장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임금, 종사상 지위 등 근로조건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성, 업무의 성격 등 근로조건 이외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물론 양자 모두가 이유가 될 수 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에 전직한 경험이 있는 현재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첫 직장 과 현 직장간 산업 이동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56.7%가 산업내 직장이동 (intra-industry job mobility)을 한 반면에 나머지 43.3%는 산업간 이동 직장이동 (inter-industry job mobility)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산업내

이동은 전문대(55.0%)보다는 대학교(58.4%)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대로 산업간 이동은 대학교(41.6%)보다는 전문대(45.0%)가 높았다. 한편 산업간 이동의 결과 전문대졸의 경우는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그리고 운수, 창고, 통신업으로의 이동이 많았으며, 제조업,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그리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의 이동은 적었다. 대학교졸의 경우는 전문대와는 달리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으로의 유입비율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의 유출비율이 높았다.

<표 V-27> 직장이동(산업)

(단위: %)

학력 구분	이전직장		D	E	F	GH	IJ	KLM	R	전체
	현재직장									
전문대		D	10.3	0.0	1.3	2.3	0.5	2.9	3.4	20.7
		E	0.0	0.0	0.0	0.0	0.0	0.1	0.1	0.2
		F	0.8	0.0	2.5	0.7	0.2	1.2	0.6	5.9
		GH	2.3	0.0	0.7	6.3	0.9	1.7	2.6	14.5
		IF	0.5	0.0	0.2	0.7	1.0	0.3	0.6	3.4
		KLM	3.0	0.1	1.2	2.0	0.5	11.5	3.0	21.3
		R	2.8	0.0	1.0	3.3	0.6	2.8	23.4	34.0
		전 체	19.7	0.2	6.9	15.3	3.6	20.6	33.7	100.0
대학교		D	10.9	0.0	0.8	1.9	0.2	3.5	2.4	19.8
		E	0.3	0.1	0.1	0.1	0.0	0.1	0.0	0.7
		F	0.5	0.0	2.9	0.4	0.0	1.4	0.4	5.7
		GH	2.3	0.0	0.3	4.3	0.3	1.7	2.4	11.3
		IF	0.6	0.0	0.1	0.5	0.5	0.7	0.6	3.0
		KLM	2.4	0.0	0.8	1.7	0.3	12.0	3.7	20.9
		R	2.8	0.0	0.9	2.2	0.6	4.3	27.7	38.6
		전 체	19.9	0.2	5.9	11.2	1.9	23.7	37.3	100.0

주 : 1)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대분류 기준이며, 세부적으로는 D=제조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업, F=건설업, GH=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IJ=운수, 창고, 통신업, KLM=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R=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임. 단, 농림어업 및 광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2) 이전직장은 첫 직장 기준임.

3) 수치는 전체에 대한 비중임.

4) 무응답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직업내 또는 직업간 이동의 경우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65.5%가 직업내 (intra-occupation) 이동이 있었으며, 나머지 34.5%는 직업간(inter-occupation)이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69.0%)보다는 대졸(72.6%)이 직업내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졸의 경우가 초기에 직업선택이 용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28> 직장이동(직업)

(단위: %)

학력 구분	이전직장		1	2	3	4	5	6	7	8	전체
	현재직장										
전문대	1		29.2	4.3	3.9	2.6	1.5	0.2	2.0	0.6	44.4
	2		2.8	20.1	0.5	0.4	0.3	0.1	0.3	0.1	24.5
	3		2.7	0.9	2.5	0.6	0.4	0.1	0.7	0.2	8.2
	4		1.0	0.2	0.4	3.8	0.0	0.0	0.1	0.0	5.4
	5		0.8	0.3	0.5	0.1	4.1	0.2	0.3	0.1	6.5
	6		0.3	0.1	0.1	0.1	0.2	0.3	0.2	0.0	1.3
	7		1.4	0.6	0.3	0.1	0.2	0.2	4.5	0.1	7.4
	8		0.5	0.1	0.3	0.1	0.2	0.1	0.2	1.0	2.4
	전체		38.7	26.7	8.6	7.7	6.8	1.2	8.2	2.1	100.0
대학교	1		41.8	4.4	3.0	1.0	1.1	0.4	2.0	0.5	54.1
	2		3.9	14.3	0.3	0.1	0.1	0.1	0.4	0.0	19.2
	3		2.5	0.5	3.1	0.2	0.1	0.0	0.4	0.1	6.9
	4		0.7	0.2	0.3	1.0	0.0	0.0	0.0	0.0	2.2
	5		0.5	0.3	0.2	0.1	5.5	0.0	0.2	0.1	6.9
	6		0.2	0.0	0.2	0.0	0.0	0.3	0.0	0.0	0.7
	7		1.6	0.3	0.3	0.1	0.2	0.1	5.6	0.0	8.1
	8		0.4	0.0	0.2	0.1	0.1	0.0	0.1	1.0	2.0
	전체		51.7	19.9	7.6	2.4	7.2	0.9	8.7	1.8	100.0

주 : 1) 직업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상 대분류 기준이며, 세부적으로는 1= 관리직 및 경영, 회계, 사무, 금융.보험,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 관련직이, 2= 법률. 경찰. 소방. 교도, 보건. 의료, 사회복지 및 종교,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이, 3= 운전 및 운송, 영업 및 판매,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이, 4=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및 음식 서비스, 식품가공 관련직이, 5= 건설 및 기계 관련직이, 6= 재료 및 화학, 섬유, 의복 관련직이, 7= 전기, 전자, 정보통신 관련직이, 8=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 그리고 농림어업 관련직이 포함됨.

- 2) 이전직장은 첫 직장 기준임.
- 3) 수치는 전체에 대한 비중임.
- 4) 무응답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한편, 최근 대졸이상 졸업생들의 취업난과 기업의 고용형태 변화 등으로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과연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가교(bridge)인가, 아니면 계속적인 비정규직의 함정(trap)인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통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첫 직장과 현재 직장 간 종사상 지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현재 취업자 기준) 72.5%가 계속적인 상용직으로의 취업 상태에, 7.6%는 계속적인 임시·일용직의 취업상태에 있는 등 80.1%가 고용형태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19.9%는 고용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11.1%는 임시·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이동한 반면에, 8.8%는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이동하여 과거 임시·일용직에서 현재 상용직으로 직장이동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졸업자 10명 중 1명 미만이 임시·일용직의 함정에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학력별로는 전문대졸보다는 대졸이 종사상지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시·일용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전문대졸(7.1%)보다는 대졸(8.1%)가 1%포인트 가량 높았다.

<표 V-29> 직장이동(종사상지위)

(단위: 명, %)

구 분	이전직장		상용	임시·일용	전 체
	현재직장				
전문대	상 용		2,398(71.9)	394(11.8)	2,792(83.7)
	임시·일용		306(9.2)	237(7.1)	543(16.3)
	전 체		2,704(81.1)	631(18.9)	3,335(100.0)
대학교	상 용		1,895(73.0)	272(10.5)	2,167(83.5)
	임시·일용		217(8.4)	211(8.1)	428(16.5)
	전 체		2,112(81.4)	483(18.6)	2,595(100.0)

- 주 : 1) 정규직은 상용근로자를, 비정규직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말함.
 2) 이전직장은 첫 직장 기준임.
 3) ()안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비중임.
 4) 무응답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다. 직무의 변화

대다수의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들은 현재 자신이 취업하고 있는 직장이 학교에서 전공한 학과와 어느 정도 밀접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2.9%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57.8%)보다는 대졸(68.1%)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첫 직장에서의 전공의 밀접도가 67.9%(전문대졸 65.8%, 대졸 69.9%)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졸업생들이 직장을 이동할 때 전공간 밀접도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표 V-30> 직장과 학교전공간 밀접도 변화

(단위: 명, %)

구 분	이전직장		전혀 밀접안함	거의 밀접안함	다소 밀접	매우 밀접	전체
	현재직장						
전문대	전혀 밀접 안함		476(13.6)	106(3.0)	195(5.6)	200(5.7)	977(27.9)
	거의 밀접 안함		124(3.5)	171(4.9)	115(3.3)	89(2.5)	499(14.3)
	다소 밀접		88(2.5)	120(3.4)	449(12.8)	223(6.4)	880(25.2)
	매우 밀접		83(2.4)	26(0.7)	159(4.5)	872(24.9)	1,140(32.6)
	전 체		771(22.1)	423(12.1)	918(26.3)	1,384(39.6)	3,496(100.0)
대학교	전혀 밀접 안함		267(9.7)	63(2.3)	85(3.1)	91(3.3)	506(18.4)
	거의 밀접 안함		72(2.6)	155(5.6)	89(3.2)	58(2.1)	374(13.6)
	다소 밀접		73(2.7)	86(3.1)	427(15.5)	194(7.1)	780(28.4)
	매우 밀접		64(2.3)	48(1.7)	180(6.5)	799(29.0)	1,091(39.7)
	전 체		476(17.3)	352(12.8)	781(28.4)	1,142(41.5)	2,751(100.0)

- 주 : 1) 이전직장은 첫 직장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비중임.
 3) 무응답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한편, 현재 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업무내용이 본인의 학력수준에 비해 어떠한냐는 학력 수준과 업무 내용간 비교를 보면, 학력과잉(overeducation)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문대졸과 대졸 모두 이전 직장에서는 22.2%, 현재 직장에서는 22.3%

의 비중을 나타내 직장을 이동한 후에도 학력과잉의 문제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직장을 이동하고 나서 학력과잉의 비중이 오히려 소폭 상승(이전 직장의 경우 23.2%에서 현재 직장 23.6%)한 반면에 대졸은 소폭 하락(이전 직장의 경우 21.2%에서 현재 직장 20.9%)한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반수에 가까운 49.3%(전문대졸 46.3%, 대졸 52.2%)가 이전 직장에서도나 현재 직장에서도나 하고 있는 업무와 학력수준이 일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학력과잉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다.

<표 V-31> 직장에서의 업무 대비 학력수준 변화

(단위: 명, %)

구 분	이전직장		높음	적당	낮음	전체
	현재직장					
전문대	높음		360(10.4)	354(10.2)	103(3.0)	817(23.6)
	적당		353(10.2)	1,604(46.3)	246(7.1)	2,203(63.7)
	낮음		91(2.6)	193(5.6)	157(4.5)	441(12.7)
	전 체		804(23.2)	2,151(62.1)	506(14.6)	3,461(100.0)
대학교	높음		252(9.2)	244(9.0)	74(2.7)	570(20.9)
	적당		277(10.2)	1,422(52.2)	167(6.1)	1,866(68.5)
	낮음		48(1.8)	120(4.4)	121(4.4)	289(10.6)
	전 체		577(21.2)	1,786(65.5)	362(13.3)	2,725(100.0)

- 주 : 1) 이전직장은 첫 직장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비중임.
 3) 무응답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4. 노동시장 기준으로 본 학과 전망

노동시장에서 학과별 고용율, 취업률 등은 학과별 노동시장 전망의 기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수치는 현재의 노동시장에서의 학과별 평가의 성격을 가진다.²⁵⁾ 한편, 현재의 노동시장의 상황은 어렵더라도 향후 전망은 우수할 수 있으며,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앞서 보고된 학과별 노동시장 평가에 부가하여 졸업생조사에서의 조사된 주관적 학과전망 결과를 비교하며, 종합적인 학과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의 학과별 취업률을 비교하면, 초등교육, 특수교육, 의료, 약학, 정밀-에너지, 교육일반, 간호, 음악, 치료-보건, 전기-전자학과가 취업률 상위 10개과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것으로서, 비경제활동인구 포함한 전체 졸업자에서의 취업 즉, 고용율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이들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고용율을 기준으로 할 때는 토목-도시, 기계-금속, 건축이 포함되고 교육일반, 음악, 치료-보건의 상위 10개과에서 탈락한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활동 참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교육일반, 음악 전공자의 경우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률은 높으나, 전체 졸업자에 대해 계산한 고용율은 낮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제활동 참가의 차이는 성별차이와도 연결되는 것으로서, 학과전망에서 성별 구분이 필요함을 보이는 것이다. 성별 전망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좀 더 검토하기로 한다.

한편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성가에 부가하여 졸업생조사에서의 조사된 주관적 학과전망 결과를 대비하면, 간호, 초등교육, 약학, 전기-전자, 치료-보건, 특수교육, 유아교육, 경영-경제, 의료, 컴퓨터-통신 등이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

25) 이러한 수치들이 양적인 평가정보를 제공한다면, 임금수준은 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별 이질성이 상당한 가운데에서의 학과별 임금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는 없다. 학과별 임금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별-지역별 차이 등이 주의 깊게 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과별 임금정보를 포함한 학과별 노동시장 평가는 별도의 심층 분석을 요청하며, 추후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26) 흥미로운 것은 건축, 토목-도시, 음악, 정밀-에너지 등은 현재의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 혹은 고용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전망에서는 하위10개과에 포함되고 있으며, 특히 건축학과의 경우 매우 부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단일 기준을 이용한 전망의 위험을 잘 예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는 초등교육, 특수교육 등의 교육계열, 의료, 약학, 간호 등 의료계열, 전기-전자, 컴퓨터-통신 등 IT 계열, 경영-경제 등의 학과 전망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26)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나쁨 = -2)*(매우 나쁨 비율) + (나쁨 = -1)*(나쁨 비율)을 이용하여 부정적인 전망 점수를 작성하고, (매우 좋음 = 2)*(매우 좋음 비율) + (좋음 = 1)*(좋음 비율)을 이용하여 긍정적인 전망 점수를 작성하여 각각 크기순으로 분류하였다.

<표 V-32> 학과 비교(전문대)

구분	취업률	고용율	참가율	긍정적 전망기준	부정적 전망기준
상위 10개과	교통 운송 화공 법률 특수교육 수학물리천문 지리 유아교육 음악 농림 수산 무용 체육 전기 전자	교통 운송 산업 화공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간호 치료 보건 토목 도시 법률 컴퓨터 통신	교통 운송 산업 기계 금속 화공 간호 전기 전자 치료 보건 컴퓨터 통신 토목 도시 건축	특수교육 교통·운송 무용·체육 연극·영화 유아교육 농림·수산 간호 음악 사회과학 응용예술	특수교육 간호 유아교육 교통·운송 무용·체육 음악 사회과학 경영·경제 연극·영화 언어·문학
중간	토목 도시 정밀에너지 산업 간호 치료 보건 경영 경제 생활과학 사회과학 디자인 건축	무용 체육 유아교육 건축 특수교육 경영 경제 인문과학 생활과학 연극 영화 사회과학 농림 수산	연극 영화 인문과학 생물 화학 환경 경영 경제 무용 체육 유아교육 생활과학 사회과학 법률 응용예술	인문과학 화공 치료·보건 경영·경제 미술·조형 언어·문학 생활과학 컴퓨터·통신 전기·전자 디자인	정밀·에너지 수학·물리·천 문·지리 농림·수산 법률 생활과학 치료·보건 산업 교육일반 응용예술 소재·재료
하위 10개과	교육일반 기계 금속 컴퓨터 통신 언어 문학 응용예술 인문과학 소재 재료 미술 조형 연극 영화 생물 화학 환경	정밀에너지 음악 수학물리천문 지리 응용예술 생물 화학 환경 디자인 교육일반 소재 재료 언어 문학 미술 조형	특수교육 정밀에너지 디자인 농림 수산 음악 수학물리천문 지리 교육일반 소재 재료 언어 문학 미술 조형	정밀·에너지 수학·물리·천 문·지리 교육일반 생물·화학·환 경 기계·금속 토목·도시 산업 건축 소재·재료 법률	전기·전자 미술·조형 컴퓨터·통신 기계·금속 디자인 생물·화학·환 경 화공 인문과학 토목·도시 건축

<표 V-33> 학과 비교(대학교)

구분	취업률	고용율	참가율	긍정적 전망기준	부정적 전망기준
상위 10개과	초등교육 특수교육 의료 약학 정밀에너지 교육일반 간호 음악 치료 보건 전기 전자	초등교육 특수교육 의료 간호 약학 토목 도시 전기 전자 정밀에너지 기계 금속 건축	초등교육 특수교육 의료 간호 토목 도시 약학 건축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산업	간호 초등교육 약학 전기·전자 치료·보건 특수교육 유아교육 경영·경제 의료 컴퓨터·통신	초등교육 간호 특수교육 약학 유아교육 의료 전기·전자 경영·경제 디자인 치료·보건
중간	디자인 중등교육 농림 수산 토목 도시 경영 경제 유아교육 법률 기계 금속 생활과학 언어 문학 무용 체육 수학·물리 천문·지리 건축 인문과학	치료 보건 디자인 경영 경제 무용 체육 산업 컴퓨터 통신 응용예술 사회과학 소재 재료 연극 영화 농림 수산 화공 중등교육 음악	정밀에너지 치료 보건 경영 경제 디자인 연극 영화 컴퓨터 통신 무용 체육 응용예술 사회과학 화공 소재 재료 농림 수산 교통 운송 중등교육	연극·영화 교통·운송 디자인 교육일반 무용·체육 중등교육 응용예술 사회과학 기계·금속 산업 소재·재료 화공 언어·문학 인문과학	컴퓨터·통신 화공 산업 교통·운송 법률 무용·체육 기계·금속 생활과학 중등교육 교육일반 응용예술 수학·물리 천문·지리 사회과학 언어·문학
하위 10개과	소재 재료 사회과학 교통 운송 생물 화학 환경 화공 미술 조형 응용예술 컴퓨터 통신 산업 연극 영화	교통 운송 언어 문학 생활과학 법률 생물 화학 환경 인문과학 수학·물리 천문·지리 미술 조형 교육일반 유아교육	생물 화학 환경 언어 문학 생활과학 음악 법률 인문과학 미술 조형 수학·물리 천문·지리 유아교육 교육일반	생물·화학·환경 수학·물리 천문·지리 법률 농림·수산 음악 생활과학 미술·조형 토목·도시 정밀·에너지 건축	생물·화학·환경 소재·재료 음악 인문과학 정밀·에너지 농림·수산 미술·조형 토목·도시 연극·영화 건축

다음, 전문대 학과별 취업률을 보면, 교통-운송, 화공 등 공학계열을 수위로 하여,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교육계열, 음악, 무용-체육 등 예능계열 등이 상위 10개과에 포함되고 있다. 한편,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이들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고용율을 기준으로 할 때는 산업, 기계-금속, 전기-전자, 토목-도시 등 공학계 학과가 대거 상위 10개과에 포함되는 한편, 교육계열 및 예능 계열은 10위권을 벗어난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할 것처럼, 성별-경제활동 참가율의 차이와 성별-전공별 취업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한편, 주관적 평가에 있어서는, 다시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교육계열과 무용-체육, 음악 등 예능계열이 10위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취업률, 고용율, 주관적 전망 등을 종합할 때, 전문대에서도 대학 학과전망에서와 유사하게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의 교육계열, 간호 등 의료계열, 경영-경제 등의 학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전망을 가지는 한편, 대학 학과전망에서는 상위에 포함되지 못하였던 교통-운송 학과가 전문대에서의 전망 우수학과에 포함된다. 한편, 전문대 학과전망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화공, 전기-전자 등 공학계열이 취업률, 고용율에서 상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전망에서는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산업인력, 기능인력 양성으로의 전문대 역할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전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전문대에서의 이공계 기피가 더욱 가속화될 것을 보이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과별 전망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자. 여기에서는 졸업후 구직기간의 차이를 성별로 비교하기로 한다. 아래의 표는 4장의 성별-전공별(대분류 수준) 구직기간을 이영하여 평균적 구직기간을 계산한 것이다.²⁷⁾ 구직기간이 짧을수록 긍정적인 학과전망이 도출되는데, 대졸남성의 경우는 의학-예체능-공학-인문-사회-사범-자연의 순서로 구직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반면, 대졸여성의 경우에는 예체능-의학-공학-사회-자연-사범-인문의 순서가 나타난다. 전문대 졸업 남성의 경우에는 공학-의학-자연-사범-사회-예체능-인문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사범-의학-공학-사회-예체능-자연-인문

27) <표 IV-13> 및 <표 IV-14>에서 '졸업이전 취업'은 구직기간을 0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한편, 구직기간에서 중분류 수준의 분류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무응답 및 유효하지 않은 응답을 제외할 경우 가용자료의 제약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별-전공별(대분류 수준) 구직기간의 차이는 학과별 전망이 성별로 구분되어야 함을 보인다.

<표 V-34> 성별 및 학과별 평균 구직기간

구 분	전문대		대학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인문	7.2	7.0	6.9	8.0
사회	6.9	5.6	7.0	7.2
사범	6.8	3.0	7.9	8.0
공학	5.6	5.1	6.9	6.6
자연	6.5	6.8	8.1	7.9
의학	5.6	3.9	3.5	5.7
예체능	7.1	5.9	6.0	5.6

그러나 현재의 자료로는 이러한 성별 차이를 학과 소분류수준에서 통제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학과별 차이는 현실적으로 학교 차이에 상당히 영향을 받으며, 지역차이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현재의 자료 수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과별 전망에서 성별, 지역별 차이 등이 존재한다는 점이 염두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VI. 요약 및 정책과제

1. 시사점 및 정책과제

가. 청년층 경제활동과 교육 및 노동시장 상황

(1) 청년층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의 시사점

2003년도와 비교해 2005년도 조사결과를 통해 얻은 중요한 변화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문대는 1.7%p, 대학은 7.0%p나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승은 조사시점의 변화의 차이를 감안 하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증가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과제가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각 대학이 재학생에게 진로 및 취업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거나 취업을 위한 지도 및 알선을 활발히 하여 취업성과를 높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은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취업을 제고한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증가를 위해서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대학이 취업률이 높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 평가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등의 지원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 여자 대학생을 위한 산업별로 직업별로 차별화된 진로 지도 및 취업지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문대와 대학의 지원방법이나 평가방법이 다르게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2) 학과별 경제활동 상태

졸업생 조사결과를 수합한 경제활동상태결과를 살펴보면 전문대에서는 산업, 기계금속, 화공학과의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반면 미술조형, 언어문학, 교육일반 등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학의 경우에는 초등교육, 의료, 간호, 약학과 등에서 높았고 교육일반, 유아교육 미술조형 등에서 낮았다.

학과별실업률은 전문대는 생물화학환경 학과 졸업자의 실업률이 9.4%로 높았고 대학의 경우에는 연극영화과의 실업률이 10%로 가장 높게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는 경제활동이 높은 학과의 취업률이 대체로 취업률이 높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환언하면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경제활동이 높은 학과는 노동시장에서 졸업생 수요가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정부에서 양적인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여부이다. 이러한 현재 시장의 수요 여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과별 경제활동상태는 매우 활용가치가 크다 할 것이다.

한편 실제로 노동시장시장의 졸업생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생 조사결과와는 비교적 경제활동 상태가 낮게나온 학과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기대한 만큼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채 공급이 되어 시장이 외면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증거는 신규 졸업생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관행이 확산되어 있거나, 신규졸업생 인력 풀 내에는 기업에서 필요한 전공이 일치해도 신규졸업생을 채우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 개편과 같은 질적인 개혁을 위한 대학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앞에서는 노동시장 수요측면에서 반응한 대학의 학과별 경제활동상태변화에 따른 반응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교육시장의 수요자이면서 노동시장의 공급자인 신규졸업자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에 따른 특징을 연결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로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졸업생중 구직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비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 단념자가 존재하고 있는 점이다. 즉 공공부문에는 자격 제한 없이 일정간격의 공채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거나, 민간부문의 대기업의 경우에는 졸업년도 등의 제한을 갖고 특정시기에 신규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재수생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졸자 취업률 및 실업률 통계 해석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으로 고용의 확대와 고용방법의 관행개선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회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인적자본스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제는 2003년 조사보다는 2005년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상태가 개선된 사실이다. 지난 2년간 정부는 경제활동증가 즉 신규 대학 졸업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많은 정책과제를 시행하였다. 경제상황의 변화를 감안하고도 정책시행 과제 중 취업률 제고에 기여한 정책지원내용을 평가해 정책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추진 해왔던 대학의 취업지도 지원이나 진로지도와 같이 대학과 기업을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하거나 새로운 교과과정지원 등과 같은 대학과 기업의 필요를 지원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의 이행(school to work)

(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준비(school to work)

고등교육단계에서 직업의 준비과정에서 재학중 일한 경험유무가 주는 시사점은 응답자중 정규직 취업경험(8.9%)과 현장실습(20.1%)을 경험한 졸업생들은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되었으나, 아르바이트(64.3%) 경험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향후 재학생들의 취업을 증가하기 위해서 대학이나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과제는 인턴십 등의 정규직 취업경험과 현장실습의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졸업생의 자격증 확보에 따른 취업의 도움을 주는지의 여부를 조사 했으나 자격증 취득이 큰 도움이 못 되는 것은 학력이 주는 공신력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자격이 능력을 담보하는 신호기제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격=능력 이라는 기업의 인식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격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자격증 정책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외에도 대규모 채용관행에서 수시채용으로 변화하면서 졸업생에게 강조하는 것은 영어능력과 컴퓨터 활용능력이다. 이를 위한 졸업생자신의 자기 주도적인 노력은 물론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2)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

졸업 후 첫 직장의 구직기간을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대학의 경우는 6개월 이내 여성의 경우 의학계열이 72.7%, 예체능계열 70.8% 공학계열이 69.5%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의학계열이 84.1%, 예체능계열이 69.9%, 공학계열이 66.55로 나타났으며, 졸업후 2년까지 취업을 못하고 있는 계열은 여성의 경우 사범계가 20.1%, 인문계열 16.7%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의 경우에도 경우 인문계열 14.3%, 자연계열 13.2%였고, 남성의 경우도 대졸은 사범계가 17.5%, 전문대졸은 16.7%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열별 취업의 차이에서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계열이 차이가 두드러져 향후 입학학생 수 조정에 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전공계열에서의 동일기간의 남녀간 취업률차이를 감안하면 취업을 위한 대책이 남녀간 다르게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

졸업자의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들고 있다. 이는 '사회적 지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보수보다 미래의 기대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발전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미래의 직업연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학생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응답자는 '전공일치성'이 '전망' '고용안정성'보다 낮게 나타

나는 것은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요구가 대학에서의 교과과정 변화와 변화된 교과과정의 내용을 시장의 요구 수준에 맞게 신속히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산학 협력을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학의 취업정보센터는 노동시장의 채용정보는 물론 직업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 졸업생 노동시장 성과

(1) 산업별 구조변화와 교육시장과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내용을 산업별로 살펴봄으로서 산업구조변화가 교육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의 과제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취업자중 3차 산업에 취업한 취업비중이 77.3%로 3차산업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식정보화의 심화, 산업의 서비스화 및 소프트화의 진전으로 서비스업의 신규 졸업생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서비스업종 중 사업서비스업이나 제조업지원서비스업종 중 지식서비스업종의 지식 및 기술변화가 빠르고 업종의 기술수요 변화가 빠름을 감안하면 교육시장에서의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의 변화가 같이 빠르게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교수의 새로운 연구성과나 교육성과가 교실에서 인적자원개발로 확산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더 산학연계 평가 및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선정한 10대 미래 산업의 핵심 인력공급 부문의 양적 질적으로 원할한 공급을 위해서 교육시장의 인적자원양성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제 2차 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적인 문제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직업별 구조변화와 개인별 과제

대학졸업자의 취업중 직업분야를 살펴보면 관리·전문·준 전문직의 비중이 매우 높아 전문대졸자는 47.6%, 대졸자는 64.0%의 취업비중을 보이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인력수급부문을 참조하면 2015년까지 대졸자의 전문직에 대한 취업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졸업자의 대부분이 전문직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부문에서 초과공급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일이 각 개인별로는 중요할 것이다. 정부는 대졸자의 대부분이 전문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생기는 비 전문직의 대졸자 부족현상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정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즉 전통적으로 대졸자가 취업하던 직종중 대졸자 공급부족현상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의 주종은 3D 직종에 머무르고 있으나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입학자원이 부족한 지방대학의 특별 전공부문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개방하여 지방의 특수 업종의 부족한 대졸인력 직종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그 하나가 될 것이다.

(3) 민간기업의 고용확충을 위한 과제

2003년에 조사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상의 기업규모가 9인 이하의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45.3%인데 비해 이중 전문대졸이 33.1%, 대졸자가 23.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졸자는 9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 보다 큰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런 사실은 소규모기업이 필요한 대졸 핵심인력 확보에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간 성장발전이 양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규모기업의 대졸확보방안 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9인 이하기업의 고용증가를 통해 대졸자 취업률도 높이고 소규모기업의 대졸 인력확보 애로를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4) 학과별 노동시장 수급여건이 전문대보다는 대학에서 큰 편차가 존재

학과별 취업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자의 비정규직 취업 비율이 학과별로 큰 편차가 없는 반면 대학의 학과별 편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학과별 노동시장 수급여건이 전문대보다는 대학이 큰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수급여건개선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졸업생 입장에서도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선호를 덜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정규직으로 뽑기보다는 비정규직으로 뽑는 것이 유리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의 질이 정규직에 비해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대학의 학과별 비정규직 취업 비율의 크기가 매우 다양한 것은 비정규직의 취업이 높은 학과의 노동시장 수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고용여건을 반영한 대학학과의 구조조정계획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지역균형개발을 위한과제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정책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도권간 인력유출입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대졸 취업자의 38.2%가 서울소재 사업장에 취업을 하고 있으며 출신대학과 출신지역의 일치율은 55.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입학학생 자원이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 특성화를 위한 지역기업의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안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입학자원이 줄어드는 과제와 특성화를 지향하는지역 기업의 인력확보의 애로가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할 것이다. 한 마디로 지방의 인적자원부족과 관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외국인 인적자원개발로 전문직 근로자 확대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정책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 전공과 직무 유용성 과제

다음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전공간의 관련성이다. 전문대 졸업자는 38.2%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은 29.3%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과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85%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직무 만족도가 높은 현상이 직업능력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노동시장내의 졸업생이 속한 업종에서의 기술변화가 심할 때는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 전공과 직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 수업에서의 새로운 교과과정과 어떤 교육내용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졸업생의 2-3가지 광역화된 전공능력을 대학에서 습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졸업생들이 기초직업능력을 체화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는 정책과제를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7) 과잉학력과 학교교육

전문대가 21.1%, 대학은 18.35로 나타났다. 전문대는 과잉학력편차가 대학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에서는 인문계열중 법률, 언어문학과, 자연계열 중 화공, 생물화학환경 예체능 계열 중 무용체육, 미술조형 등에서 과잉교육비중이 높았다. 전공별 과잉교육 규모는 해당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력수급의 추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과잉공급을 하는 경우는 하향취업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인적자본의 손실은 물론 인적자원개발을 크게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특히 전문대의 과잉학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직무의 다양화와 전문화로 매우 세분된 직무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고졸과 대졸인력의 중간 직무영역 개발이 미흡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직무를 분할하여 전문대졸자의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공계열 혹은 학과의 과잉인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그 결과를 학과조정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분석 결과를 시간

에 맞게 대학전공을 선택하는 대학 입학예정자에게 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공간 비교에서 학력과잉도 문제지만 2004년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는 현실에서 대학졸업생의 양적인 과잉공급으로 과생되는 과제도 매우 중요하다. 노동시장에서 고교졸업생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교졸업생수와 대학졸업생수의 사회적 수요에 맞는 공급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의 선행과제는 고교의 특성화 시도 성과와 능력 있는 고교졸업생 배출로부터 노동시장의 채용 관행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경제·사회의 변화와 직업세계의 변화로 인해 대학이나 전문대들의 학과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전공이 계속 출현할 뿐 아니라 기존의 학과 역시 명칭이나 교육과정의 성격이 변화한다. 다양하고 많은 대학의 학과 가운데 특정 학과를 선택하는 일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학과 선택을 위해서는 졸업 후 자신의 진로, 즉 자신의 직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을 입학하고자 하는 많은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 진학담당자, 그리고 입시관계자들에게 어느 학과를 전공해야 만이 앞으로의 직업생활,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활을 운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는 의구심은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인이 전공했던 학과에 대해 직접 평가 또는 전망한 정보는 이러한 사회적 의구심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기초자료로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조사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문대와 대학교 졸업생들이 직업세계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주기적인 기초통계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생성된 기초통계의 결과는 본 원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출판하고 있는 『미래의 직업세계』의 주요 내

용으로 이용된다. 또한 본 조사는 조사의 핵심 틀이 되는 표본설계와 조사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사의 설계 및 조사과정의 타당성과 조사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제Ⅱ장의 졸업생 조사 실시를 위한 모집단 설정과 표본 틀 구성, 표본추출 과정에서부터 제Ⅲ장의 설문항목 구성과 조사 기준 및 학과분류 기준 마련, 그리고 제Ⅳ장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 학교세계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school to work transition)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결과들을 고려하면, 조사내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내실 있는 졸업생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조사규모가 세부적인 항목까지도 유의한 수준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표본 수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조사규모 작음에 따라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조사결과의 확보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며, 특히 보다 유용한 「전공-직업」행렬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모집단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모집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졸업생들의 모집단에 대한 특성이 확인되어야 조사결과를 모집단의 특성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졸업생 전수표본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모집단 구성을 위해 모든 전문대 및 대학교로부터 졸업생들의 전체 명부의 확보가 요망되며,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인 틀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는 졸업생 개인 식별을 위한 코드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률상에 위배되는 범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의 도입을 통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대한 개별정보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셋째는 명부의 불확실성 해소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 및 대학교의 철저한 졸업생 명부관리가 요망된다.

셋째, 조사내용의 추가적인 보완과 아울러 조사를 위한 전공분류체계를 확립하

는 것이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전공 분류 체계는 중분류 수준에서 사용은 가능할 것이나 세분류 수준 이하, 특히 학과 단위의 분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사결과를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즉, 학과별 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노동시장의 이행과정을 포착하는데 실효성을 가지도록 전공분류의 최종 보완을 필요로 한다.

넷째, 졸업생 조사가 기초통계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 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시계열자료를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정보는 주로 개인들이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직업세계의 변화 과정에서 선택하는 주관적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특정 시점의 상태와 다른 시점의 상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분석은 수시로 변화하는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계열 자료는 신규인력의 공급 전망과 신규인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가 된다. 따라서 졸업생 조사도 시계열 통계로서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졸업생 조사를 법률상에 명시화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다.

다섯째,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적조사 등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매년 횡단면 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횡단면 조사에 사용된 표본으로부터 동일한 졸업생을 추적조사(follow-up survey)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적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종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교육의 성과 분석뿐만 아니라 전공-직무의 불일치의 지속 정도를 파악하여 노동시장에서 수급의 질적 불일치의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추후 보완

김석진(2004)

김형만·장홍근·전재식·유성재(2001), 『대학·전문대학 졸업생 취업실태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용역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형만·장홍근·전재식·김철희·유성재(2002), 『전문대·대학 졸업생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용역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박재민 외(2003),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및 진로지도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미래유망직업전망』, 한국과학문화재단.

방하남·김기현(2002),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신분이동 및 성취구조」,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

방하남 외(2005),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안주엽·전병유·장수명·홍서연(2002),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임언(2005).

장홍근(2001),

장홍근(2002), 「전직 실업자의 구직형태, 임금유보성향 및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제5권2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손유미·노일경(2002), 『여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유망직업연구』, 여성부.

한상근·정용석·김나라(2002), 『직업변동에 관한 연구(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상근·임언·이지연·이경상·정윤경(2002),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2),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추진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 『최근 청년층 실업현황과 정책과제』, Krivet Fellow Forum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통계청(2005),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한국교육개발원(2003), 『2003 학과(전공)분류 자료집』.

- Denison(1985),
McGinn(1980),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2001), 'World of Work: overview and Trends', Job Futures 2000.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2001), 'Outlooks by Occupation', Job Futures 2000,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2001), 'The School to Work Transition of Post-secondary Graduates in Canada: Research Findings Based on the National Graduate Surveys', Applied Research Bulletin. Special Edition.
M. Spence(1973), "Job Market Signall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arkin F(1971),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London: MacGibbon & Kee.
Stigler, G.(1962), "Information in the Labor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0.
T. Lancaster(1979), 'Econometric Methods for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Econometrica, Vol.47, July 1979.

부 록

<부표 1> 학과분류표(전문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문계열	언어·문학	일본어, 중국어, 영어, 유럽·기타어, 문예창작, 교양어
	인문과학	문헌정보, 문화, 인문일반
사회계열	경영·경제	경영·경제, 관광, 금융·회계·세무, 무역·유통
	법률	법
	사회과학	가족·사회·복지, 비서, 언론·방송, 행정
교육계열	교육일반	사회·자연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공학계열	건축	건축·설비, 건축, 조경, 건설
	토목·도시	토목
	교통·운송	지상교통, 해양
	기계·금속	기계, 금속, 자동차
	전기·전자	전기, 전자, 제어계측
	정밀·에너지	광학·에너지
	소재·재료	반도체·세라믹, 섬유, 재료
	컴퓨터·통신	전산·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산업	산업공학
	화학	화학공학
자연계열	농림·수산	농수산, 원예
	생물·화학·환경	생물, 자원, 환경
	생활과학	가정관리, 식품·조리, 의류·의상
	수학·물리·천문·지리	지적
의약계열	간호	간호
	치료·보건	보건, 재활, 의료장비, 의무행정
예체능계열	디자인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응용예술	공예, 사진·만화, 영상·예술, 뷰티아트
	무용·체육	무용, 체육
	미술·조형	미술
	연극·영화	연극·영화
	음악	음악

<부표 2> 학과분류표(대학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문계열	언어·문학	언어학, 국어·국문학, 일본어·문학, 중국어·문학, 기타 아시아어·문학, 영미어·문학, 독일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스페인어·문학, 프랑스어·문학, 기타 유럽어·문학, 교양어·문학
	인문과학	문헌정보학, 화·민속·미술사학, 심리학, 역사·고고학, 종교학, 국제지역학, 철학·윤리학, 교양인문학
사회계열	경영·경제	경영학, 경제학, 관광학, 광고·홍보학, 금융·회계·세무학, 무역·유통학, 교양경상학
	법률	법학
	사회과학	가족·사회·복지학, 국제학, 도시·지역학, 사회학, 언론·방송·매체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교양사회과학
교육계열	교육일반	교육학
	유아교육	유아교육학
	특수교육	특수교육학
	초등교육	초등교육학
	중등교육	언어교육, 인문교육, 사회교육, 공학교육, 자연계교육, 예체능교육
공학계열	건축	건축·설비공학, 건축학, 조경학
	토목·도시	토목공학, 도시공학
	교통·운송	지상교통공학, 항공학, 해양공학
	기계·금속	기계공학, 금속공학, 자동차공학
	전기·전자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정밀·에너지	광학공학, 에너지공학
	소재·재료	반도체·세라믹공학, 섬유공학,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컴퓨터·통신	전산학·컴퓨터공학, 응용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공학
	산업	산업공학
	화공	화학공학
	기타	기전공학, 응용공학
자연계열	농림·수산	농업학, 수산학, 산림·원예학
	생물·화학·환경	생명과학, 생물학, 동물·수의학, 자원학, 화학, 환경학
	생활과학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류·의상학, 교양생활과학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수학 · 물리	수학
	천문 · 지리	통계학, 물리 · 과학, 천문 · 기상학, 지구 · 지리학, 교양자연과학
의약계열	의료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	간호학
	약학	약학
	치료 · 보건	보건학, 재활학
예체능계열	디자인	디자인일반,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응용예술	공예, 사진 · 만화, 영상 · 예술
	무용 · 체육	무용, 체육
	미술 · 조형	순수미술, 응용미술, 조형
	연극 · 영화	연극 · 영화
	음악	음악학, 국악, 기악, 성악, 작곡, 기타음악

<부표 3> 설문항목 구성

조사영역	항목수	세부항목
인적사항 항목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상태 · 병역여부 · 출신고교 계열 · 출신고교 소재지
전공지원 동기, 휴학 및 편입학 관련 항목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이중)전공, 부정공, 연계전공 · 전공지원(선택)의 주된 동기 · 향후 전공 전망 · 휴학여부 및 이유 · 편입학 여부 · 현재의 학교 재학여부 · 교육상황 : 학교유형, 학교진학 방법, 수학 상태, 학과, 학교소재지 등 · 편입/진학의 주된 이유 · 전공변경의 주된 이유
전공 및 학업 내용 만족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리큘럼 · 강의 내용과 수준 · 취업능력 향상에 도움 정도
직업훈련 및 자격증, 그리고 재학 중 일 경험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재학 중 학원/직업훈련 이수 경험 · 대학 졸업 후~취업 전까지 학원/직업훈련 이수 경험 · 현재 자격증 취득 현황 : 자격증수, 자격명칭, 자격등급, 취득년월, 자격종류 번호, IT관련 성 여부, 전공관련성 여부
구직활동과 구직과정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직장을 얻기까지 최종면접한 회사의 수 · 졸업 당시 희망 임금 수준 · 구직 당시 직업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 · 재학 중 구직활동 과정에서 학교내 취업정보센터의 취업에의 도움 정도
경제활동상태 구분항목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주일간의 활동사항 ·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한 활동여부 ·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가 여부 · 지난주의 구직활동여부
외국어 시험 점수 항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EIC, TOEFL, TEPS, JPT 등 외국어 시험 점수

조사영역	항목수	세부항목
취업자항목	21	<p><이행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주의 총 근무시간 · 현 직장의 시작시기 <p><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표준산업분류, IT기술분류) · 사업장 소재지(부서) · 직업분류 · 사업체 규모 · 직위 · 직장의 유형 · 직업(표준직업분류, 고용직업분류, IT직업분류) · 종사상 지위 · 근무형태 · 직장 만족도 · 직장 불만족의 주된 이유 · (세진)총소득 · 지원 교육 현황 · 교육훈련기간 <p><직장과 전공과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직무와 학교전공과의 관련성 · 전공의 직무유용성 · 학력일치도 · 재학 시 습득했으면 직무에 도움이 되었을 기술(능력) <p><전 직장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직장 유무 및 횟수 · 전 직장 경험이 현 직장 취업 도움여부
미취업자 항목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업자 중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구분 항목 : 현재 근무가능 여부, 지난 주 일할 수 없었던 이유, 현재 일할 의향, 지난 6개월 동안 구직 여부 · 구직활동기간 · 구직 방법 · 취업실패 사유 · 희망 고용형태 · 희망 근무형태

조사영역	항목수	세부항목
미취업자 항목 (계속)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직업 : 고용직업분류 · 직장선택 기준 · 희망 직장과 학교전공과의 관계 · 교육훈련여부 · 교육훈련기간 · 교육훈련의 종류 · 교육훈련기관 · 취업을 위한 준비 · 희망 (세진)소득 · 졸업 후 직장경험 유무
졸업 후 첫 직장 항목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직장 시작시기 · 첫 직장 퇴직시기 · 산업: 표준산업분류, IT기술분류 · 부서 · 직업: 표준직업분류, 고용직업분류, IT직업분류 · 사업체규모 · 종사상 지위 · 근무형태 · 직장과 학교전공과의 관계 · 직무의 학력일치도 · 첫 직장 퇴직 이유 · 첫 직장 월평균 (세진)소득

<부표 4> 대학 교육 만족도(전문대)

	교과 과정			강의내용과 수준			취업능력향상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계	12.0	46.5	41.5	10.8	44.5	44.7	24.4	40.0	35.5
언어 문학	10.0	46.4	43.6	9.3	46.0	44.7	24.8	49.9	25.3
인문과학	8.0	42.9	49.1	5.4	42.0	52.7	20.5	46.4	33.0
경영 경제	10.5	46.4	43.1	9.7	45.2	45.0	22.3	39.3	38.4
법률	8.3	50.0	41.7	8.3	33.3	58.3	25.0	66.7	8.3
사회과학	13.1	43.3	43.6	12.1	42.5	45.4	25.7	38.2	36.1
교육일반	7.7	30.8	61.5	7.7	38.5	53.8	26.9	53.8	19.2
유아교육	5.0	35.2	59.8	5.3	29.9	64.8	5.0	28.7	66.3
특수교육	0.0	18.2	81.8	0.0	18.2	81.8	0.0	18.2	81.8
건축	9.9	50.9	39.2	8.9	45.3	45.8	26.8	37.6	35.6
토목 도시	10.7	46.6	42.7	10.4	42.4	47.1	18.0	38.1	43.9
교통 운송	6.1	36.4	57.6	9.1	39.4	51.5	12.1	45.5	42.4
기계 금속	16.0	48.4	35.5	11.7	48.0	40.2	26.4	40.5	33.1
전기 전자	13.6	47.9	38.5	10.6	46.0	43.4	27.3	40.5	32.1
정밀 에너지	8.8	57.9	33.3	9.6	52.6	37.7	15.8	31.6	52.6
소재 재료	10.6	50.0	39.4	11.5	47.1	41.3	24.0	42.3	33.7
컴퓨터 통신	16.3	53.0	30.8	13.9	52.0	34.1	30.2	45.4	24.3
산업	6.2	56.9	36.9	6.2	52.3	41.5	18.5	47.7	33.8
화공	11.6	41.9	46.5	9.3	34.9	55.8	32.6	37.2	30.2
기타	11.8	49.3	39.0	12.1	42.3	45.6	26.6	40.2	33.2
농림 수산	10.4	37.3	52.2	9.0	28.4	62.7	23.9	29.9	46.3
생물 화학 환경	14.6	51.6	33.8	12.8	44.6	42.6	32.6	38.6	28.8
생활 과학	10.8	46.4	42.7	9.0	44.1	46.9	26.9	42.1	31.0
수학 물리 천문 지리	14.9	42.6	42.6	8.5	40.4	51.1	17.0	36.2	46.8
간호	10.5	40.4	49.1	8.3	33.3	58.3	7.9	38.6	53.5
치료 보건	9.1	47.4	43.5	9.1	42.9	48.0	19.7	32.3	48.0
디자인	13.0	46.3	40.7	13.0	46.4	40.5	28.9	42.1	29.1
응용 예술	13.2	43.8	43.0	11.6	42.7	45.7	23.4	41.9	34.7
무용 체육	11.4	35.7	52.9	10.2	36.9	52.9	20.9	35.7	43.4
미술 조형	23.2	48.2	28.6	14.3	53.6	32.1	32.1	33.9	33.9
연극 영화	2.3	29.5	68.2	4.5	27.3	68.2	27.3	15.9	56.8
음악	9.4	32.8	57.8	9.4	32.4	58.2	14.8	28.7	56.6

<부표 5> 대학 교육 만족도(대학교)

	교과 과정			강의내용과 수준			취업능력향상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계	12.1	43.8	44.1	9.3	41.8	48.9	26.9	41.7	31.3
언어, 문학	11.1	41.0	47.9	9.2	39.6	51.3	32.2	43.5	24.3
인문과학	9.6	34.2	56.2	7.1	31.4	61.4	29.3	42.2	28.6
경영, 경제	10.7	47.6	41.7	10.1	44.8	45.2	24.7	43.7	31.7
법률	6.5	43.4	50.2	6.8	41.2	52.0	26.7	48.7	24.5
사회과학	11.5	41.4	47.1	8.7	41.3	50.0	28.0	41.9	30.1
교육일반	6.6	37.6	55.8	8.3	40.9	50.8	33.7	36.5	29.8
유아교육	8.3	34.0	57.7	7.5	38.6	53.9	20.3	41.1	38.6
특수교육	16.3	42.9	40.8	14.3	40.8	44.9	6.1	44.9	49.0
초등교육	10.5	35.2	54.3	6.8	34.6	58.6	6.8	30.2	63.0
중등교육	12.2	40.2	47.6	9.3	39.8	50.9	22.3	35.1	42.7
건축	15.0	45.9	39.1	11.4	47.7	40.9	29.6	42.4	28.0
토목, 도시	8.1	47.3	44.6	5.7	39.3	55.0	22.1	41.9	35.9
교통, 운송	15.0	41.1	43.9	6.5	35.5	57.9	24.3	32.7	43.0
기계 금속	13.0	47.2	39.9	8.5	40.3	51.2	23.8	41.3	34.9
전기 전자	13.7	46.4	39.8	8.4	43.3	48.3	25.3	40.1	34.6
정밀 에너지	10.3	48.5	41.2	11.8	39.7	48.5	25.0	44.1	30.9
소재 재료	12.2	45.7	42.2	6.5	43.9	49.6	27.1	41.0	31.9
컴퓨터 통신	17.5	48.5	34.1	13.3	46.5	40.2	27.7	45.0	27.4
산업	9.3	46.7	43.9	2.8	46.7	50.5	22.9	45.3	31.8
화공	14.8	46.0	39.2	10.8	43.2	46.0	27.7	38.2	34.1
기타	13.0	45.7	41.3	10.9	46.2	42.9	26.6	41.8	31.5
농림 수산	17.3	38.1	44.6	10.1	32.4	57.6	38.4	40.6	21.0
생물 화학 환경	13.4	48.9	37.7	9.5	43.8	46.7	33.2	45.0	21.8
생활과학	14.4	44.4	41.3	11.3	41.6	47.1	32.8	43.3	23.9
수학 물리 천문 지리	10.8	47.5	41.7	9.5	42.1	48.4	29.4	46.9	23.6
의료	18.9	41.3	39.8	6.6	47.4	45.9	4.6	31.6	63.8
간호	2.9	41.2	55.9	4.9	39.2	55.9	4.9	25.5	69.6
약학	34.5	32.8	32.8	13.8	36.2	50.0	19.0	24.1	56.9
치료 보건	8.5	44.5	47.0	7.3	38.4	54.3	20.1	29.3	50.6
디자인	14.0	40.0	46.0	12.5	40.6	46.9	22.1	43.9	34.0
응용예술	12.1	46.6	41.3	10.2	46.6	43.2	30.1	46.1	23.8
무용 체육	12.1	44.3	43.6	11.4	43.6	45.0	26.8	43.0	30.2
미술 조형	9.2	46.6	44.2	8.3	43.2	48.5	38.3	36.9	24.8
연극 영화	34.3	31.4	34.3	22.9	40.0	37.1	45.7	28.6	25.7
음악	11.1	45.0	43.9	7.6	47.3	45.0	24.0	38.9	37.0

<부표 6> 전공종분류별 졸업생(여학생)분포(전문대)

(단위: 명, %)

전공종분류	전체		여학생 분포와 비율			
	2003	2005	2003	2005		
전체	6,483 (100.0)	12,721 (100.0)	3,980 (100.0)	7,038	(100.0)	<55.3>
언어 문학	387 (6.0)	789 (6.2)	342 (8.6)	659	(9.4)	<83.5>
인문과학	64 (1.0)	112 (0.9)	60 (1.5)	98	(1.4)	<87.5>
경영 경제	792 (12.2)	1592 (12.5)	574 (14.4)	963	(13.7)	<60.5>
법률	14 (0.2)	12 (0.1)	10 (0.3)	7	(0.1)	<58.3>
사회과학	349 (5.4)	1016 (8.0)	298 (7.5)	714	(10.1)	<70.3>
교육일반	23 (0.4)	26 (0.2)	22 (0.6)	21	(0.3)	<80.8>
유아교육	263 (4.1)	338 (2.7)	262 (6.6)	324	(4.6)	<95.9>
특수교육	15 (0.2)	11 (0.1)	15 (0.4)	11	(0.2)	<100.0>
건축	305 (4.7)	587 (4.6)	96 (2.4)	193	(2.7)	<32.9>
토목 도시	134 (2.1)	384 (3.0)	6 (0.2)	48	(0.7)	<12.5>
교통 운송	11 (0.2)	33 (0.3)	1 (0.0)	9	(0.1)	<27.3>
기계 금속	355 (5.5)	512 (4.0)	18 (0.5)	46	(0.7)	<9.0>
전기 전자	407 (6.3)	774 (6.1)	50 (1.3)	104	(1.5)	<13.4>
정밀 에너지	41 (0.6)	114 (0.9)	32 (0.8)	54	(0.8)	<47.4>
소재 재료	63 (1.0)	104 (0.8)	27 (0.7)	69	(1.0)	<66.3>
컴퓨터 통신	953 (14.7)	1509 (11.9)	537 (13.5)	731	(10.4)	<48.4>
산업	37 (0.6)	65 (0.5)	4 (0.1)	31	(0.4)	<47.7>
화학	54 (0.8)	43 (0.3)	14 (0.4)	10	(0.1)	<23.3>
기타	105 (1.6)	272 (2.1)	24 (0.6)	101	(1.4)	<37.1>
농림 수산	20 (0.3)	67 (0.5)	9 (0.2)	36	(0.5)	<53.7>
생물 화학 환경	153 (2.4)	397 (3.1)	71 (1.8)	145	(2.1)	<36.5>
생활 과학	361 (5.6)	489 (3.8)	323 (8.1)	309	(4.4)	<63.2>
수학 물리 천문 지리	42 (0.6)	47 (0.4)	23 (0.6)	18	(0.3)	<38.3>
간호	196 (3.0)	228 (1.8)	196 (4.9)	223	(3.2)	<97.8>
치료 보건	476 (7.3)	758 (6.0)	315 (7.9)	443	(6.3)	<58.4>
디자인	469 (7.2)	1273 (10.0)	337 (8.5)	888	(12.6)	<69.8>
응용 예술	247 (3.8)	500 (3.9)	211 (5.3)	361	(5.1)	<72.2>
무용 체육	73 (1.1)	325 (2.6)	37 (0.9)	126	(1.8)	<38.8>
미술 조형	22 (0.3)	56 (0.4)	20 (0.5)	55	(0.8)	<98.2>
연극 영화	11 (0.2)	44 (0.3)	6 (0.2)	26	(0.4)	<59.1>
음악	41 (0.6)	244 (1.9)	40 (1.0)	215	(3.1)	<88.1>

주: <>: 여학생 비율

<부표 7> 전공종분류별 졸업생(여학생)분포(대학교)

(단위: 명, %)

전공종분류	전체		여학생 분포와 비율			
	2003	2005	2003	2005		
전체	7,543 (100.0)	13,320 (100.0)	3,369 (100.0)	6,346 (100.0)	<47.6>	
언어, 문학	698 (9.3)	1,350 (10.1)	456 (13.5)	872 (13.7)	<64.6>	
인문과학	403 (5.3)	687 (5.2)	233 (6.9)	391 (6.2)	<56.9>	
경영, 경제	864 (11.5)	1,507 (11.3)	340 (10.1)	564 (8.9)	<37.4>	
법률	137 (1.8)	279 (2.1)	35 (1.0)	108 (1.7)	<38.7>	
사회과학	532 (7.1)	1,067 (8.0)	307 (9.1)	568 (9.0)	<53.2>	
교육일반	78 (1.0)	181 (1.4)	63 (1.9)	146 (2.3)	<80.7>	
유아교육	41 (0.5)	241 (1.8)	40 (1.2)	230 (3.6)	<95.4>	
특수교육	19 (0.3)	49 (0.4)	19 (0.6)	38 (0.6)	<77.6>	
초등교육	36 (0.5)	162 (1.2)	26 (0.8)	133 (2.1)	<82.1>	
중등교육	394 (5.2)	580 (4.4)	243 (7.2)	400 (6.3)	<69.0>	
건축	175 (2.3)	441 (3.3)	45 (1.3)	110 (1.7)	<24.9>	
토목, 도시	121 (1.6)	298 (2.2)	14 (0.4)	39 (0.6)	<13.1>	
교통, 운송	143 (1.9)	107 (0.8)	16 (0.5)	26 (0.4)	<24.3>	
기계 금속	290 (3.8)	424 (3.2)	12 (0.4)	41 (0.6)	<9.7>	
전기 전자	441 (5.8)	605 (4.5)	35 (1.0)	65 (1.0)	<10.7>	
정밀 에너지	23 (0.3)	68 (0.5)	1 (0.0)	19 (0.3)	<27.9>	
소개 재료	211 (2.8)	230 (1.7)	28 (0.8)	51 (0.8)	<22.2>	
컴퓨터 통신	358 (4.7)	716 (5.4)	90 (2.7)	246 (3.9)	<34.4>	
산업	115 (1.5)	214 (1.6)	17 (0.5)	31 (0.5)	<14.5>	
화공	174 (2.3)	250 (1.9)	38 (1.1)	61 (1.0)	<24.4>	
기타	65 (0.9)	184 (1.4)	6 (0.2)	36 (0.6)	<19.6>	
농림 수산	114 (1.5)	139 (1.0)	38 (1.1)	59 (0.9)	<42.4>	
생물 화학 환경	556 (7.4)	738 (5.5)	229 (6.8)	346 (5.5)	<46.9>	
생활과학	266 (3.5)	550 (4.1)	224 (6.6)	455 (7.2)	<82.7>	
수학 물리 천문 지리	388 (5.1)	539 (4.0)	176 (5.2)	260 (4.1)	<48.2>	
의료	54 (0.7)	196 (1.5)	7 (0.2)	42 (0.7)	<21.4>	
간호	39 (0.5)	102 (0.8)	39 (1.2)	102 (1.6)	<100.0>	
약학	59 (0.8)	58 (0.4)	41 (1.2)	40 (0.6)	<69.0>	
치료 보건	43 (0.6)	164 (1.2)	34 (1.0)	118 (1.9)	<72.0>	
디자인	186 (2.5)	335 (2.5)	135 (4.0)	187 (2.9)	<55.8>	
응용예술	69 (0.9)	206 (1.5)	52 (1.5)	115 (1.8)	<55.8>	
무용 체육	96 (1.3)	149 (1.1)	47 (1.4)	66 (1.0)	<44.3>	
미술 조형	149 (2.0)	206 (1.5)	113 (3.4)	153 (2.4)	<74.3>	
연극 영화	21 (0.3)	35 (0.3)	12 (0.4)	17 (0.3)	<48.6>	
음악	185 (2.5)	263 (2.0)	158 (4.7)	211 (3.3)	<80.2>	

주: <>: 여학생 비율

<부표 8> 향후 5년간 전공 전망

(단위: %)

구분	전문대			대학교			
	나쁨	보통	좋음	나쁨	보통	좋음	
전체	18.6	44.7	36.7	19.0	42.2	38.8	
인문	17.1	45.1	37.9	22.8	43.7	33.6	
	언어·문학	15.6	45.6	38.8	21.5	44.6	33.9
	인문과학	27.7	41.1	31.3	25.3	41.8	32.9
사회	14.7	43.5	41.9	15.3	41.8	42.9	
	경영·경제	13.1	46.2	40.6	11.4	40.2	48.5
	법률	8.3	58.3	33.3	16.9	49.1	34.1
	사회과학	17.1	39.0	43.8	20.5	42.2	37.2
사범	6.1	36.5	57.3	14.3	39.6	46.2	
	교육일반	19.2	46.2	34.6	19.3	40.3	40.3
	유아교육	5.3	36.1	58.6	9.1	40.7	50.2
	특수교육	0.0	27.3	72.7	4.1	42.9	53.1
	초등교육	n.a.	n.a.	n.a.	2.5	29.0	68.5
공학	n.a.	n.a.	n.a.	19.0	41.6	39.5	
	22.4	46.7	30.9	20.7	40.9	38.4	
	건축	32.7	43.3	24.0	38.3	43.5	18.1
	토목·도시	25.3	49.4	25.3	34.6	39.3	26.2
	교통·운송	15.2	15.2	69.7	16.8	39.3	43.9
	기계·금속	24.0	44.3	31.6	18.4	43.6	38.0
	전기·전자	19.9	45.5	34.5	10.9	32.7	56.4
	정밀·에너지	14.9	47.4	37.7	29.4	47.1	23.5
	소재·재료	23.1	44.2	32.7	23.0	41.3	35.7
	컴퓨터·통신	20.4	49.6	30.0	15.6	41.3	43.1
	산업	18.5	43.1	38.5	15.5	46.0	38.5
항공	23.8	52.4	23.8	16.5	45.2	38.3	
기타	15.4	46.3	38.2	21.7	41.9	36.4	
자연과학	21.2	42.9	35.9	21.9	46.3	31.9	
	농림·수산	17.9	38.8	43.3	28.8	41.0	30.2
	생물·화학·환경	27.5	39.6	33.0	24.0	44.4	31.6
	생활과학	17.0	45.6	37.4	18.9	49.9	31.2
	수학·물리·천문·지리	17.0	48.9	34.0	20.2	46.4	33.4
의약학	15.5	41.5	42.9	8.9	35.6	55.6	
	의료	n.a.	n.a.	n.a.	9.7	46.4	43.9
	간호	2.2	36.4	61.4	2.9	22.6	74.5
	약학	n.a.	n.a.	n.a.	5.2	27.6	67.2
예체능	19.6	43.1	37.4	12.8	33.5	53.7	
	치료·보건	18.5	45.5	36.0	20.2	43.5	36.3
	디자인	21.9	48.1	30.0	13.7	44.5	41.8
	응용예술	19.6	42.7	37.7	20.4	40.3	39.3
	무용·체육	9.9	38.4	51.7	16.9	43.2	39.9
	미술·조형	17.9	53.6	28.6	28.6	44.2	27.2
	연극·영화	13.6	47.7	38.6	34.3	31.4	34.3
음악	10.7	44.6	44.6	21.7	46.0	32.3	

[부록 1] 졸업생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설문지

* 영문명은 조사 자료의 변수명을 나타냄.

ID							
----	--	--	--	--	--	--	--

전문대·대학교 졸업생의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정부출연연구소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현재 정부 지원을 받아 전문대 및 대학교 등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신규졸업자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대 및 대학교의 2003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를 추적조사 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생성된 자료는 우리나라의 '신규인력 수요와 공급을 분석·전망'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진로정보서인 「미래의 직업세계」 편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후배 청소년의 진로 지도와 직업전망 연구에 요긴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와 제14조에 의거하여 통계처리에만 사용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2005년 4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김 장 호

※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다음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행: (주)아이알씨
 ▶ 답 당: 권혁주 책임연구원 (☎)02-784-1901 (fax)02-784-1908

LISTID	LISTPAGE	전공	작성날짜
리스트 연번	리스트 PAGE		□월□□일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주민등록상) BIRTH1, BIRTH2, BIRTH3	입학연도 ENTRANCE	성별 SEX	조사원 번호	조사원성명
		□□□□□□	□□□□	1. 남성 2. 여성	□□	

<공통 항목1 : 인적사항>

■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 및 출신고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혼인상태 A1, A1_1	2. 병역여부 A2	3. 출신고교 계열 A3	4. 출신고교 소재지 A4	
1. 미혼 (☞문2로) 2. 기혼	1-1.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취업 중입니까? 1. 아니오 2. 예	1. 현역 2. 보충역 3. 면제 4. 병역특례 5. 미필	1. 인문계(문과) 2. 인문계(이과) 3. 외국어고 4. 과학고 5. 예체능계 고교 6. 실업고(상·농·공·수산·정보 등) 7. 검정고시(☞5번으로)	____시(도) 지역 : □□

<공통항목2 : 전공지원 동기, 휴학 및 편입학관련>

■ 다음은 귀하가 2003년 2월에 졸업한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5. 복수(이중) 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A5_1, A5_2, A5_3 복수(이중) 전공: _____ 과 학과코드□□□□□□□□□□□□□□ 부 전 공: _____ 과 학과코드□□□□□□□□□□□□□□ 연 계 전 공: _____ 과 학과코드□□□□□□□□□□□□□□		6. 전공지원(선택)의 주된 동기 A6 1. 직업 및 취업전망 2. 수능점수 및 성적 3. 학문적 흥미 및 적성 4. 주위(부모·친지) 권유 5.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 6. 기타 ()	7. 향후 전공 전망 A7 취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귀하의 전공학과는 향후 5년 간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좋음 1 ----- 2 --- 3 --- 4 ----- 5
8. 휴학여부 및 이유 A8, A8_TERM, A8_1, A8_2, A8_3 8. 귀하는 대학 재학 중 휴학한 적이 있습니까? 1. 있음(중 □□학기) 2. 없음 (☞9번으로) 휴학의 주된 이유는 다음 보기들 중 어떤 것입니까? 8-1 첫번째 휴학 이유: □□ 8-2 두번째 휴학 이유: □□ 8-3 세번째 휴학 이유: □□ 1. 군 입대 2. 수능시험(학력고사) 준비 3. 대학 편입학시험 준비 4. 대학원 진학시험 준비 5. CPA 등 자격증 준비 6. 입법/사법/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준비 7. 7급/9급 등 공무원시험 준비 8. 해외어학연수 및 기타 해외연수 9. 유학준비 10. 가사, 결혼, 건강 등 개인적 사정 11. 재정적 곤란 12. 취업 준비 13. 창업 준비 14. 아르바이트 15. 기타 ()		9. 편입학 여부 A9, A9_1 9. 귀하가 졸업한 이 학교는 편입학한 학교입니까? 1. 아니오(☞10번으로) 2. 예 9-1 이전에 다닌 학교는? 1. 전문대 2. 4년제 유사전공 3. 4년제 다른 전공 4. 기타()	

■ 다음은 귀하의 대학졸업(2003년) 후 대학원 진학 및 타 학교 편입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관련이 있으면 응답하여 주십시오.

10. 현재의 학교 재학 여부 A10 대학 졸업 후 다른 학교를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습니까? 1. 다녔음(☞11번으로) 2. 다니고 있음 (☞11번으로) 3. 아니오 (☞18번으로)	교육상황(졸업 후 첫 학교만 대상으로 함)				
	11. 학교 유형 A11 1. 전문대 2. 대학교 3. 방송통신대학 4. 대학원	12. 학교진학 방법 A12 1. 편입 2. 입학 3. 동일학교 진학 4. 타학교 진학	13. 수학 상태 A13 1. 재학 2. 휴학	14. 학과 A14 _____ 과 * 학과코드 □□□□□□	15. 학교소재지 A15 _____ 시(도) 지역 : □□
16. 편입/진학의 주된 이유 A16 1. 전공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2. 전공 영역을 바꾸어 계속 공부 3. 학력 상승 4. 졸업한 대학보다 사회적 평판이 좋은 대학(원)을 가기 위해 5. 졸업 당시의 취업난 때문에 6. 대학(원)을 졸업한 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7. 주변(부모/친지 등)의 권유 8. 기타 ()			17. 전공변경의 주된 이유 A17 0. 변경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1. 적성에 맞지 않아서 2. 발전가능성이 없어서 3. 취업난 4. 전직 5. 주변의 권유 6. 기타 ()		

<공통항목3 : 전공 및 학업 내용 만족도>

■ 다음은 귀하가 전공했던 학과 및 학업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재학시절 전공 관련 학업 수행에 있어 다음 항목들에 대해 현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18. 커리큘럼 (교과과정의 구성) A18	1	2	3	4	5
19. 강의 내용과 수준 A19	1	2	3	4	5
20. 취업능력 향상에 도움 정도 A20	1	2	3	4	5

<공통항목4 : 직업훈련 및 자격증, 그리고 재학 중 일 경험>

■ 다음은 학원 및 직업훈련 이수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학 재학 중 학원 이수 경험		대학 졸업 후~취업 전까지 학원/직업훈련 이수 경험	
21. 정보통신관련 학원 A21 없음 있음 0 총 □□개월 21-1 수강(훈련)의 주된 목적은? A21_1 1. 내 전공분야의 실무훈련과 심화를 위하여 2. 내 전공은 아니지만 취업에 필요해서 3. 기타 ()		28. 정보통신 관련 직업기술학원 A28 없음 있음 0 총 □□개월 28-1 수강(훈련)의 주된 목적은? A28_1 1. 내 전공분야의 실무훈련과 심화를 위하여 2. 내 전공은 아니지만 취업에 필요해서 3. 기타 ()	
정보통신 이외 학원	없음 있음	정보통신 이외 학원	없음 있음
22. 외국어학원 A22	0 총 □□개월	29. 외국어학원 A29	0 총 □□개월
23. 인문·사회계 학원 A23	0 총 □□개월	30. 인문·사회계 학원 A30	0 총 □□개월
24. 경영실무계 학원 A24	0 총 □□개월	31. 경영실무계 학원 A31	0 총 □□개월
25. 예체능계 학원 A25	0 총 □□개월	32. 예체능계 학원 A32	0 총 □□개월
26. 이공계 관련 학원 A26	0 총 □□개월	33. 이공계 관련 학원 A33	0 총 □□개월
27. 귀하는 재학 중 위 학원 수강비로 총 얼마나 지출하였습니까? A27	총 _____ 만원	34. 귀하는 졸업 후부터 취업 전까지 위 학원/직업훈련의 수강비로 총 얼마나 지출하였습니까? A34	총 _____ 만원
재학 중 일 경험			
35. 정규직	0. 없음	1. 있음 A35	
36.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취업(개인과외지도 제외)	0. 없음	1. 있음 A36	
37. 현장실습(인턴)	0. 없음	1. 있음 A37	
38. 창업	0. 없음	1. 있음 A38	
현재 자격증 취득 현황			
39. 귀하는 현재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단, 운전면허는 제외). A39, A39_1 0. 없음(43번으로) 1 있음 _____ 개			
◆ 자격명칭(코딩)	◆ 자격등급	◆ 취득년월	◆ 자격종류번호
40. A40_1 A40_2 A40_3 년 A40_32 월	A40_4 A40_5	1. 관련없음 2. 관련있음	A40_6 1.없음 2.있음
41. A41_1 A41_2 A41_3 년 A41_32 월	A41_4 A41_5	1. 관련없음 2. 관련있음	A41_6 1.없음 2.있음
42. A42_1 A42_2 A42_3 년 A42_32 월	A42_4 A42_5	1. 관련없음 2. 관련있음	A42_6 1.없음 2.있음
※ 자격종류번호: ① 국가자격 ② 국가기술자격 ③ 민간공인자격 ④ 민간자격 ⑤ 국제공인자격 ⑥ 기타			

<공통항목5 : 구직활동 및 구직과정>

■ 다음은 귀하의 구직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43. 귀하는 첫 직장을 얻기까지 최종 면접(서류전형 단계는 제외)한 회사는 몇 개입니까? A43 0. 없음 □□□번
44. 귀하는 졸업 당시 얼마의 임금을 주는 직장이면 택할 의향이 있었습니까? A44_1, A44_2 월평균 □□□□□ 만원 또는 연 간 □□□□□ 만원 (* 둘 중 하나 선택)
45. 귀하의 구직과정 중 직업선택에 있어 가장 주요하게 고려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A45 11. 임금 또는 보수 15. 사회적 지위 12. 고용 안정성 16. 전공과의 일치성 13.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 가능성 17. 기타 () 14.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46. 재학 중 구직활동 과정에서 '학교내 취업지원(정보)센터'가 귀하의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A46 1. 전혀 도움 안됨 2. 별로 도움 안됨 3. 다소 도움 4. 매우 도움

<공통항목6 : 경제활동상태 구분 항목>

다음은 귀하의 경제활동상태(취업/미취업) 구분을 위한 질문입니다.

<p>47.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A47</p> <p>1. 일하였음(가번호) 5. 가사 2. 일시휴직 6. 재학, 통학 3. 구직활동 7. 심신장애 4. 육아 8. 기타()</p>	<p>49. 지난 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A49</p> <p>◆ 있었음 20. 없었음 ↳ 왜 지난 주에 일하지 않았습니까?</p> <p>11. 일시적 병·사고 12. 연가, 교육 13. 가족적 이유 14. 노사분규 15. 조업중단 16. 기타()</p>	<p>50. 지난 주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A50</p> <p>1. 구해보았음(나번호) 2. 구해보지 않았음(나2번호)</p>
<p>48. 지난 1주간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구원의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A48</p> <p>1. 있었음 2. 무급가족종사자 3. 없었음</p>	<p>(가번호)</p> <p>(가2번호)</p>	

<'가'항목 : 취업자 항목>

<p>가1. 지난 주에 그 일을 총 몇 시간 했습니까? B1</p> <p>□□□ 시간 ※ 18시간미만 무급가족종사자는 (가50번호로)</p> <p>가2. 현 직장(일)은 언제 시작하였습니까? B2, B2_2</p> <p>□□□□년 □□월</p> <p>가3.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 사업체명 : ()</p> <p>가4. 사업체의 주된 활동: () - 한국표준산업분류 : □□□□□□ B4_1 - IT기술분류코드 : □□ B4_2</p>	<p>가7. 현 직장의 유형은 어디에 속합니까? B7</p> <p>1.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민간기업연구소 3. 벤처기업 4. 외국계기업 5.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6.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소 7. 대학 8. 교육기관(초/중/고 등) 9.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10. (재단/사단)법인단체 11. 병원 12. 프리랜서(특정한 공사합동기업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13. 기타()</p>
<p>가5. 그 사업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_____시(도) 지역코드 : □□ B5</p> <p>가5-1.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p> <p>_____</p>	<p>가8.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일의 종류(직업) : () -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 □□□□ B8_1 - 고용직업분류 코드 : □□□□ B8_2 - IT직업분류 코드 : □□ B8_3</p>
<p>가6. 다니시는 현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몇 명입니까? B6</p> <p>1. 1~4인 6. 100~299인 2. 5~9인 7. 300~499인 3. 10~29인 8. 500~999인 4. 30~49인 9. 1,000인 이상 5. 50~99인</p>	<p>가9. 현 직장은 귀하가 대학졸업시 희망하던 직업(분야)입니까? B9</p> <p>1. 아니오 2. 예</p> <p>가10. 현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B10</p> <p>◆ 비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p> <p>1. 고용주 4. 상용 2. 자영자 5. 임시 3. 무급가족종사자 6. 일용</p> <p>(가13번호로)</p>

<p>가11. 현 직장(일)에서의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B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규직 2. 계약직, 촉탁직 3. 시간제근로 4. 인턴사원 5. 공공근로 6. 파견근로 <p>가12. 현재 귀하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얼마입니까? B12</p> <p style="text-align: center;">□□□,□□□원</p> <p>가13. 현재의 직장(일)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B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우 불만족 2. 다소 불만족 3. 다소 만족(가15번으로) 4. 매우 만족 (가15번으로) <p>가14.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일)이 불만족스러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B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임금이 낮아서 12. 근무조건이 좋지 않아서 13. 전공 및 자격과 맞지 않아서 14. 발전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15. 고용이 불안정해서 18. 기타() <p>가15.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일)은 학교전공과 밀접한 분야입니까? B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밀접 않함 2. 별로 밀접 않함 3. 다소 밀접 4. 매우 밀접 <p>가16. 학교에서 배운 전공이 직무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B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도움이 안됨 2. 다소 도움이 안됨 3. 다소 도움이 됨 4. 매우 도움이 됨 <p>가17. 현재 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업무내용이 본인의 학력수준에 비해 어떠합니까? B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력수준이 업무내용에 비해 높음 2. 학력수준이 업무내용에 비해 적당함 3. 학력수준이 업무내용에 비해 낮음 	<p>가18. 현재 직장에서 일하면서 대학교(전문대) 재학시 배웠으면 업무에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기초직업능력은 무엇입니까? B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어 회화 능력 2. 컴퓨터 사용 능력 3. 전공지식 4. 창의력과 문화적 감각 5. 기획능력 6. 수리능력 7. 기타 () <p>가19. 현재 직장(일)에서 받고 있는 (세전)총소득은 얼마입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 □□□□만원 B19_1 연 간 □□□□만원 B19_2</p> <p style="text-align: center;">*둘 중 하나만 선택</p> <p>가20. 현 직장(일)에서 회사나 고용보험 지원으로 직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B20</p> <p style="text-align: center;">(신입사원 교육 포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받고 있음 2. 과거에 받은 적이 있음 3. 없음(가22번으로) <p>가21. 현 직장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B21</p> <p style="text-align: center;">□□□일</p> <p>가22. 현 직장(일)은 2003년도 대학졸업 후 첫 직장입니까? B22, B22_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니요 □번째 2. 예 (가21번으로) <p>가23. 졸업 후 일했던 이전 직장(일)의 경험들이 현 직장(일)의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B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도움 안됨 2. 별로 도움 안됨 3. 다소 도움 4. 매우 도움 <p style="text-align: center;">(가21번으로) 졸업후 첫 직장에 관한 질문</p>
--	---

<'나' 항목 : 미취업자 항목>

<p>나1. 지난 주에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면 실제로 일할 수 있었습니까? C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있었음 (가15번으로) 2. 없었음 <p>나2. 지난 주에 일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C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없어서 12.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근처에 일자리가 없어서 1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5. 나이가 맞지 않거나 몸이 불편해서 16. 성수기 대기, 얼마 후 일하게 되기 때문에 17. 육아, 가사 18. 통학 19. 공무원 시험 준비 20. 자격시험 준비 21. 기타 ()
--	---

<p>나3. 지금이라도 직장(일)이 있다면 일하겠습니까? C3 1. 하겠음 2. 하지 않겠음(나18번으로)</p> <p>나4. 지난 6개월 간 직장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C4 1. 있음 2. 없음(나18번으로)</p> <p>나5. 졸업 후 현재까지 귀하가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한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중간에 쉰 기간은 제외) C5 □□ 개월</p> <p>나6.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직장(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C6 11.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 등록 12. 민간취업알선기관 등록 13. 취직시험 14. 신문, 잡지, 벽보 등 구인구직정보 15. 인터넷 및 인력 DB(구인구직 사이트) 16. 채용박람회나 취업박람회 17. 학교, 학원 추천 18. 사업체 방문 19. 친구, 친지 소개 20. 자영업 준비 21. 학교 내 취업정보센터 22. 기타()</p> <p>나7. 지난 주에 직장(일)을 구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C7 1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12.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13. 실무 경험이 없어서 14. 교육, 기술이 부족해서 15. 학력이 너무 높아서 16. 나이가 맞지 않아서 17. 몸이 불편해서 18. 남성나 여성만 원해서 19. 구직결과를 기다리는 중 20. 근처에 일자리가 없어서 21.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22. 자영업 준비부족 23. 기타 ()</p> <p>나8. 귀하가 현재 구하는 직장(일)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C8 1. 비임금근로(나10번으로) 2. 임금근로</p> <p>나9. 현재 찾고 있는 직장(일)의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C9 1. 정규직 2. 계약직, 촉탁직 3. 시간제근로</p>	<p>나10.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 일의 종류(직업) : () 고용직업 분류: □□□□ C10</p> <p>나11. 직장(일)의 선택기준은 주로 무엇입니까? C11 1. 임금 및 보수 등 근로조건 2. 전공분야 및 적성과 일치여부 3. 사회적 인식 및 명성 4. 대기업 희망 5. 공무원, 공공부문 6. 개인의 성장가능성 7. 기타()</p> <p>나12. 원하는 직장(일)은 전공과 일치하기를 원하십니까? C12 1. 전혀 무관해도 무방 2. 다소 무관해도 무방 3. 대체로 일치해야 4. 반드시 일치해야</p> <p>나13. 실업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C13 1. 현재 받고 있음 2. 과거에 받은 적이 있음 3. 없음(나16번으로)</p> <p>나14.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C14 □□□일</p> <p>나15. 현재 받고 있거나 받았던 교육훈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C15 1. 노동부지원 훈련 및 실업자 재취직훈련 2. 시군구의 고용촉진훈련 3. 기타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4. 정부지원 양성훈련 5. 개인 수강 6. 기타 ()</p> <p>나16. 지난 주에 취업을 위해 주로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C16 1.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수강 2.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3. 민간직업훈련시설에서의 교육훈련 4. 사설학원 수강 5. 개인적으로 입사준비 6. 자격증 취득 준비 7. 사시·행시·외시 등 고시 준비 8. 기타 ()</p> <p>나17. 최소한 얼마정도의 (세전)소득을 원하십니까? 월평균 □□□□□ 만원 C17_1 연 간 □□□□□ 만원 C17_2 *둘 중 하나만 선택</p> <p>나18. 졸업 후 현재까지 기간 동안 직장(일)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C18 1. 있었음(나11번으로) 2. 없었음 (나11번으로)</p>
---	---

<'다'항목 : 졸업 이후 첫 직장에 관한 항목>

<p>다1. 첫 직장(일)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D1, D1_2 □□□□년 □□월</p> <p>다2. 첫 직장(일)은 언제 그만 두셨습니까? D2, D2_2 □□□□년 □□월</p> <p>다3.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 ◆ 사업체명 : (_____) ◆ 사업체의 주된 활동: (_____)</p> <p>- 한국표준산업분류 : □□□□□□ D3_1 - IT기술분류코드 : □□ D3_2</p> <p>다3-1. 어느 부서에서 일 하셨습니까? _____</p> <p>다4.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 일의 종류(직업) : (_____) -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 □□□□ D4_1 - 고용직업분류 코드 : □□□□□□ D4_2 - IT직업분류 코드 : □□□□□□ D4_3</p> <p>다5. 첫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몇 명이었습니다? D5</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1. 1~ 4인</td> <td style="width: 50%;">6. 100~299인</td> </tr> <tr> <td>2. 5~ 9인</td> <td>7. 300~499인</td> </tr> <tr> <td>3. 10~29인</td> <td>8. 500~999인</td> </tr> <tr> <td>4. 30~49인</td> <td>9. 1,000인 이상</td> </tr> <tr> <td>5. 50~99인</td> <td></td> </tr> </table> <p>다6. 첫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다? D6</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 비임금근로자 1. 고용주 2. 자영자 3. 무급가족종사자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 임금근로자 4. 상용 5. 임시 6. 일용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0px;">} (☞다 8번으로)</p>	1. 1~ 4인	6. 100~299인	2. 5~ 9인	7. 300~499인	3. 10~29인	8. 500~999인	4. 30~49인	9. 1,000인 이상	5. 50~99인		◆ 비임금근로자 1. 고용주 2. 자영자 3. 무급가족종사자	◆ 임금근로자 4. 상용 5. 임시 6. 일용	<p>다7. 첫 직장(일)에서의 근무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D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규직 2. 계약직, 촉탁직 3. 시간제근로 4. 인턴사원 5. 공공근로 6. 파견근로 <p>다8. 첫 직장(일)은 학교전공과 밀접한 분야였습니까? D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관계 없었음 2. 별로 관계 없었음 3. 다소 밀접하였음 4. 매우 밀접하였음 <p>다9. 첫 직장(일)에서 업무의 내용이 본인의 학력 수준에 비해 어떠했습니까? D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력수준이 업무내용에 비해 높았음 2. 학력수준이 업무내용에 비해 적당했음 3. 학력수준이 업무내용에 비해 낮았음 <p>다10. 첫 직장(일)을 그만 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D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발적 이직 (임금, 근로조건, 전공, 자격 불일치, 개인 및 가족적 이유) 2. 비자발적 이직 (직장휴폐업,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p>다11. 첫 직장(일)에서 받았던 월평균 (세전)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월평균 □□□□만원 D11_1 연 간 □□□□만원 D11_2 *둘 중 하나만 선택</p> <p style="text-align: right;">(라1번으로)</p>
1. 1~ 4인	6. 100~299인												
2. 5~ 9인	7. 300~499인												
3. 10~29인	8. 500~999인												
4. 30~49인	9. 1,000인 이상												
5. 50~99인													
◆ 비임금근로자 1. 고용주 2. 자영자 3. 무급가족종사자	◆ 임금근로자 4. 상용 5. 임시 6. 일용												

<공통항목7 : '라'항목 가족적 배경>

■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항목은 개인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학력	대학 입학 시 부모의 직업	
라1.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E1 1. 고졸 이하 2. 전문대졸 이상 라2.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E2 1. 고졸 이하 2. 전문대졸 이상	라3. 귀하의 대학교 입학당시 아버지의 직업은? E3 1. 관리직 6. 기능직 2. 전문직·기술직 7. 단순노무직 3. 사무직 8. 무직 4. 서비스·판매직 9. 사망 5. 농림어업직	라4. 귀하의 대학교 입학당시 어머니의 직업은? E4 1. 관리직 6. 기능직 2. 전문직·기술직 7. 단순노무직 3. 사무직 8. 무직 4. 서비스·판매직 9. 사망 5. 농림어업직
가구의 총소득		
라5.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 E5 1. 아니오 2. 예 라6. 현재 귀하의 총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월평균 □□□,□□□만원 E6_1 또는 연간 □□□,□□□만원 E6_2 (* 둘 중 하나만 선택)		
라7. 귀하의 졸업학점은 얼마입니까? _____ 점 E7_1 (_____ 점 만점) E7_2 * 학점 환산 □□□점(100점 만점 기준)		
라8. 귀하는 외국어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시험점수는 몇 점입니까? 그리고 시험을 본 횟수는 몇 회입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0. 없음 E8_0 1. TOEIC □□□점 . . . □□□회 E8_1, E8_1_1 2. TOEFL □□□점/□□□점 만점 . . . □□□회 E8_2, E8_2_1, E8_2_2 3. TEPS □□□점 . . . □□□회 E8_3, E8_3_1 4. JPT □□□점 . . . □□□회 E8_4, E8_4_1 5. 중국어 □□□점 . . . □□□회 E8_5, E8_5_1 6. 기타() □□□점 . . . □□□회 E8_60 E8_6, E8_6_1		
<i>(질문 끝. 감사합니다)</i>		

과잉학력의 현황과 추세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80년 졸업정원제 실시이후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학력화를 경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학진학률은 1981년 35.3%에서 2004년 80.7%로 급속히 높아져 불과 20여년 만에 세계최고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4년제 대학 재학생수는 1981년 535,876명에서 2004년 1,836,649명으로 3.4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 인구중 전문대졸이상 인구비중은 1980년 7.7%에서 2000년 24.3%로 전문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약 1/4가량에 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이 단기간 내에 급속히 확대된 것은 정부가 대학정원확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더불어 늘어나는 고급인력 수요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과 교육을 통해 계층상승을 이루려는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경우 대졸자 공급증가속도가 노동시장의 대졸자 수요증가 속도를 상회하는 과잉교육과 같은 불균형 현상은 시장에서의 자율적 조정 과정을 거쳐 해소될 수 있다. 즉, 대졸자에 적합한 직업의 수가 증가하거나, 대졸인력의 공급이 경제 내에 존재하는 대졸자에 적합한 직업의 수에 맞춰 감소하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과정은 정보의 불일치, 조정비용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과잉교육(overeducation)²⁸⁾은 통상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과잉교육은 직무수행

28) 용어와 관련하여 기존연구에서 overeducation을 과잉교육, 과잉학력, 학력과잉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과잉교육을 채택한다. 학력(學力)의 사전적 의미는 “학문상의 실력”, “학습으로 쌓은 능력의 정도”를 의미함에 반하여

을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학력수준보다 해당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제학력이 더 높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단기간내에 고학력화가 진행되는 경우 과잉교육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인력의 공급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학력화에 대응하여 인력의 수요측면에서 과연 이들을 제대로 흡수하여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과잉교육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 다(박세일, 1983; 어수봉, 1990; 이주호, 1994).

지식기반사회의 진전에 따라 산업의 중심이 기술 및 지식집약산업으로 이행하는 한편으로 산업내에서의 기술, 지식으로의 생산요소 대체가 진행됨에 따라 고학력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고학력자에 대한 노동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층의 노동공급 증가가 더욱 빠르게 진전됨으로써 학력불일치가 상당규모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어수봉, 1994; 김주섭 · 이상준, 2000; 전근하, 2004; 김주섭, 2005)

학력불일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잉교육(overeducation)이다. 교육을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본다면 과잉교육은 투자된 자본의 과소사용을 가져와 개인적, 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과잉교육 상태인 근로자는 자신의 실제학력보다 낮은 숙련수준의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직무 불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과잉교육 상태에 놓인 근로자의 임금역시 학력수준에 비해 숙련수준이 낮은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해당학력에 대한 사회의 평균임금수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과잉교육은 대졸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대졸자 양성을 위해 사회가 지불한 막대한 교육투자가 회수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게 된다. 교육은 도덕성 함양, 자아실현 등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의 등장 이후 각국이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대상으로 교육을 재인식하게 되

교육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심신을 발육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는 교수적(教授的)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음에 비추어 실력보다는 학습기간의 의미에 가깝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낮설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교육을 파악하고, 과잉교육 현상의 원인과 경제적 귀결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고학력화에 따른 직장불일치(job mismatch)의 중요한 지표로서 과잉교육에 주목하여 과잉교육의 원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과잉교육의 해소과정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다. 우리사회와 같이 급속한 고학력화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과잉교육은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즉, 고학력화가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변화의 주요한 특징이라는 인식하에 고학력화에 따른 과잉교육의 수준을 추정하고, 과잉교육의 원인을 분석하며, 과잉교육의 경제적 효과와 과잉교육이 노동이동을 통해 해소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교육투자 및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질과 하향취업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대학간 질적 수준차이가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대학교육을 통해 축적한 인적자본의 양과 질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만약 교육의 질이 낮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낮은 인적자본 수준을 갖게 된다면, 설사 그 근로자가 과잉교육의 특성을 나타내더라도 실제로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잉자격(over-qualification)이 아닐 수 있다. 해외 기존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의 질과 과잉교육의 관계가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나(Card and Kruger, 1992; Robst, 1995; Grogger, 1996; Bedard, 2003), 국내에서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²⁹⁾. 질 낮은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이 과잉교육이 될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교육투자의 증대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교육의 질과 무관하게 과잉교육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고등교육의 정원축소를 통해 해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의 질과

29) 대학의 질과 임금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장수명(2002) 참조.

과잉교육 근로자가 될 확률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과잉교육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임금에 초점을 맞추어 과잉교육의 영향을 분석한다.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이 직업의 특성보다는 근로자가 갖고 있는 인적자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Becker, 1975).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학력화와 같은 학력구성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생산기술을 신속하게 변화시켜 적응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과잉교육은 노동시장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불균형 상태에 지나지 않게 되며, 임금은 근로자의 과잉교육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산성, 즉 인적자본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인적자본이론에 따라 임금이 근로자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과잉교육 여부가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과잉교육인 근로자와 적정교육인 근로자간의 생산성 격차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과잉교육이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과잉교육에 따른 생산성 격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내부의 조정과정을 통해 과잉교육이라는 불균형 현상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것이므로 임금격차분석을 통해 과잉교육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식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학력화에 따라 과잉교육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이 이후 노동이동과정을 통해 해소되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과잉교육은 경제전체로 보면 항상적(permanent)으로 존재하는 현상일 수 있지만, 다수의 근로자가 일시적(temporary)으로 하향취업을 경험하는 경우와 특정 근로자집단에게 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은 다를 수 있다. 노동시장 진입초기의 과잉교육이 근로자의 경력형성과 노동이동과정을 통해 해소된다면 정책적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력에 의한 자율조정과정이 가능함을 의미하지만, 특정근로자 집단에게 지속될 경우에는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은 정규직, 고임금 일자리의 창출이 둔화되고 비정규직의 증가추세에 따라 청년층 일자리의 불안정한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졸이상 청년층 취업행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하향취업이 직장정착과 경력형성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향상시키는 과정이라는 낙관적 견해와 노동시장 진입 초기 불안정한 직장정착이 고착화되어 경력형성을 저해한다는 비관적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청년층 과잉교육과 이후의 노동이동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하향취업의 경제적 귀결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나. 교육투자의 현황 및 추이

지식기반 경제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문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과잉교육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육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과잉투자는 사회적 낭비와 노동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직무가 전문화, 복잡화되는 경향을 갖고 있고, 특정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습득하는 방식은 단지 학교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 재직중 훈련(on-the-job training)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에만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학교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포기해야할 경제적 가치는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며, 인적자원의 사회적 낭비 또한 그만큼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학교교육은 국가발전의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교육을 통해 국민의 평균교육년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성공함으로써 단기간내에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³⁰). 국민의 총 교육연수를 만 6세 이상 인구에서 학령인구를 뺀 인구로 나눈 것으로 계산되는 평균교육년수는 1970년 5.7년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10.6년으로 늘어나 불과 30년만에 전국민의 교육연수가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단기간에 평균 교육연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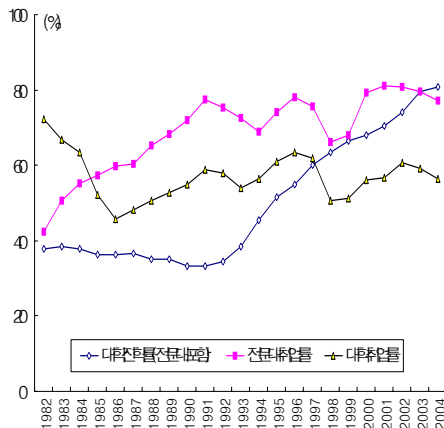
30) Denison(1985)이 교육수준의 상승이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노동유연성(labor flexibility)을 높여 국민소득의 증가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듯이 교육과 경제성장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McGinn(1980)에 따르면, 교육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경로는 다음의 다섯가지이다. (1) 기술의 향상, 능력 및 작업지식의 개선을 통한 노동의 질의 향상, (2) 분업을 촉진시키는 노동이동의 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3) 발명과 신속한 채용을 촉진하는 과학기술의 증가, (4) 경영관리 및 생산요소의 배분을 개선시키는 경영자 능력의 증대, (5)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및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더불어 경제성장에 따라 가계의 교육투자여력이 함께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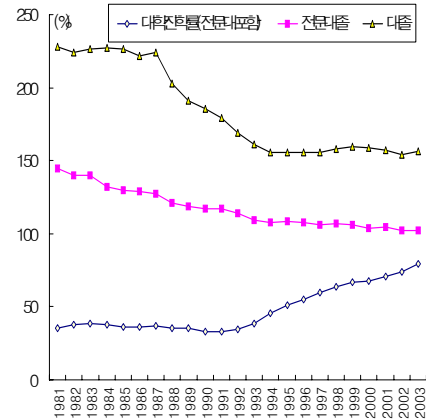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을 가져온 중요한 제도개혁을 살펴보면 1980년 7.30 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졸업정원제 시행과 90년대 중반에는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한 조치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개혁조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보다는 국민의 상위학교 진학욕구를 수용하고, 입시과열에 따른 사교육 팽창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단행된 측면이 강했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계에서 고학력 인력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 내에 급속히 팽창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위주의 인력양성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림 부록II-1], [그림 부록II-2]에는 년도별 대학진학률 추이와 졸업생의 취업률 및 학력별 임금격차 추이가 나타나 있다. 노동수급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대학진학률의 상승에 따른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의 증가는 대졸자의 취업률과 학력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변수들의 추이로부터 과잉교육의 양상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부록II-1] 학력별 취업률 추이



[그림 부록II-2] 학력별 임금격차 추이



주 : 1) 학력별 임금격차는 고졸남성 월평균임금을 100으로 놓고 계산
 2) 진학률 = (진학자수/졸업자수)X100
 3) 대학교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각종학교가 포함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교육부(2004), 『교육통계자료집』

[그림 1], [그림 부록Ⅱ-2]에서 보듯이 1981년 35.3%에 불과했던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1990년에는 33.2%를 기록하였고, 이후 대학정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원됨으로써 2004년 80.7%수준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그림 1]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대학진학률이 안정화 경향을 보였던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전문대졸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90년대 들어서 약간의 진폭은 있지만 안정화 경향을 보였다. 대졸 취업률은 80년대 중반까지 급속히 하락하다가 이후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최근에는 다소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학력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고졸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때 전문대졸 임금은 전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졸임금은 198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대졸 취업률과 학력별 임금격차를 살펴볼 때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던 1990년대에 있어서 적어도 대졸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업률의 급격한 하락이나, 임금격차의 축소가 관찰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대졸자의 신규노동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수요측에서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함께 상승함으로써 대졸자 신규노동시장이 그다지 긴박해지지 않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잉교육이 하향취업으로 이어질 경우 취업률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저숙련 직종 취업에 따른 임금감소의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하면, 1990년대 들어서 대학진학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향취업이 일반의 생각보다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전문대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임금격차의 축소가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과잉교육의 문제가 대졸보다는 오히려 전문대졸에서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과잉교육의 정의 및 측정방법

과잉교육이 처음 논의되던 1970년대에는 과잉교육을 사회에서 필요한 규모 이상의 대학졸업자들이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고학력자의 공급과

잉'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개념구분이 이루어지면서 과잉교육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Rumberger(1981)는 과잉교육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³¹⁾

정의 1 : 과잉교육은 대학교육 이수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과거의 그것에 대한 수준보다 감소할 때 존재한다.

정의 2 : 과잉교육은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개인들의 다양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때 존재한다.

정의 3 : 과잉교육은 대학졸업자들이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취업함으로써 대학에서 받은 교육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할 때 존재한다.

과잉교육에 대한 세 가지 정의 가운데 주로 세 번째 정의에 기초하여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른다. 과잉교육을 정의하는 세 번째 방법은 다시 필요학력수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필요학력수준을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규정하는 방법이다. Hartog(2000)에 따르면 이 방법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불만을 과잉교육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대추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논문에서는 근로자에게 '현재 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업무내용이 본인의 학력수준에 비해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을 주고 '학력수준이 업무내용에 비해 높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과잉교육으로, '학력수준이 업무내용에 비해 적당함'을 적정교육으로, '학력수준이 업무내용에 비해 낮음'을 과소교육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둘째로, 직업사전상 정의되어 있는 각 직종별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³²⁾' 척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GED 척도는 만족스러운 정도의 직무수행을 위해 '전형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요건을 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2003)에서 발간한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GED 학력

31) 정의와 관련한 이하의 논의는 정태화(1994)의 논문 참조.

32) 한국직업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직무수행을 위한 직업별 필요교육수준으로서 이는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입직을 하는데 요구되는 교육정도)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으로서 해당직업종사자의 평균학력과는 구분된다.

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의 5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GED 척도를 각 직업별 필요학력으로 정의한 후 실제학력과 비교하여 필요학력이 실제학력보다 낮을 경우 과잉교육으로 식별된다. GED 척도는 객관적으로 필요학력을 정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잉교육을 측정하는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우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역시 한계를 안고 있다. 즉, GED 척도가 기술 및 숙련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수시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차를 두고 조정됨에 따라 실제 필요학력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따라서 GED 학력이 모든 직업에 대해 입직을 보장하는 교육수준을 의미하지는 못하게 된다. 또한, 한국직업사전상의 GED 학력을 한국표준직업분류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직종분류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료구성상의 난점도 존재한다.

셋째로, 특정 직종에서의 평균학력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과잉교육을 판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과 같은 대규모 개인별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직종별 평균교육년수 \pm 1 표준편차)을 필요학력으로 정의하고 해당직종 근로자의 실제교육년수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잉교육으로 식별하게 된다. 이 방법은 필요학력수준이 고학력화 추세에 따라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과잉교육을 식별하는 기준으로서의 일관성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과잉교육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로자의 주관적 응답에 기초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3. 선행연구 검토

과잉교육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는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직무경쟁이론(job competition model), 직업탐색모델(job search model) 등이 있다.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고학력자가 저숙련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즉, 교육은 인적자원의 대표적 형태이기는 하지만 개인이 축적한 인적자본의 총량은 아니며, 따라서 교육년수 이외에 교육의 질, 경력

등을 포함한 총인적자본(total human capital)으로 평가했을 때 과잉자격(over-qualification)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Sicherman, 1991; Groot, 1996; Maassen van den Brink, 1996). 따라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제학력이 해당 직종에서 요구하는 필요학력보다 높을 경우에는 과잉교육으로 식별되겠지만, 실제로는 해당 직종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교육이외의 여타 요인들이 모두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고려하면 과잉자격이 아니라 직무에서 요구하는 숙련수준에 적합할 수 있다. 경제전체적으로도 과잉교육이라는 노동시장의 불균형 현상이 일시적(temporary)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학력별 임금구조가 변화하고 기업내부의 생산요소 대체, 신기술도입, 직무내용의 변화 등과 같은 조정과정이 진행된다면 근로자의 교육선택 행동과 기업의 학력별 인력수요구조가 함께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permanent)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본다.

직무경쟁이론(Thurow, 1975)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졸자가 단기간 내에 급증하는 경우 노동공급중 숙련인력 비중은 증가하겠으나, 이것이 노동수요의 숙련구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어렵기 때문에 과잉교육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로 파악한다. 직무경쟁이론에서는 기업들이 생산기술을 선택한 결과로서 학력별 인력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숙련별 인력수요는 학력별 공급구조의 변화보다는 주어진 생산기술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고학력화가 진행되더라도 생산방식이 단기간 내에 크게 변화되거나, 직무수행의 수준이 높아진다고보다, 상당수 고학력 근로자는 그들의 숙련수준에 비해 낮은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를 경우 직무별 생산성과 임금수준은 기술적 제약에 의해 사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은 인적자본이 아닌 직무단위별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과잉교육이라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은 시장의 조정기능을 통해 해소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갖는다.

직업탐색이론(job search model)에서는 과잉교육을 정보의 비대칭성과 구직과정에 존재하는 비용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자신의 학력수준에 비해 낮은

일자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과잉교육은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과잉교육을 거쳐 적정교육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항상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Sicherman(1991)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노동시장 신규진입자가 경력형성을 위해 낮은 숙련수준의 직업을 받아들이지만, 이후 재직중 훈련(on-the-job training)과 구직활동 등을 통해 직장일치(job match)의 질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과잉교육에 대한 실증연구는 197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학진학률이 높아지고 과잉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시작되었다. Freeman(1976)은 미국의 과잉교육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는데, 대졸자에 대한 수요증가가 공급의 증가속도를 쫓아가지 못함에 따라 대졸자의 하향취업이 야기된다고 보았다. 미국 남성 근로자중 과잉교육 비율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1%(Verdugo and Verdugo, 1989)에서 40%(Duncan and Hoffman, 1981)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Dolton and Vignoles(2000)은 1980년 영국 대졸 근로자 실태조사를 사용한 분석에서 첫 직장 기준으로 38%가 과잉교육이며, 이중 30%가 6년후까지 과잉교육상태로 남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근 Groot and Maassen(2000)이 수행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고등교육 이수자중 과잉교육 상태에 놓이는 비율은 대략 26%이며, 과잉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적정교육에 대한 수익률보다 훨씬 낮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과잉교육에 대한 국내연구는 박세일(1983)이 1980년의 졸업정원 확대조치가 하향취업 현상을 초래할 것을 경고한 이래 어수봉(1990), 이주호(1994) 등의 연구가 있어 왔으나 서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에 그쳤다. 개인별 자료를 이용한 심층연구는 정태화(1994)와 어수봉(1994)이후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는데, 이들은 과잉교육 규모가 각각 25.2%, 35.4%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과잉교육 추정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태화는 객관적 필요학력을 의미하는 GED 방식을 사용한 반면, 어수봉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최근의 연구로 전근하(2004)는 중앙고용정보원의 OES 자료를 사용하여 GED 방식을 적용하여 전체근로자중 과잉교육 비율이 27.9%라는 결과를 제시

하였고, 김주섭(2005)은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과잉교육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같은 수치가 22.8%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로, 전문대 및 대학 졸업코호트(cohort) 자료를 사용한 자료상의 차이점이다. 기존연구는 전체 취업자 혹은 청년층 등 다양한 학력계층을 포함하는 소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심층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표본 규모 26천명의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자료상의 제약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 점이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에는 근로자의 출신대학의 질에 관한 정보, 전공, 수능점수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의 관점에서 과잉교육의 원인과 경제적 귀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졸업생조사자료에 대학자료, 대학·학과별 수능성적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축하여 수능점수, 대학의 질, 구직활동 등이 과잉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대학의 질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는 교수1인당 학생수 및 그 변동, 학생1인당 학교건물 면적 및 그 변동 등을 사용한다.

4. 자료 및 변수의 구성

가. 자료 구성방법

본 논문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3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이하 졸업생 조사) 2005년 자료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에 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교육시설현황 자료를 결합하여 학교교육의 질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입시학원에서 발표하는 대학·학과별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균입학점수 자료를 결합한다.

우선 졸업생조사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졸업생조사는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의 학교교육, 직업세계 이행을 위한 준비, 이행과정, 경제활동상태, 노동시장상장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근로자 등에게 노동시장상태에 관한 신호를 제공하고 인력수급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표본추출 과정을 살펴보면, 전국의 지역과 학교·급, 그리고 학과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문대 129개교와 대학교 159개교 등 총 288개 기관을 1차로 선정하였다. 1단계를 통하여 추출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얻어 이들 전문대 및 대학교에 2003년도 졸업생 명부제공 협조요청을 한 결과³³⁾ 총 237,993명의 졸업생 명부가 확보되었다.³⁴⁾ 이중 전공(소분류 기준)과 성별을 고려하여 층화계층추출방법에 의하여 목표표본 1개 그룹과 대체표본 4개 그룹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26,041명의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부록Ⅱ-1>에 따르면, 전문대 졸업생은 12,721명으로 추출률 5.15%를, 대학교는 13,320명으로 4.22%로 각각 나타났다. 설문지 설계는 학교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준비→과정→결과'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주요 설문문항으로는 성, 연령, 학력, 결혼, 입학년도 등의 개인정보, 경제활동상태, 첫 직장 취업까지의 소요기간, 첫 직장 및 현 직장의 산업, 직종, 임금수준 등의 직업정보, 그리고 하향취업, 전공일치도 등의 교육-직업 연계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 부록Ⅱ-1> 고등교육기관의 표본추출 현황

(단위 : 명, %)

	모집단	표본	표본추출률
전 체	562,231	26,041	4.63
전 문 대 학	246,789	12,731	5.16
4년제 대 학	315,442	13,310	4.22

주: 대학교에는 4년제 일반대학교와 교육대학교가 포함됨.

다음으로 대학별 교육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교

33) 각 해당 학교의 졸업생 중 학번의 끝자리 수가 홀수인 졸업생 요청하였다.

34) 세부적인 명부 확보사항은 전문대 총 129개교 107,674명, 대학교 총 159개교 130,319명이다.

육시설현황 자료를 ‘졸업생 조사’자료와 결합하였다. 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교육시설현황 자료에는 1998년 이후 매년도의 전국 전문대 및 대학별 교수학생비율, 학생 1인당 건물면적 등이 포함되어 있다³⁵⁾. 자료구성을 위하여 이 변수들의 입학당시 수준, 그리고 입학이후 졸업시점까지의 변동을 계산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입학이후 졸업시점까지의 변동을 포함한 것은 각 대학들의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증대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이 변수는 본 논문의 핵심변수로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대학의 교육투자 증가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포착하는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교별 학생능력의 차이를 감안하기 위하여 대학·학과별 신입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평균입학점수를 ‘졸업생 조사’에 결합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동일한 교육을 받더라도 인적자원의 축적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 능력차이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개인능력의 대리변수로서 수능성적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하여 고려학력평가의 『1999 대학 안내 및 대학별 입시요강』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1998학년도, 전문대학 2000학년도 입학생의 수능평균입학성적을 각각 결합시켰다³⁶⁾. 한편 수능평균입학성적은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동시에 동료그룹 효과(peer group effect)를 포착하여 대학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능평균입학성적은 개인의 능력을 통제하는 변수이자, 대학의 질을 측정하는 변수로 동시에 사용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하여 분석에 최종사용한 표본수는 전문대 10,467명, 대학 10,612명 등 총 21,079명이다.

35) 이밖에도 교육의 질을 측정(measure)하는 대리변수로는 흔히 학교별 교수의 평균연봉, 학생1인당 장학금 지급액, 대학별 평가순위 등이 함께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를 모두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서 교수학생비율과 학생1인당 건물면적을 사용한다.

36)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능평균입학성적을 구성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3학년도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졸업생에 따라 입학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간치에 해당하는 입학년도를 선택하여 대학은 졸업 5년전, 전문대학은 졸업 3년전 수능성적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대학의 경우 2003학년도 졸업자 10,605명중 1995년 이전 입학자가 1,489명(14.0%), 1996년도 입학자가 2,271명(21.4%), 1997-1998년도 입학자가 2,410명(22.7%), 1999년도 입학자가 3,455명(32.6%) 등이다. 둘째, 졸업생의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개인별 입학시점에 맞춰 학교·학과별 수능평균성적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학년도간 수능성적의 절대치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과 학교·학과별 수능평균성적은 단기간 내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정입학년도의 수능성적을 사용하더라도 추정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변수의 구성 및 표본의 특성

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의 정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부록Ⅱ-2>에 제시되어 있다.

표본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주관적 응답에 기초한 과잉교육 규모는 전문대학 20.7%, 대학 19.0%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반의 인식과 달리 대학보다 전문대학에서 오히려 과잉교육 비율이 높게 보고된 점이다. 이것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과잉교육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선행연구(Sicherman, 1991; Card and Kruger, 1992; Robst, 1995; Grogger, 1996, Bedard, 2003; 어수봉, 1994; 김주섭, 2005)와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중간적 위치에 놓여 있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실제 현업에서 주어지는 업무가 고졸의 업무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지식기반사회의 진전과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면서 고숙련 직종과 저숙련 직종의 일자리는 증가하지만, 중간수준의 숙련수요는 오히려 감소하는 숙련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전문대졸의 숙련지위가 고졸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력별 임금격차 추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1980년에는 고졸 임금총액을 100으로 놓았을 때 전문대졸은 148.0, 대졸은 231.6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전문대졸 102.5, 대졸 156.3으로 고졸과 전문대졸간의 임금격차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과잉교육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판단하듯 대졸에서 심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대학에서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령은 전문대졸이 25.6세로서 대졸의 28.09세에 비해 2.49세 낮았으며, 성별로는 전문대졸의 54%가 여성으로서 대졸의 46%에 비해 더 높았고, 수능점수는 전문대졸이 248.1점으로 대졸의 278.66점에 비해 30.56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1인당 학생수는 전문대학이 83.85명으로 대학의 46.13명에 비해 높으며, 입학시험 대비 졸업시험의 교수1인당 학생수는 전문대학이 -2.19명 감소하였으나, 대학은 1.67명 증가하였다. 재학생 1인당 학교시설면적은 전문대학이 3.83㎡로서 대학

의 5.55㎡에 비해 낮았으며, 입학시점 대비 졸업시점의 재학생 1인당 학교시설면적은 전문대학이 0.38㎡ 증가한 반면 대학은 0.33㎡ 증가하는데 그쳤다.

첫 직장 입사시점까지의 면접횟수는 전문대 2.16회, 대학 2.86회이며, 졸업후 첫 직장 취업시까지의 이행기간은 전문대 3.53개월, 대학 4.36개월로서 전문대졸의 취업여건이 대학에 비해 다소 유리함을 시사하였다. 취업자중 비정규직 비율은 전문대학 및 대학모두 19%였으며,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전문대학 24.43개월, 대학 24.11개월로서 대졸자의 직장정착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의 연봉의 자연로그값은 전문대학 7.38(1,603만원)로서 대학의 7.61(2,018만원)에 비해 낮은 특성을 보였다.

<표 부록 II-2> 변수의 정의 및 기술통계

변수명	변수설명	전문대		대학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y1	학력 더미변수(기타=0, 과잉교육=1), 주관적 응답기준	0.21	(0.41)	0.19	(0.39)
age	연령	25.60	(4.10)	28.09	(4.33)
gender	성 더미변수(남자=0, 여자=1)	0.54	(0.50)	0.46	(0.50)
marri	결혼 더미변수(미혼=0, 기혼=1)	0.15	(0.35)	0.18	(0.39)
point	수능점수	248.10	(44.09)	278.66	(47.71)
usudo	대학소재지 더미변수(수도권=0, 비수도권=1)	0.52	(0.50)	0.53	(0.50)
human	진공 더미변수(기타=0, 인문계열=1), 비교기준	0.06	(0.24)	0.14	(0.34)
social	진공 더미변수(기타=0, 사회계열=1)	0.20	(0.40)	0.21	(0.41)
tutor	진공 더미변수(기타=0, 사범계열=1)	0.03	(0.18)	0.09	(0.29)
engin	진공 더미변수(기타=0, 공학계열=1)	0.36	(0.48)	0.28	(0.45)
nsci	진공 더미변수(기타=0, 자연계열=1)	0.07	(0.26)	0.14	(0.34)
medi	진공 더미변수(기타=0, 의학계열=1)	0.09	(0.28)	0.05	(0.21)
art	진공 더미변수(기타=0, 예능계열=1)	0.19	(0.40)	0.09	(0.29)
st_ratio1	교수학생비율(재학생수/교수수)	83.85	(14.75)	46.13	(15.35)
st_ratio2	교수학생비율의 변동 (대학=2003값-1999값, 전문대=2003값-2001값)	-2.19	(8.11)	1.67	(4.81)
st_build1	재학생1인당 학교시설면적(학교시설면적/재학생수)	3.83	(1.32)	5.55	(2.28)
st_build2	재학생1인당 학교시설면적의 변동 (대학=2003값-1999값, 전문대=2003값-2001값)	0.38	(0.99)	0.33	(1.52)
interv	첫직장까지 면접횟수	2.16	(3.94)	2.86	(4.67)
dura	졸업후 첫직장 이행기간(월), 졸업이전 취업은 0으로 계산	3.53	(6.32)	4.36	(7.17)
manuf	산업 더미변수(기타=0, 제조업=1), 비교기준	0.23	(0.42)	0.23	(0.42)
const	산업 더미변수(기타=0, 건설업=1)	0.07	(0.25)	0.05	(0.23)
resta	산업 더미변수(기타=0, 도소매/숙박/음식=1)	0.14	(0.35)	0.09	(0.29)
elec	산업 더미변수(기타=0, 전기운수창고및금융업=1)	0.08	(0.27)	0.09	(0.28)
service	산업 더미변수(기타=0, 사업개인및공공서비스=1)	0.48	(0.50)	0.54	(0.50)
clerk	직업 더미변수(기타=0, 사무직=1), 비교기준	0.33	(0.47)	0.30	(0.46)
profe	직업 더미변수(기타=0, 관리/전문/준전문=1),	0.51	(0.50)	0.65	(0.48)
sale	직업 더미변수(기타=0, 판매직=1)	0.08	(0.28)	0.03	(0.17)
work	직업 더미변수(기타=0, 조작및단순노무직=1)	0.08	(0.28)	0.02	(0.13)
fsize	사업체규모 더미변수(기타=0, 근로자10인 이하=1), 비교기준	0.33	(0.47)	0.22	(0.42)
fsize1	사업체규모 더미변수(기타=0, 근로자10~29=1)	0.23	(0.42)	0.21	(0.41)
fsize2	사업체규모 더미변수(기타=0, 근로자30~49=1)	0.10	(0.30)	0.11	(0.31)
fsize3	사업체규모 더미변수(기타=0, 근로자50~99=1)	0.10	(0.30)	0.14	(0.34)
fsize4	사업체규모 더미변수(기타=0, 근로자100~299=1)	0.11	(0.32)	0.14	(0.34)
fsize5	사업체규모 더미변수(기타=0, 근로자300~=1)	0.13	(0.33)	0.18	(0.39)
type	고용형태 더미변수(정규직=0, 비정규직=1)	0.19	(0.39)	0.19	(0.40)
lnwage	연봉의 로그값	7.38	(0.43)	7.61	(0.42)
tenure	근속기간(월)	24.43	(32.86)	24.11	(35.07)
N	관찰수	10,467		10,612	

5. 실증분석 결과

가. 대학교육의 질과 과잉교육

(1) 요약통계의 특성

본격적 분석에 앞서 전반적인 과잉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부록Ⅱ-3>을 중심으로 요약통계상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성별로는 전문대학 및 대학 모두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과잉교육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과잉교육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우리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남녀차별적 채용 및 업무배치 관행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현역 및 보충역을 합한 군필자와 군미필자의 과잉교육비율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에서는 군미필자의 과잉교육 비율이 군필자에 비해 크게 높았던 반면, 대학에서는 오히려 군미필자의 과잉교육 비율이 군필자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의 경우 이공계를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의 영향으로 군미필자의 취업의 질이 높아지는 경향을 갖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개인능력의 대리변수인 수능점수를 살펴보면 전문대학 및 대학 모두에서 과잉교육의 수능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부록Ⅱ-3>에 따를 경우 전문대졸의 과잉교육 계층 수능점수는 244.9점으로 적정교육의 249.5점, 과소교육의 245.8점에 비해 낮았으며, 대학에 있어서도 과잉교육 계층의 수능점수는 273.2점으로 적정교육의 279.8점, 과소교육의 280.4점보다 역시 낮았다. 이것은 인적자본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인적자본의 축적에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잉교육은 개인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셋째, 직업의 특성에 따른 과잉교육의 분포를 살펴보면 산업별로는 전문대학 및 대학모두에서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대학에서는 판매직, 조작및단순노무직의 순으로 과잉교육 비율이 높았으며, 대학에서

는 조작및단순노무직, 판매직의 순으로 과잉교육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전문대학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은 반면, 대학에서는 기업 규모가 증가할수록 과잉교육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대기업일수록 임금, 근로조건 등이 유리하지만, 그 혜택은 주로 대졸자에게 귀속되고 전문대졸의 경우에는 고졸과 차별화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주관적 응답에 기초한 과잉교육 지표는 현 직업에 대한 불만족을 과잉교육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의 질을 나타내주는 대표적 지표인 입학시점의 교수1인당 학생비율은 전문대학에서는 과잉교육이 가장 낮았으나, 대학에서는 과잉교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시점의 학생 1인당 기본시설면적은 전문대학 및 대학 모두에서 과잉교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졸업생의 재학기간중 교육투자의 증가가 과잉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주는 입학시점과 졸업시점간의 교수1인당 학생비율은 전문대학에서는 과잉교육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대학에서는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학생1인당 기본시설면적의 변동은 전문대학 및 대학 모두에서 과잉교육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수1인당 학생비율과 학생1인당 기본시설면적 기술통계로부터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 과잉교육이 재학중의 교육투자증가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입학시점의 학교의 질에 의해 주로 결정됨을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대학 서열화가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대학들이 재학생의 인적 자본 축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투자 증대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노동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통계적 차별의 가능성이다. 둘째, 교육의 기능과 관련하여 선별가설(screening hypothesis)에서 주장하듯 교육기관은 인적 자원 개발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표 부록 II -3> 학력과잉 실태

변수명	전문대학			대 학			
	과소교육	적합학력	과잉교육	과소교육	적합학력	과잉교육	
(범주형 변수)							
계	1,345 (12.8)	6,951 (66.4)	2,171 (20.7)	1,244 (11.7)	6,459 (69.3)	2,066 (19.0)	
성별	남자	756 (15.7)	3,118 (64.7)	945 (19.6)	770 (13.4)	3,980 (69.4)	988 (17.2)
	여자	589 (10.4)	3,833 (67.9)	1,226 (21.7)	474 (9.7)	3,377 (69.3)	1,023 (21.0)
군대	군필	677 (15.5)	2,845 (65.3)	838 (19.2)	667 (12.9)	3,613 (69.8)	899 (17.4)
	군미필	70 (16.3)	257 (59.9)	102 (23.8)	96 (18.5)	341 (65.6)	83 (16.0)
수도권 여부	수도권	635 (12.6)	3,415 (67.9)	980 (19.5)	571 (11.3)	3,550 (70.5)	916 (18.2)
	비수도권	710 (13.1)	3,536 (65.0)	1,191 (21.9)	673 (12.1)	3,807 (68.3)	1,095 (19.6)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 (9.5)	102 (64.6)	41 (25.9)	261 (10.6)	1,712 (69.8)	480 (19.6)
	비국공립	1,330 (12.9)	6,849 (66.4)	2,130 (20.7)	983 (12.0)	5,645 (69.2)	1,531 (18.8)
전공 계열	인문계열	72 (11.5)	397 (63.4)	157 (25.1)	155 (10.7)	998 (68.6)	302 (20.8)
	사회계열	217 (10.5)	1,398 (67.9)	445 (21.6)	270 (12.0)	1,497 (66.5)	483 (21.5)
	사범계열	55 (16.4)	247 (73.7)	33 (9.9)	70 (7.0)	784 (78.0)	151 (15.0)
	공학계열	544 (14.5)	2,468 (65.6)	748 (19.9)	440 (14.7)	2,054 (68.7)	495 (16.6)
	자연계열	100 (13.4)	467 (62.8)	177 (23.8)	179 (12.3)	987 (68.0)	286 (19.7)
	의학계열	124 (13.7)	603 (66.9)	175 (19.4)	59 (12.1)	354 (72.8)	73 (15.0)
	예능계열	233 (11.4)	1,371 (67.2)	436 (21.4)	71 (7.3)	683 (70.1)	221 (22.7)
산업	제조업	332 (14.2)	1,521 (64.9)	489 (20.9)	331 (13.9)	1,649 (69.4)	395 (16.6)
	건설업	103 (14.6)	476 (67.6)	125 (17.8)	66 (11.6)	393 (69.2)	109 (19.2)
	도소매·숙박·음식	150 (10.1)	877 (59.2)	455 (30.7)	123 (12.5)	585 (59.5)	275 (28.0)
	전기·운수·창고	86 (11.0)	531 (67.6)	168 (21.4)	99 (11.0)	619 (69.0)	179 (20.0)
	및 금융업 사업·개인·및 공공 서비스	651 (13.1)	3,423 (68.8)	903 (18.1)	604 (10.7)	4,001 (71.2)	1,016 (18.1)
직업	관리/전문/준전문	766 (14.4)	3,672 (69.0)	884 (16.6)	807 (11.6)	5,005 (72.0)	1,137 (16.4)
	사무직	327 (9.6)	2,302 (67.6)	774 (22.7)	361 (11.4)	2,084 (66.0)	713 (22.6)
	판매직	99 (11.5)	470 (54.4)	295 (34.1)	46 (14.6)	179 (56.6)	91 (28.8)
	조작·및 단순노무	151 (17.4)	503 (57.8)	216 (24.8)	29 (15.8)	88 (47.8)	67 (36.4)
사업체 종사자	1 ~ 4인	164 (12.1)	860 (63.4)	332 (24.5)	93 (11.1)	522 (62.5)	220 (26.3)
	5 ~ 9인	243 (14.2)	1,140 (66.4)	334 (19.5)	115 (10.4)	731 (66.3)	256 (23.2)
	10 ~ 29인	270 (13.0)	1,394 (67.2)	411 (19.8)	206 (11.4)	1,235 (68.2)	370 (20.4)
	30 ~ 49인	98 (10.9)	627 (69.5)	177 (19.6)	100 (11.0)	649 (71.5)	159 (17.5)
	50 ~ 99인	117 (13.0)	611 (67.7)	175 (19.4)	121 (10.4)	849 (72.7)	198 (17.0)
	100 ~ 299인	128 (11.9)	722 (67.3)	223 (20.8)	155 (13.1)	807 (68.4)	218 (18.5)
300인 이상	168 (14.4)	751 (64.4)	247 (21.2)	194 (12.5)	1,077 (69.4)	281 (18.1)	
근무 형태	정규직	1,047 (12.9)	5,558 (68.6)	1,494 (18.4)	973 (11.9)	5,804 (70.8)	1,415 (17.3)
	비정규직	237 (12.3)	1,105 (57.3)	587 (30.4)	226 (11.4)	1,274 (64.3)	482 (24.3)
(연속형 변수)							
연령(세)	25.6 (3.55)	25.7 (4.24)	25.4 (3.96)	27.9 (3.90)	28.1 (4.33)	28.0 (4.60)	
수능점수(점)	245.8 (44.30)	249.5 (43.41)	244.9 (45.87)	280.4 (47.26)	279.8 (47.76)	273.2 (47.44)	
교수1인당 학생비율(명)	84.2 (14.17)	83.9 (14.80)	83.6 (14.90)	45.6 (15.21)	46.1 (15.39)	46.5 (15.28)	
교수인당 학생비율(명)	-2.0 (8.47)	-2.1 (8.00)	-2.7 (8.18)	1.5 (4.87)	1.7 (4.75)	1.8 (4.95)	
학생인당 기본시설면적(m)	3.8 (1.21)	3.8 (1.30)	3.9 (1.43)	5.4 (1.74)	5.6 (2.31)	5.6 (2.42)	
학생인당 기본시설면적변동(m)	0.4 (0.95)	0.4 (0.96)	0.4 (1.06)	0.4 (1.19)	0.3 (1.54)	0.3 (1.66)	
첫직장을 얻기까지 면접회수(회)	2.4 (4.35)	2.1 (3.85)	2.3 (3.92)	3.2 (4.61)	2.8 (4.53)	2.9 (5.18)	
첫직장 이행기간(월)	3.5 (6.20)	3.4 (6.23)	4.0 (6.64)	4.4 (7.13)	4.4 (7.21)	4.4 (7.07)	
로그인급	7.4 (0.45)	7.4 (0.41)	7.3 (0.45)	7.6 (0.42)	7.6 (0.40)	7.5 (0.46)	

주 : 범주형 변수는 인원수, () 내는 백분율을, 연속형 변수는 평균, () 내는 표준편차를 각각 나타냄.

능력에 대한 신호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학의 서열이 곧 입학생의 개인능력에 대한 대리변수 역할을 하고 노동시장에서는 이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여 구직자의 출신대학에 따라 졸업생의 능력을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에 따르면 할지라도 대학

의 교육투자 증대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섯째, 전공별 과잉교육의 규모역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에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과잉교육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대학에서는 예능계열과 사회계열이 높았다. 전공별 과잉교육 규모는 해당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력수급 추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특정전공의 인력과부족에 대한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전공출신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보다 과잉공급 될 경우 과잉교육에 따른 하향취업은 해당전공에 집중될 것이고 이것이 전공간 과잉교육의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이 때문이다.

여섯째, 구직행동과 과잉교육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첫직장을 얻기까지의 면접횟수를 살펴보면 전문대학 및 대학모두에서 과소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졸업이후 첫 직장을 얻기까지의 이행기간은 전문대학에서는 과잉교육이 4.0개월로 가장 높았던 반면, 대학에서는 학력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대학에서 과잉교육은 구직기간이 짧거나, 구직횟수가 적은 등 부실한 구직과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과잉교육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모형

학교교육의 질과 과잉교육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항 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추정하고자 한다. 학교의 질과 과잉교육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크게 다항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과잉교육, 적정교육, 과소교육 각각의 확률을 분석하는 방식과 이항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과잉교육 확률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별된다. 다항로짓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교의 준거가 적정교육이 되지만, 이항로짓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정 및 과소교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추정계수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증분석 방법으로 이항로짓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분석의 주된 관심이 과소교육을 포함하는 학력불일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잉교육의 원인과 영향분석에 있기 때문이다.

$$\log\left(\frac{\pi_{ij}}{\pi_{ij}}\right) = \beta_j X_i + \gamma_j S_i + \epsilon_i, \quad j = 0, 1 \quad \text{-----} \quad (\text{식 } 1)$$

(식 1)에서 j는 범주로서 적정교육 및 과소교육(=0), 과잉교육(=1)을 각각 의미하며, i는 설명변수의 수이다. X는 과잉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속성, 개인의 능력, 교육배경, 직업특성 등의 변수이며, S는 학교의 질을 포착하는 변수에 해당된다. 변수선정은 인적자본이론에 따라 과잉교육 여부가 인적속성, 교육배경, 구직행위, 학교의 질 등과 같은 개인의 능력 및 인적자본투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직업특성은 과잉교육이 직업세계로의 이행이후에 관찰되는 변수라는 점을 감안하여 직업특성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포함하였다. 인적속성에는 연령, 결혼여부 등을, 개인의 능력을 대리하는 변수로는 학과별 수능평균 합격점수를, 교육배경에는 수도권대학 여부, 전공 등을, 구직행위³⁷⁾에는 첫직장 구직시까지의 면접횟수, 졸업후 첫직장 이행기간 등을 포함하였다. 학교의 질은 본 논문의 핵심적인 변수로서 입학당시의 교수1인당 재학생 비율, 입학당시의 재학생 1인당 학교시설면적, 그리고 두 변수의 입학시점과 졸업시점간 변동치를 포함한다. 교수1인당 재학생 비율과 재학생1인당 학교시설 면적은 교육투자 증가의 대부분이 교수충원과 학교건물투자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포함하였으며, 한정된 투자재원을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것이 졸업생의 취업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효과적인가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특성에는 산업, 직업, 사업체규모, 고용형태 등을 포함하였으며, ϵ_i 는 교란항이다.

(3) 실증분석 결과

(식 1)에 따른 과잉교육 확률에 관한 이항로짓 추정결과가 <표 부록Ⅱ-4> 및 <표 부록Ⅱ-5>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인 교수1인당 학생비율, 학생1인당 학교건물면적 그리고 그 변동을 조합하여 총 5가지의 모형을 추정 한 결과 모형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의 부호, 유의도, 값

37) 직업탐색이론(job search model)에 따르면 구직행위는 기회소득, 구직비용 등이 소요되는 투자로서 구직자-일자리 일치(match)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변수에 포함하였다.

등은 모두 변수조합과 무관하게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부록Ⅱ-4> 및 <표 부록Ⅱ-5>에서 인적속성 및 교육변수를 중심으로 과잉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 및 대학 모두에서 성(gender, 여성=1) 더미의 추정계수는 양의 부호를 나타내 여성이 과잉교육에 놓일 확률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 여성의 과잉교육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모형5)를 기준으로 전문대학 성 더미의 오즈비(odds ratio)는 1.180으로서 전문대졸 여성이 과잉교육 상태에 놓일 확률은 전문대졸 남성에 비해 18.0% 더 높았다. 한편 대학은 1.267으로서 대졸 여성이 대졸남성에 비해 과잉교육 상태에 놓일 확률이 26.7% 높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채용관행이 바뀌면서 채용단계에 있어서 성차별이 많이 축소되고 있지만, 채용이후 업무배치 과정에서 성차별적 관행이 여전히 높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수능점수의 추정계수는 전문대학 및 대학 모두에서 음으로 나타났으나, 추정계수는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즉, 추정결과에 따르면 수능점수는 과잉교육에 놓일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수능점수가 개인능력의 대리변수라는 점을 생각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로 해석된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날수록(수능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학교에 진학하여 보다 많은 인적자본을 축적할 것이므로 과잉교육에 놓일 확률은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로짓모형에서는 예상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과잉교육을 식별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주관적 응답에 기초하여 과잉교육을 식별할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불만족을 과잉교육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만약 수능점수가 높은 학생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이 높다면, 수행하는 업무의 숙련수준과 학력이 일치하더라도 과잉교육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셋째, 구직기간 및 강도가 과잉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대학과 대학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문대학과 대학 모두에서 졸업이후 첫 직장 취업시까지의 면접횟수(interv)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취업소요기간(dura)은 모두 유의하였다. 다만, 전

문대학에서는 취업소요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잉교육에 놓일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대학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직업탐색이론에서는 구직자의 구직행위를 일종의 투자로 간주하면서,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업일치(job match)의 질이 높아져 과잉교육에 놓일 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인적자본이론에서 예상하는 바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전문대학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전문대졸의 경우에는 취업시 실제 주어지는 직무가 전문대학의 숙련수준보다 낮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구직기간과 무관하게 교육일치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넷째, 학교의 질은 과잉교육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과 대학 모두에서 교수1인당 학생비율, 학생1인당 학교시설면적, 그리고 각각의 변동치 등의 추정계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경쟁적으로 학교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한 노력이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부록 II-4> 전문대학 과잉교육 로짓 추정결과

전문대학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Intercept	-1.1857*** (0.3743)	-1.2446*** (0.3438)	-1.2253*** (0.3508)	-1.2566*** (0.3457)	-1.2791*** (0.4121)
age	0.0036 (0.0089)	0.0034 (0.0089)	0.0037 (0.0089)	0.0033 (0.0089)	0.0031 (0.0089)
gender	0.1718*** (0.0661)	0.1728*** (0.0653)	0.1744*** (0.0653)	0.1742*** (0.0653)	0.1662** (0.0662)
marri	-0.0773 (0.0921)	-0.0729 (0.0921)	-0.0737 (0.0921)	-0.0707 (0.0922)	-0.0701 (0.0922)
point	-0.0010 (0.0008)	-0.0009 (0.0008)	-0.0010 (0.0008)	-0.0009 (0.0008)	-0.0007 (0.0008)
usudo	0.0588 (0.0662)	0.0255 (0.0689)	0.0559 (0.0653)	0.0564 (0.0651)	0.0309 (0.0697)
interv	0.0033 (0.0058)	0.0032 (0.0058)	0.0027 (0.0058)	0.0026 (0.0058)	0.0026 (0.0058)
dura	0.0072* (0.0042)	0.0071* (0.0042)	0.0072* (0.0042)	0.0074* (0.0042)	0.0072* (0.0042)
profe	-0.3589*** (0.0686)	-0.3570*** (0.0686)	-0.3568*** (0.0687)	-0.3534*** (0.0687)	-0.3555*** (0.0687)
sale	0.2866*** (0.0974)	0.2827*** (0.0975)	0.2854*** (0.0975)	0.2846*** (0.0975)	0.2792*** (0.0976)
work	0.1302 (0.1022)	0.1380 (0.1023)	0.1412 (0.1022)	0.1437 (0.1022)	0.1481 (0.1023)
fsizel	0.0180 (0.0718)	0.0185 (0.0718)	0.0178 (0.0718)	0.0171 (0.0718)	0.0182 (0.0718)
fsize2	-0.0549 (0.0975)	-0.0539 (0.0975)	-0.0560 (0.0975)	-0.0544 (0.0975)	-0.0521 (0.0975)
fsize3	-0.0954 (0.0988)	-0.0928 (0.0988)	-0.0945 (0.0988)	-0.0939 (0.0988)	-0.0920 (0.0988)
fsize4	-0.0962 (0.0906)	-0.0963 (0.0906)	-0.0976 (0.0908)	-0.0969 (0.0908)	-0.0989 (0.0908)
fsize5	-0.1761** (0.0876)	-0.1753** (0.0876)	-0.1739** (0.0876)	-0.1737** (0.0876)	-0.1730** (0.0876)
type	0.6240*** (0.0630)	0.6222*** (0.0630)	0.6204*** (0.0631)	0.6218*** (0.0630)	0.6173*** (0.0631)
tenure	-0.0002 (0.0010)	-0.0002 (0.0010)	-0.0002 (0.0010)	-0.0002 (0.0010)	-0.0001 (0.0010)
st_ratio1	-0.0003 (0.0019)	-	-	-	-0.0011 (0.0021)
st_ratio2	-	-0.0054 (0.0038)	-	-	-0.0047 (0.0042)
st_build1	-	-	0.0053 (0.0204)	-	0.0187 (0.0250)
st_build2	-	-	-	0.0315 (0.0284)	0.0377 (0.0353)
Log likelihood	330.9529	332.9395	328.2243	329.3781	331.6962
N	9,411	9,411	9,399	9,399	9,399

주 : 1) ()내는 표준오차.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의미.

3) 로짓모형 추정식에 포함된 설명변수 중 전공계열, 산업더미 등은 지면관계상 결과표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저자에게 요청할 경우 제공가능.

<표 부록 II-5> 대학 과잉교육 로짓 추정결과

대학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Intercept	-0.6323*** (0.4926)	-0.7553*** (0.4608)	-0.8081*** (0.4686)	-0.7677*** (0.4662)	-0.7358*** (0.5275)
age	-0.0166 (0.0134)	-0.0168 (0.0134)	-0.0170 (0.0137)	-0.0167 (0.0137)	-0.0156 (0.0137)
gender	0.2214*** (0.0713)	0.2261*** (0.0715)	0.2272*** (0.0718)	0.2352*** (0.0721)	0.2366** (0.0722)
marri	0.0921 (0.0873)	0.0882 (0.0877)	0.0810 (0.0885)	0.0769 (0.0889)	0.0780 (0.0890)
point	-0.0014 (0.0009)	-0.0013 (0.0008)	-0.0011 (0.0008)	-0.0013 (0.0008)	-0.0017 (0.0009)
usudo	0.0498 (0.0678)	0.0391 (0.0674)	0.0520 (0.0674)	0.0437 (0.0676)	0.0282 (0.0688)
interv	0.0046 (0.0055)	0.0043 (0.0055)	0.0047 (0.0055)	0.0043 (0.0056)	0.0045 (0.0056)
dura	-0.0010* (0.0041)	-0.0009* (0.0041)	-0.0017* (0.0041)	-0.0016* (0.0042)	-0.0017* (0.0042)
profe	-0.4458*** (0.0702)	-0.4491*** (0.0706)	-0.4537*** (0.0708)	-0.4574*** (0.0711)	-0.4585*** (0.0712)
sale	0.1176*** (0.1509)	0.1280*** (0.1510)	0.1200*** (0.1512)	0.1399*** (0.1514)	0.1372*** (0.1515)
work	0.5365 (0.1932)	0.5439 (0.1933)	0.5363 (0.1973)	0.5421 (0.1974)	0.5391 (0.1975)
fsizel	0.0720 (0.0814)	0.0632 (0.0818)	0.0646 (0.0817)	0.0563 (0.0822)	0.0620 (0.0823)
fsize2	-0.1490 (0.1088)	-0.1487 (0.1092)	-0.1516 (0.1096)	-0.1470 (0.1101)	-0.1432 (0.1101)
fsize3	-0.0471 (0.0981)	-0.0431 (0.0982)	-0.0532 (0.0989)	-0.0481 (0.0990)	-0.0430 (0.0991)
fsize4	-0.0602 (0.0943)	-0.0589 (0.0946)	-0.0729 (0.0951)	-0.0705 (0.0954)	-0.0673 (0.0954)
fsize5	-0.0777** (0.0859)	-0.0771** (0.0864)	-0.0812** (0.0863)	-0.0780** (0.0868)	-0.0766** (0.0869)
type	0.4039*** (0.0701)	0.4060*** (0.0703)	0.3951*** (0.0705)	0.3962*** (0.0706)	0.3982*** (0.0707)
tenure	-0.0025 (0.0015)	-0.0025 (0.0015)	-0.0025 (0.0015)	-0.0025 (0.0015)	-0.0024 (0.0015)
st_ratio1	-0.0016 (0.0021)	-	-	-	-0.0013 (0.0024)
st_ratio2	-	-0.0012 (0.0060)	-	-	-0.0009 (0.0065)
st_build1	-	-	0.0107 (0.0136)	-	0.0220 (0.0177)
st_build2	-	-	-	0.0196 (0.0209)	0.0334 (0.0244)
Log likelihood	213.9820	211.6203	211.7271	210.2029	213.1322
N	8,943	8,897	8,841	8,795	8,795

주 : 1) ()내는 표준오차.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의미.

3) 로짓모형 추정식에 포함된 설명변수 중 전공계열, 산업더미 등은 지면관계상 결과표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저자에게 요청할 경우 제공가능.

학교의 질 개선에 노력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의 차별화는 신입생 유치와 졸업생의 취업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인력양성기관인 대학이 교육투자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졸업생의 취업의 질을 높임으로써 신입생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교육투자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투자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졸업생의 취업의 질을 나타내주는 지표인 과잉교육에 있어서 교육투자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실망스런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사무직에 비하여 전문직의 과잉교육 확률은 크게 낮은 반면, 판매직의 과잉교육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규모가 과잉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종업원 수 10인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이 될 경우에 비로소 전문대학 및 대학 모두에서 과잉교육에 놓일 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잉교육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근로조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은 전문대학 및 대학모두에서 유의하게 과잉교육에 놓일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대학의질, 과잉교육, 그리고 임금

(1) 분석모형의 설정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근로자의 생산성이 과잉교육 상태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와 둘째 학교의 질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과잉교육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교육이라는 불균형 현상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력수준보다 높은 학력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때 노동과 자본간의 생산요소 대체, 신규기술의 채용, 직

무수행의 내용변화 등과 같은 조정과정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해당근로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숙련 등이 활용됨으로써 과잉교육은 임금조정과 기업 및 근로자의 조정과정을 통해 스스로 해소되는 것이다. 반면, 직무경쟁이론에서는 경제내 존재하는 직무의 수와 종류가 상당기간 일정하기 때문에 과잉교육에 따라 하향취업이 발생할 경우 직무내용의 조정은 쉽게 발생하지 않고 인력의 저활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과잉교육 상태에 놓인 근로자는 저숙련 직종에서의 혼잡효과(congestion effect)에 의한 임금저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논문에서는 인적자본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을 생산성의 대리변수라고 가정하였을 때 과잉교육의 임금효과가 과연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과잉교육의 임금효과가 없다면 이것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과잉교육여부가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과잉교육이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직무경쟁이론의 예측이 보다 현실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잉교육의 임금효과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조정과정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의 질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각 대학들이 교육내실화를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노력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다. 노동경제학적 관점에서 교육은 미래 직업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현재의 투자행위라 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 성과는 국민의 교육투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만약 교육투자를 확대한 대학의 노력에 의해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가 높아지게 되면, 이것은 해당학교가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판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학들 역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교육투자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학서열화의 폐단으로 인하여 투자확대에 노력하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간에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가는 판단하기 어렵다. 노동시장 성과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대표적 지표는 임금이며, 따라서 졸업생의 임금을 기준으로 대학별 교육투자 확대의 임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교육투자 확

대의 경제적 귀결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금함수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OLS) 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log(W_i) = \beta X_i + \gamma O_i + \delta S_i + \epsilon_i \quad \text{-----} \quad (\text{식 } 2)$$

(식 2)는 통상적인 임금함수로서 종속변수 $\log(W_i)$ 는 임금 연봉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³⁸⁾ 설명변수 X에는 성, 연령, 결혼여부, 수능점수, 수도권대학 여부, 전공계열, 첫직장 취업시까지의 면접횟수, 첫 직장 취업시까지의 소요기간, 산업, 직종, 기업규모, 고용형태, 근속기간 등의 변수가 포함된다. O는 과잉교육 더미변수를, S는 학교의 질을 나타내주는 교수1인당 학생수 및 그 변동, 학생1인당 학교 시설면적 및 그 변동을, 그리고 ϵ 은 오차항이다.

(2) 임금함수 추정결과

<표 부록Ⅱ-6>과 <표 부록Ⅱ-7>에는 전문대학 및 대학의 임금함수 추정결과가 각각 5개 모형별로 제시되어 있다. 모형1-모형5는 학교의 질 변수조합에 따라 구성된 것이며, 추정 결과 전체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추정계수값이 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추정모형의 설정과 무관하게 안정된 계수값을 보였다. 과잉교육 더미변수와 학교의 질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과잉교육은 전문대학 및 대학 모두에서 부의 임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에서 과잉교육의 추정계수값은 -0.0247~-0.0250, 대학에서는 -0.0582~-0.0598를 보여, 과잉교육의 임금감소효과가 전문대학에서는 2.5%, 대학에서는 6.0% 존재하였다.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과잉교육을 식별할 때의 문제는 직업에 대한 불만족을 과잉

38) 연봉임금액은 첫 직장 취업년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소득과약시점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보정하기 위하여 민간임금상승률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비농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을 곱하여 2005년 값으로 수정하여 사용한다. 근로시간의 차이에 따른 임금차이를 감안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봉임금을 적용한다.

교육으로 응답하는 경향이다. 여기서는 이에 따른 영향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근무형태, 기업규모, 산업, 직업 등 다양한 직업적 특성을 모두 회귀식 추정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과잉교육이 임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추정결과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으로 나타난다는 인적자본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과잉교육으로 식별된 근로자의 생산성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낮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과잉교육이라는 불균형 현상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생산요소간 대체, 직무내용변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교육 상태에 놓인 근로자들이 저숙련 직무에 종사함으로써 낮은 생산성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부록II-6> 전문대학 임금함수 추정결과

전문대학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Intercept	7.2286***	(0.0456)	7.2035***	(0.0418)	7.1766***	(0.0427)	7.2090***	(0.0420)	7.2039***	(0.0501)
y2	-0.0250***	(0.0079)	-0.0248***	(0.0079)	-0.0249***	(0.0079)	-0.0247***	(0.0079)	-0.0247***	(0.0079)
age	0.0122***	(0.0011)	0.0123***	(0.0011)	0.0124***	(0.0011)	0.0123***	(0.0011)	0.0124***	(0.0011)
gender	-0.2241***	(0.0080)	-0.2219***	(0.0079)	-0.2226***	(0.0079)	-0.2221***	(0.0079)	-0.2233***	(0.0080)
marri	0.1347***	(0.0108)	0.1347***	(0.0108)	0.1337***	(0.0108)	0.1336***	(0.0108)	0.1328***	(0.0108)
point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usudo	-0.0749***	(0.0080)	-0.0718***	(0.0083)	-0.0785***	(0.0079)	-0.0769***	(0.0079)	-0.0727***	(0.0084)
socal	0.0140	(0.0151)	0.0123	(0.0151)	0.0126	(0.0151)	0.0129	(0.0151)	0.0129	(0.0151)
tutor	-0.1225***	(0.0228)	-0.1219***	(0.0228)	-0.1221***	(0.0227)	-0.1216***	(0.0227)	-0.1207***	(0.0227)
engin	0.0035	(0.0148)	0.0010	(0.0148)	0.0020	(0.0147)	0.0017	(0.0147)	0.0021	(0.0148)
nsci	-0.0111	(0.0180)	-0.0132	(0.0180)	-0.0132	(0.0180)	-0.0122	(0.0179)	-0.0134	(0.0180)
medi	0.1203***	(0.0177)	0.1206***	(0.0177)	0.1195***	(0.0177)	0.1234***	(0.0178)	0.1200***	(0.0178)
art	-0.0623***	(0.0156)	-0.0644***	(0.0155)	-0.0636***	(0.0155)	-0.0637***	(0.0155)	-0.0630***	(0.0156)
interv	-0.0043***	(0.0008)	-0.0043***	(0.0008)	-0.0043***	(0.0008)	-0.0043***	(0.0008)	-0.0043***	(0.0008)
dura	-0.0014***	(0.0005)	-0.0014***	(0.0005)	-0.0014***	(0.0005)	-0.0014***	(0.0005)	-0.0014***	(0.0005)
const	0.0016	(0.0139)	0.0013	(0.0139)	0.0003	(0.0139)	0.0001	(0.0139)	0.0010	(0.0139)
resta	-0.0291**	(0.0116)	-0.0277**	(0.0116)	-0.0296**	(0.0116)	-0.0292**	(0.0116)	-0.0286**	(0.0117)
elec	0.0892***	(0.0136)	0.0903***	(0.0136)	0.0880***	(0.0136)	0.0887***	(0.0136)	0.0884***	(0.0136)
service	-0.0604***	(0.0085)	-0.0593***	(0.0085)	-0.0612***	(0.0085)	-0.0607***	(0.0085)	-0.0602***	(0.0085)
profe	-0.0188**	(0.0083)	-0.0188**	(0.0083)	-0.0193**	(0.0083)	-0.0191**	(0.0083)	-0.0196**	(0.0083)
sale	-0.0383***	(0.0134)	-0.0377***	(0.0134)	-0.0383***	(0.0134)	-0.0375***	(0.0134)	-0.0377***	(0.0134)
work	-0.0324**	(0.0130)	-0.0330**	(0.0130)	-0.0333**	(0.0130)	-0.0335**	(0.0130)	-0.0346**	(0.0131)
fsize1	-0.0053	(0.0087)	-0.0053	(0.0087)	-0.0049	(0.0087)	-0.0051	(0.0087)	-0.0050	(0.0087)
fsize2	0.0198*	(0.0118)	0.0192	(0.0118)	0.0195*	(0.0118)	0.0192	(0.0118)	0.0193	(0.0118)
fsize3	0.0566***	(0.0119)	0.0564***	(0.0119)	0.0570***	(0.0119)	0.0568***	(0.0119)	0.0564***	(0.0119)
fsize4	0.0766***	(0.0110)	0.0767***	(0.0110)	0.0769***	(0.0110)	0.0771***	(0.0110)	0.0768***	(0.0110)
fsize5	0.1322***	(0.0107)	0.1320***	(0.0107)	0.1318***	(0.0107)	0.1317***	(0.0107)	0.1317***	(0.0107)
type	-0.1797***	(0.0085)	-0.1790***	(0.0085)	-0.1796***	(0.0085)	-0.1788***	(0.0085)	-0.1792***	(0.0085)
tenure	0.0029***	(0.0001)	0.0029***	(0.0001)	0.0029***	(0.0001)	0.0029***	(0.0001)	0.0029***	(0.0001)
st_ratio1	-0.0004*	(0.0002)	-	(-)	-	(-)	-	(-)	-0.0002	(0.0002)
st_ratio2	-	(-)	0.0009**	(0.0005)	-	(-)	-	(-)	0.0007	(0.0005)
st_build1	-	(-)	-	(-)	0.0056**	(0.0025)	-	(-)	0.0041	(0.0031)
st_build2	-	(-)	-	(-)	-	(-)	-0.0070**	(0.0035)	-0.0021	(0.0043)
Adj-R2	0.4175		0.4176		0.4170		0.4170		0.4171	
N	8,637		8,637		8,626		8,626		8,626	

주 : 1) ()내는 표준오차.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의미.

직무경쟁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내 숙련별 직무의 수는 일정 기간 동안 쉽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고학력자가 저숙련 직종에 몰려 해당직종의 임금을 낮추는 혼잡효과 또한 존재할 것이다.

둘째, 학교의 질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전문대학과 대학 모두에서 존재하기는 하나 그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를 각각 모형에 포함시켰을 때는(모형1-모형4) 유의하였으나, 해당 변수들을 동시에 포함하여 추정하였을 때는(모형5)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대학의 경우에는 교수1인당 학생비율과 입학시점과 졸업시점간의 학생1인당 건물면적 변동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대학 및 대학 모두에서 추정계수가 유의하기는 하지만 값이 매우 작게 나타나 임금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는 매우 미미한 결과를 보였다. 사실, 대학이 교육투자를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코호트(cohort)가 입학해서 졸업까지의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지나치게 이른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전문대학과 대학 모두에서 학교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등의 노력은 노동시장에서는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셋째, 임금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정규직 여부를 의미하는 근무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에서 영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비정규직 더미의 추정계수는 $-0.2369 \sim 0.2383$ 로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26.7%~26.9% 유의하게 낮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여러 가지 통제변수들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관찰되지 않는 생산성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과 더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등의 영향이 혼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수능능력시험 점수의 추정계수는 전문대학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학에서는 $0.0018 \sim 0.0019$ 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능력을 대리하는 수능점수가 전문대학에서는 임금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지만 대학에서는 수능 1점당 약 0.2%의

임금상승 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대학의 경우 수능점수 분포의 하위에 주로 위치하기 때문에 수능에 따른 능력의 변별이 무의미 할 수 있고 쉽지도 않지만,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서열화 등을 통해 수능으로 측정된 개인의 능력이 대학입시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산업, 직종, 기업규모, 근속 등의 변수는 통상적인 임금함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부호를 보였으며, 대체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부록 II-7> 대학교 임금함수 추정결과

변수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Intercept	7.0112*** (0.0559)	6.9558*** (0.0518)	6.9574*** (0.0526)	6.9514*** (0.0523)	7.0203*** (0.0600)
y2	-0.0581*** (0.0084)	-0.0582*** (0.0085)	-0.0589*** (0.0085)	-0.0597*** (0.0085)	-0.0598*** (0.0085)
age	0.0086*** (0.0015)	0.0083*** (0.0014)	0.0082*** (0.0015)	0.0083*** (0.0015)	0.0085*** (0.0015)
gender	-0.1500*** (0.0083)	-0.1496*** (0.0083)	-0.1492*** (0.0084)	-0.1480*** (0.0084)	-0.1483*** (0.0084)
marri	0.0591*** (0.0102)	0.0593*** (0.0102)	0.0569*** (0.0103)	0.0574*** (0.0103)	0.0579*** (0.0103)
point	0.0018*** (0.0001)	0.0019*** (0.0001)	0.0019*** (0.0001)	0.0019*** (0.0001)	0.0018*** (0.0001)
usudo	-0.0349*** (0.0080)	-0.0322*** (0.0079)	-0.0297*** (0.0079)	-0.0292*** (0.0079)	-0.0327*** (0.0081)
socal	0.0355*** (0.0116)	0.0356*** (0.0117)	0.0348*** (0.0117)	0.0349*** (0.0117)	0.0360*** (0.0117)
tutor	0.1606*** (0.0153)	0.1623*** (0.0153)	0.1642*** (0.0154)	0.1637*** (0.0153)	0.1638*** (0.0155)
engin	0.0624*** (0.0118)	0.0611*** (0.0118)	0.0604*** (0.0119)	0.0600*** (0.0119)	0.0616*** (0.0119)
nsci	0.0228* (0.0127)	0.0252** (0.0128)	0.0265** (0.0128)	0.0255** (0.0129)	0.0238* (0.0129)
medi	0.1869*** (0.0192)	0.1874*** (0.0193)	0.1892*** (0.0193)	0.1899*** (0.0193)	0.1907*** (0.0194)
art	0.0270* (0.0160)	0.0313* (0.0160)	0.0333** (0.0161)	0.0312** (0.0160)	0.0282** (0.0161)
interv	-0.0019*** (0.0007)	-0.0019*** (0.0007)	-0.0019*** (0.0007)	-0.0018*** (0.0007)	-0.0018*** (0.0007)
dura	-0.0001 (0.0005)	-0.0001 (0.0005)	0.0001 (0.0005)	0.0000 (0.0005)	0.0000*** (0.0005)
const	-0.0286* (0.0153)	-0.0277* (0.0153)	-0.0292* (0.0156)	-0.0274* (0.0156)	-0.0267 (0.0156)
resta	-0.0314** (0.0133)	-0.0312** (0.0134)	-0.0331** (0.0134)	-0.0314** (0.0134)	-0.0308** (0.0134)
elec	0.1008*** (0.0133)	0.0992*** (0.0133)	0.0984*** (0.0133)	0.0977*** (0.0134)	0.0983*** (0.0134)
service	-0.0876*** (0.0091)	-0.0863*** (0.0091)	-0.0884*** (0.0092)	-0.0861*** (0.0092)	-0.0861*** (0.0092)
profe	-0.0084 (0.0085)	-0.0089 (0.0085)	-0.0094 (0.0086)	-0.0101 (0.0086)	-0.0097 (0.0086)
sale	-0.0249 (0.0206)	-0.0243 (0.0206)	-0.0249 (0.0207)	-0.0231 (0.0207)	-0.0233 (0.0206)
work	-0.1208*** (0.0276)	-0.1205*** (0.0276)	-0.1181*** (0.0282)	-0.1180*** (0.0281)	-0.1169*** (0.0281)
fsize1	-0.0603*** (0.0099)	-0.0611*** (0.0099)	-0.0600*** (0.0099)	-0.0589*** (0.0100)	-0.0582*** (0.0100)
fsize2	0.0030 (0.0124)	0.0028 (0.0124)	0.0042 (0.0125)	0.0063 (0.0126)	0.0069 (0.0126)
fsize3	0.0258** (0.0114)	0.0257** (0.0114)	0.0260** (0.0115)	0.0277** (0.0115)	0.0281** (0.0115)
fsize4	0.0016 (0.0112)	0.0017 (0.0112)	0.0017 (0.0113)	0.0031 (0.0113)	0.0034 (0.0113)
fsize5	0.0542*** (0.0100)	0.0550*** (0.0101)	0.0531*** (0.0101)	0.0552*** (0.0101)	0.0551*** (0.0101)
type	-0.2381*** (0.0088)	-0.2370*** (0.0088)	-0.2383*** (0.0089)	-0.2369*** (0.0089)	-0.2373*** (0.0089)
tenure	0.0028*** (0.0002)	0.0028*** (0.0002)	0.0030*** (0.0002)	0.0030*** (0.0002)	0.0030*** (0.0002)
st_ratio1	-0.0007*** (0.0003)	-	-	-	-0.0008*** (0.0003)
st_ratio2	-	-0.0004 (0.0007)	-	-	0.0004 (0.0008)
st_build1	-	-	-0.0021 (0.0017)	-	-0.0015 (0.0021)
st_build2	-	-	-	0.0097*** (0.0025)	0.0088*** (0.0030)
Adj-R2	0.3978	0.3969	0.3976	0.3983	0.3986
N	8,104	8,068	8,009	7,973	7,973

주 : 1) ()내는 표준오차.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의미.

다. 노동이동과 과잉교육

(1) 노동이동 실태

청년층 노동시장은 활발한 직장이동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여타 노동시장과 뚜렷이 구분된다. 이론적으로 노동이동은 근로자-직장간 일치(match)의 질을 높임으로써 경제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직장이동(job mobility)은 과잉교육이 해소되는 주된 경로로 기능하게 된다. 직장이동이 학력불일치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직장일치(job match)이론과 경력이동(career mobility)이론이 대표적이다. 직장일치이론에서는 근로자와 직장간의 일치의 질이 생산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직장일치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재 나쁜 직장일치 상태에 놓은 근로자는 구직행동에 나설 확률이 높고 궁극적으로 직장이동을 통해 학력불일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경력이동이론에서는 근로자가 학력불일치를 수용하는 이유로, 노동시장 신참자는 경력형성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하향취업을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설명한다(Rosen, 1972; Sichernan and Galor, 1990). 양이론에 따를 경우 교육과잉이 단기적인 노동시장 불균형 현상으로서 노동이동을 통해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반면, 앞서 설명하였듯이 직무경쟁이론에서는 직무의 종류와 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불일치가 단기간내에 해소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며 따라서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직장이동 분석을 통해 첫직장에서의 학력일치상태가 과연 이직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 만약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직장이동을 통해 학력일치상태가 개선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과잉교육이 특정근로자 계층에게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현상인지, 아니면 일시적 불균형 현상으로서 직장이동을 통해 해소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문대졸의 경우 현재 취업자 총 10,467명중 30.2%인 3,571명이 1회 이상의 이직경

험을 갖고 있으며, 대졸의 같은 수치는 현재 취업자 총 10,612명중 23.6%인 2,5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 교육과잉이 근로자의 이직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취업자를 이직경험이 한번 이상 있었던 취업자와 한 번도 없었던 취업자로 나누어 로짓분석을 시도하였다. 종속변수는 직장이동이 있었던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놓고 분석하였으며, 추정계수는 직장이동 경험에 미치는 확률을 포착하게 된다. 참고로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현직장과 전직장이 아닌 첫직장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첫직장과 현직장을 비교하였다.³⁹⁾ 추정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직행위가 첫직장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과잉, 직장관련 변수는 모두 첫직장의 값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교육관련 변수들이 포함된 이유는 분석대상집단이 2003년 졸업생 코호트로서 비교적 최근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요인에 영향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직행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이직이 이루어졌을 때 첫직장에서의 과잉교육 상태가 이직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첫직장과 현직장간의 학력일치 상태 이행행렬을 작성하였다.

우선 이직경험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를 <표 부록Ⅱ-8>에서 살펴보면, 전문대학과 대학 모두에서 첫직장의 과잉교육 상태(y240)가 유의하게 이직경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잉교육 상태에 놓인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이직을 겪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잉교육의 오즈는 전문대 1.280, 대학 1.298로서 전문대학에서는 과잉교육 상태에 놓인 근로자가 이직을 경험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28.0% 높았으며, 대학에서는 29.8% 높았다.

한편, 학교의 질관련 변수는 전문대학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던 반면, 대학에서는 교수1인당 학생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입학시점과 비교한 졸업시점의 교수1인당 학생수가 증가할수록 이직을 겪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39) 대략 80%의 졸업생이 이직경험이 없거나, 1회의 이직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0) 적정교육=0, 과잉교육=1의 값을 가진다는 점에 유의.

즉, 대학에 있어서는 학생1인당 건물면적은 영향이 없었던 반면, 교수1인당 학생 수가 낮을수록 해당대학 졸업생의 이직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대학과 대학 모두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이직경험 확률은 유의하게 낮았으며, 대학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직확률이 더 높았다. 수능점수는 전문대학에서는 이직경험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대학에서는 이직경험 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의 이직경험 확률이 높아 지방대의 직장정착도가 낮음을 보여주었으며, 근속이 증가할수록 이직경험 확률은 낮아졌다. 기업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이직경험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일수록 인적자본이 우수하여 이직시 재취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이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낮은 직무능력에 대한 일종의 낙인효과(scarring 혹은 stigma effects)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이직후 재취업이 대기업 취업자에 비해 더 어려울 수 있다.

다음으로 <표 부록Ⅱ-9>의 첫직장과 현직장의 학력일치 상태의 이행행렬을 살펴보면 전문대학 및 대학 모두에서 첫직장의 과잉교육상태가 직장이동을 통해 해소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직장과 현직장이 모두 관찰되는 전문대학 10,467명, 대학 10,61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 10,467명중 직장이동 경험이 있는 취업자는 30.2%인 3,157명으로 나타났으며, 첫직장에서 과잉교육 상태에 놓여있던 취업자 2,171명중 32.2%인 699명이 직장이동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직장이동을 통해 과잉교육이 해소된 근로자수는 391명으로서 전문대학 전체 첫직장 과잉교육 취업자 2,171명중 18.0%로 나타났다.

대학에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10,612명의 취업자중 직장이동 경험이 있는 취업자는 23.6%인 2,507명으로 나타났으며, 첫직장에서 과잉교육 상태에 있었던 취업자 2,011명중 26.1%인 525명이 직장이동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첫직장 과잉교육 취업자 2,011명중 직장이동을 통해 적정교육으로 개선된 경우는 전문대학보다 낮은 288명, 비율로는 14.3% 에 그쳤다.

노동이동에 따른 학력일치의 변화를 다룬 외국의 선행연구중 상시인구조사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미국의 1990년대를 분석한 Rubb(2003)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 과잉교육 상태인 농업인 취업자중 약 20%정도가 1년 이내에 적정교육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수치가 전문대학 18.0%, 대학 14.3%로서 미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동이동은 과잉교육 해소의 통로로서 매우 제한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부록 II-8> 교육과잉의 이직경험에 대한 이항로짓분석결과

	이직경험 유무(이직=1)			
	전문대학		대학	
Intercept	3.5430***	(0.4666)	6.6311***	(0.6631)
y2	0.2472***	(0.0661)	0.2605***	(0.0809)
age	-0.0913***	(0.0113)	-0.0705***	(0.0175)
gender	0.0389	(0.0695)	0.1515*	(0.0844)
marri	-0.1900*	(0.1031)	0.0049	(0.1019)
point	0.0006	(0.0008)	-0.0048***	(0.0010)
usudo	-0.0218	(0.0696)	-0.0575	(0.0762)
social	-0.1334	(0.1283)	-0.2757**	(0.1090)
tutor	0.0331	(0.1812)	-0.5181***	(0.1474)
engin	-0.0361	(0.1248)	-0.3029***	(0.1122)
nsci	-0.0896	(0.1512)	-0.0746	(0.1166)
medi	-0.1962	(0.1464)	-0.4202**	(0.1903)
art	0.3724***	(0.1301)	-0.2770*	(0.1468)
interv	0.0572***	(0.0091)	0.0205***	(0.0068)
dura	-0.1964***	(0.0055)	-0.2657***	(0.0068)
const	0.1305	(0.1177)	0.0500	(0.1493)
resta	0.2484***	(0.0959)	0.1925	(0.1237)
elec	-0.1676	(0.1183)	-0.6738***	(0.1463)
service	0.0448	(0.0716)	0.0672	(0.0876)
profe	0.3523***	(0.0696)	-0.1030	(0.0811)
sale	0.0520	(0.1111)	-0.1255	(0.2069)
work	0.2654**	(0.1125)	-0.6086**	(0.2951)
fsize1	0.3985***	(0.0712)	1.1311***	(0.0955)
fsize2	0.3070***	(0.0975)	0.7761***	(0.1186)
fsize3	0.2156**	(0.0982)	0.6794***	(0.1108)
fsize4	0.0641	(0.0923)	0.7573***	(0.1097)
fsize5	0.8099***	(0.0894)	1.2216***	(0.0982)
type	0.5918***	(0.0696)	0.6714***	(0.0825)
tenure	-0.1177***	(0.0032)	-0.2076***	(0.0051)
st_ratio1	0.0033	(0.0021)	0.0049***	(0.0028)
st_ratio2	-0.0015	(0.0043)	0.0155**	(0.0071)
st_build1	0.0126	(0.0253)	-0.0261	(0.0215)
st_build2	0.0274	(0.0357)	-0.0080	(0.0291)
Log likelihood	3,968.7		4,929.9	
N	9,399		8,795	

<표 부록 II-9> 첫직장과 현직장의 학력일치 상태의 이행행렬

(단위 : 명, %)

		현직장							
		전문대학				대학			
		전체	이직자합계	적정교육	과잉교육	전체	이직자합계	적정교육	과잉교육
첫 직 장	적정교육	8,296 (100.0)	2,458 (29.6)	2,052 (24.7)	406 (4.9)	8,601 (100.0)	1,982 (23.0)	1,685 (19.6)	297 (3.5)
	과잉교육	2,171 (100.0)	699 (32.2)	391 (18.0)	308 (14.2)	2,011 (100.0)	525 (26.1)	288 (14.3)	237 (11.8)
	계	10,467 (100.0)	3,157 (30.2)	2,443 (23.3)	714 (6.8)	10,612 (100.0)	2,507 (23.6)	1,973 (18.6)	534 (5.0)

주 : 1) 적정교육은 적정교육과 과소교육의 합한 수치임.

이직경험에 대한 분석결과와 직장이동의 학력일치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로부터 첫직장에서의 과잉교육 상태가 이직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직장에서의 학력일치를 높이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잉교육의 임금효과에 대한 앞의 분석을 통해 과잉교육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적자료를 이용한다면 한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취업자의 과잉교육 상태변화를 포착할 수 있겠지만, 횡단면 자료의 특성상 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교육의 임금효과와 이직경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과잉교육은 기업내부의 조정과정을 통해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이동도 과잉교육 해소에 제한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잉교육은 노동시장의 조정과정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며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개입의 방식은 우선 학교교육에 있어서 대학정원조정을 통한 고급인력의 총량조정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전공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전공별 정원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채용, 배치, 근로조건 및 승진 등과 관련하여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성 및 지방대생 차별 등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통하여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을 기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80%를 상회하는 대학진학률에서 나타나듯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대중화, 보편화 단계에 놓여 있다. 이주호(2005)에 따르면 모집인원의 80%를 채우지 못한 대학이 2005년에만 51개교(전체 대학의 25.2%)에 달하며, 등록률은 89.6%로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학이 신입생 확보난을 겪을 정도로 대학진학이 용이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이 과연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고학력화에 따른 직장불일치의 중요한 지표로서 과잉교육에 주목하여 과잉교육의 원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과잉교육의 해소과정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잉교육에 대한 주관적 지표를 적용하여 과잉교육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문대학에서는 20.7%, 대학에서는 19.0%의 졸업생이 과잉교육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국내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낮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전문대학의 과잉교육 비율이 대학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점은 의외의 결과였다. 이것은 주관적 지표가 과잉교육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문대졸의 과잉교육이 상당규모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중간적 위치에 놓여 있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실제 현업에서 주어지는 업무가 고졸의 업무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지식기반사회의 진전과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면서 고숙련 직종과 저숙련 직종의 일자리는 증가하지만, 중간수준의 숙련수요는 오히려 감소하는 숙련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전문대졸의 숙련지위가 고졸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둘째, 학교의 질이 과잉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에서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수신규 충원, 학교시설투자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수학생비율, 학교시설면적 등의 변동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 대학들의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노동시장의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판단은 교육투자의 효과가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하리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다소 성급할 수 있지만 교육투자에 대한 주기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셋째, 과잉교육은 근로자의 임금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이론에 따라 임금을 생산성의 대리 지표로 파악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과잉교육이 기업내부의 조정과정을 통해 해소되지 못하고 인력의 과소사용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과잉교육은 저숙련 직종으로의 하향취업→숙련의 사장→낮은 생산성→저임금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운 함정이 될 수 있다. 과잉교육의 생산성 효과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은 교육투자의 상당부분이 낭비되고 있으며,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대학정원조정, 학과별 정원조정 등의 정책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넷째, 학교의 질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전문대학과 대학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는 미미하였다. 사실, 대학이 교육투자를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코호트(cohort)가 입학해서 졸업까지의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지나치게 이른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전문대학과 대학 모두에서 학교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등의 노력은 노동시장에서는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섯째, 첫직장의 과잉교육 상태가 이직결함 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영향을 미치나 노동이동을 통한 과잉교육 해소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미약하였다. 첫직장에서 과잉교육 상태에 놓은 취업자중 노동이동을 통해 과잉교육을 해소한 비율은

전문대학 18.0%, 대학 14.3%로 나타나 미국의 20%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노동이동은 과잉교육 해소의 중요한 통로로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 결과로부터 판단할 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아직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불균형 해소가 그다지 원활하다고는 할 수 없다.